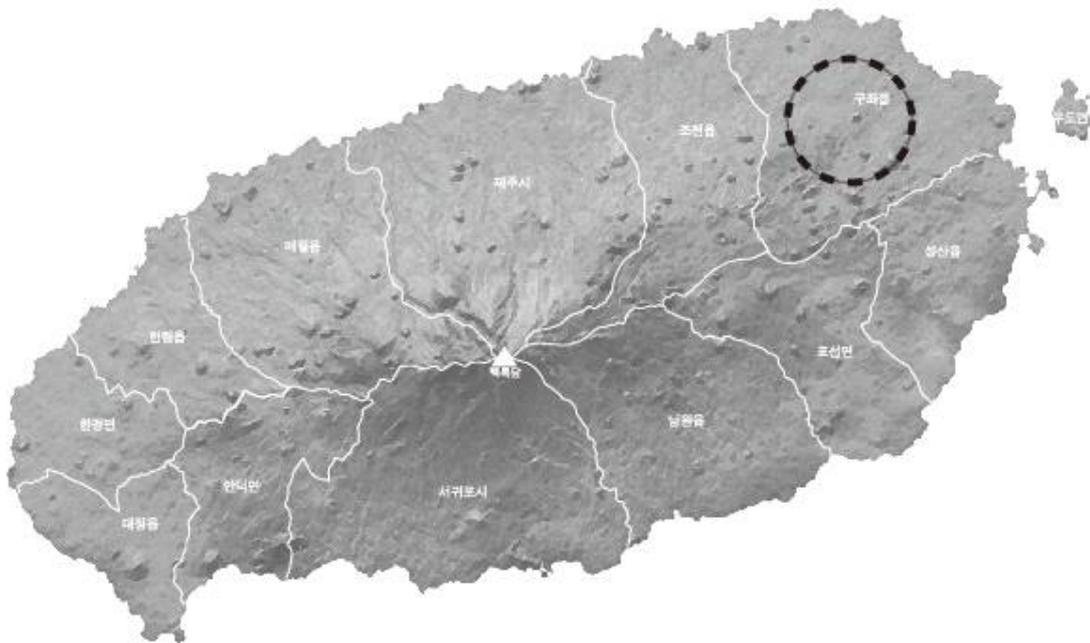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87-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선희
조사지점 구좌읍 송당리

3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구좌읍 송당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발일	38
6. 의생활	134
9. 신앙	190
2. 제보자 일생	20
4. 들일	86
7. 식생활	146
10. 세시풍속	198
제2절 어휘	
1. 인체	225
3. 친족	238
5. 음식	247
7. 생업	261
9. 민속	276
11. 자연	279
13. 식물	296
2. 육아	231
4. 의복	242
6. 가옥	256
8. 수와 단위	273
10. 신앙	279
12. 동물	287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구좌읍 송당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김수생 (남, 1935년생)

김민순 (여, 1937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마을조사	김수생	40:30	○
2. 제보자 일생	구술 마을조사	김수생	29:26	○
	구술 제보자	김수생	30:03	○
3. 밭일	구술 밭일1	김수생	1:14:35	○
	구술 밭일2	김수생	56:50	○
	구술 밭일3	김수생	1:56	○
4. 들일	구술 들일1 (소)	김수생	50:25	○
	구술 들일2 (말+땃감)	김수생	01:00:01	○
	구술 들일3 (사냥)	김수생	10:05	○
	구술 들일4 (사냥)	김수생	19:30	○
5. 바다일				×

6. 의생활	마을 체보자	김수생 김민순	29:23	○
7. 식생활	구술 식생활1	김민순	48:35	○
	식생활2	김수생 김민순	1:08:30	○
	식생활3	김수생 김민순	03:22	○
	식생활4	김수생 김민순	07:00	○
8. 주생활	구술 가옥 1	김수생 김민순	2:17:55	×
	구술 가옥 2		1:08:17	
9. 신앙	구술 체보자	김수생 김민선	10:04	○
10. 세시풍속	구술 세시풍속1	김수생 김민순	29:49	○
	구술 세시풍속2	김수생 김민순	41:00	○
11. 놀이	구술 세시풍속2	김수생 김민순	1:12:55	×
12. 통과례	구술통과의례	김수생 김민순	45:50	×
13. 민간요법	구술 통과례	김수생 김민순	2:15:09	×
14. 경험담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인체1	고원열	45:58	○
	어휘인체2	고원열	01:00	○
	어휘인체3	김수생	47:20	○
2. 육아	어휘육아	고원열	1:26:20	○
3. 친족	어휘친족1	김수생	35:20	○
	어휘친족2	김수생	7:20	○
4. 의복	어휘의복	김수생 김민순	1:26:08	○
5. 음식	어휘음식1	김수생 김민순	33:04	○
	어휘음식2	김수생 김민순	1:50:37	○
	어휘음식3	김수생 김민순	1:25:10	○

6. 가옥	어휘가옥1	김수생	2:17:55	○
	어휘가옥2	김수생	1:08:17	○
7. 생업	어휘생업1	김수생	31:26	○
	어휘생업2	김수생	12:12	○
8. 수와 단위	어휘 친족2	김수생	4:10	○
	어휘 수와단위1	김수생	27:47	○
	어휘 수와단위2	김수생	8:45	○
9. 민속	민속1	김수생	40:28	○
10. 신앙	민속2	김수생	38:37	○
	민속2	김수생	1:22:31	○
11. 자연	어휘음식3	김수생 김민순	1:13:20	○
	어휘자연	김수생 김민순	3:27:49	○
12. 동물	어휘동물1	김수생	09:24	○
	어휘동물2	김수생	20:29	○
13. 식물	어휘식물1	고원열	35:49	○
	어휘식물2	김수생 김민순	1:33:23	○
	어휘식물3	김수생 김민순	3:27:49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부 구술

(@: 김선희, #1: 김수생, #2: 김민순)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01001 # 송당이라고 허는게 솔나무송자 행 한자로 집당자, 그 백조할망이 저 설리태에서 내 안카름에 들어올 때 그디 큰 소나무가 이서났다고 험니다. 게서 그 소나무 아래완 두 번차 와네 집을 지서네 살아났기 때문에 솔나무송자 놓고 집당자를 뵙으네 송당이랜 일름이 지어진거고 미신 형태로 해서 이름된 부락은 아니우다.

101001 @ 이야기로 만들어진거구나예?

101001 # 야, 야. 백조할망 집 지순걸 기준으로 해서 소남아래 집을 지성 살았기 때문에 송당! 솔나무송자, 집당자 행으네 그 설이 내려온거 같으니 뭐 송당이랜 형으네 무신 형국이나 모양으로 뵙으네 물차이네 말차이네 그런식으로 허는게 아니고 경허거난게 송당에 부락은 상당히 으라게라나수다, 4.3사건 전이. 가시남봉오지에 옛날엔 가시남동을 중간에 가시남봉오지랜 해났주. 그디가 송당의 일번지떡어수다, 딱.

101001 @ 게문 마을은 어디어디 이서마씨?

101001 # 저 외곽으로 돌아가면은 송당을 중심잡앙양, 외곽을 가게 되면은 다랑쉬는 서화리고, 대천도 들갱이목, 저, 어디 옛날 장터, 드레이, 들레기목,

101001 @ 들레기목과 들레기목이과?

101001 # 들레기목과 드레이가 별도로 이서십주. 장터, 그디도 세 부락. 예서 글로 내려오면은 이제랑 이 송당의 중심지가 들어가는데 마을별로 그 이름이 이수다. 송당의 제일 웃지역에 살기 때문에 송당머리, 그 동네가 흥 몇 가위가 이십주, 송당머리가. 그다음에는 안골에 들어오면은 안트레 들어가면은 웃송당 안골,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알러레 훗썰 들어가면은 웃송당 또 잊어붙어시니, 그 안골하고 오로코미하고, 영전밭, 아, 영전밭이라고 해서 서녁쪽에 덕천으로 들어오는데, 또 그다음에 이레 내려오면은 셋순당이랜 흥는 부락 제일 시방 중심지입주, 그다음에 알순당. 게서 알순당, 셋순당, 웃순당해서 옛날부터 기본적인 부락은 이서수다.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거라, 그다음에 한마을, 한마을이랜 흥디 2세대가 살아수다. 너븐마을이랜 흥디가 또 이수다. 게난 송당에 관련된 마을이 상당히 만흐우다. 을로 또 가면은 대물동네라고 또 별도로 또 이서.

101001 @ 그것도 모두 송당아니과에

101001 # 야, 야. 전부 송당입주. 시방도 위치는 문딱 송당이랜 되어 이수다. 원

래 행정구간은 되어 있는데 시방 대천도 송당리 대천동이우다. 계난 옛날도 들쟁이
목 대천동, 장터 영해나수다. 대천동, 들쟁이목, 드레이는 ㄱ튼거, 장터만 다른거.

101001 @ 계난 이거 다 여기 부르는 이름 아니짜예.

101001 # 야, 야. 부르는 이름.

101002 @ 여기는 무슨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 여기는 예, 광김 다음 고씨.

101002 @ 광산김? 광산 김씨, 제주 고씨. 여기가 하영 이서마씨?

101002 # 예, 제일 여기가 만흐우다.

101002 @ 할아버지도 광산 김씨 아니예?

101002 # 흐흐, 하튼 여기 웃순당은 광김촌이랜 합니다.

101002 @ 광산 김이랜 안행, 그냥 광김하는구나예.

101002 # 예예.

101004 @ 여기 오름이나 당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101004 # 그계양, 저 서녘쪽에 분화구가 엄청나게 만하우다. 분화구가 강 봐야
실지 느끼는데, 시방 개발을 못헌거고. 바닥에서 내려강 터진거, 분화구가 시방, 이
름이 푸는체거멀이여 말챗못거멀, 야개동산거멀, 그 분화구가 네 개로구나.

101004 @ 거멀? 마씨?

101004 # 거멀. 네 개가 지역이름으로 해서 무신 푸는체거멀이라고 흐는 것은
푸는체, 답다해서 푸는체, 소랑하게 모양이 나오난 푸는체거멀이랜 허는거고, 말챗
못거멀은 말챗못이우다. 그디 말챗못이랜행 그디 물이 이서나서. 시방은 물이 어시
난 말챗못거멀이랜하고. 그 중간에 거멀이 웃순당 사름이 알거우다. 그 중간에 거멀
이 하나이서. 분화구가. 또 야개동산더레 내령오다보면 또 분화구가 흐나 이수다.
그 나이 많은 사름들이나 흐나 들썩 길찾양 들어가지 들어가도 못해, 겁남.

101004 @ 떨어질까봐마씨?

101004 # 털어지면은 죽게 된거난. 땡겨난 사름이나 들어가지.

101004 @ 오름은 마씨?

당오름, 개발못흐는 압오름 있고, 갱이모루라고. 계난 역사에 나온게, 개이모루하
고

101004 @ 대이모루?

101004 # 개이모루. 대물동산 물하고 시랑이 말한거 개이모루는 암캐를 말하고
대물동산은 수캐를 말흐는 것인데, 전설에 막 복잡하고. 대물동산에는 물이 나. 물
이 나서 이진 시랑들이 말하는데 암컷 형상이라서 젓줄이다. 그래서 대물동산 사름
들이 모영 많이 살아나수다. 오름을 기준으로 해서. 계 시방 그 물통 메와부난 젊은
사름이나 늙은 사름이나 막 대물동네 재작년까지 사름들이 많이 죽어수다. 계난 그
물통 메와부난 경험텐 해나수다. 그게 4.3 사건 전이들, 그디 아는 물이난 먹어십
주. 허벽으로 질명들.

101004 @ 동네 먹는 물은 어디 이서나수짜?

101004 # 대물동산은 대물동네 사름, 알순당은 알친오름이랜 허는디가 이수다. 거기도 생수가 나나수다. 셋순당하고 알순당 사름들이 거기 물을 먹어. 너븐뱃 사름은 봉천수.

101004 @ 나는 물마씨?

101004 # 아니 봉천수, 물받양. 냇가에 고인거. 물이 어시민 우리 알친오름이나 대물동산에 물질레 옵니다. 멀리서들. 또 웃순당은 신남케렌 헌디가 이수다. 신남케 물이라고. 그것도 나는 물이우다. 그게 새스모루. 새서악이라고 하던데. 그 시랑들 굿는건 반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한자로 행, 지는 들이라. 새서악이랜 허는디 그디 신남케물이 나는디가 이수다. 그 위치 그대로 놔둬십주.

101004 @ 나중되면 물 위치도 모르크라예.

101004 # 모르주게. 월호락.

101004 @ 한자로 말고 그냥 부르는 이름 어수파?

101004 # 올로래기. 우리가 부르는 건. 공동묘지우다. 월호락이랜 해서. 거기 새미오름도 있고 거기.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건 그자 새미오름, 올로래기 영 합니다. 한자로 하믄 도저히 어디가 뭐인지 모릅니다. 안돌오름이랜 또 이수다. 그게 올로래기 흔 오름인디 그걸 안돌오름은 굽부리인데 거기도 물이 납니다. 생수가 나와. 올로래기서 물이 이쪽으로도 나고 저쪽으로도 나고. 게서 절간에서 산신제를 거기서 강 합니다. 안돌오름에 강.

101004 # 큰 바위, 굴은 어수파?

101004 @ 여기 시방 하천 정비를 하는데 저거 영장이라고 하는 큰 바위, 영덕 입주게, 물터져서. 물이 흘러내려강 흔 오메다, 십메다 알더레 내령 폭폭주. 내가 터질때는. 내가 안 터질 때는 기냥 물만 고이는데 영장이랜 헌게 큰물이랜헌디 메와져부난 질빠져부난 큰물이랜헌디 어서저불고 영장만 있는데

101004 # 무슨 내에 영장이서마씨?

101004 @ 선내. 선내에 고분이물히고 영장이 이수다. 고분이물이랜 헌 것은 그내가 에스형으로 되어수다. 백조하르방을 내쫓꿀 때 저 브름 알로 가랜 허난 거기 뗏백년된 낭이 그때 폭낭이 이서나수다. 그게 죽건디가 자연으로 죽어불어서.

101004 @ 무사마씨?

101004 # 공해 때문에. 죽건디가 흔 30년 되어서. 우리는 흰하는 디. 그 낭 모양도. 그 낭 죽음도 잘 죽어서. 자꾸 즈살사건이 나서 목을 메어 그 낭에 강으네. 그 낭이 쾌상하게 벌어진낭이우다. 야개기 돌양 자꾸 죽어부난, 그낭 어떻 자연으로 죽어불어지만은. 그디가 폭낭 신디가 고분이물이라고 물 자체가 고바도지고 고분이 물양. 그 다음이 영장.

101004 @ 굴, 굽도 이서마씨?

101004 # 굴? 굴이, 굴이. 굴도 핫주마는. 왜정시대 때 판 굴도 있고 자연굴도 있주마는. 그놈이 굴이양. 우리 왜정시대에도 그디 굽으래 가나부난. 웃순당사름은 어느 굴에나 가나신디, 웃순당 사름 알거고. 우린 4.3사건 때는 두리난 내려가불어

저만은 왜정시대에는 양 땃살날 때난 그디 곱으래 가나고 4.3사건 때는 그디 아니 가나수다. 곱아바야 이짜저짜 다 죽을거난 올땃살이난 저, 그디는 워낙 굴이 커노난 알순당 먼남박굴이라고. 너븐뵤에 오로코미. 것도 굴이 크우다. 게난 거기에 오로코 미에 곱으래 오는 사름들은 셋순당서 가까운 사름들 데령왕 곱고.

101004 @ 굴이 커마씨?

101004 # 흔 50평? 알순당 먼남박굴하고. 거기장 밥도 행 먹고 등잔불 피왕. 공 수피행. 거기장 살아수께. 거긴 송당 사름들이 아는 굴이라부난 거기장 아니 곱아. 게당 걸령 죽어지카부덴. 그 굴이 켈 큰거고. 담은 목장에 있는데 목장 안에 굴이 글로 개를 드물리면은 어디랜 허드라 해안가, 글로 행 나온덴 허는다.

101004 @ 해안까지 마씨?

101004 # 해안가까지. 개발하젠해도 양 그 밑에 물이 이서부난 안된덴. 송당목 장 이승만 별장 그 앞에 나오면 그 굴이 이십주. 산물짜이라렌 현디도 이수다.

101005 @ 송당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101005 # 옛날에는 왜정시대 간이학교로 초등학교로 해난거 거자 학교,

101005 @ 지금은?

101005 # 시방이야 뭐 기관이 다 이습주. 문 이습주. 리사무소, 보건소, 마을회 관. 문 이습주. 흐흐.

101006 @ 여기 마을 계(접)도 있습니까?

101006 # 친목을 하는 거? 동년들끼리 제숙들끼리 다 이수다.

101006 @ 마을 단위로 하는 건 어수짜?

101006 # 그런 건 업고. 거 어서져수다. 옛날에도 어서나수다. 어떻든지 청년회 민 청년회. 리민 리민회에서 이런거 단체적으로 무신 동년회민 동년회에서 기부하고 음식들 나눠주젠 허민 무신 친목회에서 나눠주는거주. 예펜들도 어서불염수께. 동년들도 어서불염고. 따루 허젠허민 따루 허고 말젠허민 마는디, 옛날은 계 친목이 어려왔기 때문에 동정심에 나눠주고 헌거주. 이젠양 이녁만씩 도움 받젠 하지 안허고 이녁 동기간들끼리 해불염주. 돈해영 게허지도 안힘니께. 기냥 은행이서로난 무시거힘니까.

101007 @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 송당도 포제여 다 해났는데, 웃순당은 시방도 힘니다. 겐디 셋순당은 거 때려 치와불어수다. 이게 웃순당, 셋순당, 대물동네, 삼남네 영해서 네 개 부락을 했단. 이제 부락 막 벌리되여노난. 온천지가 문 송당이라 대천동까지 송당이라. 겐디 송당 중심지 부락에 나도 포제 제관으로 가나수다만은 저 웃순당은 작년까지 해나수다. 지난해까지 했젠덴 말이 이서. 감금되영 집이 가지 못행. 포제 때문에. 탁 흔집에서 자고 먹고.

101007 @ 조심힘으로예?

101007 # 몸조심힘으로. 작년까지 한거 담다, 웃순당은. 해였는데 이 셋순당은 안해수다. 대물동네하고. 셋순당, 대물동네, 웃순당이 부락이 켈 곱주마썸. 셋순당이

젤 크고, 웃슨당이 그 다음, 다음 대물동네.

101009 @ 이 마을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101009 # 송당에는 특이헌거 백조할망하고 허물할망하고 이습주게.

101009 @ 허물할망마씨?

101009 # 야. 백조할망에서 혼 200메다만 올라가민.

101009 @ 어디로 마씨? 대천동 방향으로마씨?

101009 # 거기 질이 어수다. 하천으로 내려온디우다. 백조할망이신디서 하천으로 따라 올라가민 큰 영덕, 바위, 바위 밑에에. 미시거 혼 사름은, 허물 난 사름들은 그디강 공들이곡 혼는 디.

101009 @ 마누라하는 사람이파?

101009 # 마누라 아니고 허물낭 좋지 안허믄 종기.

101009 @ 아, 종기.

101009 # 종기난 사름은 빌영. 말명허멍 빌어. 심방들 말명허듯이.

101009 @ 심방빌영 해마씨?

101009 # 아니, 이녀냥으로 강 허는거. 나도 멧번 그딜 가왔주. 허허. 허물할망 이수게. 또 사라얼도 이서이.

101009 @ 사라얼?

101009 # 응. 청오름 앞이. 그거는 포수, 사냥꾼덜 그 사라얼에 송씨 하르방 전 실인데, 저게 사라얼에 하르방이 송씨 하르방이렌 험니다. 우리 외조상이라. 혼 300년 전에. 송당 개척하기 전에. 그 하르방의 딸신디왕 우리 하르방이 장겔 들영 살면서 허단에, 시방 할망들은 알디라만은 멧월 메칠날 영혼연 갑니다. 본향 가듯. 그 사름들은 이 포수, 사냥꾼들을 주로 위해서 사라얼을 댕겨아전. 나가라 하고. 췌 키우는 사름들도 꼭 그길 갑니다. 사라얼의 역사가 서화리 예펜 하나가 있는데 그 사라얼 강 카사를 행 가면은 그날이 재수가 있고 계난 가는 사름들마다 들령 가는디우다. 거기 송씨 하르방이라고.

101010 @ 마을에 대해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101010 # 웃슨당은 삼남네 저쪽고, 삼남네라고 저기 오는디 스마리, 선홀서 오민양. 스마리. 글로 저쪽은 웃슨당이고. 그 스마리에서 학교압까지는 삼남네.

101010 @ 삼남네마씨?

101010 # 삼남네. 계난 부락이. 이거 혼 50년 전이 수재민들이 왕 정착혼디우다. 정착한 디가 삼남네로 되어이수다. 함밭집으로 집을 지어나수다. 피난생활들, 수재 당혼연 여기 정착했다네 여기 혼사름 백이 어수다. 그디 다 나머지 다 육지나가 불고. 제주도예 50년 살암십주. 그 다음에가 셋슨당이라. 여기는 울로 가믄 또 대물동네가 기우다.

101010 @ 위로 마씨? 아래로 마씨?

101010 # 저 우로 시작형 요 알기지 딱하게. 내창이라난는디양 내창을 비만 오면은 중간에 집을 막 침수되어부니까 저 내창을 절로 돌려수다. 돌리고, 대물동산

전부 저, 하천이우다. 우로 콩크리트 해붙었주. 대물동네 다음은 중심은 셋순당. 셋순당이 제일 커.

101010 @ 셋순당이 젤 커마씨?

101010 # 야, 셋순당이.

101010 @ 온천도 이서나수게?

101010 # 온천, 계난 저거.

101010 @ 어느쪽이짜?

101010 # 저거 대물동네, 대물동네.

101010 @ 아직도 남아 이수짜?

101010 # 집도 남아있고 지금 집 세내영 식당 보암수다. 온천 판, 뭇이렌 혼다 만든.

101010 @ 판? 온천판?

101010 # 온천판, 네 개 덮어 낱. 거기 죽으물곳디우다. 옛날도 땅이 혈이 어선 밑에서 죽었다 해서 죽으물 죽으물 해수다. 비자림과 높은오름 사이에. 곳을 말하는 거우다. 곳이렌 허는거 잡풀나는디 덩불광. 그게 사기 죽은 땅이기 때문에 죽으물 죽으물, 땃평씩, 혼평씩 물도 고이고, 거기에 또 만수물이렌 현, 만수동에도 사름은 살아나수다. 만수동이렌 현디 저 동쪽에 만수물이렌 현 물도, 그건 봉천수우다.

101010 @ 아, 예.

101010 # 그건 시방 그건 좀 메와불지 안해영 있긴 이수다. 자연 그대로 물질어 먹는 만수동 이라고 해서 그디도 혼 서너가우가 살명 현디. 여기 사름도 물이 보뜨면 거길 가.

101010 @ 봉천수 뜨러 가예?

101010 # 대물동산이나 알친오름 순번제대로 물을 뜰우명하면은, ㄱ문 때 물이 아니 나민 그디가 물을 허벅 지영강 열른 질어와불고. 봉천수 어서른 진순내 갑니다. 우리도 췌해연. 도로모깡에 물 실런. 저 진순내.

101010 @ 진순내?

101010 # 야. 진순내 먹을 물을 질레 가 와나수다.

101010 @ 먹을 물을 도로모깡에 질어마씨?

101010 # 야. 도로모깡도 왜정시대나 낫주. 도로모깡도 어실땐 허벅들 모두와. 산디짚으로 불랑. 부닥치지 말랜. 벌러지지 말랜. 보곡 낱. 즈밤수 물이라고 새악베 12질을 놓아도 끝이 업다고 짚은 물이 이서나수다.

101010 @ 즈밤수물?

예, 즈바남수물. 진순내 즈바남수물. 할로산 압광 성읍리 영주산 념영 어디까지 간데 흐드라만은 그 사이에 진순내에선 그 물이 젤로 짚어.

101008 @ 특산물은 무엇입니까?

101008 # 시방은 피는 업고, 금년은 안헐거우다. 작년ㄱ지 해십주. 그제 사료용이난. 시방 기자 더덕, 콩, 무수, 감자, 당근. 당근도 츄츄 세화에서만 흐당

연작이 안되니까 게니까 촌촌 올라왓수다. 당근이 이제 할로산까지 가 갑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낱고 자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 게난 그것도 복잡해여.

102001 @ 것도 복잡해여?

102001 # 어머니가, 여기서 송당 대물동네서 살다가, 4.3사건 십년 전 아, 이거 들은거라.

102001 @ 아, 예예.

102001 # 나 낱도 안허고. 김녕을 내려간거라. 내려간 헨데 우리 어머니가 가시 남동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흔 열일곱에 죽어붙어서.

102001 @ 아이고.

102001 # 우리 어멍 신랑이.

102001 @ 어머니 열일곱살에?

102001 # 열일곱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시집간디.

102001 @ 예

102001 # 하도 초등학교에서 드를락허당 남편을 이으난. 아버지뜨란에 당신네 아버지를 뜨란 우리 외할아버지를 뜨란 김녕에 가난, 우리 아버지는 다슴어멍에 살 았기 때문에 좀 쓰라린 생활을 많이 본거라.

102001 @ 아버지가?

102001 # 우리 아버지가. 게서 우리 아버지는 장갓각시를 갈려두고 이 어머니, 나 난 어머니를 만난거라. 이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나왔는데.

102001 @ 으흐흐흐.

102001 # 이 어머니도 열일곱에난 홀어멍 과부를 들이니까 서른셋에 또 우리 아버지도 죽어붙린거라. 할망이 서른 셋에 과부가 된거라이. 나흐고 동생만 난거라.

102001 @ 남동생?

102001 # 남동생.

102001 @ 아이고.

102001 # 경허난.

102001 @ 할아버지 동생도 송당 살아마씨?

102001 # 서울 강 이수다.

102001 @ 아이들 따랑마씨?

102001 # 즈식이 아니고. 지 혼자만.

102001 @ 아.

102001 # 지혼자만 나가건디가 15년 되어 감수다. 송당 재산 문딱 풀아 아전.

102001 @ 이젠 안 보켄마씨?

102001 # 응 안 보켄. 나 아니 보켄. 쟁 가불였주만은. 죽어갈 때보민 알주만은. 즈순들은 몬 시내에 이수다.

102001 @ 가족들은 시내 살고마씨?

102001 # 야, 시내에. 메뉴리영 손지영. 으 호루기 손지 장개가멍 했주만은. 우리 쟁헨 살아온거. 우리가 살아온걸 말흐젠흐민 혼이 이수다.

102001 @ 어머니는 게민 혼자 아들 둘이 키우젠 흐난 고생해신게마씨

102001 # 고생 뿐이파게. 먹을 거 아이 먹어가면서.

102001 @ 아이고 게난 어떻 키워신고게. 송당서 키운거 아니예?

102001 # 송당서.

102001 @ 뭐허멍 키워신고, 혼자. 아이고.

102001 # 우리양 피체에, 도새기도 아이 먹는 피체 먹으멍 우리 살아수다. 배고 프난 어떻 말이우파. 피밥은 곤밥이고. 조팝도 곤밥이고. 곤밥이 어디 셔나수과, 그 당시에. 아이고, 이 살아온 걸 말흐민양 혼이 어십니다. 이 세상 날 줄은 알면서도 그거 양 쓰다 양, 나도 지난 과거 썩당예 다 불질러 불어수다. 아이고 다 필요업구나. 하.

102001 @ 어머니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젠 허난. 아이고, 밧도 어서실거 아니예?

102001 # 밧이 어서.

102001 @ 아버지가 밧은 냉겨줘수과?

102001 # 아버지는 일찍 죽어부난, 우리 하르방이 밧, 줄 밧도 안 줘.

102001 @ 아들 엇젠 아니 줘수과?

102001 # 아들 엇텐 허영, 당신네가 모녀 농사해 먹당 주자 해서. 나가 커가니까 그 유산이 나한테로 온거라.

102001 @ 나중에 오긴 와수과?

102001 # 나중에는 나한테로 와수다.

102001 @ 게난 자라는 동안엔 막 어려워났구나예?

102001 # 근디 만히는 아니 완. 거 우리 하르방, 할망을 두 개 했기 때문에 죽은 할망의 아들에 손지들 주고. 난 큰 할망의 아들의 손지고. 큰 할망의 큰아들은 죽어불었다 말이우다게. 그만큰 우리는 팔세를 받았다 말입주.

102001 @ 큰 할망의 죽은 아들이파?

102001 # 큰 할망의 나는 큰 아들이고. 저 뜰디 이슨건 두 번착 아들 손지.

102001 @ 그래도 손진디 어떻 경해신고예?

102001 # 그게 옛날도 경되는거우다. 속담에 양.

102001 @ 아방 어시몬 기죽는거라예.

102001 # 부모 어시면은 당한 애비, 당한 즈식 아니시면은 산 즈식만 생각해지 곡양, 산 메뉴리만 생각해집니다. 만날 놀린 놈만 만날 놀리게 된거. 지금은 경 안 험니까? 왕따 당하는 놈만 왕따 당흐는 거 아니 당흐는 놈은 아니 당흐지 안험니

까? 바로 그 식이라.

102001 @ 내물영예?

102001 # 예.

102001 @ 막 고생해신게 마씨.

102001 # 아이고, 고생. 나 고생흔거 하느님백께 모릅니다. 저 할망도 부젓집 단
딸이랜 행 와 봐야 아이고 춤.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 일본서 모옥탕. 일본 강 모옥탕 그 불때는 지기, 화덕지기를 해나서.
경허당 폐병을 걸린거라. 폐. 그 당시는 폐병이 경 힘들었덴 허는거라.

102002 @ 그래서 다시 송당 돌아왔구나예?

102002 # 쟁행은네 일본서 대수술을 허단 보니까. 돈 벌어 논게 엇다 말이우다.
갈빗대 네 개를 끈어놓고 그때는 마취도 안 했답니다. 갈빗대 네 개를 끈어, 허파를
돌라내명 해영. 거기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우리 형제는 여기 외조상, 할아
버지 외가. 거기 완 우리는 임시로 살았답니다. 쟁행 아버지는 혼 3년간. 그 벙 고
치지 못했주, 결국은.

102002 @ 어머니는 일본 강 이서났구나예.

102002 # 아버지는 모녀 보내고 어머니는 일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떨어진거라.

102002 @ 아버지는 못 고친덴 하난 한국 들어오고 어머니는 일본서 돈벌고예?

102002 # 아버지는 한국 들어 왕 아버지와 우리 하르방과 아방집에서 산거라.
살당 죽어불고. 어명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혼 2년동안 일본에서 산거라. 우리 형
제는 외가에도 갔당 성할망한티도 갔당, 왓다리갓다리 허명 살고. 어명아방 어시니
까. 경허명 혼 으숫살까지 쫓주게. 나가 으숫살이난 우리 동생은 시살인가 니살인
가. 동생은 곳 돌 넘어상은네 떨영 보내부난.

102002 @ 어릴적 기억은 다 남수과?

102002 # 팔세 받은 거 기억은 나는데, 아버지 돌아간것까지 기억나고. 어느
집에서 돌아간것도 기억나는데 조상은 어떠한거는 그 안이 거는 기억이 안나. 나
으숫살.

102002 @ 잘도 고생해신게마씨.

102002 # 고생은 게. 우리 동생은 혼 돌. 혼돌 넘으난 이레 어명은 돌 벌켄 떨
영 내불고. 이레 두해를 할망들 죽썩 맥이명 크고. 나가 일곱술, 으숫살, 아방이 죽
으난 어명이 일본서 들어온거라. 딱 그때. 하이고. 춤.

102002 @ 아버지 어서부난 팔세 받으명 어떻 살아수과

102002 # 아버지가 네 형제가 이서수다게. 네 형제.

102002 @ 큰 할망, 작은 할망에 둘씩 말이과?

102002 # 작은 할망에 하나. 우리 큰 할망에 세 개.

102002 @ 아버지는?

102002 # 제일 큰 이.

102002 @ 아니 그문 삼촌들이 경 안해주믄...

102002 # 삼촌... 궂사 골으난. 팔세가 그렇게 만허더라니까. 우리 아버지 죽어서 양, 놈이 집이서 죽어수다. 요 셋순당. 요디서. 걸 내 기억납니까. 죽영 허난예. 요기 죽은 아버지도 살고. 셋아버지는 알순당 살고, 말젯아버지는 웃순당을 사는데. 우리 아버지 죽영 놈이 집이 살 땐디 떠나라 혼단 말이우다. 일년 전에.

102002 @ 집 비우라고?

102002 # 주인이 오랏느넝. 겿도 동네 친척분인데. 옛날은 그 짚뽕이를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리저리 가정 당기지를 못한답니다. 짚뽕이라고. 으만흔거(두 팔을 벌린 정도). 산디짚 묶은거. 짚뽕이. 하. 가렌 헉니까 우리 어머니가 짚뽕이 짚어지고, 보따리에. 나 손잡안. 나 으삿살이난. 내 동생은 또 업고. 으 알친오름이 렌 허연 물나는 동산.

102002 @ 예.

102002 # 글로 셋실이 이서수다. 글로 걸어 내려가는데. 어머니 우는 것을 보니 이게 눈이 까질 정도라. 그 알순당에 죽은 할망이행 하르방은 살았다 말이우다. 사니깐은 죽은 시어명이랜 허연 가야될거. 시아방도 거기 잇고 하니까. 아들 죽영 짚뽕이를 놓을 자리를 구하라. 어떻 노상에서 초허루 보름을 헹게 되었으니까.

102002 @ 삭망예?

102002 # 어떤건지 옛날에는 초허루 보름을 헹게 되었는지. 시방은 혼변만 하면 되는데. 질레서 헹게 되었으니까 집을 구하라 해영 거길 갔지. 근디 여기 큰 할망은 좀 안좋아나서.

102002 @ 당 자식인디도 마씨?

102002 # 당 즈식이라도.

102002 @ 메누리헹고 마씨?

102002 # 저 당신 난 셋아들하고 셋며느리만 좋아해서. 큰 아들은 돈을 못 버니 까게. 게서 시아방한테 다습시어명한테 가니까 그때 혼 열평짜리 이간막살이 집을 빌어줍디다. 게나 어머니헹고 그덜 들어강으네 강 보난 그디 살던 하르방은 우리 하르방네 바끄레 갔당 빌려줘 두고. 우선 독집을 열평짜릴 빌려줬단 말이우다. 빌었 으니까 거길 들어갔는데 혼 이일만에 망인가 삭인가를 헹게 된거라. 밥 혼직 국혼 직 올런에. 경행 사는디. 저 아랫동네 나 살아나부난 그때는 여기 걸영 다니믄 왔다 리갓다리 바로 이웃집이주 마썸. 큰 시어명한테 강으네 어떻게 시아방이 집을 해줬 으니깐 당신도 뭘 할걸 좀 책임을 줘서 뭐 줘얏 거 아니우과 허난게. 나 큰아들, 큰 손지 아니 믿어. 죽은 아들, 셋아들 어서? 나 저사름 아니 믿으크라.

102002 @ 당신 아들 어서부난예?

102002 # 아들 죽어부난. 그 때 또 어머니는 울면서 오는 거라. 그때 학교 아니 다닐 때난 어떻 손심으멍 궂지 갔당 오는거라. 그런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놈의 대동아 전쟁이 또 나가지고 사는디 어머니는 놈의 품팔이나 하면서 사는디. 대동아 전쟁으로 어머니는 자꾸 곱으래 돛곡. 대밭이 돛고 굴 소곱에 돛고 혼단 보난게. 글

청에도 1년간 다니고 일곱 살에 간이학교가 땡기당에 해방되난 또 그 간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1년 되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거라.

102002 @ 한자 배웠당 일본어 배웠당

102002 # 야. 이거 죽도 밥도 안되는거라. 으 나아들어미 거.

102005 @ 일제 강점기 때 생활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 우리 그 웃슨당 학교도 다닐 때 양, 조리, 왜정시대 때 조리라고 이수다. 조리.

102005 @ 발가락 걸어 신는 신마씨?

102005 # 그건 게다고. 일본말 게다고. 그 발가락 걸어 다니는 초신이수다. 그걸 이녁냥으로 다 삼아. 그 눈 우이. 그때는 유달히 눈이 만홉드다.

102005 @ 많아야.

102005 # 야, 야. 그 눈 우이. 젓엉 끈어지민 또 사오민 성가시난. 손에 들렁. 게다도 들렁 땡기곡, 남신도 들렁 땡기곡 해나수다.

102005 @ 맨발로?

102005 # 맨발로, 눈 우이 기냥. 게 실려운걸 춤는거라. 당분간은. 그 신이 아까 우니까.

102005 @ 또 삼젠훤민.

102005 # 삼젠훤민 덩드렁으로 너울 두드렁 노팡, 산디짚 행으네 두드렁 노팡. 조리 삼젠훤민 양 것도 시간 걸린단 말이우다. 것도 어렵고, 게다도 멘들젠 훤민 이녁냥으로 못 멘들고, 남신도 훤젠훤민 이녁냥으로 못 파곡. 게난 그걸 애깁벳기. 눈 우기 저 알순당서 웃슨당 학교까지 오는거라 맨발에. 뛰영 오곡해서. 경허면서 세상 살다보니까. 해방되서. 아이고 왜병정은 더러와.

102005 @ 예?

102005 # 이 저 밑에로 길이 왜정시대에 난 길인데, 훤 70년 된 길이우다. 저 길에 송당 주민도 많이 만히 얼떡어수다. 저길 강제노동으로 밧 끈으멍 만들 적에. 일본 놈들이 수시로 그냥 막 툄 헤영 구루마 꼬스멍 보급로 닭음이라고 훤 2-3년을 막 계속 끌은거라. 끌으는 걸 우린 보곡. 저 신작로에 나상 뜨신거 훤민 보곡 훤는데 무시걸 주민 얻어나 먹어보젠 나가보민. 근디 뭘 줘니까? 아이 쥘. 경허단 보난 4.3사건이 터전으네.

102005 @ 왜정 때 공출은 어서마씨?

102005 #1 일본군은 그때는 쇠, 쇠.

102005 #2 공출, 공출. 곡석. 곡석들 몬짜 바치고. 췡결허렌 허영

102005 #1 청소, 청소.

102005 #2 췡결, 지금이야 청소허렌 하주만은 췡결.

102005 #1 응, 췡결, 췡결.

102005 @ 쇠숫가락도 가져가고?

102005 #1 응. 쇠, 알미눔이나 무신 봐냥은이 이거 강제야, 강제.

102005 #2 또 동네 사름도 요 아무집이 뭐 잇다 하면은
102005 @ 찢러불어마씨?
102005 #2 응 찢어불어. 똑 그집이 강 내 놓으렌, 공출하렌. 그 제국시절엔 막 공출만 해놔주게.
102005 @ 공출예? 경 안해도 어려운디.
102005 #1 쓸 곱지민 문제라, 흐쓸 쓸곱지민.
102005 @ 쓸 곱지민 큰일나마씨?
102005 #2 곡석을 곱져놔주. 공출해렌 해불민. 아이고 제국시절.
102005 #1 아이고 제국시절, 사름놈들 아니었다고. 썩지근해서. 85세 이상 된 놈들은 일본놈이건 한국놈이건 사름들이 아니. 그 이상 된 놈들은. 아이고 썩지근해서. 계난 우리세대가 제일 80~85세 세대가 제일 학대 받아서. 그 시절이. 왜정시대고 우익좌익도 못 끼는 연령이라 말이우다. 우리는 죽도밥도 아니. 시방도 연금같은 것도 못 타먹어.
102005 #2 그 옛날에 북해도 간 사름은 지금도 돈 나와. 돈 타먹어. 북해도 간 사름은.
102005 @ 징용갔던 사람마씨?
102005 #2 응. 북해도 갔던 사름.
102005 #1 왜 놈들이 끄서갔거든. 강제로 끄성 갔주게.
102005 #2 경행 그런디 갔단 사름은 지금도 돈을 받아.
102006 @ 4.3 사건 때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 아이고 아이고. 4.3사건이 터지난. 무신 평탄하게 세상을 살아수과만은. 나 열세살, 열세살이구나, 4.3사건 터지고 난 디가. 아이고 경혜연. 아이고
102006 @ 사삼 때는 다른디 가불어수짜?
102006 # 우린 김녕대레. 내령가곡. 나머지 분들은 평대, 한동, 세화. 영 가수다. 우리는 외가가 있기 때문에 외가 따라 간거라. 4.3 사건 때 느려가명 땅 속에 이거 저거 묻엉 놔두니까.
102006 @ 아,
102006 # 애네들이 무슨 수작으로 했는지 공비들 잡으레 오노라, 토벌대 좌익분자 심으러 오노라. 산폭도 심으러 오노라 하면서.
102006 @ 다 곱엉 가져갔구나예.
102006 # 이 사람 살아난디 뭐 숨겨놔느냐 뭐했느냐 혹시나 경허단 사름도 굴팡으네 만히 살아십주. 느려가지 안행으네. 굴 팡으네 살당 죽은 사름들도 만허우다. 총 쏘아 찍여부난. 덕천이나 송당이. 느려가불어시민 안 죽었는데.
102006 @ 아.
102006 # 이 녀 돈도 아깝고, 축산도 아깝고. 안 내려갔단 말이우다. 쟁 흐단 보민 사름도 죽었는데. 와서 막 고시질을 하는거야. 그때 임시들 땅팡 묻엉 내려 가십주게. 불은 팡팡 지덩 나가고 산간에. 어떻든지 우선 살젠 흐민 좌익이든 우익이든

밑에 내려가야 산다 말이우다. 쟁행으네 거기서도 15일이면 그 즉시 뒷날 곳 보내는 것도 아니. 쟁 흥단 보난 4.3사건 아니행 해변 놈들은 그릇 흥나, 자기 흥나, 도구리 흥나, 낭푼이 흥나 물어 논거 그자 다 봉가당 부제 되불었주. 쟁도 물어 나두 난야 어떻게 잘 알았는지 구루마에 나 외숙행 왔길래 다 시끄지 못헌거라. 쟁 물어 동 가는디 그놈이 한참 굴무기로 만든 땅에 물어도 썩지 않을 건디 오꽃 팡 가불고. 또 이만한 도구리도 이서수다. 돌크레 우리 성제가 아장 곁던 도구리라. 굴무기 도구리도 한동에 그 도구리가 있단말 들어도 확인을 행 내거다 말을 못허겁니다. 소식만 들어십주.

쟁행 세상을 살아 왔는다. 내려강도 그 즉시만 와서든 중요한 물건을 우리가 가져가실건디 흥 보름을 못 나오게 한거라. 여기서 총가진 우익자들은 그놈들 잡으려 나오지. 거기는 거기대로 습격들어오지. 민간인은 나갔다가는 죽나 말이우다. 이쪽 저쪽에서 썩여부는 거라. 나가지 못행 15일 딱 이성 보난 나중에 왕 보난 무시거 이서 아무것도 어서. 더 우리 걸어지가 되어 분거라. 피난을 나간거디, 야.

102006 @ 그래도 살양 와져수게.

102006 # (눈을 흘긴다.)

102007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 응. 중매결혼.

102007 @ 스주는 봐수파?

102007 # 스주?

102007 @ 요새는 봄디다만은.

102007 # 그 옛날도 스주 보주게.

102007 @ 스주 봐수파?

102007 # 스주 보주게. 무신 우리가 봐? 이쪽에서 보는 거주.

102007 @ 아, 남자 쪽에서?

102007 # 응, 남자 쪽에서.

102007 @ 어떻 혼사를 해보게 마썸 험니까?

102007 # 계. 딸 줍생 가민계. 우리 어머니넌 나 물질 못해부난 위가라. 송당이 렌 흥난 어가라 구분거.

102007 @ 혼수도 이서수파?

102007 # 친정에서 딸이 나 하나 맥이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은 세 개고. 우리 아버지는 각시에 딸 하나, 죽은 각시에 딸이 둘이 이서도. 우리 어머니는 네 번짜라. 우리 아버지는 각시가 네이라이.

102007 @ 헤, 아이고.

102007 # 옛날 장갯각시하고, 중간에 건드려부난 딸하나 나고, 그 다음에 딸 성제 나고, 계난 우리어머니가 네 번짜 와신디.

102007 @ 아이고.

102007 # 우리 어머니를 얻영 오난 딸 성제난 각시는 일본더레 가분거라. 그 성

들이 일본서 다 죽어. 우리 어머니는 나 딸 하나 맥이. 계난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
네가 옛날도 팬당들이 어서. 친축이 어서부난. 우리 어머니가 식계를 열두번을 해
여.

102007 @ 네 번째 각신디도 마씨?

102007 # 응. 각시들은 다게 딸들만 나명 가불고, 안 살고 해부난게, 우리 어머
니가 마지막으로 오난.

102007 @ 아들 낳고 허난예.

102007 # 응. 아들 셋 나곡허난 식계만 열두번, 멩질 세번 하른 열 다섯 번.

102007 @ 열다섯번, 아이고.

102007 # 백중이라고이. 백중까지 하른 뽕예섯번을 해서이.

102007 @ 백중까지 했구나.

102007 # 응. 일허레 덕천을 와불곡 나골아 식계를 출리렌 하여. 아이고.

102007 @ 몇 살까지? 시집오기 전까지?

102007 # 응 시집올때까지.

102007 @ 시집 와낭도?

102007 # 아니, 시집와낭은 안 허고.

102007 @ 예.

102007 # 겨난 나가 딱하계. 아이 나는 식계 멩질 어신 집에 시집을 가살로구
나.

102007 @ 너미 하영해나부난.

102007 # 응, 너미 식계 멩질만 하영 해나부난이. 계난 여기를 왕 보난 식계가
어슨거라. 흐흐.

102007 @ 소원을 이뤄수다예.

102007 # 응, 왕보난 시아방식계 하나 맥이. 나왕 허쓸 살아가난 저디 우리 셋
시어명이 죽은 할망에 아들이라이. 죽은 할망에 아들레가 하르방식계를 허단 나 시
집왕 여기 살암젠 멩잘날 아침에는 저기 제상, 우리 시하르방 물려준거.

102007 @ 아이고.

102007 # 제상 저 아지고, 수박기 옛날 낫사발이 손에 심어아지고. 오늘 아침부
터 식계를 말양 허렌.

102007 @ 헤, 아이고. 뭐 하나 물려준거 어신 제사를.

102007 # 응.

102007 @ 제월전이라도 이시믄예.

102007 #1 안줬어, 그때.

102007 #2 그때는 아쥬.

102007 #1 우리가 성장해사.

102007 #2 나중에 셋시아방 죽젠 해사 시하르방 살던 집터, 알송당이랜 혼디.
혼 4백평짜리. 그 집터 하나 쥬.

102007 @ 경이라도 해야주.

102007 #1 경허난 나중에 큰 돌아옴도 해났주.

102007 @ 할아버지, 할머니가 착하난.

102007 #1 우리가 성장한 앞으로 우리 성장할 걸을 기대를 한거라.

102007 @ 그렇지, 내밀릴때도 이서신디.

102007 #1 얌전했지께. 나 스물 멧이 군이 가는데 송당서 나 혼자만 결혼을 못
행가수다.

102007 @ 얌전해부난. 흐흐.

102007 #1 어머니가 한이 백헝게. 나는 기어코 돈을 벌어야 결혼을 흐쿠다 해영
나 혼자만 결혼을 못행 간거라.

102007 @ 예, 예.

102007 #1 계난 우리 어머니가 한이 된거지.

102007 @ 무사 한이 되어마씨? 잘못되카부덴?

102007 #2 풀지 못하카부덴.

102007 @ 결혼못하카부덴?

102007 #2 아들 장개못가카부덴.

102007 #1 그 당시에는 6.25 전쟁 나자마자 막바로라노난 죽어오느냐 살아오느냐
나라서 할망이 안덕까지 가 왔젠 흐난. 나 가는데. 그 때 차 어시난 내런 서화리 강
하룻밤 장으네 안덕을 가 온거라. 도락구로.

102007 @ 아이고야.

102007 #2 옛날에 차가 어스난게. 화물차만 이서나난. 나 시집올 때도 화물차
탕 와서.

102007 @ 화물차 타고 그른 혼수는 뭐 행 와수파?

102007 #2 무싱거 행 와.

102007 #1 무싱거 행 와서 할망 들어봐, 할망한티.

102007 #2 이불 흐나 하고, 퀘 흐나 흐고, 옛날은 경대하고이.

102007 #1 상, 이불상.

102007 #2 경대하고, 이불상하고 하하.

102007 @ 경해도 흘 건 다 행 와신게.

102007 #2 할 건 다 행 와서. 이불 두 개, 요 두 개.

102007 @ 만히 해와신게 마씨.

102007 #1 풀레 이불까지 해왔주.

102007 #2 풀레 이불까지.

102007 #1 부жат집 단뜰이렌 행. 돈 이신 집이렌 행 가당보난. 하하하. 경해 물려
완 살아질걸로.

102007 @ 물려 받은 걸로 살아가지카부덴? 흐흐.

102007 #1 물려받은 걸로 살아가지카부덴.

102007 @ 혼수는 영 하고 그럼 예물은 마씨?
 102007 #2 그 옛날이 무신 반지가 어디셔? 허허. 아이고.
 102007 #1 유리다마 하나 어서서, 유리다마 하나 어서서.
 102007 @ 유리다마도 어서서 마씨?
 102007 #2 반지가 어디셔.
 102007 @ 할머니는 하영 행와신디, 밀져수게. 그때 돈 주고 하는 건 어서수파?
 102007 #2 아니 돈도 안주고. 그 옛날이느이, 새각시질이서 이버지라고 이버지를 행 오랜해서. 신랑칩이. 경허민 쓸 한가맹이, 술 한춘. 이버지라고. 받으켄허민.
 102007 #1 것도 중간이라.
 102007 #2 이버지 받으켄허민 경 해나갓주게. 술 혼 춘에 쓸 한 가맹이.
 102007 @ 쓸 한춘에 쓸 한 가맹이. 이버지예?
 102007 #2 근디 우린 쓸도 안 받아서게.
 102007 @ 못 받아수과?
 102007 #2 못 받았주게.
 102007 #1 어스난게.
 102007 @ 지금이라도 해줘야주 마씨?
 102007 #2 반지랑 마랑. 중간에 나 저 우리 큰딸 낭 하도 싸움만 해지난
 102007 @ 안 살켄 헨마씨?
 102007 #2 나가 갈란 나간거라.
 102007 @ 하하하.
 102007 #2 갈란 나강 덕천 친정에 가난. 우리 어머니는 족은 아들 족은 메뉴리 아기나난 덕천은 셋아들네 살아부난 집이 어션. 족은 아들 돌레 김녕 가부난. 난 어머니 녹단 방에 열흘 살당.
 102007 @ 하하하.
 102007 #2 우리 큰딸 돌아아전. 혼 세 살에.
 102007 @ 할머니 멋진 할머니여
 102007 #2 경행강 살단. 덕천을 방 빌어 살젠 하난. 덕천 집이 어서. 방을 빌젠 해도. 이젠 송당 어둑어 가는디 오난. 저 웃슨당이 오당 보난 우리 시삼춘이 밧을 갈암서. 어둑어가는디 오단 보난. 이제 시삼춘신디 들어강. 어디 방이나 빌어줍서. 덕천 방이시른 방이나 빌어실건디. 방이 어수다. 우리 시삼춘 하는 말이. 저 웃슨당 서이 누게 집 아니 준다. 방 빌어주민 쇠스랑 가정왕 멘 파묻어불켄 험시네.
 102007 @ 하하하.
 102007 #2 이 하르방이. 하하하. 쇠스랑 가정왕 파불켄.
 102007 #1 그뻘 내가 강했주게.
 102007 @ 하하하하
 102007 #2 누게 방 아이 빌어준다. 우리 아들레 집이 족은 방 시메 그디왕 살라.

102007 #1 송당은 광김촌이난

102007 #2 경행 시삼촌 아들네 쪼글락 방이 와네, 요디 우리 말젯어멍 살던디 그 집가제 아래 퀘주적에 이불주럭. 무사 경 그 옛날엔 이불주럭이 아까왔는지. 시방이른 불이라도 붙져불건디. 그놈으 거 아까완. 이제 완 시삼촌네 쪼글락한 구들 벌언. 그 퀘주적 저당 노코, 이불주럭 저당 완.

102007 @ 따로 살젠?

102007 #2 응, 나는 따로 살았다고. 이 할으방은 각시강 얻영 오고.

102007 @ 아이고. 할망이 잘못했구나게.

102007 #2 갱 난 노무 집이서 우리 도망달이 집에서 우리 큰아들, 이제 살아시 민 쉰 넷. 그 아들 놈이 집이서 낭 살아서.

102007 @ 아이고 재미난 얘기도 하다예.

102007 #2 하하하하.

102010 @ 결혼식은 신식으로 하셨습니까?

102010 #2 무신 신식계, 옛날은 장옷 입고 족두리 써네 화물차 탕 왔주. 김녕서 여깁지.

102010 @ 하하하. 결혼사진은 안 찍어수과?

102010 #2 결혼 사진은 어디셔계.

102010 #1 결혼 사진이 어디셔. 밥 먹기가 바쁠덴디.

102010 #2 어제 그지게 왕으네 오늘은 장개 강, 낼은 가불지 안해서계.

102010 @ 계난 군대 갔당예?

102010 #2 군인 와네

102010 #1 일주일 간. 그때는 뭐 전시시대 보듯 끝나나마나 할 때난. 전선에서 포환이 날아올 때난. 강원도 거진서 비공식으로 일주일 받았 오는디이. 시간이 없어. 여유가.

102010 @ 비행기탕 오는 것도 아니고.

102010 #1 비행기가 아니고 목포왕 배 타멍 하는디. 보름 불영 배 아이뜨멍 해 노난. 입영 온 바지 하나 풀아 먹으멍 이딜 왔는디. 결혼하레.

102010 @ 제대해영 고치 살았구나예.

102010 #2 제대해연.

102010 #1 제대도 1년 만에 오난.

102010 @ 어색해

102010 #1 각시도 어색도 하고 몰르고, 가시어멍, 처남들도 몰르고.

102010 @ 사위 몰라봐.

102010 #1 사위 몰라보켄 헛거.

102010 #2 나도 모르켄 해서. 그때 김녕서 걸어 땡길 때주. 여기서 차도 업고 하난.

102010 @ 길에서 봐도 모를거구나예.

102010 #2 길에서 봐도 몰를 뺐 해연.

102010 #1 그때는 왜냐, 만약에 휴가를 온다쳐도 오민 경제난이라. 돈을 최소한 일이삼만원을 가정가야된다 말이우다. 돈이 있나. 그때는 돈 벌 것도 업고. 돈이 업고, 그때는 우리 동기생들 와네양 조팝 두끼니 먹영 왔덴. 십오일 강 사난 조팝 두끼. 출발 5일 앞두어네 태풍때문에 와야되니까. 혹시 브름 불민 탈영보고 내분다 말이우다. 그때는 엄격히 36개월이우다.

102010 @ 맞아예.

102010 #1 1년만에 행 아전 오난에 다 사위들 모루다식.

10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다까?

102011 #2 제대행 왕 이집이 살안.

102011 @ 예? 이집 오래된 거구나.

102011 #2 저 안거리에. 왕 보난 마라도 엇고.

102011 #1 60년 된 집.

102011 @ 60년 마씨?

102011 #2 구들도 옛날 무신 똥종이로 불란. 흑집이라. 우영담도 어서부난 민민 미어져벵디. 이집이 왕 보난. 낭하나 엇고, 울담도 엇고.

102011 @ 그때는.

102011 #2 미어져벵디.

102011 @ 기구나예. 지금은 아도록한다.

102011 #2 지금이야게. 나만 왕 서방도 어신디 지게정 여기 울담 다 다완. 여기 울담 다 나가 다운거.

102011 @ 아이고.

102011 #2 하, 아이고.

102011 @ 언제 울건고 돌 하나 놓고, 언제 울건고 돌 하나 놓고 허멍 살았구나 예?

102011 #2 ㅎㅎㅎ. 미친년이라.

102011 #1 하하하

102011 #2 지게 작대기 행 돌 지명 울담 다 다완. 나, 원.

102011 @ 그때 그냥 가불컬.

102011 #2 아이고 나 이제 생각하면 진짜 미친년이라.

102011 @ 그때 가불컬.

102011 #2 ㅎㅎ. 그때 가불컬. 우리 애기도 큰딸 스물일곱이나 되어야 나곡.

102011 @ 늦게 난거지예.

102011 #2 응, 막 늦게 난. 이제사 쉼 여섯.

102011 @ 보통은 열 살 일찍 나지 않음니까?

102011 #2 응게. 우리 동갑들 문 손손지 봐서.

102011 @ 기지예.

102011 #2 난 아들에 손지 풀젠 흐민 멧년셔사 풀건디.
 102011 @ 하하.
 102011 #2 우리 갑장들 문딱 손손지 받.
 102011 @ 기지예. 일찍들 가면 경헐 거주마씨.
 102011 #2 난 우리 큰딸 스물 일곱되사 난난게.
 102012 @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2 아들 니개 나고 딸 두 개 나고.
 102012 @ 삼남 이녀 아니고?
 102012 #2 일어븐 아들 하나 잇고.
 102012 @ 어떻행 그 아들은?
 102012 #2 훌연히.
 102012 @ 예?
 102012 #2 훌연득벤이.
 102012 #1 갑작스럽게 말이우다.
 102012 @ 아픈거마씨? 어디 간거 마씨?
 102012 #2 아프멍 말멍. 그때 고사리철 3월이라. 날도 아니 잊어불어.
 102012 @ 예.
 102012 #2 이추룩 안개정 비 축축 오느디 아이가 흐쓸 감기기운 곳치 하여도
 난 고사리 거끄레 가분거라이.
 102012 @ 예.
 102012 #2 내비똥. 고사리 거경 강왕바도 고만히 눈거라. 고사리 거경왕 저디
 침 주는 하르방신디 업어강 침 맞쳐당 녹저동 이젠 또 고사리 거끄레 간거 아니.
 그 옛날엔 고사리벳기 돈 날게 어서.
 102012 @ 예. 맞아.
 102012 #2 이젠 고사리 거경 왕 보난 그냥 눈거라. 이제 어둑음에 또 간 침주는
 하르방신디 가네 침절 왕으네 밤이는 하르방 낸 딸 돌양 발이 녹고, 나는 이제 큰
 아들 돌양 녹고 가이는 안네에 영 녹저신디 자당 보난 퍼들라탁해여.
 102012 @ 아...
 102012 #2 아이고 일어낭 불쌍서, 불쌍서, 불쌍서. 그옛날인 등핏불. 지금은 전
 것불이나 현다.
 102012 @ 예...
 102012 #2 등핏불 쌍 보난 아인 눈이 허영 해분거라. 파들락탁하난.
 102012 @ 경기해영 경했구나.
 102012 #2 응. 경해연 아방 안아 추취가난 ‘물,물’ 두 번 하고 코로 피 터전게
 이.
 102012 @ 아이고, 아이고.
 102012 #2 그 밤이 붉기 전이 가불언. ‘물, 물’ 두 번 행게만. 거 맥이.

102012 #1 으쓱살.

102012 #2 응, 으쓱살.

102012 #1 너무 아이가 잘나가지고 으쓱살에 흑교에 보냈주게.

102012 #2 아유, 막 흑교만 가켄해연. 그때에는 흑교에 흑생 모자가 이서주게.

102012 #1 검은 모자.

102012 #2 검은 거 그 흑생 모자 해영 씌우고.

102012 @ 원어시.

102012 #1 막 으망졌주.

102012 #2 옷도 저 서귀포 강 우리 성네 집이 가면 우리 성네 애기들 입단 옷 다 주서짱. 그거 입지꼭 해영.

102012 @ 맨 큰 아들이 영 된거 마씨?

102012 #2 켈 모녀 난거. 우리 큰 딸 나기 전이.

102012 #1 난 그걸 몰란. 나중에 안거지. 학교 가문에 강. 그때 학교 교문에 철문이 이서수다. 철문을 돌아나수다. 철문에서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를 즈미삼양으네 그레 올라상으네 왔다리 갔다리 해당으네 이마를 친거라.

102012 @ 부딪친 걸 안 굴았구나예.

102012 #1 그걸 안 굴안. 오누이가 흑교를 가왔는데 그걸 쳐분걸 안 굴안. 그속에 뇌가 이상이 생긴 모양이라.

102012 @ 지금이면 뇌출혈 같은거 아니예?

102012 #1 예 쟁행으네 갑작스레.

102012 #2 에에, 우리 옛날에 천리를 잘못해연. 우리 시아방, 우리 시아방 천리.

102012 @ 천리를 했구나예.

102012 #2 선들에 천리해연.

102012 @ 날 보안?

102012 #2 선들에 천리해신디 친구간에 해신디 3월 나난 홀연득벤이 가분거라. 3월 열하루날 밤이. 날도 안 잊어불어.

102012 #1 아이, 죽젠 흥난.

102012 @ 아이고.

102012 #1 아이고 살아온 수모를 생각흐민. 난 아버지를 말을 스물 혼살에 가시 아방한티 강 아버지렌 흥젠 하난 눈물이 괄괄괄.

102012 @ 계난예.

102012 #1 셋아버지, 말젯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셔두, 아버지 소리를 못해보고 동정을 우리 요만히 휴지 한 장 동정을 내 못 받았 큰놈.

102012 #2 아방 엇고게 홀어명에 아들이렌 팬당이나 누게 괄세만 준겨주게. 홀어명 아들이레.

102012 @ 지금은 어깨 힘주고 다니는디.

102012 #1 시방은 다 나신디 나가 떨어져. 어떤 방상도.

102012 #2 시방은 살아시믄 욱이나 후려 들을겨주.
 102012 #1 빨리들 잘 죽였주. 셔시믄 나한테 대게 고생들 받주.
 102013 @ 시집살이는 안해수과?
 102013 #2 무사 시집살이를 안해여게. 시어명광 날 잘도 미어났다고.
 102013 @ 무산고예?
 102013 #2 무사산디 경 나를 미어하는게, 이 아방은 각시 어드레만 막 다니고.
 102013 @ 계난 싸움만 해지고.
 102013 #2 싸움만 헛니까 난 갈랑 나가분거라.
 102013 #1 싸움도 경제적인 거 때문이우다. 경제적으로.
 102013 #2 무사산디 경 싸움만 현.
 102013 #1 돈 들어갈 일은 생기꼭 말이우다. 경혜가가네 싸움만 해. 싸움벳기 안해집디다. 득투단 보민
 102013 @ 시어머니는 뭐랜 허멍 경 미웁 험디가?
 102013 #2 뭐연 헛도 안헛고이. 경 날 미운체만 행이.
 102013 @ 부지런한 메누리를.
 102013 #2 놈이 집이서 아들 나도 왕 베링책도 안해나서.
 102013 @ 아들을 나도?
 102013 #2 응, 아들 나도.
 102013 @ 딸 나민 경헌텐 헛는다.
 102013 #2 놈이 집이서 애길 나도 우리 시어머니는 나신디왕 바려보도 안해여. 막 미원게.
 102013 #1 미인게 아니주게.
 102013 #2 그때는 죽은 각시 데려당 살 때주게.
 102013 #1 죽은 메누리 눈 보져. 큰메누리신디 가면 죽은메누리한테 미움을 받을 거고.
 102013 @ 무사 죽은 각시를 험디가게.
 102013 #1 이 할망하고 못 살암직행.
 102013 #2 죽은 각시 얻어당 딸 하나 봉갸주게.
 102013 @ 그 아기도 할머니가 키와수파?
 102013 #2 아니. 지네 어멍.
 102013 @ 친어멍이 키완.
 102013 #2 지네 어멍이 함덕서. 우리집이 호에 놓고, 그디 서방 얻어간디 간 호에 놓고.
 102013 @ 그믄 어멍해, 경도 되는가?
 102013 #2 그 딸은 양펜이 호에 놔진 아이.
 102013 @ 아우 기파? 옛날에 경도 해났구나.
 102013 #2 옛날에 지네 어멍이 무사산디 서방 얻은디강 또 호에 놔분거라. 몽리

로 건가? 이?

102013 @ 시어머니는 죽은 메누리 때문에 미웠어신가요? 궂치 안 사니까 이거
긱다 저거 긱다는 안해실거 아니꽈?

102013 #2 경헐 우리 시어머니도 저 서화리 죽은 아들 양제 드렐 헐난, 죽은 아
들 양제 쥘 서화리 가불언. 양제칩이 죽은 아들 데령 가부난 완전 갈라졌쥘기.

102013 @ 할아버지는 완전 혼자랏구나예.

102013 #2 응,응. 게난 양제간 거기서 살당 그집이 아들이 각시 얻어당 아들을
난거라.

102013 @ 양을 가신디 따씨?

102013 #2 응. 양을 들양 가신디. 거기서 폐양, 돌아가렐헐난 거기서이 밧도 쥘
고이, 쥘도 하나 쥘고이, 돈도 쥘고. 또 우리 시아지방이 이디 오란 땅을 막 널은거
사고 여기 대물동네엔 헐디강 집도 사고. 그냥 이제, 그냥 이제 갈라지분 동세하고
살아시민 우리 쥘정히 부제 노릇할거라.

102013 @ 근디 무사 팔양 육지 가불어수꽈?

102013 #2 우리 시아지방 뒤에 여자가이 열 멧개라.

102013 @ 인물이 할아버지랑 비슷하구나예.

102013 #2 이 정보다 더 잘났쥘게. 여자만 여자만이. 언영 내불곡, 언영 내불곡.
게난 아들도이 어디 굴렁팻 각시에 난 아들 열시슬 난 거 죽어불고이. 시엿 각시에
도 아들 헐나 난 시살 난거 약 맥이고 지도 약 먹영 죽어불고이.

102013 @ 그 각시가?

102013 #2 응. 그 각시가. 경헐 가는게 우리 시아지방이 잘 안되언. 으 대물동네
집 쥘나신디.

102013 @ 원래 각시 이실거 아니?

102013 #2 으 송당 아이 장개 간. 경해도 그 각시에 얘기 오누이. 각시 수천이
라도 얘기 그 맥기.

102013 @ 동세도 어시.

102013 #2 동세도 엇고, 시누이도 엇고, 시어머니도 엇고. 혼자만.

102013 @ 시집살이가 혼자 다 허젠 해부난 그게 힘든거구나예?

102013 #2 혼자, 혼자. 스쥘 동세, 셋시아방 메누리 싯당. 그 동세도 이리 오고,
나도 그디 가고 그 동세 죽어부난 이력저력 윈. 나 하나벳기 어선.

102015 @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쥘싯서.

102015 #2 다섯 오누이가 몬 시에. 시에 살암서.

102015 @ 육지 안 가고 따씨?

102015 #2 육지 가젠 하는 거, 그때 광쥘 스테 나고 하난. 그냥 우리 큰딸도 육
지만 쥘나고 들어오라 들어오라, 큰아들도 육지만 쥘났쥘게. 육지쥘 냓쥘, 다. 이레
오라오라 헐명 몬딱 해놔. 지금은 후회나. 육지라도 하나 쥘야 조을건디.

102015 @ 하하하.

102015 #2 아유, 후회나.
102015 @ 순서가 어떻 됩수과?
102015 #2 젤 우위가 딸, 제일 아래가 딸.
102015 @ 가운데 주루룩 아들이파?
102015 #2 응. 가운데 아들만 니개 낫주.
102015 @ 사위들은 다 어디 사름이과?
102015 #2 시에 사름.
102015 @ 메뉴리는 어디과?
102015 #2 하나는 신산이, 하나는 용당, 하나아은 토산, 호호.
102015 @ 제주도 하나를 다 해신게.
102015 #2 큰 메뉴리가 용당.
102015 @ 큰 메뉴리가 용당마씨?
102015 #2 응, 우리 큰메누리가 제일 모쩨딜겨주. 시어멍 시아방, 친정 어멍 아방.
102015 #1 거 두 번짜주. 두 번짜. 대구 아이 이혼해똥.
102015 #2 큰 아들도 두 번 장개 간.
102015 @ 음... 두 번 장개간마씨?
102015 #1 두 번 결혼 시겼주.
102015 #2 하나 저, 대구 지지빠이 잘도 착한 아이인디.
102015 @ 무사 보내불어수파?
102015 #2 보내불어서게. 가인 막 살젠만 해신디, 우리 아들이 호도 못살게 해부난 오꼳 가부련. 가부난 어멍 또 용당 아이를 알앙으네.
102015 #1 착해서. 내 이제도 생각나 가이 대구 아이.
102015 #2 대구 아이 춤말로 착하고.
102015 #1 그때 목걸이영 예단 해준거, 가락지영 다 갖다당 시아방한테 보내멍.
102015 #2 봉투에 딱 해영 여기 보내연.
102015 #1 이름도 잊어불지 안해여.
102015 #2 정아, 정아.
102015 @ 요즘은 그런 사람 어신디예.
102015 #2 보내미랑 마랑 돈이라도 더 할타떡젠 허주. 거 무시거허젠 보내여 오꼳 먹어 불겨주.
102015 #1 아이고 그 세월에 즈식 다섯 개 키워내젠 허난양. 제주시에 돈 깎아수다, 이 길에.
102015 @ 하하하.
102015 #1 게난 싸움벳기 안해여.
102015 @ 아이들 키우젠 허난 할 수 이수파게.
102015 #1 조왕을 으숫 군데를 해나수다. 대구에도 두 군데, 서울에도 혼 군데,

제주시에도 혼 군데, 서화리에도 혼군데, 밥해먹는 조왕이 대으섯 군데나 출려나서.
 102015 @ 아...
 102015 #1 아이들 다 즈식 시키멍. 다.
 102015 #2 큰 딸은 서울 양산이렌 혼디. 우리 메 족은건 서화리, 또 아들 하난
 대구, 하난 시에, 또 #1 하난 전주.
 102015 @ 다들 공부를 영 멀리강 해부니까 조왕을 따로 따로 했다고 마씨?
 102015 #1 겨난 저 밥 해먹는 위치가 조왕이렌 햅주게. 하하하. 옛날말로.
 102015 @ 아...
 102015 #1 그 위치가 대으섯군델 출려노난.
 102015 @ 계난.
 102015 #1 집이서 일할 순간이란게 별로 어서수다. 나사민 어디 두어맛디 강 그
 것들 정리시켜두고 무신 쓸이라도 가정 강 비와뒤 두고, 뭐 뭐 해먹으라. 우리는 옛
 날 국죽이라고양 알란지 국죽. 피졸이나 줍졸을 줍 노면은 노물만 퍼 담아놔. 계민
 은 죽을 걸이젠 보면은 문딱 다 노물 건더기라 영.
 102015 @ 노물 건더기?
 102015 #1 야. 계민 그걸 어떻힘니까. 그걸 우리가 먹어야지. 그걸 쥐식으로 사
 는 거기 때문에. 국죽을 양 혼들이민 어떻든지 20일은 먹어수다. 밥이엔 현거양 힘
 들어수다.
 102015 #2 밥이엔 혼 건 감저 낱 조팝행.
 102015 #1 놀러왕 먹젠ㅎ니까. 쓸 어시난.
 102015 #2 감저낱 줍졸낱 밥해영.
 102015 @ 진짜 어려운 시절일나서예.
 102015 #1 에이고.
 102015 #2 옛날은 보리졸이 어디셔. 곤졸이 어디셔. 에이고.
 102015 @ 메뉴리 사위는 다 착헌 사름 온 모양이우다.
 102015 #1 아, 시방은 지네들 살젠 허난 어떻.
 102015 #1 호호호.
 102015 @ 호호호.
 102015 #1 시방 우리는 벌 소득은 엇고. 손은 벌리지 안해염주게. 이젠게.
 102015 @ 이젠 경허문 안되주마씨.
 102015 #1 지네들 갈 길 다 가니까 말이여.
 102015 #2 다들 기자 나이들 들고 이제. 몬 자리잡고게.
 102015 @ 잘 키워서 이젠 자리들 잘 잡아수게.
 102015 #2 지네들 애기들 커가멍이.
 102015 @ 예.
 102015 #2 군인도 보내고.
 102015 @ 경허난예.

102015 #2 학교도 시기곡. 해봐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 영했는가.
 102015 @ 그렇지예, 영 어려워나신가 허머예.
 102015 # 응, 정헐겨주.
 102015 #1 어려운 거 모릅디다.
 102015 @ 아이유, 나도 잘 몰라마씨. ㅎㅎㅎ.
 102015 #2 ㅎㅎ.
 102015 #1 이게 아이들 몬 사온거.

3. 밭일

103001 @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1 # 농사... 옛날이라 별거 이서수과.
 103001 @ 무슨무슨 농사 해난마씨?
 103001 # 계난 송당에서 제일 모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ㄱ랑조하고 피.
 103001 @ 아...조하고 피.
 103001 # 아니 조는 낭중에. ㄱ랑조라고 이서수다.
 103001 @ ㄱ랑조... 그거 무시거봐?
 103001 # ㄱ랑조라는 게 ㄱ락 닭은 건데 쓸이 나룩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나
 와서 먹질 못해여.
 103001 @ 예,예.
 103001 # 옛날도 그건 쓸이 많이 납니다. 견디 요즘은 그런 조가 시방 어실거
 라.
 103001 @ 음...
 103001 # 야. 피는 그런대로 팬찮으우다. 피는 갈앙으네 쓸행 먹고. 그 다음에.
 103001 @ 또 뭐 해난 마씨?
 103001 # 갈산디라고.
 103001 @ 예...
 103001 # 검은 산디가 이서수다. 시방 쓸 닭지 안혜영 막 사나웁니다. 그게 그
 옛날 곧밥이랜 허영 제사에 헉곡. 헉는거. 갈산디 그 다음, 녹산디라고 노랑한 산디
 우다. 꺾질이 노란거우다.
 103001 @ 예...
 103001 # 그다음에 찹쓸이 나온거. 찹쓸.
 103001 @ 예.
 103001 # 석상배 쓸이라고. 건 우리말로 석상배 쓸.
 103001 @ 석상배 쓸은 무슨 뜻이봐?
 103001 # 건 모릅주. 옛 어른들이 이건 석상배 쓸이다. 이건 좋은 쓸이다.

103001 @ 아...

103001 # 좋은 쓸이다, 이런 말에서 그건 껍질이 노립니다.

103001 @ 음...다른 농사는 안 해난 마씨?

103001 # 다른 농사엔 허는거 지슬 같은 거 조금 하고. 양.

103001 @ 지슬도 하고.

103001 # 무수 같은 거양. 요즘 분이민 그런 노물들 아니 먹습니다. 무수가 또 그 아이고 밧디 풀노물 빨리 닦은 거주. 무수가 상당히 사나왕. 젠디 국을 끓리민 우리 입에는 맞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 입에는 맞질 안합니다.

103001 @ 아하...

103002 @ 보리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 보리 농사는 헤벤과 이디가 차이가 큼니다. 헤벤은 듬북, 듬북, 감테 같은 것이 밀거름으로 사용하고 웃걸음으로는 요즘 우리 비료에 물탕 쓰듯이 오줌, 오줌을 반양 낫당 발효시킴이주게 물 들어가지 못하게 석영. 황에 큰황에 다가 오줌을 갖다 놓고 비와 놓고 석는 것이 발효주.

103002 @ 예.

103002 # 갱 물 아이 들어가게 해놨당 으, 보리가 정월 나면은 그 전이도 보리를 밟아수다만은 뵙으지 못한 사람은 오줌을 지면서 그걸 뿌리는 거라. 물박으로 걸이멍다가.

103002 @ 보리 뿌린데다가 마씨?

103002 # 보리 뿌린데다가. 그거 웃걸음이 되는거라. 요즘 같은 요소비료 탕으 네 물 뿌리는 거 식으로...

103002 @ 예...

103002 # 그 식으로다가 헤벤은 보리를 갈고. 여기는 그런 건 안 해수다. 안 허고 여기는 그 축산지대라서 송당 가는 건 지방 산파로 막 뿌립니다.

103002 @ 돛걸름을 안허고 마씨?

103002 # 계난 그 요 중간부터는 골보리여 뭐여 햇지만은 산파로 막 뿌려방. 소 걸름이렌 이수다.

103002 @ 아, 예.

103002 # 여기 축산지대니까. 걸름이엔 현게 쇠걸름 하나. 하나인데.

103002 @ 아...

103002 # 쇠걸름을 일년 내 놔당. 뒷해에는 걸 실어다가 밧에 뿌리는데

103002 @ 예...

103002 # 발효가 아이 되면은 양 자라는 룰이 좀 더디곡, 발효되지 않은 늘거 앓당 뿌리면 걸름 효과라는 걸 모릅주게.

103002 @ 예...

103002 # 경형 걸름 뿌려놓고 씨 뿌려놔낭 이제 밧을 갈면은 이게 골떠기는 못 잡주.

103002 @ 예? 골띠기마씨?

103002 # 골띠기렌 헌거는 밧을 영 갈아강 영 덮어 오는 겁주.

103002 @ 예...

103002 # 양쪽에 덮어 오는 거고, 네벳띠기로 갈지 안해영은 못 갈아. 네벳띠기엔 허는 거는 영 갈아가면은 벳이 일로 두 번 덮어지꼭 절로 강 또 갈아가면은 일로 두 번. 게면은 네벳띠기 밧 파니가 되는 거라.

103002 @ 음...

103002 # 게면은 거기서 되면은 해 먹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게중에 보토라는게, 요즘의 보통양. 비레 우이도 해변이도 마찬가지우다.

103002 @ 음...

103002 # 빌레 우이도 흑 파당 낱.

103002 @ 예...

103002 # 거기 마늘도 심곡.

103002 @ 아...

103002 # 또 그 흑을 파다 노면은 어디든지 걸름이 됩니다. 어떤 밧이든지. 흑을 보충 시켜주니까.

103002 @ 어디강 갓당 힘니까?

103002 # 양?

103002 @ 어디신 흑 갓당으네.

103002 # 아, 게 그전엔 흑이 늘어져십주. 아무데라도 가민 그냥 양 흑만 파오민 그자 엄청난 걸름이라.

103002 @ 아...

103002 # 흑만 갓당 뿌리민. 지방도 흑 갓당 뿌리민 걸름이 되주만은. 그 이상 걸름은 어습주.

103002 @ 아...

103002 # 흑 놓는 것이 첫째. 야.

103002 @ 그냥 아무 흙이나 허민 되마씨?

103002 # 아니 아니, 아무 흑이나 아이되어.

103002 @ 좋은 흙이 이실 거 아니파?

103002 #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흑을 깔아야 되어.

103002 @ 아...

103002 # 헤벤이는 헤벤이 대로 춘흑이면 춘흑. 여기면 여기대로 산성화된 뜬 흑.

103002 @ 뜬 흑.

103002 # 흑이 여러 가지우다.

103002 @ 예...

103003 @ 보리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03 #2 옛날은이 소걸름.
103003 @ 아, 소걸름으로 했구나.
103003 #2 쇠걸름, 쇠막에 거. 몬 산테에 해냥.
103003 @ 예. 산테에 해냥.
103003 #2 산테 알아지젠?
103003 @ 예.
103003 #2 그 산테에 내냥 하르방은 앞이 들르곡 나는 뒤에 들르곡.
103003 @ 아, 경해났구나예.
103003 #2 산테로 그 걸름 내냥 놀어.
103003 @ 어디 강 마씨?
103003 #2 어디 강. 마당 한 편이 놀르당가 올레 한 편이 놀라당가이.
103003 @ 예.
103003 #2 해천 그 걸름 내 다가 놀었다가 걸름이 이제 우락우락 듯듯허거면은
그거를 밧디 싣거가는 거라.
103003 @ 예. 보리는 마씨?
103003 #2 경행 보리 가는 거.
103003 @ 섞으지 않고 마씨?
103003 #2 석그지 안해. 경행 걸름 싣거다가 밧디 막 뿌려.
103003 @ 아, 막 뿌려.
103003 #2 뿌려놓고 밧디 씨 빼곡 허는 거라.
103003 @ 그냥 뿌려.
103003 #2 어, 어. 씨 빼영 갈아.
103003 @ 경행 갈아.
103003 #2 경해야 씨가게...
103003 @ 잠대로 마씨?
103003 #2 으. 잠대로. 잠대로 갈아오고. 경행 봄 나민 보리밧디 검질 메곡. 가
을리 구월달쫘 보리갈면 겨울리 보리검질 메여.
103003 @ 겨울에강 검질을 메어야 되마씨?
103003 #2 으. 검질 메여.
103003 @ 아이고.
103005 @ 보리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 보리는 정월에 씨 뺨니까?
103005 # 아니 더 전에. 지대로 갑니다.
103005 @ 송당은 마씨?
103005 # 여기는 고지대거든. 고지대니까 저 헤벤보다는 20일 모녀 해야지.
103005 @ 먼저해야지예.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 보리?

103006 @ 예,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마씨?

103006 # 헤헤헤. 보리 가지는 요즘 말로는 쉬왕 이거여 저거여들 하는데. 솔오 리하고 걸보리하고 무신 지레큰 보리.

103006 @ 지레 큰 보리?

103006 # 야야. 지레큰 보리라고 아마 대맥이라고 헐거우다. 그계.

103006 @ 대맥이...

103006 # 지레 큰 보리라고 하는게 나 키만이 커, 이만이.

103006 @ 아...

103006 #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밀도 그전이 딱 한가지백기 안해나수다. 서 양화되니까 어디 밀이여 어디밀이여 나와 가지고 이 제분들을 험주만은.

103006 @ 예예...

103007 @ 보리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07 # 그전엔 국민학생들 동원해영.

103007 @ 아.... 예.

103007 # 이 정에라고 합니다. 얼음 어성 얼음이 얼영 땅이 고상 들러진 것을.

103007 @ 정에? 정에마씨?

103007 # 예. 정에. 밧디 얼음 얼엇던 말을 정에렌 험니다.

103007 @ 예...

103007 # 이만이 헤그네 땅이 들러지면은 보리가 굽에 붙으지 못한 것은 ㄱ치 들러진다 말이우다.

103007 @ 예...

103007 # 그계 들러지면은, 정에가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들러지면은 이시간 썸 가면은 가서 땅을 불라.

103007 @ 요즘 때썸 되면 마씨?

103007 # 그 불리를 불라. 사름이.

103007 @ 예...

103007 # 짐승은 아이 됩니다. 짐승은 가서 밧로 다 불라불민 다 뭐 되불어. 사 름이 해사주.

103007 @ 아, 예...

103007 # 사름이 가서. 요즘도 강원도서 다 험니다.

103007 @ 보리 싹은 볼르민 안되고 그 옆이만 볼르는 것파?

103007 # 아니 아니. 보리싹ㄱ지. 전부 싹. 게영 볼르려면은 그계 정에 고사도 혼노시 ㄱ지 안헤영 올라오지 안이험니다. 경행 보리를 헝 먹어수다.

103007 @ 그믄 정월 썸에 가 가지고 험니까?

103007 # 야, 정월. 정 이월에.

103007 @ 아...

103007 # 그리고 왜정시대에는 막 사름 동원허멍 불라나수다.
103007 @ 예.
103007 # 왜정시대에는.
103008 @ 보리밭 김매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08 @ 보리밭에 검질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08 # 흔 번.
103008 @ 흔 번 마씨?
103008 # 야, 흔 번. 검질이... 겨니깐 이 겨울 작물에 요즘으로 말하민 양, 겨울 작물에 죽어부는 풀도 보리를 갈면 ㄹ치 나옵니다.
103008 @ 아...
103008 # 나오는데 겨울 때면은 상강지면은 죽어부는 수가 있는데 죽지 안허는 풀 기자, 예, 거 대단하질 안 험니다. 조금씩 조금씩, 콩쿨이라는 풀이 이서가지고 예.
103008 @ 콩쿨... 예.
103008 # 그거는 우리 먹음도 험니다.
103008 @ 아, 예.
103008 # 야. 그거 우리 데우청 먹는 건데.
103008 @ 음.
103008 # 그것만 그자 뽑아불면은
103008 @ 보리밭디는 마씨?
103008 # 예, 보리밭디는 그리고 간혹 또 보리가 피어서 뭇 혈 무렵이는 거 데 우리라고 이십니다. 데우리가 보리에 서터지른 몰라. 피질 안헌 때엔.
103008 @ 비슷하게 생경예?
103008 # 이삭을 피지 안 허연 요물이 안 든 때는 분간을 잘 못험니다. 경허면 은 이삭을 피어가지고 여물이 들 무렵에는 이놈의 거 걸린단 말입니다.
103008 @ 알아져예?
103008 # 경허면은 가서 그걸 뽑아내야 되어.
103008 @ 그때는 강 해야.
103008 # 그걸 우리가 먹어보지는 안해여수다. 송년에 그거 먹어본 사람이 있다 하든데.
103008 @ 그거 먹기도 해마씨?
103008 # 예, 거 먹기도 하고. 근디 곶기가 힘들어. 흔 아릅씩 뽑앙 시민 그 다 음부터 기자. 쟁 것도 조심히 골라 내어야돼. 조심히 뽑아야 돼.
103008 @ 읍이 것도 ㄹ치 뽑아져불민
103008 # 야, 야. 그거 ㄹ치 뽑아불민 내 공들여 논거 말야, 기냥 죽어분다 말이 여.
103008 @ 맞수다.

103008 # 계난 거 아무나 강 흐도 안 허고
103008 @ 예...
103008 # 사람 글리면서, 야, 야. 갱 강 합니다만 요즘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해영. 그거 뭐로 햄수과.
103008 @ 호호호.
103008 # 시대가 선생님들 알다시피 우리가 고도로 발전은 되었는데 실지가 살기가 너무 바빠. 살기가 바쁘지 안해여시민 우리 할망도 오늘 일 아이갔주. 이 추운디. 이거 도저히 헐 짓은 아니주. 헐 짓은 아닌데 세상을 영하면서 살아야 될건가?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09 #2 무신 검질이라. 콩쿨, 진쿨.
103009 @ 콩쿨, 진쿨 마씨?
103009 #2 으. 그런 거 온갖 검질 다 나주.
103009 @ 또 마씨?
103009 #2 무시거 절만이도 나고.
103009 @ 절만이 마씨?
103009 #2 으.
103009 @ 아. 절만이.
103009 #2 하하하하.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10 # 호미로.
103010 @ 호미로예. 호미는 종류가 하나 뿐인가마씨?
103010 # 호미도 여러 가지. 호미도 제주도서 대장간에서 친 호미광 육지서 들어온 호미광 틀립니다. 절대가 틀려.
103010 @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
103010 # 이름은 육지는 낮이렌 하고 요기는 무조건 호미.
103010 @ 예.
103010 # 호미 하나.
103010 @ 호미로 영 베어 마씨?
103010 # 야, 야. 비여. 호미로 비여.
103010 @ 그 다음은 마씨?
103010 # 그 다음인 묶어.
103010 @ 뭇로 묶어마씨?
103010 # 그 께로 묶으는 게 이서.
103010 @ 께는 어떻 만들어 마씨?
103010 # 보리를 영 심영 한번 영 대왕 특 영 놀리면은 갈랑 뒤집으면 께 꼭 찢리민 혼 단 묶어지는 거.
103010 @ 아. 보리 낭쟁이로 그냥 하는 거구나예.

103010 # 영 쪽 비어놔 보리를.

103010 @ 밧디?

103010 # 낮으로 해영. 쪽 비어노민 예, 보리가 많이 익으때민 흐루만 몰리민 되곡 경 아이헌 때는 혼 이틀 정도 몰리면은 조근조근 영해영 가명 혼 못 정도 헌 마씨. 이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판단이 되주게.

103010 @ 딱 잡으민예?

103010 # 이 정도민 두 뽀이다, 이 정도민 세 뽀이다. 딱 모두민 짐작으로 다 알게 됩니다.

예.

103010 # 경헤그네 그자 서뽀씩이민 서뽀씩. 딱 모두야 놓는거라.

103010 @ 아.

103010 # 경 아이허면 이녁대로 딱 모두는 거라. 이녁대로 모두민 줌 힘이 듭니다. 혼 사름은 모두와 주고 혼 사름은 뒤에서 묶으는 거라. 께 영 대왕. 꼭지로 께 딱 대왕 딱 놀령. 탁 나뭇댕이 영 자치민 꼬나풀이 두 개가 됩니다. 경허면은 톱 놓 아그네 그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뒤집영 꺾 찢르민 되는 거.

103010 @ 경허면은 묶어.

103010 # 예. 혼 단이 되는 거.

103010 @ 예.

103010 # 시방은 그런 거 흐고 싶으우다.

103010 @ 하하하.

103010 # 흐고 싶어. 많이는 못하지 만은 그자 장난삼아.

103011 @ 보리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103011 # 야, 타작해야 주게. 계난 그 태작.

103011 @ 어떻허여 마씨?

103011 # 피가 더 환장해나수다. 안 해난 사름은 몰라. 보리는 그거. 중간에 그 흘테가 나왔구나.

꼬는 거양. 건 중간에 나오고. 경 안하믄 흐나씩 톱아나수다. 흐나 흐나.

103011 @ 하나씩마씨?

103011 # 야. 야. 사름 손으로. 서 톱음이라고. 흐나흐나 집어 혼쭈하면은 호미 영 났당으네 발로 끈는거라. 곡지만. 이게 서 톱음이라고 흐는 겁주게. 겨민 그걸 해 노양. 이 도리께, 도리께 알아집주양? 도리께.

103011 @ 예예.

103011 # 도께라고 해여. 이디 제주도말로 흐민.

103011 @ 도께.

103011 # 요즘 말로 하면 도리께. 그걸로 두드립주. 뭉뻐당.

103011 @ 예예.

103011 # 뭉뻐당 그걸로 두드령으네에. 예헤, 얼멩이 해그네. 능굴려.

103011 @ 뭐해마씨? 능굴러?
103011 # 능그리여.
103011 @ 능그리는 게 어떻허는 거봐?
103011 # 이 거풀들을 혼 쪽으로 몰리는 거.
103011 @ 얼멩이로?
103011 # 얼멩이 전에.
103011 @ 무신 걸로마씨?
103011 # 사름 손으로!
103011 @ 아, 사름 손으로.
103011 # 사름 손으로 휘젓으멍 얼멩이에 거 보단, 얼멩이 보단 더 훌튼거기 때 문에 능구러그네 혼 쪽으로 밀어 녀ng 솔박으로 그걸 그서 내영 얼멩이로 치는 거라.
103011 @ 아.
103011 # 얼멩이로 치면은 그걸 또 불리여야지. 브름이 시면 다행인데 게양 아 이허민 푸는 체로 이거 밤이라도 푸어야 되어. 푸는 체로. 경헤야 닐양이라도 몰리 우면은 보챇보리라고 이수다.
103011 @ 무신 보리마씨?
103011 # 보리테작하면은 격적 아이 벳경 물러양 그냥 정ㄴ래라고 양 ㄴ래 있 지 안허우파양
103011 @ 예예.
103011 # 연자방아 그거 말양. 큰 ㄴ래 말양 양. 영 흐는 거.
103011 @ 예예.
103011 # 그것에 꺾질 아이 벳경 곶아
103011 @ 예.
103011 # 게난 제일 첫 번에 곶아지지도 아이힙니다. 그게. 두서너네 번을 자꾸 치면서 대체 , 걸음체, ㄴ는 체 영 허멍 치어 냅.
103011 @ 예.
103011 # 거기에 온착 걸 재차 놓고 재차 놓고 행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영 행 자꾸 곶양은넵에.
103011 @ 예.
103011 # 그, 아이고 테리와. 그 밑에 곶보리 ㄴ를. 제일 밑에 ㄴ는 체로 친 걸 범벅을 흐난. 즈백이 그거 시방 쇠도 아이 먹을거라. 쇠도 아이 먹어.
103011 @ 이젠 예?
103011 # 야. 그거 행 이제 떡곡. 보리 즈쌀을 하면은 곶보리 즈쌀은 하면은 그, 저, 이, 밥을 하면은 서나 익으나 하면은 양 혼 줌 앗당 허트민 풀이 흐꿈 붙읍주 게. 익은 밥은 훗살 도락지고
103011 @ 무신 거에 섞어마씨?
103011 # 양? 밥 흐는 거 우이거. 보리 즈쌀.

103011 @ 줌쓸?

103011 # 줌쓸. 작은 쓸이렌 말입주.

103011 @ 아, 줌진거 마씨?

103011 # 예. 줌진거. 그 다음 쓸에 밥을 하는 거라.

103011 @ 아.

103011 # 보리 깎지 아니 흐는 거라양, 깎지 안 해영.

103011 @ 정ㄱ레에 곶앙예?

103011 # 응, 정ㄱ레에 곶앙으녕에 밥 해먹는 거. 게난 그놈의 밥을 아이고, 나가 일곱 살 때부터 그 밥을 했구나. 아, 어머니가 일 가불면은 어땡어땡해영 밥을 허라. 어땡어땡 뉘 곶아그녕에 즈베기를 허라 흐면은 도구리에, 그전에는 게난 우리 4.3 사건 때 도구리들 내불영 간 거 월정 사름들이 가정 가분거 좇긴 좇아도 내 거란 말을 못해수다.

103011 @ 음.

103011 # 이만이 도구리가 커. 경허면은 ㄱ레도 여러 가지우다. 제주도에서도 ㄱ레가 여러 가지라. 거 무시거 나오는 ㄱ레. 거 무신 물콩ㄱ트 거, 두부ㄱ튼 거 멘드는 거

103011 @ 그건 무신 ㄱ레엔 곶음이파?

103011 # 그거 무신 ㄱ레산디, 곶아지크라. 잘 모르쿠다.

103011 @ 아, 그런 ㄱ레도 있고.

103011 # 야, 게난 ㄱ레 하나로만 헐티, ㄱ레가 양 큰 게 있곡 죽은 게 있곡. 큰 것은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쓸이 벌러지는 율이 쉽고 괴로워도. 얇은 ㄱ레는 한불 더 봐야야 돼. 큰 ㄱ레에 흐 번 할 거면 이거는 흐 불 더 봐야 돼.

103011 @ 아.

103011 # 경허명 그 밥을 우리가 정ㄱ레에 성제가 아장 곶앙 그걸로 대체 곶음체 다 치어낭 우선직 밥홀 쓸만 우선직 해여 낭

103011 @ 예.

103011 # 저녁에 어머니가 밧디강 올만하면 보리쓸을 부끈다 말이우다.

103011 @ 부끄는 건 어땡해마씨?

103011 # 스망은네 보리쓸을 흐쓸 뜰을 들이는 거라. 물 노양 뜰을 들이면은 이제는 어머니가 오면은 그 보리쓸을 먹으면은 꺾꺾하거든. 경허면 “야, 너네들 이거 두루 솟아져서.” 그 보리가 아무리가 솟아도 꺾꺾하게 되지 꺾질 아이 뱃겨진 게 그게 뭐 흐랑합니까, 요즘 보리쓸 말로.

103011 @ 흐흐흐

103011 # 게민 이제는 또 불 솟양 밥을 조정하는 거라. 옛날 지세솟디 행으네. 아레미솟도 왜정 시대 때에 나왔주. 아레미솟이 벨로 이서수과. 그 무쇠솟 해 가지고.

103011 @ 지세솟예?

103011 # 예. 해가면 그 물 불 동안 일부로 옛날 어른들은 밥을 누룽지 있게끔 해나수다, 일부러. 그 누룽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비결이 유명해나서. 무쇠솥데 밥을 꼭 늘립니다.

103011 @ 아, 예.

103011 # 예. 익던 설던. 설면 물이라도 꼭 더 노면서 딸리멍 그 밥을 꼭 그 누룽이를 눌러 가지고 해낭 글경 먹을 때 그 걸 다 아니 글경 먹엉. 박박도 안 글급니다.

103011 @ 예.

103011 # 그 먹고 싶어도. 박박도 아이 굵으곡, 밥을 굵어 나면은 거기에 물을 노면은 양 물이 그렇게 큐셔.

103011 @ 예예.

103011 # 야. 지방도 그런거 쿠시지만 그 누넝이. 그 누넝이를 글경양 옛날도 마놓지시가 이서수다. 대산이든 폐마놓이든 다 이셨는데 것에 또 적시멍 먹으면 양

103011 @ 하하하

103011 # 뭐 우리 먹어난 사름은 맛이 좋은데 요즘 분들은 지저분허텐 아이 먹지 안협니까.

103011 @ 아이 맛 좋주.

103011 # 하하. 있당 시에 가민 아이들 신디 가민 누룽지물이렌 허영 주민 코시롱 합니다. 헌디 우린 양 경 꼬지 안 헤영 막 캡니께 카면은 그거 곡식에서 나온거 난양 카도양 웬만하면 먹읍니께. 우리 감저도 행 구윙 카도 양 코소롱 해베영 그걸 먹엉 그 진미가 우린 좋아베곡. 요즘은 의학적으로 칸 건 먹지 말아라 경행 합니다 만 우리는 그걸 원, 저 바라집니다. 카던 뭐던 입에 맞이면은 먹느겁니다.

103011 @ 하하하.

103011 # 아무리 의학 박사가 이거여 저거여 곱아도. 그 양반들은 왜 죽엄느냐고 곱아집니다.

103011 @ 하하하.

103011 # 경 곱아집니다. 야, 입에 맞으면 최고라는 거라.

103011 @ 그렇지예.

103013 @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13 # 밥 말고 개역, 개역. 미숫가루라고 요즘 말로.

103013 @ 개역?

103013 # 미숫가루, 미숫가루 합디다. 개역. 야.

103014 @ 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14 # 보리짚은 옛날에 도새기를 질루니까. 통새예 행 걸름으로 집어 여코. 그전에는 쇠도 먹어수다. 근디 쇠는 안 쥐. 잘 먹지를 안 허니까. 그자 걸름으로 사 용해수다. 대명 났당으네 물 들곡 썩고 물르곡 하당보민 그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쇠스렁으로 옛날에는 왜정시대 때 구루마가 낫지. 그전이는 구루마가 어서수다. 바

지게도 어서수다. 저기 해벤이는 바지게도 이서수다만은 여기는 그냥 맥에.
 103014 @ 아, 맥에 예?
 103014 # 맥에 담아놔 둘러멩 강 그자 밧디강 푸고 무시거 했주. 바지게도 어서
 나수다. 해벤이는 그거 지멍 했주. 똥걸름들은 그 바지게들을 해영 지는데.
 103014 @ 예예.
 103014 # 여기는 똥걸름은 산테.
 103014 @ 예.
 103014 # 산테로 들렁 들이 터냥 앓당 비와.
 103014 @ 아.
 103014 # 해벤이는 바지게. 산테가 해벤이는 어수다. 바지게에 똥걸름 다 날라.
 103014 @ 아.
 103014 # 겐디. 송당은 산테. 소걸름도 내곡, 똥걸름도 내곡. 야. 경험니께. 산테
 로.
 103015 @ 보리 농사 업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015 #2 아이고, 농사지어 검질메젠 허민..
 103015 @ 그게 제일 힘들어예.
 103015 #2 김녕서는 향아리에 오줌을 받으면서 그 향에 비와. 그른 그게 썩어
 가. 그른 그걸 짚어정 보리밧디강 다 빼어.
 103015 @ 아...
 103015 #2 보리밧디강.
 103015 @ 걸름으로마씨?
 103015 #2 으. 걸름으로이. 그 오줌 막 모두왕 썩으면은.
 103015 @ 예.
 103015 #2 그걸 허벅에 질르멍 밧디 지멍 강
 103015 @ 예.
 103015 #2 무시거 박새게 가지고 가서이. 허벅에거 비멍 막 보리밧디 빼어. 거
 민 나가 열니살인가 김녕에 내려가니까 물질을 못해. 훨줄 몰라가지고이.
 103015 @ 아...
 103015 #2 암만 김녕서 밤에는 우리 친구를 많이 허니까 막 친구들이 테왁박세
 기영 눈 쓰는 거 그런거 다 쥬 가게가게 행 물질 배우렌 해도이 훨줄 모르니까.
 103015 @ 웃드리 사람이라부난. 하하하.
 103015 #2 웃드리 사람 잘 알암신게. 하하하.
 103015 @ 해변 가난 회지 못행.
 103015 #2 경행 못해영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김녕사람들 메역 즈물야. 우리 어
 머니 허는 말이 물질 못해부난 김녕을 풀면 오줌 허벅만 진다고.
 103015 @ 하하하.
 103015 #2 하하하.

103015 @ 김녕에 시집 가면 안되겠네.

103015 #2 응. 물질하는 사람은 문밖 메역 주물하레 가불면은 물질 못해부난 오
 좀 허벅진덴 옷드리 송당더레 시집을 보낸거라. 하하하.

103015 @ 하하하하.

103015 #2 이런 옛날 전설도 있대해여. 경행 이집엘 온 거야 나가.

103015 @ 옷드리 시집오난 오즘 허벅은 안 저수파?

103015 #2 오즘 허벅은 안 졌주게.

103015 @ 안 전. 하하하.

103015 #2 하하하하. 친정에서는 오즘 허벅을 지엿주게. 놈이 밧 빌영 보리 갈
 양. 밧은 셔서게 스테에 느려가난 게.

103015 @ 예.

103015 #2 놈이 밧 빌영 보리 갈면 오즘 허벅 지영 강 밧디 강 빼엿주게.

103015 @ 송당으로 잘 와신게 마씨.

103015 #2 게난 우리 어머니가 해벤 김녕엘 아이 풀켄.

103015 @ 해엄 붓 해부난.

103015 #2 우리 옛날 살아온 거 진짜 힘들게 살았어.

103015 @ 예.

103015 #2 김녕에서 덕천 올라와 가지고 고사리 혼 짐씩 꺾어 아지곡 김녕 내
 려가젠 허민이. 내참.

103015 @ 내참?

103015 #2 내참 해나실거라.

103015 @ 거리라.

103015 #2 으. 거리가.

103016 @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 조? 조도 그놈의 거. 피, 조, 켈밭시리여, 아즌백이여, 흐린조, 모인조
 여 무신거 이거 뭐 혼이 어수다. 혼이 언는데 여기에 대개 하던 것은 아주 박 전에
 풀도 아이 나는 황무지가 이십니다.

103016 @ 예.

103016 # 그디는 ㄹ랑조를 갈아야 되어.

103016 @ ㄹ랑조.

103016 # ㄹ랑조라고. ㄹ랏 닳은 거. ㄹ랏이라고 털 북삭해영 나민 뽕양 데껴불
 지 안 험니까?

103016 @ 예예.

103016 # 그 닳은 건데 그것보다는 더 정다와. 막 즈락하게 그 알이 많이 백혀
 서.

103016 @ 아.

103016 # 해서 ㄹ랑조를 그전에는 그 사람으로 비여. ㄹ랑조는 빼여그네 유월절

들민 사름으로 밥지 안 허고 쇠나 말들 막 방목행 내붙니께. 그문 저 스시에 강 물 아당

103016 @ 우리 거 아니라도 마씨?

103016 # 으. 늪이 물이라도. 늪이 쇠든 늪이 물이든 막 방목행 내붙민 게, 야. 그걸 돌아당 씨 빠민 게 쉰 밧은 곰베로 두들기곡 병덩이를 꽤 두드리곡 중간에 팽이가 나난 텃병에를 테 밧을 부수명 그랑조를 갈았주만은 피나 그랑조. 갈았는데 쉰밧 병에라고양.

103016 @ 예.

103016 # 흔 2-3미터 썩 나가. 쉰 밧을, 잔디밧을 가는 거라. 잔디밧을 갈면은 옛날은 그 무기라고 해서 쉰밧 아닌 밧은 병에가 일어나면은 요만한 곰체로 그 병에를 때리고. 쉰밧은 요만한 병에로 두들기지를 못 합니다. 병에를 못 부수와. 경허민은 팽이, 그 철공소에 강 덴들어오든 어떻든 팽리로 험나험나 끈어 나갑니다. 끈어 나강은앵에 씨 뺨은에 흔 두 번 확 해영 내쳐볶주. 그 당시엔 소나 말이 막 방목되영 이시난 그 시기상으로 언제 되민 물 밧실 하는 시기가 이수다. 방목하는 시기가 있고 개방하는 시기가 있고.

103016 @ 예.

103016 # 겨난. 그 언제 되면은 그런 허허 별판에 피 농사 그랑조 농사 해영 삭이 날 거 아니파. 그럼 그걸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언제 되면은 전부 가두는 시기가 이수다. 소몰을 . 경허면은 그 곡석은 끝내 그슬 끝에 갈때까지도 익습니다.

103016 @ 예.

103016 # 경허당 어찌다 쇠들이나 물이나 딱 가두었던 것이 튀어나왕 먹어불민 그때는 주인하고 마주하고 좋은 합의 봐가지고 얼마 주시오. 경 허주만은 그 전에는 그 시기가 되면 쇠나 말은 전부 가두어 붙니께. 목동행으네 전부 모두왕 그꾸 들어강.

103016 @ 어디서 마씨?

103016 # 이 산이 소몰 맥이는 산이라.

103016 @ 여기도 마을 목장이 이수파?

103016 # 그 목장 저 목장 허기 전에.

103016 @ 하기 전에마씨?

103016 # 이제는 이, 속담에 말이 이수다. ‘아들 주어빈 밧디 풋개도 못 주워 먹나’.

103016 @ 아들 죽어븐 밧디?

103016 # 아들 준 밧디. 아, 속담이 정승이 외 밧디 지나가는데 초신 클러지니까 다시 메지 못해영 그냥 넘어가고이, 어느 정승이 탕건을 다시 즐라 메지 못했단 안 험니까? 누명을 씨 지카부덴. 그 전이양 저, (정주영이네) 송당 목장이 아이 들 어올 때는 무법 천지라수다.

103016 @ 아.

103016 # 계난 저 해벤 지경에서도 밧 블러낭 소 물이라도 노으면은 양 이 건
영목장이든 송당목장이든 왕 맥여난 축우마들은 양 밤이 새도 올라와.

103016 @ 축우마마씨?

103016 # 쇠하고 물. 축우마.

103016 @ 아, 하하하.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 조는 유월절, 유월달에. 건 추곡이고. 보리는 하곡이라 말이우다. 건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니까 하곡이곡. 조는 추곡이곡. 조, 피 ㄱ튼 건 추곡이고.

103018 @ 추곡이라서 유월절에예?

103018 # 예. 여름에 씨 빼고.

103021 @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 조도 김질을 매야돼.

103021 @ 조팠디는 몇 번 김질 매마씨?

103021 # 그거 두 불, 두 불.

103021 @ 두 불 매기 하는 구냐예?

103021 # 으, 두 불. 특히나 여기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농사 조농사 산
디농사를 하고 여기가 광활해서양 입더레 들어가는 건 엇고 사름이 고역을 당하는
거우다. 겨난 있당 원망을 해여 집니다. 제주도에도 구좌 송당만은 쇠하고 나무베기
키우질 못하급디다.

103021 @ 음.

103021 # “난 새소리낭 접동새낭 저 우뜨르 송당이렌 하는 첩첩산골이우다.” 영
골으민 몰라 마썸.

103021 @ 하.

103021 # 경 골으민 거 무신 말이라. 몰리민 “저 드리 송당” 그뻐 알곡. 지대가
경해노난 양 이계 브름도 더 탑니다. 모든게 지대가 높아노난. 해영 노민 수확양이
해벤은 그런 농사를 아이 짓지만 여기는 상상외에 떨어져 붓니다.

103021 @ 아.

103021 # 수확량이.

103021 @ 아까 셋브름 갈브름은 어디서 부는 거꽈?

103021 # 십이지 간지에서 나온 말인데, 을진풍이다 하는 것이. 또 높새다. 학자
들 십이지 간지에서 지영 나온 말인디.

103021 @ 봄에 부는 브름은 마씨?

103021 # 을진풍이라고 동남풍이라.

103021 @ 동남풍마씨? 그럼 여름에는?

103021 # 여름에는 그 브름이고 높새라. 같은 시기라.

103021 @ 방향은?

103021 # 방향은 동북 간격.

103021 @ 그럼 마과람은 ?

103021 # 마과람은 막바루. 남쪽에서 막바루 부는 거.

103021 @ 동쪽에서 부는 건.

103021 # 동쪽에서 부는 건 완전 셋브름.

103021 @ 셋브름. 서쪽에서 부는 건.

103021 # 그건 북서풍이 있고, 북풍이 있주. 북광 서 사이에. 북서풍이엔 현게 있주.

103021 @ 그건 우리말로 무신거엔 험니까?

103021 # 서하고 남 사이에 부는 건 하늬브름이엔 하는 거라.

103021 @ 하늬 바람. 겨울에 마씨?

103021 # 겨울도 불고 여름에도 불고. 학자들이 말하는 기압골 돌아가는 냥 할로산 돌아가명. 저기는 하늬브름 불면 또 여기는 셋브름도 불곡.

103021 @ 음.

103021 # 기압골 돌아가는 거라부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주만은. 일기예보들은 흐쓸 알아정 계당 기상대에 욱도 해집니다.

103021 @ 하하.

103021 # 흐번은 아니 맞건 듣지 맙서 해연. 계난 옛날은 예 음 흐 50년대 40년 전에는 우리가 기사울 듣지 안허민 큰 실수가 이서. 홉 빌영 강 허젠 갔당 그냥 와불어야 될거 아니파. 밥은 해영 가정강 질머정 가정 가질.

103021 @ 계난 일기예보는 어떻 알아집니까?

103021 # 우리가 해군들 배 탈 때 일기예보 보는 식으로 우리가 봐.

103021 @ 어떻 알아집니까?

103021 # 여러 가지가 싯주게. 별 기준으로 잡주게. 별 기준으로.

103021 @ 아하. 널 비울거 닳다 허민.

103021 # 비온다 허민 경헌데 요즘 사름들 아이고 어떻 몸살 햄져, 어떻행 이디 쭈섬져. 이럴 땐 그런 걸로도 기준을 허주기 이녀 자신이. 저 사름 어디 뭇 햄시민 꼭 날이 이삼일 안에 날 우쳐. 무신 일이 나. 그거 틀림 어서. 틀림 엇고. 뵈 같은 것도 무신 별이 어떻허고 어떻게 흐면은 날이 웃는 다는 거. 그런거 대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때는 과학이 이서수파?

103021 @ 예.

103021 # 전혀 어서노난.

103022 @ 조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22 # 풀이 씨앗이 이신 밧은 여러 가지 풀이 나곡. 또 씨가 과히 어신 밧은 그런대로 고정된 땃 가지 풀만 납니다. 조도 하나. 조밭디도 매는데 케니까 밧 검질 때는 사람도 사람을 아무나 하지 안 험니다. 되도록이민 방수를 새가명 매가야 되어.

103022 @ 예. 조팠디는?

103022 # 조팠디든 돌팠디든 아무뵈디도. 검질에 들어가서는

103022 @ 아, 예.

103022 # 그제 잘 빠지게도 못 험니께. 게난 되도록 이 땅을 많이 굶으는 용사가 있고 땅을 굶지 안허는 용사가 이서.

103022 @ 아.

103022 # 게난 이거 조 같은 것은 굶에 양 그 자라는 율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끔

103022 @ 살살

103022 # 조팠은 누게 만차고나 영 조침 아장으네 영 매는데 저, 막음대로 불르도 못합니다. 넘어지면은 그제...

103022 @ 죽어불어 마씨?

103022 # 죽어봄도 허고 나도 오그라지명 나분다 말이우다. 오그라정 나오면 끝은 지레서 크질 못해여.

103022 @ 예.

103022 # 예, 경허면 그제 상품 일정하게 되질 못허여.

103022 @ 아.

103022 # 야, 경해서 이 검질 매는 사름도 놉을 골리곡. 것도 경 쉬운게 아니우다.

103022 @ 잘 하는 사람으로 뽑아 가야쨌다예.

103022 # 검질 매는 사름 뽑아야 되어. 아무나 햄시든 말이여 두린 애들 말이여 검질도 매곡 조도 매영 데껴불곡 허지만은 그제 절대 골려야 됩니께.

103022 @ 하하.

103025 @ 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25 # 톨아냥 도께로 두들겨.

103025 @ 도께로 두들겨냥, 그다음은

103025 # 그 다음 마찬가지로. 치어근에게. 응, 치어.

103025 @ 치어?

103025 # 조, 분리 잘해영은예. 그건 정크레에도 안 가. 건 연자방아에서 골아야 되어.

103025 @ 아.

103025 # 깨어지민 안되지.

103025 @ 아.

103025 # 그 조는.

103025 @ 연자방아는 제주도말로 뭐짜?

103025 # 연자방아라고 그제 톨방에인데.

103025 @ 예.

103025 # 그 피 같은 거 곁때는 사름이 넷이 사. 넷이 상 곁아.
 103025 @ 조는 마씨?
 103025 # 피는 저 연자방아에 들어가는데 아니믄 방에나. 그 들방에렌 한 것이 사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장치시키는 거라.
 103025 @ 아...
 103025 # 들 딱하민 두 사름이믄 되어.
 103025 @ 음.
 103025 # 게행 인력을 막 단축되는 거라. 경행 피는 흐곡. 조는 그대로 방에에 허던. 방에에 되게 했언. 수월하거든. 제일 수월헝니께. 껍질이 흐나만이라노난.
 103026 @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26 # 조를 방에를 칠 때, 간혹 분리를 못해여. 혼불 해영, 두 불, 세 불, 네 불을 지으면은 웬만하면은 조껍데기 있는 것이 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간혹 조껍데기가 이습니께. 경허면은 양 네 번 지을 거를, 야 이거 세 번만 지어 부니까 밥을 먹을 때 이땅 수확수확합니다.
 103026 @ 하하하.
 103026 # 껍데기 이신 놈이 들어가민.
 103026 @ 수확수확해마씨?
 103026 # 야, 그거, 경해영 먹어으네. 게도게 배고프난 무시거엔 헝니까. 경행 조는 정ㄱ레엔 아이 갑주마씀.
 103026 @ 음...
 103026 # 정ㄱ레에 가는 건 그자, 모를 곁은 거. 산디도 아니 갈곡.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103029 # 그 전에는 저 그, 흐 삼십 년 전에는 장콩이라고 해서 머드레콩이렌 허는게 이서수다. 팔월배는 장콩이고. 머드레 콩이라고 씨가 좀 틀린 거우다. 그전 이 팔월배라고 해서 장도 담곡. 머드레 콩이라고 해서 그건 좀 큼니다. 머드레콩이라고 해서 나오건디 한 삼십년 되었는데 요즘에는 힐콩이여, 뭐여, 준자리여. 콩도 뭐 말할 나위가 어수다. 지도소에서 나온 사름이나 이 농협에서 종자를 자꾸 갱신 합니다. 수확을 잘 해야 농협에도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콩 이름은 시방 우리는 모릅니다.
 103029 @ 옛날에 해난 거 말해줍써.
 103029 # 옛날 해난 재래식입주.
 103029 @ 예, 그것만 곁아도 됩니다.
 103029 # 야, 팔월배엔 흐 게 이수다.
 103029 @ 팔월배.
 103029 # 으, 그게 즘지라. 풍화작용이영, 비보름에 그게 강해여. 그 팔월배가. 수확은 잘 아이 납니다.
 103029 @ 이건 그믄 노랑콩 마씨?

103029 # 으, 노랑콩. 검은 콩도 요즘 난 거. 수입산 콩이여 장콩이여, 무신 대두콩이여 하는 거. 거 뭐 일이십년 이내에 하는 거고.

103029 @ 옛날 해난 건 다 노란콩마씨?

103029 # 으. 다 노란 콩.

103029 @ 된장하는 거 마씨?

103029 # 아니, 그거 볶양으네 지시도 하는 거고, 된장도 하는 거고. 그거우다. 원조는. 팔월배.

103029 @ 팔월에 수확하는 거 마씨? 무사 팔월배렌 험니까?

103029 # 아니, 아니. 그게 팔월배, 팔월배 하는 데 좀 일찍 익읍니다.

103029 @ 그때되민 수확해마씨?

103029 # 야, 그게 빨리 익기 때문에 시방 나는 콩 중에서. 시방도 그 콩이 키가 제일 큼니다. 콩 밧디 갈면은 꾸덕꾸덕 나는 게 그게 팔월 배 종류인데.

103029 @ 아...

103029 # 그게 특이하게 콩낭은 비보름에 강해여마씀. 넘어져도 잘 안 하곡. 강해여.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 콩은 저 여름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겨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콩이 제일 나중에, 익음은 제일 나중에 익읍니다.

103030 @ 아...

103030 # 콩도 소서가 되면 소서를 전후행 뿌립니다.

103030 @ 아. 그때 뿌리면

103030 # 그게 유월절이라고 해서 소서 전에 허민 백 메칠이면 딱 저게 익는 겹주. 거난 비보름을 태풍을 딱 맞닥드려야 합주. 팔월 구월달에 저게.

103030 @ 장마도 있고.

103030 # 야, 장마도 있고.

103030 @ 콩은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103030 # 좋은 땅이 좋읍니다만은 요즘 콩은 물을 아지면은 썩어붙니다. 그런 밧을 택해야 합니다. 콩이 한 열 가지 됩니다. 이거 다 아니 행 잇어부난 햐주. 십년 전이만 해도 놉 하는 건 다 해낫주만은 이젠 양, 번쳐마씀. 밧음은 이서도. 팔월배가 원조우다.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 걸름을 해주민 좋주. 걸름이라는 게 영양분이기 때문에.

103031 @ 보리짚으로 쇠걸름 해수짜?

103031 # 걸름해지민 좋고. 콩씨 허기 전에.

103031 @ 허기 전에...

103031 # 씨 허기 전에 밧디 걸름 뿌렸당 콩갈 때 강 옆으면은 아주 왔다주게.

103031 @ 아. 걸름 허지 못허면 쇠나 톨 데려당 톡 싸게 허지 안 험니까?

103031 # 그건 바령이라고.

103031 @ 아, 바령.

103031 # 밧디 똥 싸그네 흐룻밤 재워냥 내쳐그네 또 뒷날 간 잘 맥영 똥 즈질 하는 거. 계난 우리말로 똥 즈질하는 거... 하하하.

103031 @ 똥 즈질하는 거.

103031 # 또 걸름을 가져당 놓지 못하니까 똥 즈지라냥으네 땅을 덮으면은 똥 이 발효가 된다 말이우다.

103031 @ 응,,, 예.

103031 # 야, 경허는 거. 허허허.

103031 @ 아무 농사에나 경허는 거 마씨?

103031 # 야, 아무 농사나. 그게 양 허허벌판은 밤에 소를 가늀을 못하니까 담 들레기...

103031 @ 예.

103031 # 예, 단밭. 최고 칠 팔백 평. 그 너머는 못합니다.

103031 @ 예.

103031 # 도망가불지 거. 밤이도 강 거 해노문 양 사름이 그기 강 직혀야 돼.

103031 @ 아...

103031 # 또 경허곡 그게 한가지,,, 이 한 두시간 넘으면 출을 새기당 눕니다. 누우면은 쇠가 거저 누운줄 알민 사름이 흐룻밤이 최소 세 번은 그걸 일러 세와야 돼. 쇠 누운 거 확 싸리곡. ‘허이’허민 그놈의 계가 일어나민 소화된 걸 똥을 짹니다.

103031 @ 하하하.

103031 # 세 번을 일러 세우면 세 번을 똥을 싸.

103031 @ 하하하. 똥 세우젠 일러세웁구나예.

103031 # 영 행 밤이 바령을 지키는 거라.

103031 @ 잠을 못자게 마씨?

103031 # 으. 그걸 알아야 되어. 거난 바령하는 것도 쇠만 무조건 직힌다해서 즈을 자는 게 아니. 쇠를 자꾸 출을 새경 두어시간 마다 누면은 세 번 정도는 흐룻밤 사이에 일렁 세워야 되어.

103031 @ 경해야 똥 쌀 거 아니예?

103031 # 으. 경해야 똥 쌀 거. 여러번 싸그네 걸름이 되는 거라.

103031 @ 아...

103031 # 경허는 거우다. 하하하. 무의미헌게 어수다. 경허난 옛날 하르방들 지혜가, 걸름 지혜가 오죽 잘 헌것과.

103031 @ 계난 예?

103031 # ㅎㅎㅎㅎ.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34 # 겨난 겨울풀 여름풀이 틀려.
 103034 @ 아, 겨울풀 여름풀...
 103034 # 겨울풀, 여름풀이 틀려. 같은 계절에 나는 건 콩풀이렌 허는 게 이수다. 콩풀. 여름 겨울 어시.
 103034 @ 검질은 콩풀 말아 다른 건 어수짜?
 103034 # 다른 풀도 여러 가집주, 풀이.
 103034 @ 알아지는 건 어떤 거 이수짜?
 103034 # 아이고, 풀이엔 허는 건 여러 가지 양. 빈네 같은 건 양 여름에 어욱 같은 같은 거 빈네, 그거 몬 속읍니다.
 103034 @ 빈네...
 103034 # 또 제완지...
 103034 @ 아, 제완지.
 103034 # 야, 그런거 하고. 이 함박풀 같은 겨영, 쏘께풀 같은 겨영, 뭐. 그건 여름에 나는 거고. 겨울에 나는 거는 무신 물풀이여, 콩풀이여, 이것도 무신 그자 검사겸사 납니다.
 103034 @ 예.
 103034 # 상강정, 경허당 상강이나 독하게 지면은 이 여름풀은 몬 죽어봅니다.
 103034 @ 상강?
 103034 # 상강... 서리, 서리양.
 103034 @ 아, 예.
 103034 # 서리가 독하게 내리면은 여름풀은 죽어불곡 겨울풀은 살아.
 103034 @ 아... 그믄 제일 독한 풀이 무신 풀이짜? 검질 매기 곳인거.
 103034 # 검질 매기 곳인 것은 여름 검질 중에서 제완지. 제완지 요즘 약 제초제 서 노난 맥을 못 씹니다.
 103034 @ 옛날은 제초제 어시난...
 103034 # 예, 옛날은 제초제 어신 때 제완지는 우팁니다. 제완지, 빈네.
 103034 @ 빈네...
 103034 # 빈네라고. 비넘풀이라고. 그런 어웁 같은 거.
 103034 @ 어웁, 예.
 103034 # 어떠든지 빨리를 뽑아야 하거든, 뽑지 안했당 그냥 툇았당은 돌아사문 그 즉시 나 불여.
 103034 @ 아..
 103034 # 기후가 뜨사노니까. 야, 게난 그거 우턴 거고. 이 콩풀이여, 물풀이여 같은 거는 겨울풀인데 물풀은 장마를 치면은 많이 나곡. 장마 지면은 허허 별판 같은 디는 잘 아이 하는데 담밭 같은 디는 하영 납니다. 예 물풀이.
 103034 @ 음...

103034 # 예. 요즘 약 시난 저걸 찍염지. 경 안허면 양 저놈의 물풀은 콩풀은 대단치 안 현대 물풀이렌 허는 건 그냥 밧디 깔려.

103034 @ 예.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35 # 일단 호미로 콩을 비어야 돼.

103035 @ 경행 어떻게마씨?

103035 # 건데 그제 여러 가지우다. 호미 안해도 콩이 일정하게 발아가 되 잘 익으면은 그냥 손 가지고도 딱딱 딱딱 꺾을 수가 있곡.

103035 @ 아, 예.

103035 # 콩을 꺾는데 험니다. 콩을 빈덴 허는 말은 엇곡.

103035 @ 아...

103035 # 계문 양손으로 딱딱 딱딱 꺾어지는데. 험난 익곡 험난 설곡 할 거 아 낚니까게

103035 @ 예, 예.

103035 # 흘 땀 어차피 호미 가정 꺾어야 돼.

103035 @ 아...호미가정 꺾어마씨?

103035 # 예. 호미로 비는 법이 엇곡 꺾은다는 거주. 절대가.

103035 @ 아, 꺾어.

103035 # 콩을 꺾으나.

103035 @ 꺾은 건 어떻 장만합니까?

103035 # 계난 그걸 주욱 열이면 열, 일렬로 상은에 콩을 꺾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모두와 나. 서넉점씩.

103035 @ 예.

103035 # 사름이 여러 가지우다. 늙을 빌영 해보면은. 이레착 저레착. 거꾸로 노 다, 영도 놓고 영도 놓고. 조금씩 케빨렁 내부는데.

103035 @ 하하하.

103035 # 잘하는 사름은 다섯 줍씩 모룩모룩 노와.

103035 @ 아...

103035 # 노면은 그 전에는 그 끽이나 칩, 꼬나풀행 뭉텨 마차로 실렁 와냥 집 결을 해났는데 요즘은 기계화되니까양 거 뭉으는 법이 없어. 그냥 툽툽 잘 해 노면은 늘언이 벌겨 노는 예펜들도 이십니다. 그문 영해당 그걸 언주젠 허민 시간 걸 립니까. 계난 경 모두룩 모두룩 논 사름은 무신 마다리나 갑바 쪼가리 요만씩 현거 가정은에 그레 툽툽 툽툽 아지당 노민 걸 메어당은에 혼 군데 집결합니다.

103035 @ 예.

103035 # 늘 높으게 막 올라가명. 경운기에도 실으곡 차에도 실러 당 막 퍼 뉘.

103035 @ 옛날에도 마씨?

103035 # 옛날 거는 꺾어놔 끽으로나 어웁으로 꺾 내영, 걸 하나하나 묵으는 거

라.

103035 @ 예, 예.

103035 # 목으면은 쇠뿔 어신 때는 등짐으로 다 지어야 돼. 방법이 없어.

103035 @ 예...

103035 # 등짐으로 너 못, 닷 못, 옷 못.

103035 @ 아.

103035 # 게서 어깨가 다 뭐 참...

103035 @ 계난.

103035 # 경허고 옛날에는 콩을 경 광범위하게 안 해수다. 콩 무신 삼십 말이나 오십 말 안 해봐수다. 막상해사 열 말. 소두 열 말 그 정도만 했지. 요즘이나 몇 석이여, 몇 석이여 험지. 경 지영 왕. 집이 왕 늘어 났당. 호호호. 경 안허민 족으민 밧디 강 흔번 더 강 지어왕 흔 으습 못 쯤 되민 그때 도리께로 두들겨야 돼.

103035 @ 아... 말리지 않고 그냥 마씨?

103035 # 아니. 물리지 안 해여. 그냥. 왜냐하면 그게 익으니까 자기대로 나무에서 건조된 거라.

103035 @ 아, 맞다예.

103035 # 워낙 건조되면은 양 그 콩 꺾을 때 다 떼뵙니다. 몬 떼 불여. 계난 되도록 이면은 놉 빌영 하는 사름은 아이 되지만은 이녁냥으로 하는 사름은 이녁은 판단을 합니께. 어느 정도민 덜 께어진다.

103035 @ 음.

103035 # 아이 콩, 관대 쯤이양 꺾어가민 다 떼어뵙니다.

103035 @ 아. 떨어져 부는구나예.

103035 # 야, 경허근에 도께로 두드렁 얼멩이로. 얼멩이로 치어근에. 겨난 양 이 브름이 강하지 안해영은 이 콩이 양, 잘 불려나질 안 험니다.

103035 @ 음.

103035 # 요즘은 기계화니까 그러지. 옛날도 저 검은 오름은 콩 불린 목이라 해서, 콩 불린 목이라 해서 속담에 그말이 나온거우다. 그런디 가정 강. 브름이 쟤 디 지영 강. 쇠에라도 맥에 담아 가서 질머 지영 강 그런디 강 불려나수게. 그런디 워낙 브름이 강허지 안 허면은 양 모를 곱은 거하고 콩은 불리질 못해. 그렇다고 푸는 체로 다 치지는 못해. 경허명 세상을 다 살아수게.

103035 @ 그 콩 껍질은 어떻해마씨?

103035 # 콩 코질이라고 하는데 나무 코질 털어진 거 요만한씩 허는 것은 그게 얼마 되질 안 험니다. 그건 만날 해봐야. 그건 얼마 되질 안 험니다.

103035 @ 아, 기구나예.

103035 # 그건 불 불져뵙주. 쟤 안 허면 쇠 담아당 쥘.

103035 @ 쇠 주고.

103035 # 야. 그 전엔 경도 안해수다. 그 전엔.

103035 @ 그믐 어떻게나수파?
103035 # 그 전엔 무조건 건초.
103035 @ 쇠 먹이는 거는.
103035 # 그 전엔 쇠 절대 안 맥여수다. 오십 년 전 깎지는 아니 맥여수다.
103035 @ 쇠는 출만 맥여마씨?
103035 # 출만.
103035 @ 아하.
103035 # 계난 출이렌 헌게 게 그슬 출이 있곡 여름에 빈 건초가 이습니께.
103035 @ 예.
103035 # 계난 이 쇠도 우리 음식 바꿔 먹듯이 자꾸 교체를 합니다. 출도 맥이
는데.
103035 @ 음.
103035 # 흔 50년대부터 콩꼬질을 쇠한테 주기 시작했지 경 안헐 땐 쇠 안 쥐
수다.
103035 @ 아.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37 @ 콩짚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37 # 콩짚? 콩대가 콩짚이나넨. 그건 그전에는 흔 삼십년 전까지는 밧디 빨
렸는데 요즘에는 밧디 기냥 불을 질르나 경 안허면은 흔 이십년 전부터 이 콩대를
활용한 것은 기계양, 콩비는 기계양 콤바인이엔 허는 기계가 이수다. 걸로 행 비영
해노면은 그걸 밧디 주욱 넣어줘볼곡. 사람으로 있당 걱정은에 한군데당 집결해당
놉니다. 한군데서 테작할 걸로. 해 노면은 예 탈곡기 가정 때려난 그 콩대는 그 출
베는 기계가 이수다. 콤바인인가 바이콤인가 하는 기계가 이수다. 그거 가정 묏습니
다. 이십 킬로 됩니다. 보통 이십 킬로.
103037 @ 음...
103037 # 이만이 식야꼬로. 식야꼬로 묏으면은. 묏영은에 행 흔 단에 얼마 행
풀아먹는 사람들도 있곡.
103037 @ 아.
103037 # 또 소소한 사름은 차로 실어당 소 주라. 걸름도 좋고 소도 잘 먹습니
다. 거기 콩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3037 @ 아... 콩대는 걸름이 걸어마씨?
103037 # 아이 막 겁니다.
103037 @ 아, 예.
103037 # 경허곡 콩대를 그전이는 그걸 그냥 뿌려 가지고 밧디 걸름으로 해수
게. 허는데 굽벙이가 성해여.
103037 @ 아, 굽벙이...
103037 # 굽벙이가... 굽벙이 아십니까?

103037 @ 예예.

103037 # 그게...

103037 @ 그거 잡아붙어야 해마씨?

103037 # 그거 잡지 안해영은 작물 나와가민 몬 잘라붙여.

103037 @ 아...

103037 # 작물 나와가민. 겨 뒤로 비... 토양 살충제가 들어 갑니다.

103037 @ 옛날엔 약 어서실거 아니꽈?

103037 # 겨난 옛날은 굼벥이가 이서도 그걸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다 말이우
다.

103037 @ 아, 기구나예.

103037 # 옛날도 죽은 건 마찬가지로인데. 옛날도.

103037 @ 아, 예.

103037 # 견디 세상이 뭐해 갈수록 별거지도 더 일엄서. 더 일엄서마씀.

103037 @ 음...

103037 # 그건 굴으민 거짓말이렌 험니다.

103037 @ 하하하.

103037 # 옛날 우리가 넘었지만은 요즘은 더 일어가지고 계서 이제는 죽한 콩
대를 주민 고맙덴 허는데 그전에 전부 밧디 헛터네 예, 걸름으로 거 훗곡 아정강
헛팅 내불민 비 막고 무시거 행 썩으민 그게 잠깐 빨리 썩어붙니다. 굼벥이가 이는
줄 아니까, 이제는 무조건 남은 거양, 찌꺼기들 남은 거 양, 불지듭니다.

103037 @ 아하.

103037 # 불 지더.

103037 @ 아까와도 다...

103037 # 야. 굼벥이 때문에. 불치라는 건 브름에 날러부민 뭐, 걸름도 되긴 하
지만은 거 걸름 혼났이 아이 됩니다. 쟁 불지던. 그놈의 굼벥이도 양 으라가지우다
양. 쇠걸름에 나는 건 장이 주성 가민 돈을 주곡.

103037 @ 예...

103037 # 밧디서 나도 혼 닷되썩 주성 강, 밧디 굼벥이는 엄청나게 사납다는 거
라. 견디 자체가 틀러.

103037 @ 아...

103037 # 콩을 갈앙 나두니, 혼 천 평에 밧 갈아 나둔 거 마냥으로 땅이 막 솟
아서.

103037 @ 흐흐.

103037 # 겨난 그걸 혼 닷되썩을 잡앙 강 폰니, 이견 돈 아이 줍니다.

103037 @ 아이고.

103037 # 소걸름에 겨나 지방 우에거 이만씩 굼은 거. 징그러와 그거.

103037 @ 예...

103037 # 그거 외에는 돈을 아이 준덴 허는 거라. 게서

103037 @ 돈을 안 주는 구나.

103037 # 으. 밧디 건 돈을 아이 줘. 굼벥이 종류가 틀리우다. 요놈의 굼벥이가. 밧디 건 이만씩 허면서두 쇠겉름에 난 거랑 마찬가지로 크기인데 이게 주둥이가 사나운 거라. 엄청나게.

103037 @ 아...

103037 # 게난 양 저게 보통 겨울까지 콩낭 허기 전까지 허면은 석덜간을 양다 알로, 땅 알로 기여들명 콩을 췌라붙여. 그 콩뿌리에 우린 모르쿠다만은 양 학자들, 경험자들이, 콩뿌리에 그 무신 피알, 좁쌀앙 같은 무신 것이 영양제라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곤는데.

103037 @ 아, 예.

103037 # 그걸 먹기 위해서 콩 익을 때까지 땅 알로 침투하면서 콩을 조저부는 거라.

103037 @ 음...

103037 # 게민 들어누어볼곡 바람불민 그냥 자빠져볼곡. 죽어붙어.

103039 @ 밧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 야?

103039 @ 산디. 산디는 몇 월에 헙니까?

103039 # 산디... 그것도 ㄱ슬일. 마찬가지로 가을 일.

103039 @ 아... 게난 봄에 씨를 뿌려마씨?

103039 # 게니까 그게 추곡이난 봄에 아이 뿌려. 봄 넘어 상.

103039 @ 언제쯤 뿌려마씨?

103039 # 여름에. 소서.

103039 @ 소서지낭?

103039 # 야, 소서 전후. 오월 단오.

103039 @ 아...

103039 # 거기에서 기준 잡아그네.

103039 @ 산디는 아무 밧디나 다 잘 됩니까?

103039 # 아무 밧디나 아이되주. 그것도 밧을 골리아되주. 좀 택해야 됩니다.

103039 @ 어떤 밧디 해마씨?

103039 # 게도 어느 정도 그 지심이 있는 밧. 땅힘이 좀 이신 밧이라야 ...

103039 @ 아...

103039 # 그런 밧이라야 그게 그 갈산디, 녹상배.

103039 @ 예.

103039 # 산디가 좀 큼주. 경 안허면은 크질 안허주게.

103039 @ 아까 갈산디, 녹상배는 꼭 곱은 거마씨, 틀린 거 마씨?

103039 # 꼭 곱은 디 틀려.

103039 @ 굽은 디 틀러마씨?
103039 # 쌀 질도 틀리곡 맛도 틀려.
103039 @ 아... 그믐 뭐가 좋은 거파?
103039 # 녹상디라고.
103039 @ 녹상디가 좋은 거...
103039 # 껍질이 전부 노랑해.
103039 @ 아...
103039 # 껍질이 노랑허곡, 갈산디는 가망한 거.
103039 @ 아...
103039 # 강나룩 갈산디라고 해서 그것이 뭐할 때 뭐, 최고라낫주. 최고.
103039 @ 강나룩하고 갈산디는 굽은 거?
103039 # 그게 굽은 건데, 강나룩이렌 혼건 나중에 좀 어디 재배헬 나온 거 같
아. 그게 질이 좀 낮아.
103039 @ 아, 예...
103039 # 근디 녹산디는 씨지어서. 그때도 चुष술은 이서수다. 석상배 쌀이라고.
103039 @ 석상배예?
103039 # 으, 석상배. 그게 चुष술.
103039 @ 그건 चुष술나는 거예?
103039 # 아이고 그거 혼춤 얻어당 씹어 먹으면 그거 찢닥찢닥 맛이 좋은 지.
103039 @ 아, 찢닥찢닥...하하.
103039 # 요즘 चुष술인디, 그거.
103039 @ 그것도 밧디서 낚니까?
103039 # 야. 밧디. 겨난 밧골린다는게 양 그것들이 밧이, 지심이 좀 이신 밧.
밧 힘이 좀 이슨 밧디 그걸 갑니다.
103039 @ 예. 그믐 좀 안 좋은 밧디 나는 거 뭐파?
103039 # 안 좋은 밧디 해영은 건 실패되는 거주.
103039 @ 하하하. 산디 말고라도 뭐 나는 거 어수파?
103039 # 나가 굽는 건 거주. 피, ㄴ랑조.
103039 @ 아, 피, ㄴ랑조.
103039 # 조도 여러 가지우다, 양. 궤발시리니영 뉘영, 무신 무신 벨벨 이름들이
다 합니다. 그건 예펜들이나 알주. 난 윈.
103039 @ 일름은 모르쿠과?
103039 # 궤발시리라 한 조는 조 ㄸ트레 세 개가 달려.
103039 @ 아...
103039 # 경 벌어진 거고. 흐린 철조여, 혼린조여, 무신무신 거는 그건 우리 왓
왓이우다.
103041 @ 밧벼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 그 당시에 걸름이 이서수파. 그디꺼지 갈 걸름이 있질 안해수다.

103041 @ 계난 땅 좋은 디 강으네 농사를 허는 거구나예?

103041 # 야. 땅 흐슬 땅 좋은디 강 가는거지, 자연 그대로만 뭘 허는 겁주게.

그 당시에 걸름이 어디셔.

103041 @ 쇠 걸름이라도.

103041 # 하이고. 쇠 걸름은 그게 무신 경 오백 평이나 천 평만 가는 거파?

103041 @ 하하하.

103041 # 하이고 조, 보리, 들랭이여야.

103041 @ 음...

103041 # 들랭이엔 허는 것은 조그마한 밋이우다. 흔 스 오백평.

103041 @ 들랭이예?

103041 # 천 평이면 상당히 큰 거라. 들랭이 용서들은 조 같은 것을 갈양은에.

그 당시에는 비료가 어시니까 풍화작용양, 비보름에 의지될 수 있는 밋디 그걸 갈고.

103041 @ 아...

103041 # 산디, 모물, ㄱ랑조, 피들은 양 허허벌판에 갑니께.

103041 @ 아...계난 걸름은...

103041 # 비료가 어디셔. 걸름이 어디...

103041 @ 걸름을 당해낼 수가 어서구나예.

103041 # 당해낼 수가 없어, 그건. 하늘이 막 붙어불민 붙어붙이지.

103041 @ 산디들은 막 넓직한 디 강 허는 구나예.

103041 # 예, 예. 경해냥 몰테, 그것도 중간이주. 몰테하는 사름이영 몬 빌영은에 몰로 불러.

103041 @ 아...산디도 불러야 됩니까?

103041 # 산디도 불러. 다 불러야 되어. 되도록이민 들녘이 흔 곡식들인데 난전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디 가는 곡식들은 되도록이민 쇠물 빌어다가 불리곡. 또 들랭이 용서라고 조골은 거양. 산디골은 것들 들랭이에 강 골민 좋긴 합니다.

103041 @ 음...

103041 # 좋아. 산디보다 우선직 옛날 식계 멥질 허젠 곤솔로 했지만은 우선직 주식이 문제란 말입니다.

103041 @ 예.

103041 # 들랭이 강 갈면은 스백평만 갈면은 좋긴 흔데 그걸 갈당 보민 이녁 먹을 찰이 어서.

103041 @ 아...

103041 # 게서 조 골은 걸 갈아. 그런디다가.

103041 @ 아아, 기구나예.

103041 # 들랭이라면은 조그마한 담 이슨 밋을 말하는 거주게.

103041 @ 예예.

103043 @ 발벼발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 으으. 걸름은 못해도 검질은 매사.

103043 @ 예예.

103043 # 꺾사 큰 말이 검질도 거기는 아무나 강 몽케불민 안 되어.

103043 @ 산디도?

103043 # 어? 아니. 산디는 되어.

103043 @ 예?

103043 # 왜냐면 산디는양 불리가 상당히 든든합니다.

103043 @ 아... 그믐 산디는 검질 몇 번 맵니까?

103043 # 어디 산디빳디? 산디... 두 번.

103043 @ 두 번...

103043 # 막 매어사 두 번.

103043 @ 막 매사 두 번.

103043 # 이 조는 서너 번, 서너니 번 매곡.

103043 @ 아...

103043 # ㄹ랏 강 뽕곡.

103043 @ 예. ㄹ랏을 강 뽕곡...

103043 # 꽃 피어가민 검질도 매곡, 강 꼽아 불곡, 계난 돌렝이라는 게, 조 주식 용으로 다 주식은 주식이주만은 우선직 이 조 갈음팻디 가는 건 빨리 먹기 위해서.

103043 @ 음, 음.

103043 # 먹기 위해서 갈음팻디 갑주게. 요즘은 또 그 노무 것올 아이 갈암십주 게. 왜냐허면 송당같은 디는 양 헤벤이는 해도 새로 못해먹어. 참새, 밥주리 새가.

103043 @ 새? 아...

103043 # 요거 아쟌다 허면은 혼 번 쓸면은 그냥 막 조저불여.

103043 @ 생이가 하마씨?

103043 # 야. 두 해 갈양 실패를 했어.

103043 @ 다 먹어불언.

103043 # 야, 야. 아무리 머립을 해도.

103043 @ 우이 막 그믐망들 해십디다.

103043 # 계난 그믐망도 소소한디 그믐망이지양 오백 평만 되민 그 그믐망을 어떻형 칠 말이파게.

103043 @ 하하하. 게매.

103043 # 도리 막기도 힘드는데 다른 거 도리 막껴도 힘드는데. 새가 이놈의 참 새 녀석들이 어떻게 기가 맥히게 아는디 말이여.

103043 @ 다 뜯어 먹어불어.

103043 # 두 번을 실패를 했는데 저게 벌이가 꽤 좋은 거라. 사람도 먹고 생이

도 먹고. 저거 새 밥으로 막 나갑주게.

103043 @ 아...

103043 # 출조 같은 건 양, 특히나 새들이 잘도 알아. 출조 같은 건 더 먹어.

103043 @ 출조는.

103043 # 야. 계행 실패를 허명 아이 갈명 했는데. 또 헤벤이는 갑니다. 왜? 헤벤이는 이웃이 이시니까. 밧들이. 조 가는 밧들이.

103043 @ 예, 예.

103043 # 겨니까 저래로 각, 이래로 각 하나까 먹당 냉기는데, 여기는 흔 두 사 름백기 엇거든. 어시면은.

103043 @ 흔 밧디 다 모다정 먹어불어.

103043 # 두 번 망했다, 두 번.

103043 @ 흔 밧디 아지민 그걸로 끝이구나게. 생이가 그 밧디서만 먹어불민.

103043 # 으. 떼 차 와가지고.

103043 @ 떼 차로 와가지고?

103043 # 으. 떼 차.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벨로무 깡통을 돌아메영 해봐도

103043 @ 흐흐흐.

103043 # 조 농사는 어려워. 이 송당에 시방, 칠 팔월에 한번 왕 봄서. 송당에 시방 조 흔 밧도 아이 갈암서. 조 갈민 틀림어시 좋은데 어려워.

103043 @ 틀림없이 좋은 데 어려워.

103043 # 어려워. 이놈의 새 때문에 못 해먹어.

103043 @ 생이, 생이 때문에예.

103043 # 도저히. 그런대로 양, 두서너 사름만 밧이 연결되 끝지 갈아불민 되어. 이거 흔 쪽에 말여 흔 놈만 갈았다가는 이거 그냥 황 잡아불여.

103043 @ 여러 칩이 끝이 할 거 아니파?

103043 # 응. 끝이 흐민 되어. 견데, 그제 양 요즘 조그마한 사름들은 그런 걸 허젠 아이힙니다. 우리골지 양 최종적으로 막다른 골목 간 사름 외에는. 수확이 많은 더덕, 감자, 무수 양 이거 양 당근까지 들어가면은 시방은 당근 지슬 감자들은 요건 꼭 내불었지만은 더덕 가는 양반덜 돈 이익은 간단하고.

103043 @ 아이고. 수익이 좋구나예.

103043 # 일 이익은 흔 해에 기냥 벌어불여. 더덕 한 박스가 예, 특, 중,상,하로 되어 있는데 특은 한박스에 33만원까지 가불여.

103043 @ 킬로예 마씨?

103043 # 20킬로. 한박스가 20킬로 200이라.

103043 @ 굴보다 낫다예.

103043 # 겨민 양 누구의 공무원 월급보다도 나아. 시방 여기 젊은 세대들은 양 더덕만 갈아도 돈 엄청 많이 벌엄수다.

103043 @ 옛날엔 더덕 안 해났지예.

103043 # 옛날엔 안 해십주. 물론거라, 그런거를 우리는.

103043 @ 아...

103043 # 또 견디양, 우리도 혼 삼 년 전부터 같았는데 젊은 사름들 끝지양 그 지도소에서 와서 자꾸 강의를 해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도소의 말을 잘 안 들주게.

103043 @ 예, 잘 안 듣주마씨.

103043 # 직접 겪었기 때문에. 더덕 허건디가 혼 15년 되었는데, 그 사름들 말이 들읍니다. 안 듣는데 다 기술적으로 다 틀립니다.

103043 @ 음.

103043 # 더덕에 항생제를 쓰노렌 하나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아니 갑주게.

103043 @ 아...

103043 # 예. 아, 쟁해노난 양 지슬, 당근 같은 거 소득이 좋양 해도 이것은 아 이 허고 우선직 더덕에만 쓰고 두 번짜 콩에 들어갑니다.

103043 @ 음.

103043 # 또 콩도 양 우리는 허던 거 그대로 재래식으로만 갈당 보민 수확이 떨어져. 쟁행 그 노모 콩들이 나근에 썩이 될 때는 모릅니다. 칠 팔월 때에는. 열매를 열어서 결실을 할 때야 아, 이거 콩이 질이 틀리다. 뭐 틀리다. 자반 콩이다. 무신 콩이다. 뭇 콩이다. 이거 신품종이다. 보면 개네 수확한 거 보민 양, 누게 말만찬 아 평당 백평당이민 백평당, 열마달이민 열마달 영 나는데 우리건 양, 예를 들영 두 세너 마달이 밖에 아이 납니께.

103043 @ 아.

103043 # 쟁해노난 양 우리 같은 높은 도저히 농사를 지어도 따라가지 못하크라. 과학적이기 때문에.

103043 @ 예...

103043 # 쟁허고 저 짝에선 트랙타가 보통 혼집이 두서너너댓씩 이수다. 또 장비가 어시면은

103043 @ 농사를 이젠 못해여예.

103043 # 못 지습니다. 우리 시방 경운기도 버칩니다 말입니다. 경운기도 삼 사십년이 되었는데 나오건디가. 이제는 뭐 기계화가 시작이고 비는 거나 떼는 거나 뭐하는 거나 콤바인, 바인다, 뭐, 뭐, 춤 벨벨노무 기계가 되어 노난, 이젠 뭐. 더덕도 기계로만 팝니께.

103043 @ 아.

103043 # 기계로만 짝 파는데 이건 천성 사름이 가야해. 사름이 줍지 아이허믄, 줍는 기계는 아직 계발 못 했어.

103043 @ 하하.

103043 # 막 돌리멍 파놓으면 사름이 가서

103043 @ 주워마씨?

103043 # 예. 쪽 다라 노민 사름이 가서 그 다라더레 주서와 주민 입자냥으로 앓따당 마달이영 콘테나더레 갔다 놓고. 그 당근 ㄹ튼 것도 기계로 파도 사름이 가서 다 분리헝곡.

103043 @ 음.

103043 # 분리하는 건 어떻게 인력이 모지랍니다게. 경해서 이 젊은 사름들 양돈을 버는 거지양. 우린 어이구 참, 고개를 숙영 말을 못 할 정도우다.

103047 @ 밭벼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7 # 산디짚으로? 것도 용처가 있는 사름은 그 산디짚으로 무시거 두드령은네 신도 삼고, 베도 꼬왕 쇠줄레 물 줄레 이런 것도 헝곡.

103047 @ 예, 줄레예?

103047 # 꼬왕은네 줄레. 베 꼬왕은네 들이는 것도 여러 가지우다. 그런걸로도 헝곡. 경 아니민 그자 놀영 나뉘 걸름도 헝곡.

103047 @ 아, 걸름도 헝곡.

103047 # 견디 그건 양 조상에 올리는 벧짚이다 해서 그건 지저분헌디 드물루도 안 해여 나수다. 옛날. 하르방, 할망들이.

103047 @ 아...

103047 # 보리짚 곱은 거, 피, 조짚 곱은 것은 쇠 맥이당 버치른 그 조름더레 쇠더라고 해서 쇠떡던 검풀들을 밑으로 똥싸는 더레 밑으로 깎아주는 데 산디짚은 경 안 해수다.

103047 @ 아...

103047 # 왜? 이건 조상을 위해 산디짚, 벧짚은 곤밥을 곤밥을 만드는 거기 때 문에 이건 지저분헌디

103047 던지지 말아라.

103047 @ 그럼 걸름을 잘 했겠다예.

103047 # 계난 놀영 낫당 석으민 석는대로. 걸름을 해지른 걸름허고.

103047 @ 아, 똥걸름을 안했다는 말이구나예.

103047 # 야, 야. 궂인 디는 절대로 아이 가게. 아이 땡기게 해났주.

103047 @ 아...

103047 # 야. 경해나수다. 아이고 옛날인 계난 춤 귀족들이 명인들이 들어와난 벨벨 툃아진 말들을 다 해노니 옛날 참...

103047 @ 짚도 대우 받암수다예. 등급이 이서.

103047 # 보리짚은 아무데나 도새기 똥꼬냥이나 쇠 똥꼬냥이나 아무디나 깎아줘 불곡, 산디짚은 절대 그런데를 안 깎아 줬주.

103047 @ 혼자 썩어도 경허른 안되는 거예?

103047 # 놀영 낫당 그냥 석어부는 한이 있어도. 석으민 그냥 걸름으로 쇠스랑 행은네 산테에 해 낳은네 건 밧디강 뿌립주.

103047 @ 놀도 어떻게 놀어마씨?

103047 # 놀에 낚는 건양 무신거예 사용하젠 허민 두드령양 베 곁은 거나양 산 디짚 곁은 거는양 들들 해다냥 아니문 나무 곁은 거 해다냥 깎니다.

103047 @ 예.

103066 @ 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6 @ 이 동네는 피 농사를 많이 한 거 닐다예.

103066 # 피? 야, 이 동네는 피 많이 해수다. 피가 시방 자가 참 복잡한 거우다. 그 그랑조든 피든 보리든 다 방아 있지 안허파. 연자방아 안해영 정그레 안해연 때는 그 앞서 방아. 세사람이도 짓고 두 사람이도 짓곡.

103066 @ 남방에마씨?

103066 # 남방에. 게난 여러가집주. 곡석 장만하는 게.

103066 @ 피는 씨 빼는 거 똑 같습니까? 조영?

103066 # 조영 혼합해영도 허곡 그치 서팅.

103066 @ 아.

103066 # 그치 익곡 그치 자라는 거.

103066 @ 아아.

103066 # 견데 조보단 요게 꺼풀이 요건 네 개라. 피 알 꺼풀이. 조는 허나 뿐 인데. 요거는 조 장만하는 거 허 번에 장만하면 이거는 두 번 세 번을 장만해야 되 어.

103066 @ 어떻 해마씨?

103066 # 그게 꺼풀이 네 개다 되노니까. 피 꺼풀은.

103066 @ 그거 벗기젠 하면 어떻게 해마씨?

103066 # 어떻 행 벗겨? 게난 방에에 질던가 정그레엔 그거 해노민 양 아픈 환자, 그 당시에 아픈 환자 쫘 이시민 정그레에 그 피 톨아 논거 브영 물려왕 정그레 에 곁양 죽을 씩니다. 죽을.

103066 @ 피죽 마씨?

103066 # 피죽. 그게 상당히 진미가 있고 미려와. 피밥이양 돌아사불민 피밥 먹 영 돌아사면은 배고픈데 한 밥이 피밥이라. 막 그 질이 약해여. 근디 미음을 쭈기 위해서 정그레에 곁양 하곡.

103066 @ 예.

103066 # 피 저게 톨아냥예 고리라고 이수다. 알로 불 떼영예. 이로 이만이 한 대로 짠 등지가 이서 등지.

103066 @ 대로 짠 거 마씨?

103066 # 대로 짠 거. 그걸 그레 다 담아놔.

103066 @ 피를?

103066 # 으. 피 고고리를. 피 톨아냥 그 고고리를 그레 짐으로 지면 한 두어짐 을 그레 담음니께. 고리 하나 등지.

103066 @ 등지?

103066 # 등지에 담으면 그 등지 발이 이서. 그 알로 불을 떼는 거라. 그게 우턴 거라. 그 불을 달게도 못하고 적게도 못하고. 그 고고리를 두 시간을 불 숯아. 불을 숯으면 그 우에서 사름은 연기 먹으멍 다 뒤집읍니다.

103066 @ 아.

103066 # 뒤집으네 두시간 쯤 불을 떼면은 검질로 떼는 거우다양 낭불로 떼면 안되어. 게당 불티가 티른 다 타붙여. 게난 검질로 베롱베롱 불을 떼어. 게서 그것이 다 익을 정도가 되면 그 불을 꺼동 그걸 느령으네 그걸 덮으는거라. 뭐 명석이라도 덮어. 추지지 앓기 위해서.

103066 @ 추지지 말랜...

103066 # 경허면은 또 출려놔동 또 불 떼는 순간에 그 고고리를 발로 다 브벼야 돼. 발로.

103066 @ 어땡행.

103066 # 발로 다 브벼야 돼.

103066 @ 뜨겁지 안 험니까?

103066 # 명석 덮영 흐쉴 식영 낱으네 뜬 거 준비흐멍 발로 브비는 데 뜨거움도 좀 해여. 발 다 굽어불민 막 그냥 원시인 발이 유도 아니라.

103066 @ 원시인 발...

103066 # 그게 북삭북삭하멍 막 잘 떨어져. 경헌데 그런 것이 쫄을 행 내놓으면은 쿠셔. 그 고리에 아이 해 놓은 피는 연자방아에 강 굴면은 그 코송한 냄새가 아이나곡, 고리에 낸 피는 그렇게 진미가 나와.

103066 @ 아까 그 대나무로 짠 것이 고리마씨?

103066 # 으. 고리. 등지라고.

103066 @ 등수리?

103066 # 등수리.

103066 @ 등수리엔도 흐고 고리엔도 하는 거 마씨?

103066 # 으. 등수리엔 하는 것은 우이 흐쉴 좁은 것이 등수리고. 이건 고리.

103066 @ 어땡 생긴거?

103066 # 우리가 구덕모양으로 큰 거. 그것이 건조 다 되면은 어떻든 혼자만은 벅차고 불에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부서져분단 말이여. 대나무니까. 최소한 사름이 둘러 이서야 되어. 고리 낱 하는 건. 경허민 나중에 들어당 슬하게 비왕 명석에 낱 덮영. 갑바나 시른 종주. 요즘처럼. 명석에 톱 덮어낱 이제 또 슬하게 아저당 고고리를 그레 다 담아낱. 한사름신디 너랑 불떼라. 불떼렌 허민 겁나.

103066 @ 호꼼허민 타고

103066 # 이게 확 오르면 곡석이니까 기름 모양으로 확 붙으진 안해여. 경허민 고리에 불 올랐다. 불끄라 불끄라 해영 한쪽더레 밀어낱 그 칸 걸 뽑아 내야 돼.

103066 @ 아...

103066 # 그른 눈도 멜라지곡 코도 멜라지곡. 그 연기로. 그렇게 하면서 피농사

를 지은거.

103066 @ 제주도선 여기서만 피농사 지었지예?

103066 # 으으. 이 초원만, 초원만. 우뜨르 송당이던 성읍이던 하여튼 중산간은 전부 피. 나머지는 조, 보리.

103066 @ 다른 데는 조, 보리만 했던 하던데.

103066 # 피 몰라.

103066 @ 헤벤더렌 피 했던 말 어서나신디.

103066 # ㄱ랑조도 몰라. 70대난 놈도 ㄱ랑조 몰라, 시방. 우리는 직접 ㄱ랑조를 갈앙 그 쓸밥을 먹어나시니까.

103066 @ 예...

103066 # 저 ㄱ랑조가 어서진디가 50년, 혼 45년. 우리 올라 왕 ㄱ랑조를 갈앙 났다. 혼 47년 아니면 48년 되불어서.

103066 @ 아...피농사 지금도 험니까?

103066 # 피? 시방도 갑니다.

103066 @ 아하.

103066 # 왜냐? 이게 그 피를 흉년이면은 우선 즉 사름 먹기 위해서 장만해영 쓸을 뽑앙 먹는데 요즘은 그보다 좋은 쓸들이 많으니까 주식용으로 안 허고 새용으로 하고. 피를 갈면은 그 피 고고리라고 구덕 차서 마다리를 차나 해서 밧디 가서 피 고고리를 다 따니다. 밧디강 따면은 그 고고리는 마대에 놓고 그 나무데기는 소 사료로 빙니께. 경허면은 일거양득이라.

103066 # 피 출은 쇠가 좋아하는 모양이우다예.

103066 @ 보리짚보다는 잘 먹음니께. 이견 새파란 거니까. 7-8월에 하니까 잘 먹기 험니다. 잘 먹는데 건데 요즘 기계화되니까 하지. 피고고리 따당 보면 그게 다 미여질 거 아니꽈? 시방 기계화되니까 하지 사름이 하믄 안되여. 고고리 따멍 다 자빠져 부니까 어려울 거 아니꽈. 사름은 못해여. 요즘은 새 양식으로도 많이 나가 곡.

103066 @ 새 양식마씨? 나는 새? 생이?

103066 # 예, 생이.

103066 @ 생이 밥으로?

103066 # 예, 생이 밥으로. 조 그것이 막 많이 나갑니다. 피는 새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새든지 잘 먹어. 잘먹는데 소화가 잘 안됩니다. 새 먹는 조름에 강 똥 헷상 보민 핏병우리 그대로 있어.

103066 @ 아아.

103066 # 게난 이거 두 번, 세 번 먹는다는 거라.

103066 @ 음.

103066 # 비에 씻어지민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그 껍질이 요놈의 거 두 꺼와서 두 번, 세 번 먹기 때문에. 새도 까지 못해여 즐바로.

103066 @ 피농사 어려워도 새 모이 하젠 짓는 거구나예?

103066 # 생이 모이 뿐이 아니주. 어떻게 이 노무개 새 양식으로나 아니면 나 같게 없어. 겐디 들어보니까 새 양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조든, 피든. 경해서 피를 갑니다. 썩 먹고 알 먹는 격이 되부는 거라. 조는 같아도 양 조꼴은 얼마 되지 안 합니다. 그전이 여기도 조꼴, 피꼴 합청으네 많이 이서났는데 그 조꼴, 피꼴들은 여기 축산농가들 있당 드랜 허민 쥐불고 또 많이 허질 안 허기 때문에 헤벤도 조 사료 섞영 주곡.

103066 @ 옛날 사료 어실 뎨 뉘 섞영 쥐나수파?

103066 # 사료가 무슨 제분들입디다.

103066 @ 사료 나기 전이 뉘 섞어 쥐나지 안 햐마씨?

103066 # 섞어주는게, 사름 먹을 것도 어신디 뉘 섞영 줍니까? 아이고.

103066 @ 맞아예.

103066 # 그거 꼴인디. 아이고.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 고구마도 햐 뿐이파. 그것도 언마나 되수까게, 고구마 나온디가. 왜정 시대 나오곡. 그전에는 우리 아이 나난 때라부난 모르쿠다만은. 왜정시대 때 나온거 난.

103050 @ 언제 햐마씨?

103050 # 소서 전에. 것도 소서 전에.

103050 @ 다 그때 하는 구나. 잘도 바쁘쿠다예.

103050 # 바쁘뿐이파. 덩곡 혼이 납니다. 소서 전에 이걸 놓지 안 허면 소선 전 삼일만 노면은 이거 요만씩 끈어낸 노면은 이거 구십프로 살곡. 소서가 넘으면은 이만씩 끈어도 여하튼 여하튼 칠십프로 팔십프로 죽어붙어.

103050 @ 음.

103050 # 소서. 소서가 되면은 땅에서 그 온기양, 열이 막 올라왕 감저 빨리를 죽여부는 겁주.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103052 @ 감저를 짤랑 땅에 묻는 거파?

103052 # 아 그거. 게난 그것도 기술적이우다 양. 옛날 토굴에서 살던 것추록 감저도 구멍이를 파.

103052 @ 구멍이를.

103052 # 으, 구멍이. 구멍이를 나 키만이 파. 나 키만이 햐서 구멍이를 파면은 그리 산디짚 곁은 걸 햐당 갑니까. 밀으레영 으드레영. 그게 딱습니다. 온기가 그제 잘 돌아와. 우리가 산디짚 트멍에 누워 보면은. 게서 감저를 춥지 못하게 온기를 햐 노면은 전부 쪽 세와 근엥에 덮어. 덮으면 그 다음에 흑을 덮은다 말이우다. 흑을 덮으면은 이게 습도를 맞추지 못하면은 겨난 놀암지 폐와근에 덮어노면은 놀암지 짱 벙허게 둘러 낱, 그거 비가림입니다예. 주위를 덮읍니다. 주지라고.

103052 @ 주지마씨?

103052 # 야, 주지. 주지를 덮으면은 그 온도를 맞추왕 그 주지를 자꾸 올라 주면은 그 감저가 청명에 씨를 보장이 되고.

103052 @ 아.

103052 # 아 그게 잘못해볼민 그기서 열 생겨. 그 구멍이 안에서양. 열 생기면 그냥 문짝 찍어붙어.

103052 @ 찍어부는 구나.

103052 # 경허난 이것두 기술적인 문제라서 간세하는 놈은 그것도 못 해먹읍니다. 뭐이 든지 간세하든 망조우다. 계근에 허고 허망한 일도 많이 허는거고 마썸.

103052 @ 구멍이는 높이는 키만이 하고 크기는 마씨?

103052 # 아, 그게. 서너발. 나발로 두발이나 서발.

103052 @ 예.

103052 # 감저, 고구마의 양에 따라서. 삼분의 일만 놓첸허면 어느 정도. 삼분의 이만 놓첸허면 어느 정도.

103052 @ 아.

103052 # 고구마 양 해서 팝니다.

103052 @ 묻엇당 싹 나민 밧디 싱거마씨?

103052 # 아니, 아니. 경허면 청명되면은 그걸 또 꺼내여. 꺼내면은 쇠걸름이나 돼지 걸름이나 아지당 깎니다.

103052 @ 밧디 마씨?

103052 # 밧디 그게이 종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를 안 헵니다. 이런 우영에.

103052 @ 우영에.

103052 # 최고 열 평이나 한 다섯 평에 산테로 해영 걸름해당 딱 놓아서 그레혹 덮엇당 그게 가스가 좀 발효되면양, 가스가 발표가 되면은 그 구멍이에 강 감저를 꺼내서 씨감자를 놓는 거라. 흐 뽕씩 간격 놔근엔에.

103052 @ 예.

103052 # 요즘은 비닐을 덮엇지만은 그전이는 비니루가 어서수다. 경허면은 비니루 어신 때난 나명 서리 맞아 죽어부는 수가 있곡. 요즘은 비니루 시난 근디 비니루 걷지 안 했당 열받으민 것도 죽어봄데다.

103052 @ 아.

103052 # 비니루 걷지 안했당 열 받으난 죽어볼곡. 비니루 아이 쓸 때는 그놈으 거 자꾸 날 시기가 되면은 날 시기가 흐 십오 일에서 이십 일이 되면은 납니다. 걸 자꾸 봐야 돼. 보지 안해영은 만약에 예측을 일기예보를 예측을 못 헐꺼 아니짜

103052 @ 예.

103052 # 오늘 저녁에 팬찮으겠다. 서리 아니 내리겠다. 종자는 시방 놔도 됩니다. 조종만 잘 허면은.

103052 @ 음.

103052 # 메죽메죽 날 때 뜨셔가지고 서리 안 내리겠다 허당 자당보민 뒷날 아
 책이 서리 내리면 오꼴 죽어봅니다.

103052 @ 서리 내릴 땐 어떻게야 되마씨?

103052 # 계난 서리 내릴 때는 흑을 덮어쥬은에. 흑을 덮어쥬야 돼.

103052 @ 뜻뜻하렌.

103052 # 수둑으로 올려쥬.

103052 @ 예.

103052 # 실시를 많이 허주게. 일찍 낫당은. 계난 요즘은 비니루가 이시니까. 비
 니루에도 고망 아이 뿌리지민 워낙 열받으민 것도 죽어붙여.

103052 @ 예.

103052 # 죽어분 놈은 꺾이라. 아이 되어.

103052 @ 경해난 나.

103052 # 야. 나.

103052 @ 나민. 언제쥬 마씨?

103052 # 그걸 줄을 잘라야 돼, 이제.

103052 @ 아, 줄을 잘아내야마씨?

103052 # 줄을 잘라서 밧디강 심글겨. 밧디강. 소서가 되기 전에 요만씩 끈으멍
 강 밧디강.

103052 @ 아,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103052 # 아, 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산 귀신들이로고. 사는 귀신이라. 큰일이
 라.

103052 @ 하하하하.

103052 # 밧디서 줄을, 그게 밧이 줄이 요만씩 나면. 토종감저, 왜감저라고 해서
 두 가지가 이수다. 서너 가지가 이수다, 감저 종류에는. 붉은 감저하고 흰감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붉은 감저는 이만이 되면 줄이 어느 만이다. 흰감저는 이만이 되면
 줄이 어느 만이다. 일메다 이상 나갔다 예측을 해 가지고.

103052 @ 예.

103052 # 시기가 되가면은. 유월 절 소서가 되가면은 끈어당 놓지 안허면 소서
 넘어가면 죽어붙여. 열받앙은에. 열 받앙 죽으니까.

103052 @ 음...

103052 # 그 전이 끈어당 놓지 안허면 이거 여산허멍 밧도 마련을 하는 거라.
 요거면 몇 평, 요거면 백 평. 영해서 판단을 행 끈어 아정 어떠든 사름이 질머정 가
 야지. 그거 가지고 뭐 마차나 뭐 그당시엔 어섯고. 개인이 질머정 강. 요만씩 끈읍
 니다. 삼십센치 썩.

103052 @ 줄을...

103052 # 게서 잘랑 소서 전이 삼일 전이만 싱그면은 더 죽게 잘라도 다 샅니

다.

103052 @ 밧디 그거를.

103052 # 밧디 땅이 기온이 올라오지 안 허기 때문에. 유월절 넘으면 요만씩 끈어도 힘을 받게 해도 죽어붙여.

103052 @ 음, 더웁은에.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55 # 경해서 그게 살아난 ㄱ을 들면은 우리 농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장은에 뽑아 오고.

103055 @ 감저 팡.

103055 # 응. 줄 받은거 걸어둠. 케니까 그 전이는 엇더정 호미로 그걸 잡아 쳤는데 그것도 상당히 괴로웁니다.

103055 @ 아...

103055 # 젠디 요즘은 사람이 연구가 나가지고. 쇠스렁. 쇠스렁으로 박박 거둬봅니다.

103055 @ 그럼 감저 올라옵니까?

103055 # 아니, 감저는 또 사름 손으로 파야하곡. 줄에 붙은 거나 흔 두 개씩 따근에 하는 거지. 어떻든 사람으로 파야 해. 고구마.

103055 @ 언제 캔다고 마씨?

103055 # 응, 가을에양, 가을에. 겨울까지 가든 아이 되어. 석어붙여.

103055 @ 가을에 캐어.

103055 # 상강 맞앙은양 저장도 못해여. 그게 원래 질이. 상강일 전에. 파 근에. 그 상강일 넘으면 양, 썩이 죽어 봅니다. 썩이 가불가불 죽어붙영 허면은. 감자 문엇당 백프로 썩어붙여. 건 겨울 십이월 달 안에 되도록 먹어 붙어야 돼.

103055 @ 감저는 언제 장만해야 합니까?

103055 # 상강일 전에 썩이 쪼그라들지 안 허연 때에 되도록 이면 일찍 파야 돼. 일찍 파서 도순디 가서 놔뒀당 묻으나. 아니면 막바로 구멍이 파 놔뒀당 구멍이에 앓당 파 묻으나. 아이고 이것도 괴로운 거우다.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57 @ 감저 빼떼기도 하영 해수파?

103057 # 야, 빼떼기. 그건 요전이 해난 거고.

103057 @ 옛날엔 빼떼기는 안해난 마씨? 감저로 뭐 해난 마씨?

103057 # 감저 빼떼기영 ㄱ루 갈아은에 양, 모수왕은에. 저 연자방에 강 낱 막굽니다. 홉들 빌영은에. ㄱ치 수늘영. 경행 감저떡, 오메기떡. 흥나 정도는 맛 줍니다.

103057 @ 하하하.

103057 # 젠디 요걸 주식으로 먹으렘 허니까 별로 원순 어쉽디다. 이걸로 때 살라.

103057 @ 밥 대신 먹기에는...

103057 # 야, 밥 대신 먹어라. 게 그로 후제 감저에 조팍양 좁쌀.

103057 @ 예.

103057 # 좁쌀을 행 노면은 좁쌀을 요만이 노면은 감저는 댓 개를 놔 노민 몬 감저 덩어리라. 이 놈들이 흑교를 강 오면은.

103057 @ 예.

103057 # 하이, 좁쌀 방울은 간 데 엇고 감자 병덩이만 낭푼이에 흐나 가득이라. 아이 이걸 먹어야 될건디 쓸 불룸으로 감저를 논거라 마썸. 경허면은 그자 군소리 허명도. 이 국에도 감저를 낱 먹어수다. 국에도.

103057 @ 아...

103057 # 국에도 썰어낱 떡곡, 밥에도 낱 떡곡. 기자 범벅할 때도 썰어낱 떡곡. 게민 좋아 그게.

103057 @ 예.

103057 # 게난 그 느쟁이 ㄱ루, 모물 ㄱ루양

103057 @ 예, 예.

103057 # 그런 거 행 감저에 행 버물령 막 직어노면은 그 든 맛에, 든 맛에 맥혀 마썸.

103057 @ 예.

103057 # 감저도 그 모인 좁쌀을 행 노면은 쓸 제멋대로 감저 제멋대로 가민, 그거 직어.

103057 @ 예.

103057 # 그든 범벅 양, 범벅 멘들 듯이 행 것에 배합행 녹물국에 먹어십주, 뭐. 대껴불진 안해십주. 어떤 방법을 해도.

103057 @ 감저 즐기도 먹지 안 됩니까?

103057 # 즐기, 이파리 썬 붙은 거?

103057 @ 예.

103057 # 썬 붙은 거 뭐, 뭐. 좋주. 이제도 떡곡. 것도 먹기 시작을 왜정시대부터.

103057 @ 아하.

103057 # 우리가 예술굽살에는 아이 먹어봐수다. 야. 그때도 왜정시댄디 나 예술굽살에도 왜정시댄디 그뎌 우린 어서부난. 어서부난 못 먹은 거.

103060 @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0 # 서쪽과 이쪽은 기후가 틀립니다.

103060 @ 기구나.

103060 #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외나 수박은 이런 우영에 먹을 거라도 놓으면 양 잘 아이되어. 미강도 여기에 질이 틀린다는 게 헤벤이나 서귀포에 농약을 혼번 치면 여기는 두서너번 쳐야 되어.

103060 @ 날아가불영마씨?

103060 # 날아가는 게 아니고 습기가 만해여. 이 모든 곤충들이 엄청나게 만해여. 나도 미짱을 일본서 들어오난 송당서 맨 첫 번 시도해나수다. 이제도 그 낭이 있주만은.

103060 @ 예예.

103060 # 것도 혼 오년 허단예, 요 선홀 약하는 거 보고 아하 구좌 세화리 강 약하는 걸 보고, 표선리가 약하는 거 반에, 고개 혼든 게 두 번 세 번, 저기는 혼 번. 표선이 혼 번 하민 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야돼.

103060 @ 아...

103060 # 경 안허면 이노무 충들을 잡아내질 못해여. 송당에 시방 미짱밧은 어수다. 선홀하고 송당도 바로 여기 닳아도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브름 불어오는 게 틀립니다. 서북풀이 불어오는데 선홀곳 넘어 이레는 안와. 선홀곳더런 태풍도 잘 아이 온텐 험니다. 이레는 앓당 들이쳐도.

103060 @ 아...

103067 @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7 # 응. 모멸.

103067 @ 어떻게나수꽂?

103067 # 모멸은 그게 불치에 예? 불치 재. 옛날은 그 화덕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검질로 떼기 때문에 그 불치를 막 모이는 거라.

103067 @ 정지에 이신 화덕마씨? 아니면 화리?

103067 # 아닌 게난 게 화리가 아니고 이 무쇠손이 슌 하나 앓정, 두 개 안정, 세 개 안정 혼 서너너개 싹 안지지 안 험니까?

103067 @ 예예.

103067 # 경허면은 검질로 불을 떼다 말이우다. 게면 재, 불치를 삼으로나 솔박 으로나 걸으멍 모두웁니다.

103067 @ 아... 어디다가

103067 # 게난 요즘은 비료포나 하나, 그때는 맥 곱은 거양.

103067 @ 아. 맥에다가예.

103067 # 맥 곱은 거나 어떻든 무슨 그릇을 장만해서 그걸 솔박으로 걸리멍 모 두왔당.

103067 @ 예.

103067 # 팔월 처서가 되어 가면은 그걸 모든 걸 다 실령 강 메밀 씨하곡.

103067 @ 예예.

103067 # 비료는 없는 거라, 그당시에는. 메밀씨하고 섞어놔 이제는 쇠가 가면은 굵는 겁니다. 씨를 집어 넣을 디. 게민 존존하게 밧을 갈아. 갈면은 것도 여자들 이양, 우리 할망 닳은 할망이멍, 내 추린는 건 아닌데 일생을 일을 뭐해노난 줍아 노는 율이 백릅니다.

103067 @ 아.

103067 # 그걸 흔 사름이 너 줄이나 다섯 줄을 사. 구덕에 그 불치를 메여. 모멸 씨하고 서튼걸.

103067 @ 예예.

103067 # 메영 가서 소가 그 밧을 갈아 노면 네골이나 다섯골을 거 심어 막 던져 가.

103067 @ 아.

103067 # 뒤로 사근에 예. 뒤로 허는 거. 사근에 뒤로 걸으멍 해는데 일정허게 선수들은 잘 노는 사람들은 고랑에 직각직각 잘 들어 가는데 거 아이민 어땡 파니 예양, 이렁에 가분 사름은 잘 못 된겁주. 게도 그걸 ㄸ설게로. 그 중간에는 소나 뭇 행 ㄸ섯주만은 그 전엔 사름이. ㄸ설게 아십니까?

103067 @ 나무로 된 거...

103067 # 낭으로 행 멘들랑 덮으는 거. 그걸 가져근에 만 평이라도 그건 사람냥으로 쓰서야 하는 거.

103067 @ 헤? 몰이나 쇠에 행마씨?

103067 # 게, 몰이나 쇠는 중간에 나온 거곡. 그 전에는

103067 @ 다 사름이예?

103067 # 전부 사름이.

103067 @ 헤...

103067 # 그때야 원시인보다도 더 해십주게.

103067 @ 예예.

103067 # 양. 경행 그걸 사름이 행 ㄸ시면 그게 두 이파리 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게 누가 논거지 번연히 알아집니다.

103067 @ 하하하하하.

103067 # 야. 이건 어느 아지망이, 아 요건 어느 아지망이 줍아 논거. 누게 논거, 누게 논거.

103067 @ 하하하

103067 # 그게 막 흐터진 게 있곡 모룩모룩 논게 있곡. 이게 놓는데 꼭꼭 잘 줍아야 되어.

103067 @ 아.

103067 # 딱 떨어질 때까지 흐터지지 못허게. 꼭 잘 줍아야 되어. 게난 그게 기술인데. 아지망들토.

103067 @ 아...

103067 # 뜬 사름들은 잡으나 마나 기냥 잘락잘락 놓단 보민 흐터지곡. 변통엇이 허는 아지망들은 요걸 꼭꼭 줍으면서 노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흐터지지 안 헉니까.

103067 @ 아..

103067 # 경허면은 모물쭈이 일정하게 밭아가 확 된 나오곡. 혁거진 건 혁거진 대로 나와두 그런대로 기냥 해영 먹는 겁주. 헤여 먹는데, 이게 일주일이 되면은 하나하나 논 자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밭 깎쟁이 돌아방은에 또 흔 열흘만 되면은 그걸 또 밭디 갑니다. 게민 이제 그 그디 가서 모물씨하고 재 썩어난 그 장소가 이 습니다. 모아냥 덮어뒀당 하는 장소가.

103067 @ 예, 예.

103067 # 그 장소엔 쇠스럼으로 직영 내불여. 직영 내불민 모물이 확상 납니다. 그른 흔 십일 쫘은 강 뜯영 와. 슈아 오는 거라.

103067 @ 아, 예.

103067 # 툼툼이 슈아당은에 그거 춤 마십니다. 숲아 먹어. 생차로도 먹어.

103067 @ 메밀썩이지예?

103067 # 야, 모물 썩이 크면은.

103067 @ 오호.

103067 # 요정도 크면은 요정도 해당 즐라. 즐랑 생차도 먹곡. 그때도 피부가 약한 사름은 몸이 좀 근지릅다고 흡니다.

103067 @ 거 먹으믄 마씨?

103067 # 야. 거 먹으민. 견데 숲양도 상당히 진미가 나와. 문작하고. 소화도 잘 되곡. 경헌디 이젠 늬의 밭디 못 들어갑니다.

103067 @ 하하하. 도둑놈 되불어.

103067 # 도둑놈이엔 허여. 그 전인게 광활한 디 막 행 내불민 게 그거 아무라도 그거 댓쭈썩 뽑아 아정 읍니께.

103067 @ 예예.

103067 # 야, 야.

103067 @ 요새도 메밀썩 팔던데 마씨.

103067 # 요새도 풀주. 견데 그게 제주 모물쭈이믄 허주 만든 재래종이 아니. 전부.

103067 @ 아...

103067 # 게서 시방 목 험도 상당히 골칫거릅니다.

103067 @ 안 되가지고 마씨?

103067 # 아니 되긴 하는데

103067 @ 맛이 안나?

103067 # 맛이 안나고 진이 어신 모양이라. 진.

103067 @ 예...

103067 # 야, 야. 계난 중간에 강원도에서 들어왔져 뭐했져 허는 말이 제주도가, 제주도 모물이 알이 아주 줍니다. 즐아.

103067 @ 아, 즐아...

103067 # 예. 땀디 거 보단.

103067 @ 예. 경허고 대곡 되도록 이면 갈옥밭디 갈긴 가는 디, 갈옥밭디 갈면 은 모물이 훑기는 허는데 아이 얼마 안되곡. 벌거지 먹어봅니다. 이게.

103067 @ 예...

103067 # 경허기 때문에 갈옥밭디도 안 갈곡 광활한 디만 갑주 마썸. 경허민 이 비브름으로 떼려볼면은 이 모물 알이 족아. 경헌데 알이 그 으물은 솥박 들어.

103067 @ 아...

103067 # 저 육지 것들 보다. 게난 모물두 예, 귀 무신 귀 즈은 건가, 귀 아이 즈은 건가 그 말을 허명 험주덜.

103067 @ 그건 무신 말이짜?

103067 # 게 모물이 읊다 아이 읊다 하는 말에.

103067 @ 귀 즈다, 귀 안 즈다.

103067 # 읊은 모물은 귀 아니 좁곡, 죽은 모물은 귀를 즈넨 말입주.

103067 @ 이 귀마씨?

103067 # 하하.

103067 @ 그냥 모양마씨?

103067 # 모물이 모양이주. 모양이 삼모가 이서. 삼모가.

103067 @ 예예.

103067 # 겨난 그것이 즈아진 것이 크게 나온 게 있고 경 안허면 모물이 돌아 가명 뽕뽕 귀가 어시 뽕뽕헌 게 있어.

103067 @ 아하. 뽕뽕헌게 좋은 거마씨?

103067 # 으. 뽕뽕헌 게 좋은 거. 하하하하. 아이고. 이 선생님들 산 귀신이로. 산귀신들이라.

103067 @ 게난 영 들으레 와수게.

103067 # 하하하하. 참나.

103067 @ 모물은 언제 장만해마씨?

103067 # 그거 처서에 갈양.

103067 @ 예.

103067 # 처서에. ㄱ을에, 한 시월달에.

103067 @ 예. 그믐 언제 걷어마씨?

103067 # 게난 시월달에 비어. 비곡.

103067 @ 시월에 비어마씨.

103067 # 으. 그 메밀은 또 특히나 흔 십일 물려야 돼.

103067 @ 아하.

103067 # 비어냥 물리지 안 허면. 다 익영 비젠 허단 보면 모물이 하나도 어서 쳐붙여. 몬 떨어져 붙어.

103067 @ 아이고.

103067 # 모물이 그 굽 꼭지가 상당히 약해. 경해로 막상해야 흔 열흘. 게서 그

팔이에 자꾸 비눈이 자꾸 옵니다. 농사를 제일 말제에 수확을 합니다.

103067 @ 예예.

103067 # 허는데 혼 열흘을 해 노면 저걸 개인 사름이 가 가지고 뒤집어 놓니다. 브름 들곡 잘 말리라.

103067 @ 께하듯이 마씨?

103067 # 께? 으, 께는 세와냥도 말리곡, 담 에염테레도 냥 물리곡 하는데, 이견 그냥 뒤집어 놔. 땅더레.

103067 @ 아, 그냥 뒤집어 놔마씨?

103067 # 야. 무시거 꺾으듯 모물도 양 잘 꺾으는 사람은 양 댓줌씩 이만이 높으게 꺾어 놓는데 경 안허면 서너줌씩

개똥 흘리듯 막 흘러 가주게.

103067 @ 하하하하.

103067 # 경허면은 그계 모듬젠 허민 골치라. 게난 비브름도 잘 맞으라 뒤집어 노면은 그계 낫당 빨리 떼려야 됩니다양. 이삼일 넘어가민 그때 당시엔 자꾸 쇠레기 주제라고 해서 비브름이 자주 붉니다양. 게민 막상 허젠 해사 오늘 뒤집어 보민 널더레 모리더레 벨일이 이서도 떼리지 안허민 거 비맞아 불민 또 뒤집어 놔야 돼.

103067 @ 음.

103067 # 갱해서 걸 강 뒤집어 낫당. 이제는 이 젊은 사름이나 늑신네나 그계 즘미집니다. 많이 허면은 세사람. 한쪽에 세 사람, 세 사람 으섯 사람. 사공질하는 사람이 두 사람 들어갑니다.

103067 @ 사공질이 뭐 마씨?

103067 # 사공질은 세 사람이 으섯사람이 상 마당질을 할 거 아니꽈.

103067 @ 도리께질예?

103067 # 야. 도께질을 해 가면은 모물이 다 떨어져 가민 혼 사름은 그걸 내치곡, 혼 사름은 저기서 잡아 던져. 새 모물을.

103067 @ 새 거를마씨?

103067 # 으. 새 거를.

103067 @ 그 사람들이 사공마씨?

103067 # 으. 사공. 사공질. 혼 사름은 던지곡 혼 사름은 내치곡.

103067 @ 아...

103067 # 해여 가면은 으섯이 모물 남을 떼려가면 모물 남이 이게 땅이면 이정도 둥둥 뜹니다.

103067 @ 아, 우터레 마씨?

103067 # 막 ‘으야홍 으야홍, 요거여 요거여’

103067 @ 하하하하.

103067 # 정해가면양 가달 덜씩덜씩 해여가민양 모물 남이 둥둥 떠.

103067 @ 아...

103067 # 경허면서 낭 내치는 사름은 낭 내치곡. 또 저기서 사공질 새 거를 앓
당 놓는 사름양 그물로 고기잡듯이양 계난 사공질도 골립니다.

103067 @ 아, 기구나예.

103067 # 계난 사공질도 아무나 못허여. 이만한 모물 곡지 심영 확 뿌리민양.

103067 @ 예?

103067 # 그 싹놔나. 그러면은 혼두번 확확 떠리면은 곡물이 떨어지면은 등등
떠가.

103067 @ 아...

103067 # 게른 조름에 율엔 놈은 또 빼내영 던져 가곡.

103067 @ 우와.

103067 # 해가민양 소리허멍 해가면은 가달 덜씩덜씩 허공 해가민 신이 나.

103067 @ 하하하.

103067 # 예, 경행 모물을 두드려 논다 말입니다.

103067 @ 예.

103067 # 두드려 노면은 그제 브름이 나면 좋지만은 브름이 아이 나면 으눔으
거 물리곡 얼맹이로 치곡. 천성 이견 못 푼다 말입니다. 몇 섬씩 해 노면은. 거 그
른 어떻힙니까 더러 밧디 물어두나, 더러만 그 전이는 쇠에 맥에 담아근에 쇠에 한
밭이 두 밧이 실렁 오곡. 게른 물어뵈당 또 수눈값 해여주당 보면은 이녁 거는 못
행 뒷날 허곡.

103067 @ 예.

103067 # 그 겨난 그 당시에는 그때는 춘 브름도 나곡 허난 석지는 안헙주게.
묻어 나뵈도 허곡. 야. 경허멍 그제 허는디 모물 마당질 그제 막 즈미집니다. 헤헤.

103067 @ 하하하하.

103067 # 요걸로다 요걸로다. 요거 해여, 요거 해여. 해가면은 하하하.

103067 @ 하하하하.

103067 # 게 그 마당질은 이 지방 우리 할망 닳은 할망들은 붙어보도 못하고.

103067 @ 무사마씨?

103067 # 힘이 어스난. 힘이 어서.

103067 @ 아...도께질허젠 허난.

103067 # 어, 이거 쟁쟁한 남자들 행은에 해야주. 경 안허당 안 허면은 울러 두
드려 못 헙니께.

103067 @ 도께질은 몬딱 남자들이 하는 거파?

103067 # 으, 남자. 게도 잘하는 여자를 특별히 세우지.

103067 @ 아...

103067 # 가운데 세와.

103067 @ 아, 가운데에.

103067 # 으. 후렴에 넘어가는 거야. 우리도, 나도 어린 때 에 열일곱엔가 몇 살

이에도 오십대난 하르방들광 ㄴ치 가네 상 해수다. 왜냐 검질 매레도양 날 들양 가는 사람은 나를 좀 편애해.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103067 @ 아...

103067 # 검질도 매게되면 나즉시 고랑을 매 주는 거라. 손으로 검질 매는데.

103067 @ 예.

103067 # 괴로웁시카부덴 혼즈 매 와이, 혼즈 매와이. 고랑을 매주는 건 거 참, 반 파니, 반을 매 주는 거라, 반.

103067 @ 음...

103067 # 게든 그 마당질도 가면은 가운데 세와 놓는 건 여 어지럼시라. 양쪽에 가 힘을 써. 가운데서는 아멩이나 기동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거.

103067 @ 해해.

103067 # 경 행 모물도 행 허곡. 그 모물짚 같은 것도 양, 요 중간에 쇠들 해당 허난 맥여수다만은 그 옛날은 그냥 불 붙져붙여수다. 게난 뉘, 옛날은 무시거 허도 안 허곡. 모물 봉텡이, 모물 봉텡이라고 이수다. 모물 해나든 지꺼기. 불려난 지꺼기들.

103067 @ 예예. 모물 봉텡이마씨?

103067 # 모물 봉텡이라고 모물 지꺼기. 떼려난 지꺼기.

103067 @ 아...

103067 # 브름에 불려나민 나가곡 아이 나가곡 합주게. 겨민 그것은 외방 사람 해변사람들이 불각제기를 가정와. 그 요만씩 헛거. 뉘 시방 조기 말양 불각제기라고.

103067 @ 각제기마씨?

103067 # 으. 불각제기라고 존존한 거. 가 근에 뉘아당은에 풀곡 먹는 게 이수다. 고등에영 뉘여.

103067 @ 예예.

103067 # 그걸 소금행 뉘당 우뜨르, 우뜨르엔 헛디 우리우다.

103067 @ 해해.

103067 # 우뜨르 강 모물 병텡이영 바평 오자.

103067 @ 아하...

103067 # 모물 병텡이, 모물 지꺼기입니다이. 해난 지꺼기들.

103067 @ 예예.

103067 # 게민 만약에 그거 열 개 예핀 것에 모물 병텡이 혼 맥 드라. 혼 바리만 드라.

103067 @ 혼 바리면 얼마마씨?

103067 # 바리는 쇠에 양 쪽으로 실르는 맥으로 두 개.

103067 @ 맥으로 두 개.

103067 # 으. 맥으로 두 개. 게서 자 우뜨르 놨은 말이여 그런 피기 풀이 힘들

지게. 불가게기 그 소곰 뻘까한 놈이나구나. 그거 허민 그거 오죽 좋은 거라.

103067 @ 째질해영은에 예?

103067 # 밥 먹을 때 손ㄴ락만 뺄았주. 그걸 몸대로 경 먹어서. 예편 돌아뻐 거. 진짜. 아이고 흥나 쳐떡었다는 매 맞아.

103067 @ 하하하.

103067 # 게민 모물 병뎡이를 내불지 안행 몬 가져옵니께.

103067 @ 예.

103067 # 몬 가져당 뵘당은에 괴기 장시나 직거리, 직거리나 무신 톨 곁은 거 몸 같은 거 가정 오면은 바꿔 먹는 거라. 우린 것을.

103067 @ 음.

103067 # 게 경허면서 세상을. 모물도 경허멍 살곡. 또 모물 꺾질도. 게 먹는 게 으라 가지우다. 또 모물 꺾질은 베개에 놓니다.

103067 @ 모물체에?

103067 # 야. 그거 그전부터 옛날부터 논 겁주. 경헤근에에 그런 것도 하곡.

103067 @ 예.

103067 # 모물 곁은 것도 같아나민양. 게난 그게 으라 가지우다.

103067 @ 느쟁이 어떤 거 마씨?

103067 # 게, 건 쓸 거필 때 격적 부서진 거. 되도록 이면 쓸이 부서질 거 아니 짜? 허면은 거기에 ㄴ루 낱 치면은 거명한 느쟁이가 나와.

103067 @ 아.

103067 # ㄴ룰. 쟁 그게 또 어 먹기가 사나우면은양 감저, 고구마 시민 고구마 에 해 노민 감저에 든 맛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게.

103067 @ 아...

103067 # 호호호호.

103067 @ 범벅행은에예?

103067 # 예, 범벅해영. 그게 막 함쳐방은에. 게난 지방 그거 아이고 보민 옷을 겨우다. 그놈의 거. 난 밀쭈시를 안 먹어수다만은 이디 우리 연령에 대개 밀쭈시를 먹영 살아십주.

103067 @ 밀쭈시는 어떻헌거짜?

103067 # 나도 거 안 먹어부난 양. 쇠 사료보다도 못한 거렌 허난.

103067 @ 거난 뭇로 된 거마씨?

103067 # 밀 꺾질이주 마씨. 밀꺾질.

103067 @ 예...

103067 # 그 제분 공장에서 ㄴ루 뽑양 온거.

103067 @ 옛날에 그런 것도 먹영 살아신디예.

103067 # 우리 군대 가부난.

103068 @ 담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8 # 담배? 심어나수다.
 103068 @ 아... 기꽂?
 103068 # 담배도 왜정시대에 쫂 심당 그게 메액이 막 약해나수다.
 103068 @ 멘액?
 103068 # 먼역. 비븍름에 잘 타.
 103068 @ 확 죽어불어마씨?
 103068 # 확 븍름이 부나, 큰 비만 때려불민 담배에 몬 구멍이 나. 터져.
 103068 @ 아, 구멍이 나부는 구나.
 103068 # 야. 경허고 여기는 나 오죽해사 농촌진흥원에 가근에 담배 싱근거 확 인행 담배 아시당 싱근켄 소리 시방 햄수다.
 103068 @ 흐흐.
 103068 # 담배는 막 올려불곡. 옛날 끍, 속 썩들양 막 톨양 먹어수다. 왜정시대에.
 103068 @ 아하.
 103068 # 나가 열 세 살부터 담배 장난을 했구나.
 103068 @ 아이고.
 103068 # 일찍이주게. 산 담배 해당 톨양 장난으로 허당 보난 열일곱살에 제라 하게 보초사게 되난 제라한 담배를 태왔는데 산담배 속, 끍썩 톨리왕 담배로 먹어 수다. 켄디 여기는 담배가 아이 될게 멧번 허당, 그 요즘은 흐흐시 태풍이 아이 불 엄주마는 그 전인양 계속 태풍이 불어수게 제주도게.
 103068 @ 음.
 103068 # 게난 그게 안되여. 게난 제주도에 담배 싱근 사람 어수다. 이젠 육지 라도 이제는 강 보내여를 허나. 미신 승시를 해야지. 요노무 담배값 퍼 올려놓고 허 난.
 103068 @ 담배값 너무 올란예?
 103068 # 야, 흐 푸 벌지 못하는디 이노무 담배만 보통 오천원이난. 오천원이민 어디강 실피 먹음이나 혈티.
 103068 @ 확 끈어븍서게.
 103068 # 아니. 이거 담재 끈으렌 허민 양 죽으렌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 죽으렌 허는 거.
 103068 @ 하하하하.
 103068 # 게 의사도 우습디다. 당신도 테우멍. 믱음냥 헉씨.

4. 들일

104001 @ 소는 어떻게 키웁니까?

104001 # 말은 전업으로 아이 질와수다만은 소는 어릴적이부터 질와수다. 거뵘 질왔는디.

104002 @ 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 소나 말이나 종류가 으라 가지우다. 우리가 아는 종류는 옛날은 양 소나 말이나 색깔이 나쁜 놈은 심리가 나쁜덴 해영 아이 질웁니께. 소도 얼룩소여 황소여 속쇠여, 검은남쇠여. 야, 영 해서 혼 댕 가지가 되우다. 되는데 황소여 하는 노랑한 쇠들은 말을 잘 듣는데 젤 말을 안 듣는게 속쇠우다. 속쇠. 고양이 닳은 거. 감시룩혼 거. 어룩거룩혼 거. 그게 언제나 그 쇠는 균웁이 십니다. 사름들 이중 성격 갖는 모양으로.

104002 @ 하하하.

104002 # 게서 그걸 졸바로 질루질 안 허는데 그런 것이 새끼를 잘 낵니다. 새끼를.

104002 @ 아하.

104002 # 놈이 오만 원짜리를 나민 그건 대개 칠팔만 원짜리를 낵니다. 대개 99프로.

104002 @ 아..

104002 # 게서 그 소를 질루왔고. 옛날 경 쇠 모음대로 잡아 먹도 안 해수다.

104002 @ 추렴 안 해마씨?

104002 # 게 잡아 먹도 안하고 사 가는 사람도 엇고. 사 가는 사름 이시믄 돈 하여영 주는 맛으로. 돈 천원이민 그 때 쓸 두어 가마니니까게. 경 아니허면 예 죽은 쇠, 어떻 영 죽으나 다리 붙어지나 어떻게 병이 들면 그런 건 잡앙 먹영 봐수다. 잡앙 먹곡. 얼룩쇠같은 거 황쇠 같은 것은 순합니다. 다른 거 담지 안하여영. 균웁도 엇곡. 밧 가는디도 ㄱ르치는대로. 혼 이삼일만 ㄱ르치면은 순순하게 풀어지곡. 검은남 쇠렌 현 것은 이것이 요즘 흑도새기여, 서귀포서 검은쇠 말하지 안 험니까?

104002 @ 흑우.

104002 # 검은쇠영 뵘영 허는 게 옛날도 검은 쇠고기가 맛 좋덴 해나수다. 옛날은 죽은 쇠고기, 죽은 말코기나 먹었지, 생으로 잡앙 먹기가 힘들어나수다.

104002 @ 음...

104002 # 야, 계난 60년대 70년대나난 이걸 잡앙도 먹고 해낵지, 그전이는 어디 눈이나 막 왕 물이나 쇠는 그때 집이 매난 허지만은 물은 뒤늦게 방목행 내뵘니께. 내뵘민 그 때 눈이 이 집까지도 눈이 이서나수다.

104002 @ 예? 아이고.

104002 # 계민 어떻 고망 툇앙 삽이나 뵘이나 아지당은네 양 고망 툇라사 저 거리하고 이 거리 통화가 되어 마씀.

104002 @ 하하하.

104002 # 경혈 때 물이 죽습니다. 걷지 못행 눈에 빠정은네.

104002 @ 아.

104002 # 경허영으네 하는데 쇠는 그 정도에 나가질 안 합니다. 집에 매영 두영 허민. 쇠는 경 나가지 안 해영 통제 안허주 만은 말은 통제를 합니다. 쇠는 어찌다가 다리가 부러지나 새끼를 낳다가 잘못 나서 애 무엇을 때 죽게 될 때에는 잡앙 먹고. 경 아니허면은 우리 쇠를 잡앙 먹어보질 못해나수다.

104002 @ 예.

104002 # 평생을 질루와도.

104002 @ 예.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 겨난 거 육지서도 코를 피지 안 험니까양, 이런 놈은 코를 피어야 하여.

104004 @ 먼저를 코를 피어.

104004 # 어. 코를 피어.

104004 @ 코는 어떻 피어마씨?

104004 # 츄쇠라고 이수다. 츄쇠. 쇠 코 피는 고지. 윤노리냥으로 센걸로 해야되어. 시방은 후쿠같은 살이도 이성 송곳이라도 이시난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츄쇠라고. 윤노리냥으로 연필모냥으로 막 가깝니다. 막 깎아서. 쇠를 나무에 가서 잡아 묶어. 묶으면 심어 낳 난 이땅 혼자만 해보나수다만은 그 쇠가 사나우니까 발로도 하곡 외주게. 경헤여 가가민. 위험해영들 해영 무시거 해영 흐는데 베에 딱 묶어낳 코를 딱 심영 영 들렁 이딜 피는거라. 고쟁이로 해영 피면은 쇠 코 꿰는 시방이면 나이롱베로 허는 마는 그때는 나이롱 베가 어디서나수파 이 미베로 꼬면은 베가 물락 물락 아이되면은 종쟁이라고양 들녘이 있는 유름 줄을 걷어당 그걸로 되와그네 코떨레 그 동그랑헌 것이 코떨레.

104004 @ 예. 코떨레.

104004 # 코떨렐레 웨어근에 행 멘든다 말이우다. 게민 그레 베를 걸어. 베를 걸영 그렇지 경행 뿔에 감양으네 행 허면은 코 웨어도 ㅍ성 막 가. 막 영 허명도.

104004 @ 아...

104004 # 지금 사름 몰라. 그노무 쇠들 숙쇠 짬은 아기나쁜 말야. 아이구 무서웁니다. 계난 그런건 주인이 잘 알양 감안해영 아이들 앞이 멍심해영 이경가곡 멍심해영 이경 몰양 오라.

104004 @ 예.

104004 # 옛날은 4.3 사건 전이는 쇠 같은 거는 막이에 매면은 양 수돗물이 어시니까 봉천수 양 냇가에 그 고인 물에 우리도 두참 세참까지 집에 있던 거 혼 댓개 매면은 매영 물 먹이레 나선다 말이우다. 낮시간에. 혼 이시간 짬에. 경허면은 쇠들이 땀당은네 딱 내치면은 우리 키 이상으로 들럭키여. 벤두악으로. 경허곡 또 걷는 건 순순히 걸곡. 경허영 물먹이레 하천 곶은 디 개천에 아장 저물면은 선동상은네 구닥구닥 집더레 들어웁니다.

104004 @ 음...

104004 # 아, 그 쇠놈들도. 경허곡 심보쟁이 나쁜 놈은 영행 보당 양 질레 풀도 시민 풀도 뜯어 떡곡 혼직 뜯어먹영 오곡. 어떤 주인이 기분이 아이 나쁜줄 알면 고들고들 걸영 오곡. 기분 나쁜 줄 알면 요놈의 쇠, 집이만 들어강 보라 경허민. 우리하고 의사소통은 아이 되주만은 양 경해도 짐승이 다 아는 거라.

104004 @ 예.

104004 # 다 아는 겁디다. 경허민 양 우영이나 왕 한바퀴를 돌아. 심리 나쁜 놈들이 양. 경 군소리 해불민양. 우리하가 짐승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니까 요놈들이 몰람주만은 욱도 말야. 사람이 얻어 터쳐도 양 똬 맞아도 신경질 내지 말양 솔솔 달래는게 이게 도리다. 게서 나 오늘도 곱았주만은 난 저 비즈곳 일곱바퀴 곳을 돌아네 두 살짜리 산소를 심어나수다. 게난 물끓은 거 소끓은 거 너희들 잡아 뛰어라. 잡아 뛰어서 물은 땀분이민 즙으곡 생물 잡곡 쇠 술에 걸린 놈은 연갱이도 들으멍 웃으멍 해주만은 아무리 스나운 물이든 쇠든 우리 손에 걸리든 뱉을 못 써수다.

104004 @ 하하하.

104004 # 이제 세상이 영 되어노난. 옛날 호주서 들어 온 부라만 혹 영 큰 소도 이수게 그건 무스와나수다. 챗번에. 야. 그 브라마 호주산 엔가스레 말이야 미신 꺼 멩헌 거 어디 종이렌... 겐 거 중간에 들어 왕 뱃 곱으치멍들..

104004 @ 뱃 곱으치는 건 어떤 거 마씨?

104004 # 뱃 곱으칠 때는 겨난 그거 사름, 두 살 때는... 금승은 난 것이고. 사름, 다름... 물은

스무 살이라두 장팔수라고 해서 으둡살이고 쇠는 이거 열 살 넘어서 열 한 살 쯤 되실거라. 이게 순수하게 말을 곱습니다. 물은 경 아이 곱아도. 쇠는 이거 열 댕 되어서...

104004 @ 음...

104004 # 영허곡. 물은 스무 살이 되어도 장팔수.

104004 @ 아, 예.

104004 # 으둡살이 최고렌 하는 겁주.

104004 @ 예.

104004 # 야, 게난 쇠는 뱃 갈때는 사름에. 세 살 때에.

104004 @ 사름예예?

104004 # 예. 사름에. 또 뱃을 곱으치게 되면은, 고만셔보라 노인당에서 쟁기들 봤지양? 쟁기.

104004 @ 예. 봐수다. 뱃 ㄹ르칠 때 어떻힙니까?

104004 # 꼬뚜레를 꿰영, 사나운 놈은 이걸 양쪽에 꿰어. 부림패라고 읍으로 때리는 채질하는 베. 멩에에서.

104004 @ 부림패로 때려.

104004 # 경허면은 첫 번에는 말 안들으니까 사람이 이껴야돼. 사람이.

104004 @ 아...

104004 # 코뿔레에 감아가지고 사람이 묶여 길을 가르쳐 줘. 조금에서 사람이 양지 머리 심영 조중을 하명 배 등기곡 하명. 3일만 하면. 경 안하면 3일이나 갇힌 건 흔 1주일.

104004 @ 음.

104004 # 건디 영 못한건 양 막 외명 양, 막 외명 아이 허는 놈들이 이수다.

104004 @ 잠대 메왕 마씨?

104004 # 잠대 메왕, 야.

104004 @ 돌 메왕도 안 헉니까?

104004 # 야?

104004 @ 돌 같은 거 메왕도 안 헉니까? 소...

104004 # 아? 그거? 게난 양 그것이 무레착 같은 거나 돌코라고 쇠 가르치는 것이 이수다.

104004 @ 예, 쇠 가르치는 거.

104004 # 근디 그거 전에, 그거 말양. 흔 삼 일 장난으로 꼬성 땡경 질 들라 해서 허는 거지. 우린 막바로 쟁기 가정 해부난 양.

104004 @ 아...

104004 # 그런 걸 아이 해봐나수다. 야, 이 쇠 가르칠 때민 땡돌 행은네 흔 삼 일 꼬성 땡기곡. 것두 또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흔 사람이 조금에서 이끄고 뒤에서 회초리로 따리곡 해도 원 걸지 아니 허는 쇠가 이수다. 것도 일이렌 허영 아이가. 경행 흔 3일 메영 땡겨나곡. 구루마도 빈차로 메영 땡겨나곡 해나수다.

104004 @ 가르치젠 흐민.

104004 # 가르치젠 흐민. 경해서 해여 나그네, 잠대 메으민 잠대는 수월하곡.

104004 @ 음.

104004 # 경헤영 허민 수월하곡. 거먹 그대로양 사람이 쇠 곁은 거 옛날은 게 힘어신 사람 졸졸 꼬성 가불어도 자빠지명 가불미께.

104004 @ 하하하.

104004 # 우리는 그런 것을 아이 겪으곡. 어거지로 심어당으네 조지면은 맥을 못 써. 쇠도 박박 털곡.

104004 @ 하하하. 힘이 장사라나신게예.

104004 # 손에 잡히면은 쇠 모가지, 돌 모가지 감당없어, 우리한테 잡히면은.

104004 @ 소 빨 모양에 따라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까?

104004 # 있주께.

104004 @ 뭇렌 글아마씨?

104004 # 겨난 영 돈은 건(바깥으로) 천상풀이여 감은쇄 빨이영, 돌각 빨이여. 돌각빨은 양 아무리 쇠 빨이 커도 양 쇠빨이 흔듭니다. 돌각돌각.

104004 @ 아하.

104004 # 곧 떨어질 정도. 게도 썰여.

104004 @ 그게 돌각뿔마씨?

104004 # 야, 야. 건지뿔 하늘소 모양으로 영허는 게 (위로 곧장) 건지뿔인데.

104004 @ 영 위로 올라온 건 건지뿔마씨?

104004 # 야, 건지뿔인 양.

104004 @ 그 다음엔 마씨?

104004 # 영 오그라진건 감은쇄 뿔이라고 해서

104004 @ 감은쇄뿔.

104004 # 야, 야. 게난 이 속담에 그겁 주양. 가는 쇠 정이월 보름쌀. 차갑다는 말입주양. 차가와. 차가운데 건지뿔은 해영 거 용기가 출출한 놈들은 빈두왓허멍 물 먹이레 들곡. 가는 쇠뿔은, 감은 쇠가 아니고 가는 쇠로 간다는 게 나이많은 쇠는 움직이질 못합니까. 경형 촌보름 불어가민 영 고개를 아이 들렁 잡니까.

104004 @ 하하.

104004 # 워낙 날이 차가우니까 가는 쇠뿔 오그라진다. 야, 날이 차가우니까 그 속담이지. 뜯 건 엇고. 뿔도 돌각뿔이여, 가는 쇠뿔이여, 천상뿔이여. 또 양, 쇠가 천상뿔이 사나운게 아니고 위험합니다.

104004 @ 영 우터레 돋은 거 마씨?

104004 # 야, 야. 사름에 이익을 아이 시킨다는 겁주. 영 헌건.

104004 @ 아하.

104004 # 윽으로 돋은 건 사름에 이익을 시기곡. 위로 돋은 건 천상풀이렌 헌건 천상각이렌 해가지고 . 이건 쇠도 꺾지 팍 찢러볼민 양 그냥 체져붙어. 배떼기.

104004 @ 아이고.

104004 # 경행 가정에 잘 아이 키우고 나민 확 풀아볼곡 해나수다. 50년 이내에는 원 하르방들 어떻게나신지 모르우다만은 게난 천상각진 쇠는 집안에 이익을 아이 준다해영 풀아볼멍 매질 아이 합니다.

104004 @ 음.

104004 # 숙쇄는 새끼를 잘 나니까 매는데.

104004 @ 아하 기구나예. 누렁쇄는 제주도말로 다르게 굳지 안해여 마씨?

104004 # 노린쇄. 기자 노린쇄. 일률적으로.

104004 @ 얼룩한 건 마씨?

104004 # 얼룩쇄. 얼룩송아지, 얼룩쇄. 몰도 마찬가지로 율라몰. 영해여.

104004 @ 율마몰이렌 해마씨?

104004 @ 뿔이 잘 안 나는 쇠도 이수께?

104004 # 아, 그건 뿔렌 허드라. 나도 그 당시에도 뿔 몽그레기, 뿔 몽그레기엔 허주게.

104004 @ 뿔 몽그레기마씨?

104004 # 야. 뿔 몽그레기. 또 찢레질 허당은에 흔착 벗어정 뿔 허는 것도 야, 저 뿔 몽그레기 일허붙어져. 찢레질 허당은에.

104004 @ 찢레질은 뭐짜?
104004 # 췌가 서로 빨로 빨싸움 허당은에 이거 건드리민 그냥 벗어저불주게.
104004 @ 아하.
104004 # 경허민 그거 피나가민 옛날도 메역은 이시난. 메역이 그거 특효약이
라. 메역을, 빨지 았은 메역을 헤여당 빨리 체며 줘.
104004 @ 아하.
104004 # 피가 엄청나게 흐러.
104004 @ 빨 빠지민 메역으로 쳐메여마씨?
104004 # 어. 빨 벗어지면은.
104004 @ 건지빨은 어떤 거짜?
104004 # 건지빨도 비슷한 건데. 호뽀 자쳐진 거. 뒤터레 자쳐진 거.
104004 @ 자쳐진 거마씨?
104004 # 그거 작박뜰이엔도 허고 건지빨이렌 하고.
104004 @ 작박뜰이는 뭐짜?
104004 # 응, 영해서 뒤터레 자우룻하게 가.
104004 @ 아하.
104004 # 뒤터레 자우룻하게.
104004 @ 자빠졌다고 마씨? 하하.
104004 # 으, 작박뜰이.
104004 @ 작박뜰이.
104004 # 하하하. 벨아벨 일름이 다 이서노난에. 건지빨이 작박뜰이. 돌각빨이.
104004 @ 오그라진 빨은 뭐렌 했드라.
104004 # 오그라진 빨은 그자 그 당시엔 가는 췌빨이렌 허는 거주.
104004 @ 가는 췌빨이짜, 감은 췌빨이짜?
104004 # 가는 췌빨.
104004 @ 예.
104004 # 감은 췌가 아니주.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 # 소는 밧 가는 거 말고 뜯 건 저 왜정시대로부터 구루마해나수게.
104003 @ 아, 구루마.
104003 # 하여튼 밧을 주장행 많이 갈아수다. 또 중간에 몰도 밧 갈곡. 혼 60년
대에 그자.
104003 @ 예. 쟁기 이름도 곱아줍써.
104003 # 이건 양춧머리.
104003 @ 양춧머리.
104003 # 이거 영 운전하는 거이. 이건 몽클.
104003 @ 몽클.

104003 # 이걸 보섯, 보섯. 우리 말로. 그럼 이걸 성에.
104003 @ 성에.
104003 # 여기에서 성에에 돌벙이뿔이 이서이.
104003 @ 돌벙이뿔마씨?
104003 # 돌벙이뿔 영 찢르는 거. 성에에 잇곡. 이걸 설칫, 이!
104003 @ 설칫.
104003 # 이거 기준. 뭘 하는 거. 설칫에도 여기에 그릇이 두 개 이시메, 두 개.
104003 @ 아하. 설칫에.
104003 # 그거 조종을 하는 거라. 깊이 들어가는 거 얕게 들어가는 거.
104003 @ 아하 기구나예.
104003 # 그걸 알아야 돼이. 설칫에 그릇 두 개.
104003 @ 그릇 이름 따로 어수파?
104003 # 어서. 그건 기자 설칫에만 그자 내분 거.
104003 @ 예.
104003 # 밧 가는 사름이 그건 알양은에 짚이 지르젠 허민 이걸 우터레 올리곡.
벧을 우터레 올리곡. 경 안허민 얕으게 질르곡.
104003 @ 예.
104003 # 요건 벧.
104003 @ 벧.
104003 # 요건 벧틀레.
104003 @ 벧틀레.
104003 # 음. 또 요디 벧칼이 이서. 벧칼.
104003 @ 벧칼.
104003 # 설칫에도 돌벨이뿔이라이.
104003 @ 그것도 돌벨이뿔이과? 그 모양은 다 돌벨이뿔이구나예.
104003 # 응. 설칫에도 돌벙이뿔. 게난 으것도 우터레 올력 느단 올력 햏여.
104003 @ 아, 이것도.
104003 # 으, 으것도. 으거. 게난 또 여기에 그 벧흔 흑이 묻으면은 밧 다 갈면
은 그 돌아매는 게 이서. 벧칼이라고 해서. 낫모양으로 멘든 거. 우리 수저모양으로
멘든 거.
104003 @ 예, 예.
104003 # 여기 벧칼도 이시메. 게난 으건 다 된거고. 벧칼까지 놔야 되메. 다들
벧칼까지는 모르메.
104003 @ 예, 예.
104003 # 게난 으것은 오리목이고.
104003 @ 오리목. 으것도 돌벙이뿔이과?
104003 # 으, 돌벙이뿔. 게난 쟁기 멘든 사름도 노인당에서 으거 몰라네.

104003 @ 오리목 걸쳐진 거 뭐짜?
104003 # 이거 벳틀레라고. 이게 이게 쉰나무로 해야돼.
104003 @ 어느 게 벳틀레마씨?
104003 # 이거, 이거.
104003 @ 벌레레는 안 헝고 마씨?
104003 # 아, 벌레, 벌레, 춤. 벳틀레는 으거고, 으건 벌레.
104003 @ 예, 벌레.
104003 # 이걸 한줄.
104003 @ 한줄.
104003 # 으건 등퀴.
104003 @ 등퀴.
104003 # 으. 알러레 막 누리지 안허게 헝는 거이. 견데 소에 헝는 가린석은 아
니 해신게.
104003 @ 예, 이 그림은 가린석 어신거예. 그문 가린석은 소 어디 걸렁 이신거
짜?
104003 # 가린석은 별도로 나와. 베로 쓰려, 쉼. 아이 가가민 영 걸려당.
104003 @ 아.
104003 # 착 뜨리민 쉼가 꼬끄랑내가 날 정도로 쉼가 아파.
104003 @ 가린석은 양젓머리에 묶은 거마씨?
104003 # 으, 양젓머리에 꼽아.
104003 @ 이쪽은 멩에에 강 꼽아마씨?
104003 # 아니, 멩에에 강은 소용이 없어. 그것이 이 코뜰레에 가.
104003 @ 아 코뜰레에.
104003 # 그래서 그 우로 가게 되어 이서. 일로 만약에 그 베가 느지면은 한줄
속웁으로 강은에 심는게 경해가민 벳가 개여, 개여. 쇠 코뜰레에 묶으지 안해영은
사나운 쉼는 버쳐. 계난 사납지 아니 현건 빨로만 묶어도 되곡. 으려, 쫓쫓. 영허멍.
104003 @ 순한 건 경해도 되는데.
104003 # 으, 되는데. 사나운 놈은 코에 꿰어야 되어. 그냥 꼬서 가부는 수가 이
서.
104003 @ 코 팽겨지게 아프게예?
104003 # 으, 으. 아프게. 계난 맥을 못 쓰게.
104003 @ 이거는 뭐짜?
104003 # 거, 접퀴, 멩에.
104003 @ 멩에예?
104003 # 으. 이디 접퀴끈도 이서야 되고.
104003 @ 접퀴.
104003 # 접퀴끈도 해사. 겐디 이 낭도 부드러운 낭. 요즘이른 버드나무 같은

거.

104003 @ 아, 부드러운 걸로.

104003 # 으거 불러 구워근에 양 으걸 멘됩니다. 근데 쇠가 하루종일 하면은 양 독을 썬어서 여기 붓는 수가 이수다.

104003 @ 아, 기구나.

104003 # 게난 붓지 아니 하기 위해서 균을 죽이는 거라. 불을 떼어.

104003 @ 아...

104003 # 여기 불 떼영 으기를 막 익혀. 으기가. 무척대고 멩에가 되는 게 아니 우다.

104003 @ 하.

104003 # 이 멩에가 다름이 춤 못졌답주게. 뽕현 나무해영, 웬만한 쉼해영 잘못 하당 밧 갈아나문 게난 언제나 이진 꿈을 불라야 돼. 꿈을.

104003 @ 쓸어?

104003 # 열에 열 번 쓸어주지 안해영은 여기 균이 생경은네 허민 쇠가 이만이 부서불어. 게난 열에 열 번 우리가 꿈을 불랑 쓸어줘야 되어. 밧갈젠 허면은 이걸 풀어가지고 (침을 손에 뱉어서) 응해가지고 언제나. 열에 열 번 안쓸민 주녕이나 베 영 끝은 거, 개우리나 기어나면은 뒤턱에 그냥 부서불어. 쉼.

104003 @ 음, 음.

104003 # 뽕광은 틀립니다. 뽕은 점케를 하기 때문에 뽕은 아이 붓는데 쉼은 열에 열이븐 부서불어.

104003 @ 쇠 멩에에 하는 거예?

104003 # 예. 멩에에 하는 거. 그거 춤 과학자도 몰라. 흥여 보지 안흔 사름 외에는.

104003 @ 뽕이렌 허는 것도 이수과?

104003 # 뽕이엔 하는 거? 그건 이 구조에는 엇고. 이땅 보섭이 빠집니다. 흘락 흘락.

104003 @ 예.

104003 # 흘락흘락허민 그레 빠지지 않게끔 그레 쫘 낭깍질이나 뽕행은에.

104003 @ 아하.

104003 # 납작한거 해영 뽕을 쉼 보섭을 박읍니다.

104003 @ 꺾차게예?

104003 # 으, 꺾차게. 게난 그게 뽕인데. 게난 가당 그 뽕을 아니주면 보섭이 벗어부는 수가 이서. 게난 그 뽕을 쉼은에.

104003 @ 아하.

104003 # 이것도 돌멩이로 못 모습니께. 낭또막행은에 이게 무쇠라노니까. 낭또막행은에 톱 박아사주. 경 안하면 타져부니까.

104003 @ 여기 설칫 옆에 이것도 뽕인가 마씨?

104003 # 그것도 뜬. 이게 오래가민 설치가 올라내력 올라내력 해여. 경허난 밧
갈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감구나 허민 여기에 나무떼기 해그네 양, 양골데 고
정시켜부는 거.

104003 @ 흘락흘락 안 허게.

104003 # 올랐다 내렸다 안허게.

104003 @ 아하.

104003 # 이런 건 기본에 아니 들어간 거난. 이걸 상관이 어수다만은.

104003 @ 잠대 말랑 다른 데 고정시키는 것도 뜬이렌 합니까? 물건 흔들린 때
받치는 것도?

104003 # 그런 건 새역이렌 허주. 세역.

104003 @ 세역.

104003 # 뜬을 집어 넣는 것이 세역.

104003 @ 뜬을 놓는 것이 세역마씨?

104003 # 으, 세역. 그게. 잠대에도 다 세역.

104003 @ 이것도 세역이렌 곱아마씨? 아하.

104003 # 으으. 뜬을 흐는 걸 세역이라.

104003 @ 아, 뜬하는 것이 세역마씨?

104003 # 세역이엔 해여.

104003 @ 어느 게 뜬이파?

104003 # 뜬이엔도 허꼭 세역이엔도 허여. 지금이나 뜬이지, 옛날엔 세역이엔
허연.

104003 @ 아.. 뜬이 세역.

104003 # 세 주는 거.

104003 @ 옛날 말로 마씨?

104003 # 옛날 말로 세역. 요즘은 뜬. 뭐 움직여 가면 뜬 쥐봐, 뜬 쥐봐, 시방은
허주만은 옛날엔 그 세역!

104003 @ 아, 세역.

104007 @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 그놈의 질메... 그 질메엔 현게 꼬부랑 현거 두 개라.

104007 @ 꼬부랑 한거?

104007 # 질메가지가 두 개라. 그 다음에 도곰이 이서.

104007 @ 도곰.

104007 # 도곰이엔 현건 그 윗이 넘어지지 못하게 특하는 도곰. 그 우리가 산디
짚으로 짚니다.

104007 @ 산디짚으로.

104007 # 도곰을 짜면은 뒤 고들게라고 뒤 고정시키는 게 이수다. 고들게라고.

104007 @ 고들게.

104007 # 이거 이거. 이게 뒤 고들게.
104007 @ 뒤고들게마씨?
104007 # 뒤에 갖당 이걸 탁 붙정.
104007 @ 그른 지금 소머리가 여기 이실거 아니짜,
104007 # 소머리가 여기 이시니까 이진 뒤에 고들게 끈 해영은에 특하게 강알로 강은영에
104007 @ 아.
104007 # 강알로 강은영에 이걸로 야가지 우터레나 이 읍더레 잘라 뻬니다. 게난 요것만 우터레 올르지 안허게.
104007 @ 음.
104007 # 요거 우터레 올라노민 풀리에강 좁져 노민 쇠가 들력키는 수가 있어. 게난 풀리 밑으로 행, 요정도 행 느려가도 안 하고 올라가도 안 하게 해영 기자 이진 힘이 아이 드는 거난. 그건 고정시키는 거라.
104007 @ 질메 가지는 이름이 따루 이수짜?
104007 # 에 기냥, 앞 가지 뒷가지. 그냥 질메가지 멘드는 방식만 틀려.
104007 @ 음.
104007 # 이진 조금 높고 이진 알고.
104007 @ 높고 알고. 이게 도곰마씨?
104007 # 도곰.
104007 @ 이 옆으로 이어진 거 뭐마씨?
104007 # 요것이 도곰착. 도곰 받침대.
104007 @ 어느 것이 도곰 받침대마씨?
104007 # 흐나는 도곰착이엔 하고 이거 두 개는 도곰이엔 하곡.
104007 @ 아...한 착씩!
104007 # 으. 두 개 다는 도곰.
104007 @ 그른 이진 마씨?
104007 # 저, 게난 이진 도곰대엔 허는데...
104007 @ 도곰대. 가지 받치거예?
104007 # 응.
104007 @ 이 구멍으로 지나가수게.
104007 # 이진 오랑코하는거.
104007 @ 아, 오랑코.
104007 # 이거 영행 일로 해당은에 박 좁아댕정 이걸 묶어야 여기에 짐을 실러도 넘어나질 안 해여. 이게. (사진을 가리키며) 이진 걷는데 균형을 잘 잡으려서 으속웁으로 오는 거고. 으거 도곰코는 이디 영행 딱 묶어노민 넘어나질 안 합니다.
104007 @ 배에 묶끄는 건 뤼렌 해마씨?
104007 # 건 오랑.

104007 @ 그게 오랑마씨? 요거 끈달린 거마씨?

104007 # 으. 끈 달린 게 오랑인데 오랑코가 있주. 오랑코는 윤유리냥으로 센냥으로 이렇게 냥으로 멘듭니다. 동그랑허게. 멘들라서 여기에 미베로 행 장착시키민 저착으로 오랑을 메나, 이착으로 오랑을 메게 되민 거행 밖 좁아 땡기민 양 그 동그랑헌게, 냥으로 멘든 고리가 시방이민 기계로 동기다지만 그때는 사람냥으로 동겨도 꼬아지지 안해여마씨. 경해서 이걸 오랑코라고 험니께. 오랑끈으로 강알로 넘어왕.

104007 @ 이 뒤에 끈들도 이름이 따로 이수파?

104007 # 이것도 그것에 마찬가지로. 끝은 거.

104007 @ 고들게에 연결하는 이런 거 이름은 따로 어수파?

104007 # 야, 이게 고들게인데, 고들게여 고들게 끈이여 하는디 이게 별로 움직이질 안합니다. 이걸 알로만 고정된거난. 요게 벗어지면은 머리착더레 가 붙주게. 이게 어시면은.

104007 @ 그럼 질메하려면 이걸 올려 놓고 그 위에 짐을 올리는 거지예?

104007 # 야.

104007 @ 짐을 통째로 싸는 베는 뭐렌 헤마씨?

104007 # 아, 그거 짐베, 짐베.

104007 @ 그게 짐베. 짐 놓고 싸는 베.

104007 # 쇠 질메 짐베 아저오라, 영혜영은에. 게문 흔 댓베씩 되는 거주게. 이게.

104007 @ 질메 베. 물건 감았다가 풀 때는 마씨?

104007 # 풀 때는 또 그 식으로 원상으로 돌아가면 딱 풀어지게 되는 거.

104007 @ 예, 예.

104007 # 근데 출짐은 양 거 다 풀었다고 한번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 출이 40물씩 한 발인데 40물씩 실으는데 요만씩한 출. 잡초 빈거.

104007 @ 예.

104007 # 건 게난. 한쪽에 서른 물씩 한 발이면 한쪽에 열 다섯 물씩인데 세 단 계로 나눠 싣습니다. 제일 첫 번에 다섯 물씩 묶어넣, 베를 홀타. 쇠질메 쇠악베로 혜영은에 짐 싣그는 베로 피엇당 올로 디물양 다섯물 실러넣 또 요레로 가서 등겨. 그문 요거 다섯 물 고정. 또 다음에 다섯 물, 다섯 물 심어넣은에 마무리 됩니다.

104007 @ 차례차례로예?

104007 # 으. 그거 한번에 실르는 게 아니라. 이 쇠질메예.

104007 @ 음.

104007 # 야, 야. 두 번, 세 번에 실러. 이 출 끝은 거. 게난 쇠앗베주, 쇠앗베. 짐 싣그는 거.

104007 @ 쇠앗베.

104007 # 쇠질메 베가 아니고 쇠앗베주.

104007 @ 쇠얏배. 쇠 등에 저걸 바로 올려 놓습니까?

104007 # 아니, 깔민 쇠등멩이 벗어지카부덴. 시방이난 깔암지만은 옛날은 양 산디짚으로 특히나 뜯거는 안 합니다. 산디짚으로만. 벗짚으로만.

104007 @ 음, 예.

104007 # 야, 벗짚이 독이 없다는 거라. 게서 벗짚 북삭지는 거. 벗짚. 헤벤은 보리짚.

104007 @ 아, 여기는 산디짚. 헤벤은 보리짚.

104007 # 이디는 산디짚.

104007 @ 산디짚.

104007 # 야, 우리가 곤는 대로 산디짚. 게난 헤벤이 이걸 구하지 못하면은 산디짚 구하지 못하면은 그자 보리짚으로 짜그넵에 허는 거.

104007 @ 아...

104007 # 게난 논는다 게 어수다. 등멩이 벗어지지 안 허게 북삭한 담요. 아이고 오줌이주. 북삭한 담요 깔앙 허민 말이여 짐승도 호강이주만은 아이고...

104007 @ 옛날엔 그런 거 어서난예.

104007 # 그때는 양, 등멩이 벗어지면은 프리, 농 앓앙양, 아이고.

104007 @ 아이고. 그때 그거 낮게 허젠 허민 어떻습니까?

104007 # 그 때 약은 양, 그때 약은 뭐 그자 썩예?

104007 @ 속?

104007 # 야, 속. 그거 아정하고. 또 죄약들도 다 잊어불언. 프리 프리대로 하곡. 그 때 약이엔 허는 게 그자 오줌같은 거예.

104007 @ 아.

104007 # 석은 오줌같은 거 해당 손으로 딱딱 두르립니다. 그레 해당 딱딱.

104007 @ 예.

104007 # 게민 프리도 아니 앓곡. 그기 물만 아이 들면은 혼 이 삼일이민 딱지가 입어.

104007 @ 아...

104007 # 꺼풀이. 쟁허그네 일을 아니 허면은 다행이지만 은 그렇다고 그 혼 메칠을 그 일을 안 시킬수가 엇다 말입니다.

104007 @ 예.

104007 # 겨문 또 뒤집어져. 또 헛사지면 또 오줌 해났당 그레예 강 딱딱 두드리면 프리는 제거해여. 프리.

104007 @ 예.

104007 # 쉬프리는 또 더 더러운 것들. 경헤그네 그 약이엔 현 게 어서수다. 옛날은 양 그 옛날도 아편은 이서실거우다만은 우린 그런 걸 구하지 못해십주.

104007 @ 아, 예.

104007 # 두린 애기도 설사나민 그 산디짚 술앙은에,

104007 @ 아...

104007 # 산디짚 술양. 두린 애기 설사해나민 맥이멍 해나수다. 개영.

104007 @ 아, 개영.

104007 # 개영. 그 불치를 수저로 막 개영.

104007 @ 물 호꼼 낱마씨?

104007 # 응. 물 호꼼 낱은에 개영은에. 할마님 조순, 좋은 약이엔 허영 이 조순, 기자, 설세여 굿인 티, 굿인 가시 몬 걷어 줍서양.

104007 @ 아...

104007 # 삼신할마님허멍. 영어멍. 경허난 나 손은 약손이라 나 손은 약손이라. 바로 그거 시방이나 마찬가지. 의사도 인연에 맞는 의사가 명인이고. 아무리 명인이 라도 인연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거. 옛날도 그 아흐들 키우는 데 대개 경허멍 키와 수계. 그때는 조금만 허민 나아수다.

104007 @ 음.

104007 # 경헌데 그런 식으로 산디짚 이거 짜는 거, 술양은에 맥이면 뽕이 나야. 그거 신기헌겨주. 중간에 속이 낫주. 썩.

104007 @ 아, 아.

104007 # 그거 백기 어서수다. 게난 양, 하...

104007 @ 쇠는 겨울엔 집에서 나고 봄 나면 산에 가고 해나수파?

104007 # 야. 봄 나민 산에 올리곡.

104007 @ 봄 나민 마씨?

104007 # 야.

104007 @ 그건 누게가 관리합니까?

104007 # 관리라는 게 거우다. 바령도 중간에 해낫주. 첫 번에 해난게 아니우다. 게난 소 임제는 무조건 소를 방목행 내뵈니께. 사월절 입하가 되면은 소가 닷 되를 뜯는답니다. 출을. 물은 혼 말을 뜯곡. 경해서 입하 사월절이 되면 소나 물이나 들로 나갑니다.

104007 @ 예.

104007 # 경허면은 이 저울 농사 소서가 되면은 관리인들이 모두 관리를 해야 되여. 관리를 안하면은 여름 농사 지은 곡식들 몬 먹어분다 말이우다.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소를 혼 삼 사개월, 게니까 오월달이나 유월달에 소서가 들면은 여하튼 십일월 달이나 십이월 달 나면은 소 임대료를 받았 먹을 곡식을 받았은에 모두왕 ㄱ꾸는 사람이 이서수다.

104007 @ 아...

104007 # 그 사람이 있는데 게서 만약에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한 되민 한 되. 한 삼 사개월 동안 전부다 모두왕

104007 @ 봐 주는 거파?

104007 # 경 모두왕 ㄱ꾸는 사람이 있곡. 순번대로 이 부락에서는 순번대로 돌

아가명 거 맥이곡 밤에 어디 강 메웁곡 하는 뭇이 있는데 그 전업으로 바령하는 사람은 송당사람도 몇 사람 하당 죽어불었는데, 하도, 종달, 저 어디 연평 할 것 어시 구좌 쇠를 막 주문을 해영양 뭇 험니다. 그때는 양식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모아 근에 바령 밧디 바령을 들이곡. 바령을 들영 전업으로 쥐 버리곡. 또 모두왕 부락으로 하는 건 바령이 아니고 머쇠라고 해서 쇠가 밤에 풀을 먹일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좋은데 아니면은 밤에 출이 어서도 데왕. 밤에는 데우면은 사람도 아이 갑니다. 건.

104007 @ 아까 뭐마씨?

104007 # 도망가지 못하게 담을 다 추리는 거라. 쇠 에운 밧. 그 밧을.

104007 @ 예.

104007 # 경허난. 그 뭇날 아책이 또 일찍 갑주. 또 다른 당번이. 혹시나 쇠나 튀어 나와 어디 구석방에 들어신가 해영 계난 그건 당번제로 곤곡. 바령이렌 하는 건 전업으로.

104007 @ 예.

104007 # 그 무신 득수아린가 시방이면 임대료주. 임대료.

104007 @ 득수아리마씨?

104007 # 득수알. 품 받는 것이.

104007 @ 품 받는 것이...

104007 # 쇠 하나에 얼마해서.

104007 @ 계난 쇠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

104007 # 근데 우리는 안해부난... 그 당시에 쇠 하나에 보리 혼 관대가 되실 거 우다.

104007 @ 보리 혼 관대예?

104007 # 야. 경허난 그걸 서넉들을 보게 되난 잘허민 별방 곶은 디는 보릿고단 이니까 그런 일을 조금 한 사람은 후하게 주곡. 양 경 아녀면 보리 혼 말 정도.

104007 @ 예.

104007 # 쇠 서너 개, 댕 개 행은에 붙저근에 허민 말이우다.

104007 @ 예.

104007 # 계난 양 경허근에. 우수와, 옛날 해난 생각헤민.

104007 @ 여기는 마을에서 당번제로 헨마씨?

104007 # 야, 마을에서 당번제로. 계난 당번제도 구관이 이십니다. 이 동네 사람 당번제는 이 소시만 맥이곡. 저 동네 사람은 저 동네 소시에서만 맥이곡. 당번제로 해도 이 동네 사람이 저 위에 강 맥여가민 막 우스리 합니다.

104007 @ 아...

104007 # 막 싸움만들곡 욱질덜 허곡. 야.

104007 @ 하하하.

104007 # 어디든 그 지경에서만 맥여. 경허곡. 그 뭇해노민 먹을 게 어습주게.

밤낮 맥여노민 말이여. 게민 이 바령쇠라고 임대료행은에 모인 쇠는 밀려냥 저 오름, 저 높은 디....야, 별도로 그런디 가봅니께.

104007 @ 아...

104007 # 이 허허 별판엔 못 와. 그런 것들은. 개인 쇠들을 맥이기 때문에.

104007 # (그림 보며)하하하. 요거 산테도 나왔구나. 요건 산테주.

104007 @ 예.

104007 # 이 놈의 산테도 부출을 모르는 사람도 있관대. 요놈의 산테도 어서져 수다.

104007 @ 부출마씨?

104007 # 요거 산테 부출, 산테 살이곡, 요건 산테 죄우는 철사. 게도 요건 요즘 거로구나. 철사로 행 다 허곡.

104007 @ 하하하.

104007 # 철사가 어디셔서, 그때에.

104007 @ 철사 어실 땐 뭘로 해난 마씨?

104007 # 으? 이견 흘락흘락 해가민 조이는 거.

104007 @ 철사 어실 때는 뭘로 해나수파?

104007 # 옛날은 유름줄이라고.

104007 @ 유름줄... 이디 말로 뉘렌 험니까?

104007 # 유름줄... 종갱이.

104007 @ 종갱이 마씨?

104007 # 종갱이 줄. 그게 해당은에 허주. 이런 게 어디셔나서. 궂새 아까 제상 아이 볼데강.

104007 @ 봐수다.

104007 # 못 하나도 아이 들어간. 게난 못도 양, 귀해수다. 그 당시에는.

104007 @ 이견 이름이 뉘파?

104007 # 산테 살...

104007 @ 산테살은 다섯 개만 해야 합니까?

104007 # 아니, 다섯 개는. 네 개만 해야 하는데 다섯 개는 부출이 기니까 다섯 살을 하는데

104007 @ 보통은 네 개.

104007 # 으, 보통은 네 개. 경허곡 부출도 죄움는게 이쪽으로 죄움고 이쪽으로 죄움는게 이쪽으로 죄움는게 아니.

104007 @ 아...

104007 # 양쪽에 이게 빠지지 못하게. 원래는 이쪽으로 죄움는거.

104007 @ 아... 바깥으로.

104007 # 다섯 살 안해영. 넷 살만 해영.

104007 @ 넷 살만 해영...

104007 # 으.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 하하하. 몰도 그게 참. 명칭이 상당히 으라 가지라. 계난 요즘 사람들 보면 제멋대로들 곤는 거 닳아고라. 그 색 가정 곤젠 해도 다 잊어불언.

104011 @ 색깔에 따라서.

104011 # 야. 색깔에 따라서 하는데. 총머리 일청춘이다 하는데, 예, 총머리 일청춘, 이가라, 삼적다 영해영 해 가는데.

104011 @ 예...

104011 # 예... 그라돌, 보라돌, 그놈의 색이 다 가정은에 크레용 가정은에 굿으면 하면은 이견 무슨 물이다, 무슨 물이다 아는데 시방 그라돌이렌 해도 분간을 못하거든. 야?

104011 @ 그냥 거멍헌건가 험니다.

104011 # 가라돌이나 적다물은 분간이 되는데 율라같은 것도 분간이 되는데

104011 @ 색이 다 다르구나예?

104011 # 색이 틀린 거 마다 명칭이 다 따로 있어.

104011 @ 아...

104011 # 크레용이 시방 저 집이 신가? 아, 엇다....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2 # 총하고 갈기렌 하는데

104012 @ 총하고 갈기.

104012 # 으으. 총돌, 갈기... 희면은 백메세키여, 무신 백메여 하는 거주게.

104012 @ 예.

104012 # 계난 이 몸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 그런데 간전이 하고 테상박이가 또 틀려.

104012 @ 간정이... 간전이.

104012 # 으. 멘박에 길게 희명한 거 내려온거. 또 그리고 점 하나 있는 거, 거 틀려 다.

104012 @ 테상박이가...

104012 # 으. 점 하나 이신거고. 이렇게 느려온 건 간전이고.

104012 @ 간전이, 테상백이, 예?

104012 # 예.

104012 @ 그럼 붉은 말은 무슨 거렌 헤마씨?

104012 # 그건 적다.

104012 @ 그건 적다... 그 다음에 얼룩한 건 마씨?

104012 # 그건 율라돌.

104012 @ 율라돌. 갈기는 검은 색, 배는 흰 색은 마씨?

104012 # 갈기는 검은 색?

104012 @ 예. 배에만 흰털 이신거...

104012 # 배에만 희곡... 그게...

104012 @ 그믐 유마는 어떤거파?

104012 # 그 유마엔 흰 것이 여러 가지 잡등이가 된 것을 유마엔 허는 거주게.

104012 @ 아, 잡등이를.

104012 # 으, 여러 가지주게. 으. 오유마라고.

104012 @ 예.

104012 # 그게 오유마에 들어가.

104012 @ 음.

104012 # 고라뿔, 그 다음에 마라뿔들 영혜영은에.

104012 @ 음.

104012 # 마라뿔은 또 갈색에서 또 좀 진해분 거.

104012 @ 털이 갈색에서 진해분 거.

104012 # 뿔이 또 천상백이가 이서. 천상불이.

104012 @ 천상불이마씨?

104012 # 천상불이라는 것은 사름에 이익을 안 주는 거.

104012 @ 아...

104012 # 이익을 안 주는 말. 뿔이 영 오그라진 거(얼굴을 가리키며).

104012 @ 오그라진 거.

104012 # 경허곡 또 간전이 있잖아, 간전이.

104012 @ 예, 예.

104012 # 간전이에 도 대가 이서야 돼.

104012 @ 대?

104012 # 대라는 것은 이것(얼굴을 가리키며)에 표퍽 나면은 테상백이든, 간젠 이든 대가 어성은 사납나고 해서, 사름에 이익을 안 시킨다고 해서 양, 그건 대릅니께.

104012 @ 대는 뭐마씨?

104012 # 나쁘게 본다. 대 본다는 건 나쁘게 본다.

104012 @ 예.

104012 # 나쁘게 보는데 이것에 영 흰 놈이나(손으로 얼굴 위에서 아래로 무늬를 만들 듯 하면서) 여기 텍상백이가 이신 놈은 다리나 저 벳땀기에 흰 게 대가 이서야 돼.

104012 @ 아, 같이...

104012 # 으. 같이. 하나가 점이 꼭 이서야 돼. 하나만 이서는

104012 @ 아, 얼굴에만 이서든 안 되고 다리나 배에 이서야 해마씨?

104012 # 으으. 배에 있든가, 갈기에 있든가,

104012 @ 갈기에 있든가...

104012 # 으. 그건 대가 이서야 사름에 이익을 주는 거지. 흥나만은 절대 사름에 이익을 주는 예가 업서.

104012 @ 사름에 이익을 안 주는 들은 어떻 해봅니까?

104012 # 천상불이라고 이 주둥이 오그라진 게 이수다.

104012 @ 예예.

104012 # 대개 그런 들이 어떤 들이 나오냐면 종내기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그라몰이라고양 그라몰이 좀 사나웁니다. 색이.

104012 @ 예예.

104012 # 그게 갈색에서 좀 진한거라.

104012 @ 갈색말. 등이 굽은 말도 이서마씨?

104012 # 야야. 곱새마.

104012 @ 예. 곱새말.

104012 # 곱새마...

104012 @ 이건 어떤 들이파?

104012 # 으, 이거 적다윰라. 꼬리도 희곡 어디도 희곡헌거. 적다윰라.

104012 @ 이건 적다윰라. 이건 마씨?

104012 # 으. 이건 가라윰라. 이추룩 대가 이서야 돼. 어디든지 점이 이신건 윰라몰이라.

104012 @ 점이신 건 윰라몰.

104012 # 원래 윰라몰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윰라몰이라.

104012 @ 예예.

104012 # 이것이 그라몰인 거 님은 게. 이것이 성격이 날카로와.

104012 @ 음... 그라몰.

104012 # 이건 적다몰이고.

104012 @ 예, 적다몰.

104012 # 게난 이디 검은 건 가라적다렌도 허곡.

104012 @ 아, 예. 가라가 검은 거렌 허는 거구나예.

104012 # 아까 점 찍어진 거... 저것이 뭤헐 허드라만은. 무신 몰이렌 허라만은. 하...

104012 @ 이거마씨?

104012 # 이거 노린털 이신거지?

104012 @ 예.

104012 # 이건 그라적다엔 허는 거. 이것도.

104012 @ 얼룩덜룩한건데 마씨?

104012 # 얼룩얼룩한 건디. 그라적다, 저건.

104012 @ 예.

104012 # 게난 여기 코에도 이거이거.

104012 @ 예.

104012 # 이게 여기에 대가 어서는 물이 사나왕 물이 뭐 언넨 해여. 질루질 안 현뎨 허는 거라.

104012 @ 음.

104012 # 겐디 주둥이 영 오그라진 게 이습주. 주둥이 오그라진 건 또 천상불이라고 해서 사람 물물 잘 물어.

104012 @ 예? 주둥이 오그라진 게 천상불이.

104012 # 야, 천상불이라고.

104012 @ 이건 마씨?

104012 # 이건 좋은 거라. 앞발도 대가 이시니까.

104012 @ 얼굴에 얼룩한 건 간전이고예?

104012 # 으. 주둥이 오그라진 천상불이가 이습니다. 그런 건 질루질 안해여. 집에서.

104012 @ 이건 뭐짜?

104012 # 이것도 다 마라물.

104012 @ 마라물.

104012 # 검은 빛에서 노린 빛 나는 거는 가라유마엔 허는 거.

104012 @ 섞이는구나. 검은 색이 가라구나예.

104012 # 으으.

104012 @ 누런 빛이 나는게 마라.

104012 # 누렁하고 아주 색이.

104012 @ 들렁물은 뭐 마씨?

104012 # 들렁말이?

104012 @ 예.

104012 # 해해. 들렁말이는 물 시방 호마들 있잖아. 그거 들렁탕 들렁탕 타민.

104012 @ 아, 그제 들렁말.

104012 # 으. 들렁말이엔 허는 거주게. 일청춘이엔 허는 게 옛날은 물이 순하니까 그거는 사름으로 제마를 만듭니다.

104012 @ 제마.

104012 # 제마를 멘드는데 아주 일류 마상들은 멘드는 데 우리같은 놈 무꾼은 양 무척대고 고삐를 눌혔다 조였다 하는 기술을 못허여, 우리는. 예. 떨어져붙여. 마상 물 잘타는 분들은 그걸로 조중하명 물 자국을 일정하게 놓게 만드는 거우다. 그제. 경허면은 그건 차 탕거나 마찬가지. 울리질 안 해여.

104012 @ 음.

104012 # 들렁말이라 한 것은 호마 쯤 타근에 들당 보민 들렁탕들렁탕 허민 그것에 좇이 안 맞이민 털어져부는 수가 이습주게. 계난 들렁말이렌 현거곡, 그건.

104012 @ 아, 예. 우리 조랑말이렌 하는 건 무신 말이짜?

104012 # 그건 제주도에서. 물골에서 들어온 제주도 말로 현지에서 나온 겹주. 그 전이 조랑말이엔 현 게 어서수다.

104012 @ 아, 기구나예. 무신거렌 글아수파?

104012 # 기자 물.

104012 @ 그냥 물마씨?

104012 # 으으. 쟈통이. 죽은 건 쟈통이.

104012 @ 쟈통이?

104012 # 뭇생이 죽은 건 쟈통이. 못났다는 말입주양.

104012 @ 쟈통이마씨?

104012 # 으. 쟈통이. 게난 우리 한국어로 그걸 써지쿠과?

104012 @ 뭇생이 보다 죽은 거마씨?

104012 # 으. 아주 못난 거.

104012 @ 쟈통이. 못난 거... 죽은 게 아니고마씨?

104012 # 작고 못난 거주게. 어떻든 간에. 꼬 글이 낭 해도.

104012 @ 아...

104012 # 아팠은에 줄이청 얼떡어부나, 젓물이, 에미 젓물이 황당하면은 꼭 글은 동기들에서 떨어진다 말이우다. 경허면은 에이 저, 얼룩췌, 예를 들어서 저 얼룩췌, 습췌 저 새끼, 저 쟈통이 췌 새끼도 쟈통이. 물 새끼도 쟈통이.

104012 @ 아...췌도...

104012 # 요즘 아이들 쟈통이엔 허면 모른다 말이우다.

104012 @ 게난마씨...

104012 # 제일 못난이가 쟈통이.

104012 @ 쟈통이...

104012 # 야...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13 # 물은 구루마도 옛날은 어서수다.

104013 @ 그믐 뒤에 써마씨?

104013 # 질베로 지어 날랐지.

104013 @ 물질메마씨?

104013 # 물질메도 이섯주마씨. 물에도 지와.

104013 @ 소질메하고 틀립니까?

104013 # 물도 똑같은 거.

104013 @ 똑 같은 거.

104013 # 물은 왜정시대에 구루마가 나온 때에 물을 메어십주. 경 안헌뎌 물도 질메.

104013 @ 예.

104013 # 보리밭 강은에 뽕곡. 그 놈들이 그놈이주, 원.

104013 @ 하하하.

104014 @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4 # 계난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면은 스물 아니 말이 삼십년도 삽니다. 계난 삼십살까지는 장팔수라고 합니다.

104014 @ 한 살은 마씨?

104014 # 혼 살은 금승. 송아기도 금승. 똥생이도 금승.

104014 @ 송아기도 금승, 똥생이도 금승.

104014 # 야야. 하하하.

104014 @ 경행 이수, 삼수, 사수...

104014 # 물, 물에만.

104014 @ 팔수 이후로는

104014 # 다 장팔수. 경만 해불민 되는 거우다. 스무 살, 말이 삼십 살이 되어 도. 말이 삼십 년은 산다는 데 삼십 세까지는 다 장팔수. 겐디 니빨이 이수다. 니빨 이.

104014 @ 예예.

104014 # 전업자들은 그 물을 들렁 똥, 아 요거는 몇 살까지쯤 되었다. 으답살 아래로는 다 판단됩니다.

104014 @ 이빨로 마씨?

104014 # 이빨 딱 걸엉 똥. 소도.

104014 @ 아...

104014 # 세 살 되면은 소는 니가 우알 두 개 두 개, 니 개가 빠져 붓니다.

104014 @ 아...

104014 # 경허민 사름이 너머 사기 시작하면 니가 돌아 와.

104014 @ 음...

104014 # 경허민 소는 아 이거 멧 습짜리, 멧 살쯤 되었구다.

104014 @ 아아...

104014 # 영 행 알아집니다. 우리도 이땅 쇠 장사도 할 때 보민.

104014 @ 아. 예.

104014 # 말은 기냥 니 돌습디다. 계난 계속 장팔수라.

104014 @ 아...이가 계속 다 나니까.

104014 # 물은 다 나니까.

104016 @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 맥이는 거 말이파? 그거 초식동물들이우난 양, 집에 똥 내불민 지네 므음 맞은 풀 먹는 겁주.

104016 @ 므음에 맞는 풀... 하하.

104016 # 사름이 맥이는 건 요즘 들어서 사료여, 무신 목초여.

104016 @ 겨울에는 출 해다 쥐야 할 거 아니파?

104016 # 아, 겨울에는 야외에 출을 빙니께. 비어당 그거 묶어당 운반해당 놓젠 허면은 만단 이만 당씩 눕니께.

104016 @ 못이렌 안 험니까?

104016 # 예. 만 못. 이삼만 못 눈는데.

104016 @ 헤...

104016 # 그 때 출 못을 혼 이삼만 못 늘어나면은 동무플 다 끊어져불어.

104016 @ 아이고.

104016 # 옷이 끈어지면 끈어지지 안허게끔 발레라고 이서. 가죽. 여기 동무플 에 끼는 거.

104016 @ 아, 발레. 뭘로 만들어마씨?

104016 # 가죽.

104016 @ 쇠가죽마씨?

104016 # 쇠가죽도 되곡 고냉이 가죽이던 뒤던 개가죽이던 몰카죽이던 가죽으 로만 멘드는 거. 또 창신이라고.

104016 @ 가죽신?

104016 # 가죽으로만 만든 쇠가죽, 몰카죽으로 멘든 창신이 이서.

104016 @ 예예.

104016 # 옛날에 우리양 멘발에 다녔주. 그런 창신 어서수다.

104016 @ 아...

104016 # 알암수파? 우리 앞서에 시방 혼 백오십술 나는 하르방들이 창신 신곡 발레 이딜 끼어십주.

104016 @ 예.

104016 # 우린 경끄지는 안 해서. 작업복이 나니까. 작업복 끈어지민 기자 끈어 지는 건가 했고.

104016 @ 아.

104016 # 옛날은 옷이 끈어지니까예. 무릎 바데했고. 들레 강 쇠가죽들이나 몰 이나 죽으면은 가죽을 털어 읍니다. 피기는 아지당 사름이 떡곡. 케민 가죽을 아지 당 발려, 소금해영. 막 발려행. 시방도 막 가죽 수입하는 거 보난 소금해당 막 발령 나옵디다만은 그 식으로 막 발렸당 이걸 송곳이 딸으는 늑슨 송곳이 이십니다. 송 곳으로 행은에 고망 딸양 발레를 끼곡.

104016 @ 예.

104016 # 창신을 신지 안허면은 그때 어디 경 양말이 이서수파.

104016 @ 계난 예.

104016 # 우린 맨발에 양 계속 땡졌는데 계난 경이나 안 허영은 출 이삼만 단 을 놓지 못험니께.

104017 @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 계난 출은 비는 낮이 이수다. 나발로 즈룩은 하나 되어. 혼 발 혼뽀이

되어.

104017 @ 아... 즈룩이예?

104017 # 즈룩이. 육지 사람들은 호미보고 제주도 호미보고 낮이렌 허는데. 지방도 저기 낮이 있는데 이수다만은 출 비는 것이 이만이 질어. 두 뿔. 두 뿔이라.

104017 @ 날이 마씨?

104017 # 으. 놀이. 이정도.

104017 @ 그게 그정도 해마씨? 해?

104017 # 거 대장간 가민 곶안강. 비는 거라.

104017 @ 사듬서?

104017 # 으. 사듬서 비는 거라. 지방. 낮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미시거엔 헐거 만은. 비어나수다. 그게양 놀이나 잘들곡. 출이나 좋은 디 가면은 양 사십뿔씩 한 발인데, 잘 비면은 백 이십단을 혼숨에.

104017 @ 아하...

104017 # 게난 보통 그 낮을 곰도 하루에 하루 낮 전 두 번 낮 후제 두 번.

104017 @ 오랫동안 같아야 되마씨?

104017 # 오랫동안 같아야 되어. 놀 나지 안허민. 오랫동안 곶아근앵에 가근에 잘 비면은 하루 삼십 뿔.

104017 @ 혼자만 뵈니까?

104017 # 아이 혼자도 비곡 여러 무씩 상은에 비어가가면 춤 즈미지주. 겐디 떨어지는 놈은 애 떡곡. 떨어지는 놈은 이레 미역, 저레 미역 하는 거라. 다들 이근역 들 해가당 내분것들 조름에 있는 놈들은 얼떡주게.

104017 @ 예예

104017 # 경허근에 두드려 패당 보민 낮즈룩도 다 귀영 해먹어볼곡. 따라가젠 허당 보민. 건디 것도 중간이우다. 중간. 하하하.

104017 @ 낮은 보통 때 쓰는 낮이랑 다르잖아예?

104017 # 으, 틀려.

104017 @ 이름 다르게 안 불러마씨?

104017 # 그냥 낮. 제주도선 낮. 출 비는 건 낮.

104017 @ 장낮이렌 안 험니까?

104017 # 장낮이엔 무시거엔 어수다. 이거주게. 이건 즈룩, 이건 낮늘, 이게 그 전부터 몇 백년부터 대장간에서 만들어 놓은 거.

104017 @ 여기 이름은 어수파?

104017 # 아이 그건 띠를 두르는 디. 빼지지 못하곡 혼글혼글 허질 말렌. 써가 른 움적이지 말렌. 그거 띠라, 띠.

104017 @ 띠마씨?

104017 # 으. 낮도 못 줍니께. 못으로.

104017 @ 이름은 마씨?

104017 # 이름은 딱로 어수다. 요즘 세상 나난 못으로 하는건데 그전에는 못으로 안 해수다. 대장간에서 딱 맞게 했는데 흔들어가민 나뭇가지나 뿔로 찢러냥 돌로 딱딱 박으민 든든해주게.

104017 @ 따로 굳는 말은 없고 마씨?

104017 # 그냥 세역만 박으라. 경해났주.

104019 @ 꼴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 쉼질메로 날란. 근데 혼자만은 못해. 뿔수 이시면은 들리. 이 사람이 다섯뿔을 붙지면은 이사람도 다섯뿔을 붙여줘야해. 빨리.

104019 @ 아.

104019 # 경 안허면 기울어져붙어.

104019 @ 출도 곡출이 따로 이수파?

104019 # 출이엔 현개 곡식에 그 저 짚을 현 것을 곡초엔 하는 건데 꼭띠짚이 렌 허주.

104019 @ 출 못하고 꼭띠짚 못하고 한 발이여 허민 그 양이 다릅니까?

104019 # 틀려. 다 틀려.

104019 @ 출은 한 발이 사십뿔. 헤벤이서는 삼십뿔을 잡읍니다. 헤벤이는 이 낮으로 비는 사름이 어섯어. 그냥 즈음이로만 전부 비었다 말읍니다. 헤벤은 삼십뿔이 한 발이고. 송당은 사십뿔이 한 발이라. 요 걸로 비어근에 묶으는 걸 봐봐야 희안헤여.

104019 @ 아...

104019 # 묶으는 걸. 이걸로 한 뿔 한 단 할 정도로 비어가민 요쪽으로 잡아 치는 거라예. 잡아치면은 또 그걸 비어서 모두왕 확 뒤집어. 뒤집어 놓으면은 그 제라하게 잘 비어 들어간 것은 깨끗하게 잘 비어지고 가운데 너덜거리는 게 엇곡. 즐바로 비지 못하는 사름은 그 속이 살아. 이쪽으로 비어가곡 이쪽으로 열 번, 또 이쪽으로 열 번 비어가면 가운데가 살아있어. 경헌데 그게 쪽 비어지면은 기술적으로 당겨내영 톱 뒤집으면은 묶으는 디도 막 수월헌데. 경 안행 개관으로 놓은데 그걸 모두왕 몰면서 묶으젠 허민 시간이 많이 걸려붙여.

104019 @ 아.

104019 # 계난 이 낮으로 빈 것은 확 견영 묶영 던져 불기 전까지 묶으는 사름이 이서나서.

104019 @ 아...

104019 # 그렇게 동작이 빨라. 하루 몇 백뿔 씩 묶영 돈도 벌곡 허는 사름들이 이서나서. 우린 군대가부난 몰랐지만 이 낮으로 출을 비는 사름들은 기술자라나수다.

104019 @ 예.

104019 # 우리 할망도 모든 것을 남한테 떨어지게 안 해봐십주. 팔십 넘어도 일이 안 떨어져. 오늘도 노인회관 가난 ‘할망 일갔지?’ 허난 ‘야.’ 했주. ‘잘도 땡겨.’

경들 허는데 오랜만 허난 어땡.

104019 @ 일을 꼼꼼하게 잘 해부난.

104022 @ 뽕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 지들커? 해남 뿐이파. 지들커들은 다 알았구나.

104022 @ 예.

104022 # 하이고. 그게 다 등짐으로 다 지어와수다. 척쇄에 쉼 출리지 안 허고. 구루마쇄가 경 믹음대로 아니 되나수다. 경해도 중 이상 중하에서는 쉼물도 경 어서수다.

104022 @ 다 등에 지영.

104022 # 등으로 지영. 나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나 일곱 살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데 어머니 슬하에서 살았는데 지들커도 등으로. 먹을 것도 등으로 지영. 뭐이든지 어깨로 실어 날아야 돼.

104022 @ 지들커는 뭐뭐 해나수파?

104022 # 지들커는 우리 뽕감인데, 검질게. 그 당시에는 그 비질 안해영 간세로. 낫 안허민 못 비니까. 벌초 안헙니까 양. 벌초해나문 그걸 묶어.

104022 @ 묶어왕.

104022 # 그것도 사람마다 좇아노난 어서. 영 뺑 어느 산이 벌초허렌 왔다 허민 영 샳당 널어야 돼. 널면은 늘것보다 가볍다 말이우다.

104022 @ 아...

104022 # 그런 건 안 가져가. 아, 사름이 이권 관리를 했다, 행은에. 겨곡 벌초 해낭 무드락 무드락 담 뺏기더레 내친다 말이우다. 내치지 안 헌건 누가 관리 안 했다. 그건 그 다음 사름이 봉그는 거라. 봉강 호미로 강 몬 널어.

104022 @ 예예.

104022 # 널었다. 묶어야 돼. 베 가져강 묶어놔 지어 아정 가는 거라. 놀어 났당 비가 올 때는 놀에서 아정 불을 짓곡. 날 좋은 때는 그자 그당시에는 나무도 양 웬만한 거는 나무를 때는 데, 급하게 밭허젠 하는 거는 나무를 아니 뺏니다. 그냥 검질로 아정 와랑와랑 슬아서. 낭 곱은 것은 무신 양 떡 곱은 거나 빙떡 지질 때. 달 게도 안 허고 적게도 안 허고 적당하게 할 때. 그런때 써나 수다. 급하게 불을 쓸 때는 검질로 와랑와랑 슬아수다.

104022 @ 낭 허레도 다녀나수파?

104022 # 낭허레 양. 육이오 직전 끝나네, 아이고 그말을 곱이민.

104022 @ 낭 해당 풀기도 허곡마씨?

104022 # 낭을 풀레 땡겨수다. 우리가.

104022 @ 기파?

104022 # 우리가 먹을 것도 엇곡. 허난에 낭을 해당 났당. 군대 제대행 오난 60년대, 70년대... 60년대 스시로구나.

104022 # 쇠 시른 쇠구루마 꼬성 가곡, 물 시민 물구루마 꼬성 가곡. 아이고 춤.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 쇠똥, 말똥도 주워 해난마씨?

104023 # 야. 마똥, 쇠똥은 우리 화덕에 붙은 아니 떼어 봐수다.

104023 @ 예.

104023 # 왜? 온돌 양.

104023 @ 예, 예.

104023 # 온돌. 온돌에서 검질하고 낭을 하면은 화재에 위험해여. 화재예.

104023 @ 아...

104023 # 위험하기 때문에 말똥하고 쇠똥은 소리없이 불이 붙드는 거우다. 소리 없이.

104023 @ 예.

104023 # 불이 뭐 나올질 안 해여. 그믄 말똥 강, 또 날 좋으민 양, 그걸 강 구루마를 출렁 가나, 사람이 강 좃엉 지어 와야돼.

104023 @ 어.

104023 # 갹 굴목에 잔뜩 비와.

104023 @ 예.

104023 # 비우면은 그 온돌에 저, 계난 어머니쫘은 일허레 가불믄. 굴목에 불을 지드라 험니께.

104023 @ 예.

104023 # 불을 지드라 하면은 쇠똥하고 똥똥 막 관거 허당. 너미 괄아도 요건 빨리 타불여.

104023 @ 아...

104023 # 야. 빨리 타불면 계난 그때도 피를 쓰멍 젓잉 거영 서트명양.

104023 @ 아.

104023 # 젓은거영 서트명 발로 막 드믈리곡, 군대엔 험게 이수다. 군대.

104023 @ 예.

104023 # 군대 걸로 들믈황 지푸라기 행은에 불 노왕 불 흥쓸 불영 내불어 놔 두민 그계 열두 시간은 충분 가.

104023 @ 아...

104023 # 야, 야.

104023 @ 쇠똥, 말똥이 마씨?

104023 # 쇠똥 들른거나 똥똥 들른거나.

104023 @ 예.

104023 # 장작불보단. 이견 특이험주.

104023 @ 아...

104023 # 겨곡. 장작불 불치보단.

104023 @ 예...

104023 # 그 불 때논게. 그 뭇똥 쇠똥 굴뚝부치가 걸름이 걸어.
104023 @ 걸름으로?
104023 # 걸름으로.
104023 @ 아...
104023 # 모뭇 깔 때. 특히 그런 불치가 특흡주게. 계근에 그게 퇴비 역할을 많이 해수다. 옛날은.
104023 @ 예.
104023 # 그렇다고 해서 뭇똥 쇠똥 이성 밧디강 어디 경 다 뿌릴 수가 이수파?
104023 @ 음...
104023 # 야, 겨난.
104024 @ 술가지 굵으레 좇으레 다녀나수파?
104024 # 술읖은 요 중간. 저 헤벤에.
104024 @ 아...
104024 # 지들커 어슬 때.
104024 @ 이 동네는 경 안 험니까?
104024 # 이 동네는 경 안 해봐수다. 이 동네는 검질이 많으니까.
104024 @ 아...
104024 # 검질행. 수풀이 많으니까.
104024 @ 아.
104024 # 헤벤이는 혼 두어참씩 올라왕 그거 글쟁이로 걷영 답을 짓영 지게 지영 가야돼.
104024 @ 예.
104024 # 야, 밑에 사름들은.
104024 @ 이 동네는 그런 건 어서났구나예.
104024 # 야.
104026 @ 이 동네 솟은 해나수파?
104026 # 솟, 야. 솟 말엔 양. 헤벤 사름들은 솟은 잘 모릅니다.
104026 @ 예, 예.
104026 # 이딘 양, 저 대천동 우에 원땡이 드르 처남밧이라고. 곤지 안 험디까? 초기나무가 처남이라.
104026 @ 아 맞다. 처남.
104026 # 원쟁이 드르 처남밧이라고 저, 대천동 우에. 곶아도 위치도 잘 모를 거라. 모르는 데. 그 거기가 혼 백만평 더 되우다. 거기 들어갔당은 까딱하당 질 일러. 처남밧을 솟을, 솟장사를...
104026 @ 솟장사도 해나수파?
104026 # 옛날은 양 위신 상 고사리 장사, 솟장사를 천헌 걸로 봐수다.
104026 @ 안 좋은 걸로 봤구나예.

104026 # 예. 천한 걸로 봐네. 먹영 살젠 허난 고사리도 흐두근 허민 세화장에 강 풀곡. 솟도 먹영 살젠 허민 원쟁이로 처낭밧디 강 솟을 묻으면은 나다라고 이수다. 장호미양. 그때는 톱도 흔하지 안해수다.

104026 @ 예.

104026 # 요즘은 돈만 주민 흔했는데 나다로 하고 호미로 행 솟을 묻습니다. 나무를 잘라 낭을 요만씩 잘라. (삼십센티미터 정도)

104026 @ 요만치씩예?

104026 # 잘라 놔서 굵은 놈은 노면 젤 우에 갑니다. 제일 ㄱ는 놈은 밑에.

104026 @ 아...

104026 # 이 솟이엔 험게 우에서부터 불이 모녀 타붙여.

104026 @ 아...

104026 # 탕 알레레 가.

104026 @ 예.

104026 # 예, 겨난 그 솟 안 물어난 사름은 모릅니께.

104026 @ 솟 묻는 방법도 이수파?

104026 # 계난 묻는 게 바로 그거라, 요만씩씩 즈르면 한 삼십센티, 사십센티씩 자르는 거라. 이진 되도록 이면 쫄르게. 길면 잘 안되는 거라. 쫄르게 하는데 솟낭을 재웁젠 허면은 그게 좀 어렵지. 만약에 우리 서너니발 영 해영 기걸 재웁나 이거라. 재운다는 건 그 끈은 놈을 하나하나 세와.

104026 @ 세와마씨?

104026 # 으.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까지 넘으면은 우리 키가 모지런 흑을 못올려.

104026 @ 아.

104026 # 계속 최고 해야 삼단계를 올려, 나무를.

104026 @ 그 위에 흑을 올리거라부난 예?

104026 # 겨난. 나중에 흑을 올려야 될거라 부난예 낭을 피우는 디 일단계 돌아가명 죽 피어낭, 이 단계 돌아가명 피와. 피운다는 것은 낭을 조근조근 쌓은다는 말입주. 피우민 삼단계 까지 하면은 우리 키까지 된단 말이우다 양.

104026 @ 아...

104026 # 허면은 흑을 팡 올리게 되민 힘이 들어. 계난 삼단계를 넘지 말앙 걸몬 고아 논다 말이우다.

104026 @ 아..

104026 # 벙하게 고아 노면은 그 다음에 그 요즘은 비니루나 있나, 검질 어웁, 어웁 비어당 그 주위를 빙하게 막습니다. 흑 들어가지 못하게, 양.

104026 @ 이추룩 마씨?

104026 # 으으으. 저저, 저추룩. 빙 둘러낭 흑을 올리는 거라. 여기 돌 한도리 쌓앙. 흑이 넘쳐가민 두 도리를 쌓아. 삼단계 올린 건 다섯 도리민 됩니다. 돌이 이

정도 된 돌이면은.

104026 @ 아...

104026 # 계민 삼단계에서 그 다섯 도리를 쌓아야 돼. 다섯 도리를 쌓아야 경해야 일메타 오십 썸 남아. 그 남으면은 그걸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혹은 막 올린단 말입니다. 계민 그 검질양, 검풀이 다 가려집니까.

104026 @ 예.

104026 # 가려지면은 제일 첫번 쌀 때 구멍을 아궁이, 아궁이를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 첫번 쌀 때, 그 아궁이를 요즘은 기름이나 있나. 아궁에 싸아 가지고 중간엔 신착, 헌 신착양.

104026 @ 아... 초신마씨?

104026 # 초신 말양.

104026 @ 그냥 신발마씨?

104026 # 중간에 그냥 고무신착을 냈지. 그 전이는 양 남신 썸은 놉.

104026 @ 예.

104026 # 쟁 행 가운데 놔 냥 나무를 썬단 말이여. 나무를 싸면은 연통을 고망을 네 개나 세 개를 냅니다.

104026 @ 예.

104026 # 내면은 불 지르는 굵기가 별도로 또 이서.

104026 @ 아, 굵기가 별도로.

104026 # 야,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재우면은 여기에 불쏘시게, 불쏘시게가 들어 가는 거.

104026 @ 아, 가운데에.

104026 # 어. 계민 불쏘시게 들어간 후 그 구멍은 나중에 다 싸노민 그 고망으로 불을 지른단 말이우다, 양. 고망 연통이 다 이시니까. 쟁 그 고망으로 그 삭은 나무에 불을 붙여 늘 나무에 빨리 붙어 불민 사름이 애를 먹지 안 허는디.

104026 @ 예.

104026 # 그 노무 삭은 나무는 다 붙어 불곡.

104026 @ 야이는 안 타불곡. 하하하.

104026 # 야이는 아니 탕 애 먹어불여. 애 먹어부는 거라.

104026 @ 하하하.

104026 # 하, 요거 미칠 노릇이라. 그믄 또 삭은 냥 해당 묶영 또 찢립니다.

104026 @ 예. 또 찢러예?

104026 # 예. 계속. 야, 늘 냥 탈때까지. 경허면은 불써 늘 냥은 이 주위에 세운 것은 까는 준준한 거고.

104026 @ 예.

104026 # 우에는 막 굵은 거라 말이우다. 계민 이 화열로 우터레 불리 문여 올라.

104026 @ 아...

104026 # 올르면은 그 연기나는 거 알아집니다. 흑 우로.

104026 @ 예, 예.

104026 # 야, 거민 흑 우로. 아, 불이 어느 정도 붙어구나. 경허민 이제 그게 이십 사 시간을 기다려야 돼, 거기서.

104026 @ 음.

104026 # 그게 이땅 타가면은 숯이 되면은 흑 부덩지가 터지는 수가 이서.

104026 @ 아...

104026 # 터져 붙여.

104026 @ 그믐 어떻게마씨?

104026 # 터지믐 불이 확 올라와.

104026 @ 헤?

104026 # 불이 확, 올라오믐 그 저 불 날거 아닙니까.

104026 @ 예, 예.

104026 # 그런 것이 불안해서 우리가 숯을 묻으믐 거기 밤을 살아야 돼.

104026 @ 아...

104026 # 밥 행 먹으믐서.

104026 @ 집 지성마씨?

104026 # 자는데 그 불을 흑이 터지게 되믐 이만씩 터정은에 사름 애 맥입니다 게.

104026 @ 음...

104026 # 겨면은 그 검질들을 해다 놓읍니다. 어웁 끝은 거 비어당.

104026 @ 예, 예.

104026 # 구멍 막기 위해서. 불터지면은 흑을 지어 넣을 수도 없어.

104026 @ 터져붙어 마씨?

104026 # 터질게 아니고 속으로 흑이 들어가면은 숯이 몬 삭아붙여.

104026 @ 아.

104026 # 거기서 불 다 붙어붙여.

104026 @ 아.

104026 # 계난 되도록 이면 흑 놓기전에 검질을 몽크렁 확 담으믐서 흑을 올리는 거라.

104026 @ 예.

104026 # 검질에서 방비를 하는 거라. 경행 해야지 경 안하면 그냥 숯 몬 삭아 붙영.

104026 @ 아.

104026 # 그냥 재 되릅니다. 안네서 불이 살앙.

104026 @ 아...

104026 # 갱헤근에 이제 불 다 돈 줄 알면은 삼단으로 썬 걸 보면은, 내가 아궁이를 세 개, 네 개 내지 안 됩니까?

104026 @ 예.

104026 # 영 행 보면은 불이 봐져. 불이 보면은 아, 이쪽은 불이 돌았구나. 거기는 거즘 다 탔구나. 해영 검질 노명 막아가는 거라.

104026 @ 막아.

104026 # 연통을 못허게. 그 또 그게 똑같이 나오질 안 합니다. 저쪽건 혼 삼십분이면 나올건가. 혼 시간이든 나올건가. 빨리 행은 아니 됩니다. 혼 삼십분이든 굶기 세 개나 네 개 빨리 나오는데 경 안하든 혼 시간도 두 시간도 더 걸려볼여.

104026 @ 음.

104026 # 불이 우에서 즈근즈근 내령 불어 가나 크게 아니 불어불령은 막 그 시간 걸립니다. 뒷날도 아이 나왕 애 먹는데 영 보면은 또 불이 나와.

104026 @ 예.

104026 # 그거 허물멍 그 단이 허물어 가면 흑이 허물어질 거 아니파. 그믄 불이 별경해여.

104026 @ 아.

104026 # 별경하면 또 검질을 해서 또 담으멍 흑을 갖당 막 올려 놓는거라.

104026 @ 예.

104026 # 경 안 허면 불을 감당을 못해여.

104026 @ 아...

104026 # 흑 들어가면 아니 되어.

104026 @ 아...

104026 # 숯이 아주 재 되볼여. 흑에서 불 붙영은앵에 거기서 그냥 타부는 거라.

104026 @ 음.

104026 # 숯이. 야, 경해여근앵에 숯을 멘든다 말이우다. 멘들면은 바쁘면은 구덩이드레 구멍을 뚫병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104026 @ 불끄쟁마씨?

104026 # 빨리 이것을 풀양 고구마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우파, 양?

104026 @ 예, 하하.

104026 # 경허곡 경허지 안허는 사름은 이십사 시간이나 스십 폴 시간을 그냥 기다려.

104026 @ 음.

104026 # 기다리당 있당 보민 간혹 불이 이십니다. 가당 파당 보민.

104026 @ 아, 예.

104026 # 겨민 그 숯들이 경 잘 되어. 아무래도 물 준 건 빨리 나오긴 하는데 삭읍니다. 그 숯이 썩소리 안 낭 그냥 삭아 붓니다. 잔가지가 많아.

104026 @ 아...

104026 # 브스레기 안 나오는 겁주게.

104026 @ 아, 부스러기...

104026 # 예, 부스러기. 경허근에 허곡. 잘 된 건 육지모양으로 불케왕 허질 안
해영 그냥 뭐 하는데, 경형, 딱 카가른 잘 된건 쇠소리가 나. 짜릉짜릉.

104026 @ 아...

104026 # 거, 참. 메멩 고냉이 되지. 솟이영 허당 보민.

104026 @ 메멩고냉이 마씨? 하하.

104026 # 메멩 고냉이가 되부는 거라.

104026 @ 시커멍예?

104026 # 으. 아주 희한하주. 계난 옛날도 솟굿디 들어난 놈 모양, 모양도. 메멩
고냉이 되연. 영 곱아났주.

104026 @ 솟 굿디 들어난?

104026 # 으. 솟 굿디. 솟 굿디 들어난 놈이나? 영 해난.

104026 @ 솟 굿디는 어디마씨?

104026 # 솟 그, 무덤에 그, 해났다 하는 말입주게. 솟 구덩이에 들어난 놈이다
하는 말.

104026 @ 솟 구덩이에 들어난 사름이다...응.

104026 # 솟 묻어난 놈은 어디 손이고 몸이고 곳게 됩니다.

104026 @ 예, 예.

104026 # 흑광 연기에 막 싸와노민.

104026 @ 음...

104026 # 게허 노민 그놈의 솟을 다... 솟을 두드려 가면은 양 쇠소리 나멍 똑똑
줄라지는 게 이수다.

104026 @ 예.

104026 # 즐라져. 계난 긴 놈은 삼분의 일 남곡 밑에 세운 놈은 삼분의 이 남읍
니다. 언제나. 어떤 쟁이가 와서 하더라도. 우에것는 깰는 게 이정도 된다면 곱이
불타불여. 알로 불이 나오면은 위에 것은 타 가지고 밑으로 왔구나. 그 솟 구덩이라
는 건, 솟이라는 건 불이 우에서부터 불영 내령오지 아래건 붙으는 법이 어수다. 문
여.

104026 @ 음...

104026 # 야. 계난 아래거는 ㄴ는 것만 노는 거라. 하여튼 깰는 거. 우에는 막
굽은 걸 놓고.

104026 @ 아.

104026 # 예 경허면은 그걸 헤쌍 보면은 양, 짜릉짜릉 쇠소리가 나.

104026 @ 그걸 지영 강 푼니까?

104026 # 예, 그걸, 이제 솟구텅이, 솟토리, 솟토리라고 이수다.

104026 @ 그건 뭐마씨?

104026 # 슷토리, 옛날 가마니 역할하는 슷토리라고 이수다. 요만히 한 건데 요만히 둘레가 됩니다. 슷토리라고 해서...

104026 @ 그레 답아마씨?

104026 # 어웁으로 그걸 짜.

104026 @ 어웁으로마씨?

104026 # 어웁으로 우리 뜸 짜듯.

104026 @ 예, 예.

104026 # 뜸 짜듯. 어웁으로 뜸 클 해냥.

104026 @ 뜸 클로.

104026 # 예. 뜸클로. 그게 요만씩 현 겁주. 요만씩 지러기가 한 거라.

104026 @ 지러기가.

104026 # 야. 저 뜸은 나발로 한발 되지만은. 슷토리해서. 우리말로 가마니라.

104026 @ 가마니.

104026 # 그 슷토리로 해서 거기에 답아.

104026 @ 답양예.

104026 # 양쪽에 검질 낱 봉해부는 거라.

104026 @ 아...

104026 # 양쪽에. 그 슷토리를 짜냥.

104026 @ 예.

104026 # 짜면은 이추록 카페트 모양으로 되면은 그걸 곱이 끈영 이어.

104026 @ 예.

104026 # 양쪽을. 게서 이디는 검질낱 ㅍ나폴로 즐라메곡.

104026 @ 예.

104026 # 이쪽은 답아서 검질낱 묶어.

104026 @ 묶어예?

104026 # 으, 으. 경허민 이거 잘지는 놈은 세 개를 집니다.

104026 @ 아...

104026 # 이 슷토리에 담은 것을. 담은 면은 저, 동남 수산.

104026 @ 예.

104026 # 수산, 동남 곶은 디 가곡, 또 하도.

104026 @ 예.

104026 # 이 헤벤 부락에.

104026 @ 세화리는 마씨?

104026 # 세화리. 서화리는 아니고. 서화리를 넘어야 송당이.

104026 @ 아, 세화는 아니고.

104026 # 이젠 양, 서화리 사름들은 간혹 일본말로 계슴이라고 낭 카논 그 슷을

멘들양 짓어나수다. 우리도.

104026 @ 아.

104026 # 그 솟 몬 물을 때는 계슴이라고 낭 카당 그 육지서 식으로 남을 카면 은 막불이 불 막 붙은 나무가 있지 안허파?

104026 @ 예.

104026 # 나무가 이시몬 그 사발 얹어놔 그걸 솟을 멘들아.

104026 @ 아...

104026 # 야. 솟을 멘들양 꺾당은에 제사때에 화리에 불 피왕 고기도 굽꼭 뿔해 나십주.

104026 @ 아...

104026 # 그 솟이엔 현계 양 이 송당 사름들은 솟이 혼헛지만은 헤벤 사름들은 힘들어수다. 경행 지어 가몬 고구마, 솟 한 포에 그 때에 고구마가 거 저 관대로 옛 날은 말이 이서수다. 시방 관대는 이흠짜리인데.

104026 @ 예.

104026 # 관대. 관대로 닷대, 닷대를 받아. 근데 그 관대로 고구마가 뿔개 들거 파? 관대에.

104026 @ 아...

104026 # 환장해여.

104026 @ 하하하하.

104026 # 경행 강. 것도 막 잘 쥐사 닷대, 닷대라. 경해근에 걸 혼 세 포를 정가 몬 혼 말 가웃 쫘은. 감저 고구마 말 가웃 거 뭐이파.

104026 @ 하...

104026 # 솟토리 흐나만도 못하주게. 솟 한 토리만도 안 되주게.

104026 @ 예...

104026 # 예 부럭지가. 게서 솟 한토리가 최소한도 혼 25킬로 정도 30킬로 정도 됩니다.

104026 @ 헤? 아이고... 그몬 세 개를 어떻 지어마씨?

104026 # 게, 베로 지주게. 지게가 없어. 이 송당은.

104026 @ 아...

104026 # 헤벤은 지게가 있는데 송당은 지게에 헛당 우습니다. 다. 지게에 짐 지었젠.

104026 @ 아...

104026 # 게서 그걸 베로 지영 가는 거라. 베로 지영 강 바뀜 오는거라. 그 나 들놈이 감저도이...

104026 @ 하하하.

104026 # 옛날 조팝 말했져마는. 조팝도 그거 참 좋은 때.

104026 @ 예.

104026 # 야, 경해근에 거 썰어놔 먹곡. 어거지 감저로 때 살앙.
104026 @ 응...
104026 # 아이 먹으민 굶는 거라.
104026 @ 계난예...
104026 # 야...
104026 @ 아까 슷 묻는 건 가메엔 험니까?
104026 # 슷 가마 아니. 슷토리.
104026 @ 아니 거 말앙, 슷 물을 때 마씨...
104026 # 계난 건 슷 굿, 슷 굿.
104026 @ 아... 슷 굿.
104026 # 슷 굿이엔 허는 거주.
104026 @ 음...
104026 # 슷 가마엔 아니 해여. 슷 굿.
104026 @ 굿이엔 흐는 구나예.
104026 # 낭 빙 둘러 싸으고 구멍에 검질 올리고 흑 올리고...
104026 @ 계난 그건 가마는 아니구나예.
104026 # 으. 가마가 아니고 슷 굿. 해체 되부는 거.
104026 @ 아.
104026 # 가마는 영구히 보존되는 게 가마고.
104026 @ 예. 슷 혈 때 거명허게 되는 건 뭐렌 해마씨?
104026 # 검텡이. 슷 검텡이.
104026 @ 검텡이...
104026 # 하하하하하.
104026 @ 하하하하하.
104026 # 저 선흘 곳에 그 자기 굶던 양반도 죽어불고. 자기가메도 허물어불었
주. 계난 이거 슷도 그자 슷 굿.
104026 @ 슷 굿. 장작 때난 다음 나온 걸 슷 말앙 다르게도 부릅니까?
104026 # 계슴은 일본 말이고. 슷망데기엔 흐주게.
104026 @ 슷망데기마씨? 불졌을 때 나온거를 굴읍니까?
104026 # 으. 슷망데기. 불 쪼을 때. 공기 통하지 못하게 무신 사발이나 툯 얹
영. 거 슷망데기.
104026 @ 음. 슷망데기.
104028 @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28 # 잡으나 뭐나 사냥... 해나십주.
104029 @ 꿩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9 # 예. 꿩도 잡으레 땡겨났주만은.
104029 @ 꿩코 나나신가 마씨?

104029 # 그 썰도 머 무신. 옛날은 썰코 낱 현 것도 요 흐루기주. 그 전이는 썰코도 말총. 말총 뽑아가지고 썰코 뉘나수다. 옛날은.

104029 @ 예...

104029 # 시방은 정수리여, 뉘여. 벨 줄이 이성 썰코를 낱 썰을 잡았주만.

104029 @ 예. 어떻 잡는 거파?

104029 # 헤헤. 아, 썰코 뉘사주게.

104029 @ 썰코는 어떻 놓는 거파? 말총으로 어떻해여.

104029 # 요즘은 정술. 좋은 고기 나끄는 그걸로 흐난 좋은데.

104029 @ 예.

104029 # 옛날은 새 잡던 우리가 비들기를 잡던 썰을 잡던. 모두 말총으로만 해서.

104029 @ 말총으로만.

104029 # 꼬양.

104029 @ 코를 놓는 건 어떻허는 거마씨?

104029 # 계난 그계 썰 다니는 질. 새들은 우로만 다니지만은 썰은 밑으로만 다닌다 말이우다. 그른 썰 다니는 질이 조금 알아집니다.

104029 @ 오시록 현디.

104029 # 으. 오시록 현디. 나가 시방 썰코를 집안에 들어왕 썰코를 낱는데. 게, 들지를 안 햄서.

104029 @ 하하하.

104029 # 하하. 즐바로 아이 뉘부난산디. 요즘은 그런 걸 허지 안 햄수다만은. 거 이삼십년 전까지는 썰코, 노리코 뉘 난리 나나십주.

104029 @ 음.

104029 # 벨아벨. 야.

104032 @ 족제비 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 이거 족제비 뉘이파?

104032 # 으. 그거 족제비 뉘이엔 해서. 또 이게 갑이 많이 나가나수다.

104032 @ 아...

104032 # 야, 족제비 뉘이엔 헤영. 이게. 갑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은 이수장 경계에 이 잣담이라고 이수다.

104032 @ 예, 예.

104032 # 잣담은 뉘냐면 경계를 측량해분거라.

104032 @ 음.

104032 # 경계를 측량행 곱을 그슨거라.

104032 @ 예.

104032 # 이건 내 거다. 이건 당신네 거다.

104032 @ 예, 예.

104032 # 이런 식으로 해영 잣담이 있는데. 이 잣담, 족제비는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 거우다. 속담에. 그래서 족제비는 그 잣담에 담 에염 구석 끝은 디 강 노아.

104032 @ 음.

104032 # 구석 끝은 디 강 노면은 그 뭐, 그디 지나가던 놈은 여기에 고기를 놔.

104032 @ 아, 이 속읍에.

104032 # 고기를 요기를 노나, 요기에 노면 (족제비 덧 사진을 보며) 올로나 벳기 올로는 못 들어가.

104032 @ 음.

104032 # 게민 일로 들어강 줍아 땡기면은 이게 키라, 키. 달랭이허멍 이게 탁 털어져.

104032 @ 하하하.

104032 # 겨민 여기에 돌을 지들루는 거우다. 큰 돌을.

104032 @ 음.

104032 # 야. 되진뱅이엿 확 지들영 꺾일 수 있는 큰 돌. 되진뱅이.

104032 @ 아...

104032 # 갱 탁 노민 여기 잘빠지멍, 요게 탁 잘빠지멍 탁 내려 앓나 말입니다.

104032 @ 아...

104032 # 내려 앓으면은 족제비나 꿩이던.

104032 @ 꿩도?

104032 # 으. 새던. 야. 들어강 요디 거. 뭐 신거 줍아내영 뭐 먹젠 헤영은 그냥 죽어.

104032 @ 음...

104032 # 야.

104032 @ 이견 족제비만 잡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104032 # 족제비만 아니고 거기 들어간 놈은 다 죽어.

104032 @ 하하하.

104032 # 족제비만이 아니고. 겐디 대개 우리가 굴을 때는 이걸 족제비 덧이엔 허주게. 대개 족제비 덧.

104032 @ 아... 그믄 꿩은 꿩코, 노리는 노리코엔 해마씨?

104032 # 으. 노리코여 꿩코여. 꿩코는 총맞아 허고게 노리코는 그 당시에는 꼭 으로.

104032 @ 아, 꼭으로.

104032 # 또 꼭이양 엄청나게 질긴 거우다.

104032 @ 음.

104032 # 칠팔월 되영 강 꼭을 걷어당 숲앙 빨아. 우리 세탁하듯이. 그걸 빨민 그게 하얗게 나옵니다.

104032 @ 아...

104032 # 이 길쌈하는 사람모양으로 하얗게 나오민. 걸 베를 꼬아. 꿰여근에.

104032 @ 예.

104032 # 베영광 하면은 노리코도 놔지고. 물 끝은 거 쇠끝은 것도 걸리민 죽어, 그냥.

104032 @ 해?

104032 # 경헌데 물 노리 쇠흔는 데 가질 말아야 해여. 가면 위험해.

104032 @ 음.

104032 # 노리 정도 땡기는 거나 뒤희서. 허는데 이거 코는 나무를 영 오그려야 돼.

104032 @ 냥을. 무슨 냥을 마씨?

104032 # 그 주위에 이신 나무.

104032 @ 아, 땡겨 가야해마씨?

104032 # 으. 노리가 걸리면은 잡아당겨서 넘어지지 않을 냥을 허곡. 경 안허면은 그냥 끈은 냥. 굵은 거.

104032 @ 예.

104032 # 영 ㄹㅏㅓ 탁 놔. 노면 이 알로 코를 노는 거라.

104032 @ 음.

104032 # 그믐 그 알로 지나가는 거라.

104032 @ 아, 지나갈 때 콧.

104032 # 계난 그 구부린 냥은 지날 때 코에 걸리면은 건드리면은 이쪽에 건창 넘어가.

104032 @ 예? 하하하.

104032 # 경허곡.

104032 @ 영 논 건 마씨?

104032 # ㄹㅏㅓ 논 것은 막 ㅍㅍ서 나가.

104032 @ 아... ㅍㅍ서 나가당 어디레 탁 걸리게.

104032 # 으으. 어디 걸리게. 가가 걸리지 안 허면은 이디 아장 보민 무지장 ㅍㅍ성 나가는 거지.

104032 @ 하하하.

104032 # 어디 걸리지 안 허면은 막 버둥켜 죽는 거주게. 즈미지메.

104031 @ 지달이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1 @ 지달이 사냥도 해나수파?

104031 # 아이고 말 맙써. 지달이 그 노무 거. 지달이 거. 혼 이삼십 메타 땅 팡 들어가야 돼.

104031 @ 아...

104031 # 우리 시대에도 지달이를, 원 송당서 날만이 지달이를 잡으레 다닌 사

름도 어실거주만은.

104031 @ 하하.

104031 # 경 못된 짓을 헨 거주.

104031 @ 하하하.

104031 # 왜냐? 지달이란 놈이 양, 요 중간에 농사를 지영 나두면은 고구마를 놓든 무신 조같은 모플 같은 것을 놓든 혼 두 마리 정도면은 괜찮읍니다만은양.

104031 @ 몬 식구가 다 읍니까?

104031 # 식구가 오는데 울음 소리를 반에 허든 막 모여들어. 집 주변에.

104031 @ 아...

104031 # 경허민 농사밭을 막 망쳐봅니다. 막 짓어붙여.

104031 @ 아이고.

104031 # 게서 ㄹ슬 때는 밤에. 이디 호현경이 흐곡 헐에, 캄캄한 밤에 특히 흐 쓸 브름 쉐 날이 좋고. 특히 개를 해삼니다. 요즘 똥개들 해영은. 저것들은 잡양 먹 으렌 해도 안 먹어수다. 그 때는 개들이 상당히 좋아수다. 개들이 반경 한 오백메다 천메다 이신디 주둥이 영 들르민 지달이 어느 정도 먹는다는 걸 흰허니 알아붙여.

104031 @ 아...

104031 # 개들이 꿩꿩 험니다. 게든 아 이거 뭐있다. 지달이 사농하는 개는 한 오백메다 천메다 나가도 담을 아니 뵈여붙여. 담을 안 뵈영 지달이 강 추격해여근 영게 둘러 드는데 이 덜된 것들 가민 양, 담 올라가명 담 다 뵈여 붙면은.

104031 @ 아... 하하하하하.

104031 # 이 지달이가 귀가 무지하게 세심한 거주다. 게민 뵈 완다하영 굴에 들어강 방어를 합니다. 게민 못된 강아지들 강 담들 다 뵈여붙민 저 뵈하곡. 나 거기 가지 전에. 나 질루던 개는 벌써 오기들 전에 지달이를 강 구멍을 지켜여.

104031 @ 아...

104031 # 구멍을 지킨다 말입니다.

104031 @ 똑똑하기가.

104031 # 구멍 지키면은 그게 들어오당은에, 겁절에 들어오당 걸립니께.

104031 @ 예.

104031 # 걸리민 양 개 흐나가 지달이 버칩니다.

104031 @ 하...

104031 # 막 개가 울멍 막 양작하명 막 난리가 나.

104031 @ 예.

104031 # 그든 그 다음 간 개가 보조 역할을 험니께. 보조 역할을 허민 버쳐. 워낙 수오로가. 오로가 한 이삼십년 된 것을 수오로엔 험니께.

104031 @ 오로는 뵈짜?

104031 # 지달이.

104031 @ 지달이 마씨?

104031 # 으. 지달이라. 그게 오로온도 허주. 그게 이삼십 킬로 나가.

104031 @ 무게가 마씨?

104031 # 으. 무게가.

104031 @ 예.

104031 # 게서 그 개 두 개로 버칩니다. 버치면은 막 개들이 쾅쾅 죽그멍 막 사
름을 빨리 불리. 불르면은 우린 밤중에 지팽이 작대기.

104031 @ 음.

104031 # 작대기 행 갑니다. 든든한 걸로.

104031 @ 예, 예.

104031 # 이젠 밤에 엮어지멍 대싸지멍 그 터정 든다말입니다. 그 개 이신디.
개가 운덴 허는 겨우다. 그 주인신디. 임자 부르는 걸 개가 운덴합니다. 저기 개 울
엄서 빨리 가봐.

104031 @ 예, 예.

104031 # 저, 뭐 흥나 해서 허멍.

104031 @ 예, 예.

104031 # 엮어지멍 돌아가당 보민 지달이를 딱 물엿은에 막 개가 풀락 풀락 죽
을 정도라.

104031 @ 아...

104031 # 경허민 호미 가정 가곡양. 든든한 지팽이를 가정갑니다. 이 방어책으
로. 경행 가민 양 혼자만 간 때는 혼자만도 멧번 땡겨봤주만은 언제난 짐승를 들양
가야 합니다. 그 지달이 사농을 가젠 허민.

104031 @ 음.

104031 # 그 때에는 지달이 흥 마리씩 두 마리씩은 지달이를 잡양 와났으니까.
급할 땐 강 호미로 배떼기 채어야 되어.

104031 @ 아...

104031 # 배떼기 채영 허면은 개는 양 사름 왔다 해서 방심행 꼭 내불여.

104031 @ 아.

104031 # 내불민 이 놈이 배설이 끈어져도 양 막 흥 이십메타 찰찰 끄성가.

104031 @ 아...아이고.

104031 # 노리는 흥 오십메타 더 갑니다. 총 맞양 배설 끈어져도. 노리는.

104031 @ 아...

104031 # 그것은 쓸개가 어신 놈이라서.

104031 @ 노리가?

104031 # 야, 노리는 오십메타, 배설이 나와도 오십메타 가불고. 요놈 지달이는
쓸개가 이시니까 흥 십여메타 막 가가민 개가 숨을 노려 잡아 막 조집니다. 그 사
름을 심어 야정 경행 오곡. 지달이는 놈이 오소리여 오로여 우린 경 허는데.

104031 @ 오로...

104031 # 이 개가양 영리한 개는 지달이가 밤일 가나 낮일 가나 꿈에 냄새를
해영 딱 들어잡니다. 꿈이엔 허는 거는.

104031 @ 구멍마씨?

104031 # 지달이가 움직이는 구멍이라.

104031 @ 지달이 굴마씨?

104031 # 이거 코를 노나 지달이 뺏을 노면은 요 중간에 엄청나게 썬 뺏이 나
와나수다. 경행 송애기도 딱 해불고.

104031 @ 이런 것과?

104031 # 으. 이런거.

104031 @ 오로 뺏이엔 썬져수다.

104031 # 으.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썬거라. 송애기가 뵈으면은 그냥 발 끈어져불
여.

104031 @ 아이고.

104031 # 야, 이거, 이런거. 다.

104031 @ 이젠 이런거 안 험니까?

104031 # 이거 걸리민 우리 큰일 나.

104031 @ 그니까예.

104031 # 겨난 그전에 이런 거 어신 때는 개로만 사용했는데 개가 딱 그 굴 속
에 들어간 거, 아니 들어간 거 흰하게 압니다.

104031 @ 아.

104031 # 냄새 딱 맞추아서 어시면은 그냥 쿵쿵 허멍 나오고. 이시면은 개도 경
혈 땀 멩청한 거라. 나올때까지 영 해영 아자.

104031 @ 하하하.

104031 # 도그 가자.

104031 @ 하하하.

104031 # 계민 개도 그때 끝지 오꼭 하는데, 아 지달이 있구나 하는데. 그 지달
이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달이 굴 판텐 합니다. 우리 지달이 굴 파렌 간다. 우리
강 지달이 굴 파자.

104031 @ 아...

104031 # 경행 사름으로 굴을 파젠 허면은 최소한도 서너명이 갑니다. 지달이
굴을 파젠 허면은.

104031 @ 예, 예.

104031 # 시방이난 장비가 이시난 포크레인으로 부좌자창 행은앵에 그 전에는
팽이 가지고 골갱이 가지곡 호미 가지고 굴을 파가면은 이녁 지러기 파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두 번착 놈은 그 놈 또꼬망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굴을 파면서 혹을 배떼
기로 내칩니다. 그믄 그 다음 놈이 또 혹을 내쳐.

104031 @ 하하하하.

104031 # 그른 세 번차 놈이 그 혹을 내쳐. 뱃기디 이신 놈은 마지막 내친 혹을
 몬 담아 내쳐불여.

104031 @ 아...

104031 # 경해서 혼 십오미터 썸을 들어강 보면 그거 가기 전에 마작터라고 이
 습니다.

104031 @ 마작터마씨?

104031 # 마작터는 지달이, 오류.

104031 @ 예.

104031 # 오소리 똥 썸 장소.

104031 @ 아...

104031 # 똥을 집결행 씹니다. 이 아무디나 강 싸지 안 합니다.

104031 @ 아...

104031 # 게서 마작통이 딱 걸려. 그른 하 이거 뱃 메다 안에 있다.

104031 @ 아...

104031 # 경허면은 불과 이삼메타 안이라.

104031 @ 음...

104031 # 경허면은 막 과당 보민 눈들 말죽말죽. 후라시 어실 때는 좃불하멍 좃
 불 싸멍 해나수다. 경허민 눈들이 말죽말죽한 게 이서.

104031 @ 하하하.

104031 # 겐디 거기서 약한 놈은 걸리민 괜찮은 디 그 이삼십킬로 썸 나가는
 수오로썸은.

104031 @ 수오로?

104031 # 수오로는 늙은 놈이라. 수오로라고.

104031 @ 슛컷이라 수오로파?

104031 # 아니, 아니. 슛컷이나 암컷이나...

104031 @ 그른 큰 거?

104031 # 커서 오랜 놈들.

104031 @ 아...

104031 # 그게 막 털에 기름 피고 술진덴 허주게.

104031 @ 아...

104031 # 게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로만 개해영 영해영 도그 이레와. 개
 들어오민 흰 허게 압니다.

104031 @ 하하하하.

104031 # 사름 트명으로 들어가.

104031 @ 예.

104031 # 개가 버침직 허민 양. 창이수다. 옛날 사삼사건 쓴 창.

104031 @ 이런 거 마씨?

104031 # 응. 이런 창들이라. 창도 소소한 건 안돼. 든든해야 돼. 그 니빨도 사
납고 힘이 무자게 쨌거우다.

104031 @ 사람도 물어마씨?

104031 # 하이고. 그 사름... 물민 놓는 성격이 아니라니까. 그 즈석은. 딱 중장.

104031 @ 아...

104031 # 게난 개들이 얼떡영 이디 다 끈어 먹고 해부는 거.

104031 @ 으...

104031 # 물었다 하면 혼이 나. 게서 이런 든든한 창을 가정가. 개들이 버칭 양
양 할 때는 창으로 찢러야 돼.

104031 @ 아, 찢러...

104031 # 찢렁 힘을 다진하게 해 놔야 가 들려 들어.

104031 @ 아...

104031 # 개가 버침진 허민 양 돌아만 나와불젠 합니다.

104031 @ 개가예...

104031 # 야. 돌아만 나오젠. 게난 사름이 막 협조를 해줘야 주. 게사 그제 들려
들영 물어. 게미니 그걸 물면 거기서 거기 있는디는 조금 공간이 이서. 게민 개가
거기서 들양춤해영 다운 시켜봄니께. 다운 시키면 기자 사름이 조름으로부터 나가
렌 해영 두 번 세 번 들어간 놈 나오민 기자 마지막 챗번 들어간 놈이 그 지달이
끄성 나오주.

104031 @ 아...

104031 # 또 갈구리도 해영 갑니다. 우리가. 경행 특 찍영 끄서내영 나오는 거.

104031 @ 아...

104031 # 하하하하.

104031 @ 지달이 사냥은 경허는 거구나예.

104031 # 지달이 사냥. 견디 막 즈미짐은 합니다. 담싸롱이라고 개가 좋아노니
간양 한 이십년을 땡겨봤는데 지달이 갑도 많이 가고 맛이 좋아노니까 게나제나 가
자고만 한단 말입니다. 게민 양 밤이 혼 아홉시 열시 되가민 나가는 거라. 지팽이
들고.

104031 @ 예.

104031 # 게난 양 그때는 젊은때는 무서운 것이 어쉽디다. 도깨비불도 아니 무
섭고. 좋은 개 들곡 든든한 곤봉인가 뭔가 무신 작대기 가정 가노니까.

104031 @ 아, 아.

104031 # 무스와베도 안 허고. 게행 지달이 사놈이라는 건 브름 알로 가야 돼
어.

104031 @ 그건 무슨 말이짜?

104031 # 저기 어디 지달이 있다하면 브름 알로 가야 지달이 놈들이 냄새를 못
맡아.

104031 @ 아...

104031 # 바람으로 가면 저기가 먼저 맡아부는 거라.

104031 @ 아...

104031 # 계난 브름 알로. 계난 잘 판단해야 합니께. 사농쟁이.

104031 @ 사농쟁이?

104031 # 야. 사농쟁이. 하하. 사냥꾼을 말허는 거 사농쟁이 허는데.

104031 @ 사농쟁이.

104031 # 경행 나가면은 이틀이나 삼일에 혼 번은 혼 두 개는 꼭 잡아.

104031 @ 아...

104031 # 계난 개들이 양 굳사도 곱아주만은 멍청한 개들 사농을 배우겠다 행 곱이들 나가면은 문 개판이 되어.

104031 @ 헤헤헤헤.

104031 # 사람 조름만 멍청한 개들은 사람 조름만 좇으곡, 또 어떤 것들은 담이나 뿔영 데껴불곡.

104031 @ 뿔영 덩겨 불곡...하하하하.

104031 # 이 흘투는 개는 막 반경 오백메다, 천 메다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불여.

104031 @ 헤...

104031 # 개소리 안 해영은 우리가 개 어디신디를 몰라. 개가 사농행 물영 울어. 개가 사름한테 연락을 한는 걸 운덴 험니다.

104031 @ 예, 예.

104031 # 경 안허면 개 어디 방향 신 걸 모릅니께. 경 해영 흥나나 두 개. 거 암캐엔 험디 개도 아주 못 생긴 개주. 색도 아주 고라개라고.

104031 @ 고라개. 하하하하.

104031 # 고라개. 왜정 말로 고라개고 색도 고라겐디.

104031 @ 색도 고라개...

104031 # 굳사 고라말. 색도 못생겨서. 겐디 사농을 경 잘해서.

104031 @ 아... 사냥을 잘한마씨?

104031 # 으. 사농만 가자 허민 벌써 개가 쟁쟁 해영 죽경 사름한테 알려.

104031 @ 음.

104031 # 야, 경 안허면은 개를 좇젠 허면은 위낙 개가 멀리 가부나 어땡행 멀리 강 돌아나 오젠 허민 휘바람 양.

104031 @ 휘파람.

104031 # 야. 휘브름으로 쉬악쉬악 해영 허른 개가 돌아 옵니다. 사농개가 그렇게 영리한 개입니다.

104031 @ 음.

104031 # 게서 강 보면은, 개가 죽경 강 보면은 양, 물영 이서. 개도 죽저, 지달

이도 죽저. 잔뜩 물영 이시믄 그 보조 역할 하는 거 조름에 강 물영 허영 경허멍
우리가 지달이를 잡아 나누다만은.

104031 @ 예...

104031 # 아이고 것도 이젠 지달이도 힘들고. 오소리. 제주도예.

104031 @ 예.

104031 # 그게 상강일 넘으면은 그 자기 등지, 굴에서 백메다 이백메다 상강일
넘으면은 나오질 안 합니다.

104031 @ 아... 추워지면 마씨?

104031 # 추워지면. 막 나와야 모양지 해난디 쇠똥에 쇠똥벌레가 이수다. 이 벌
레만 잡앙 먹영 들어가.

104031 @ 아...

104031 # 봄 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메기라고 고사리. 고사리 새면은 파랑한
벌레 있지 안허우파.

104031 @ 예, 예.

104031 # 그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나오고. 상강 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 울에
서 오백메다도 안 나옵니다. 쇠똥벌레 잡아 먹을라고.

104031 @ 그 벌레는 뭐렌 굴아마씨?

104031 # 쇠똥벌레... 떠렁췌.

104031 @ 떠렁췌.

104031 # 그 떠렁췌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늘떠렁췌여, 뭉여. 무신 거여. 여러
가지입니다. 우린 기자 큰 떠렁췌여, 작은 떠렁췌여 하는 디. 그 쇠똥 병뎡이 등그리
는 거양.

104031 @ 예, 쇠똥 병뎡이 등굴리는 거.

104031 # 그게 그 떠렁췌만 잡아 먹는 거라.

104031 @ 지달이들이예?

104031 # 야. 쟁허근에 겨울이는 힘이 듭주마췌. 이 녀석이 나왔냐 아니냐는 표
석을 세웁니다.

104031 @ 입구에 마씨?

104031 # 굴에 ㄴ는ㄴ는 막대기를 들어가는 구멍에.

104031 @ 굴도에?

104031 # 으. 굴도에. 고사리 대기나 행 세우면 두 개췌 세와.

104031 @ 예.

104031 # 나와난 건 고사리 꺾을 영 지와불곡.

104031 @ 고사리 꺾마씨?

104031 # 고사리 꺾이엔 헌건 그 표시헌거게. 풀떼기주게. 들어간 건 저짜 더레
꺾어지곡.

104031 @ 아... 들어간지 나간지 모르니까예.

104031 # 으. 들어간지 나간지 모르니까. 개는 알겠지만은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104031 @ 사람은 모릅니까.

104031 # 게서 그걸 표시한다 말입니다. 딱 나왔당 굴도 파곡. 밤이 강 브름 알로. 요디 굴이민 요만치 알로 나와실 거라. 그른 우린 저만치 더 가. 개는 코들렁 냄새를 맡아. 건내헌덴 허는거라.

104031 @ 건내.

104031 # 개 건내한다고. 게문 아하 물건이 나타났다 하는거라. 게문 사람이 흰하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라.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33 @ 뭐 하영 잡아나수파?

104033 # 뭐 하영 잡아난거, 무신. 기자, 놈 하는 거 다 하니까 혼 두마리 썩 그냥 기자.

104033 @ 아... 한 두 마리.

104033 @ 꿩이영 누리영 다 먹는 거지예?

104033 # 다 먹는 거. 이젠 옛날은 노리 피기가 그렇게 맛 좋아나서.

104033 @ 아...

104033 # 입이 틀려부니까양.

104033 @ 하하하.

104033 # 이젠 노리고기도 안 먹곡. 멧돼지 잡양 오켄 해도 나 멧돼지 안 먹켄 해수다.

104033 @ 아... 맛 좋덴 허던데 마씨?

104033 # 글썩.

104033 @ 하하하.

104033 # 멧돼지가 맛 좋은 건 우리 농촌에선 기름진게 이서야 됩니다. 돼지고기도 양 기름 어신 건 우리 마릿걸레 씹는 맛이라. 알람수광?

104033 @ 음....

104033 # 기름이 셔사. 앞으로 볍씨만은 양. 줌 기름이 섞인 돼지 고기라야 맛이 있지.

104033 @ 하하하하.

104033 # 멧돼지는 기름이 없대.

104033 @ 아...

104033 # 제주도에 많이 있는데.

104033 @ 하도 움직여부난 인가?

104033 # 야. 많이 움직여노니깐. 움직이는 건 기름이 어십니다. 쟁 잡아오지 말렌 해수다. 멧돼지영...

104033 @ 여기 지금도 멧돼지 이수파?

104033 # 아, 이서네.
104033 @ 아...
104033 # 이제라도 전화허민 잡앙 와.
104033 @ 하하하.
104033 # 어이구. 그 답이부터 아이 먹켄 경허멍 했는다. 멧돼지 한 모양입디다.
104033 @ 아...

6. 의생활

106001 @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06001 #2 나 시집 올 땐 우리 어머니 막 잘해주느랜 허연, 비로도,
106001 @ 비로도, 이런 것도 이서나수파?
106001 #2 응. 비로도 치메에 양단 저고리에.
106001 @ 양단도 있고.
106001 #2 응.
106001 @ 또 뭐 이서나수파?
106001 #2 멧지.
106001 @ 멧지, 또 뭐 이수파?
106001 #2 또시...
106001 #1 미녕이라고. 거 무영치메 무명저고리, 그게 뭐 보통이주, 보통으로.
106001 #2 미녕치메, 미녕 저고리 뭐.
106001 #1 멧지 저고리영. 무시거영
106001 #2 모시영.
106001 @ 또?
106001 #2 베영.
106001 @ 예.
106001 #2 광목이영, 오광목이영.
106001 #1 거 한량들 입는거주.
106001 #2 옛날은 유동.
106001 @ 음, 그런것도 있고마씨?
106001 #2 유동은 비로도 치메 다음이라, 유동치메, 호박단추저고리. 난 시집오
난 우리 시어멍 호박단추저로기에 유동치메에 해쥬게.
106001 @ 음,
106001 #1 혼 60년 전에.
106002 @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06002 #2 옷감은..무사 우리 옛날에 치메도 멘들고 적삼도 멘들고..

106002 @ 아니 옷은 만드는데 실, 실마씨. 실 만들어나수파?
106002 #2 아니 실은 안 멘들어난.
106004 @ 명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2 멩지로 치메도 흥곡, 저리고도 흥곡 흥는다. 지금은 그거 호상아니
라?
106004 @ 음....
106004 #2 죽은 사름 입영 가는 거..
106004 @ 예예
106004 #2 멩지로 장옷도 흥고, 치메 저고리, 바지여...
106004 #1 스의, 스의주.
106004 #2 살마다 그거 다 뭐 호상하는거.
106004 @ 예예
106006 @ 누에치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06 #2 옛날은 누에질완 멩지해났나?
106006 @ 예...
106006 #1 멩지는 누에고치 실 빼영으네 실 멘드는 거고.
106006 @ 누에 해난건 없지예?
106006 #1 누에 해난건 이수다.
106006 #2 옛날도 누에 질좌난지 요 송당도 이서.
106006 @ 기마씨?
106006 #2 어. 뽕남쌈 해당 주국.
106006 #1 뽕남도 싱그곡. 밧드로 전역으로 싱경. 정부에도 권장해나수다.
106006 @ 아...
106006 #1 중간에
106006 #2 뽕남쌈 해당 먹이멍 누에 질좌난 거 알아져.
106006 #1 혼 40년.
106006 @ 이제는 없지예?
106006 #1, #2 어서.
106006 #1 육지 핫주, 시방도.
106006 @ 기구나예.
106007 @ 무명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08 @ 무명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106008 #2 미녕으로 옛날 갈적삼 만드고.
106008 @ 갈적삼...
106008 #2 갈중이 만드고, 기자.
106008 #1 갈옷.
106008 @ 요새는 광목으로 하는데 옛날에 미녕으로 만들었구나예.

106008 #2 응, 미녕. 미녕으로 갈중이하고 갈적삼하고.
106010 @ 광목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2 광목도이, 옛날엔 이불안, 요안.
106010 @ 아...
106010 #1 거 막 다림질해여.
106010 #2 광목으로 이불안, 요안...
106010 @ 다림질해영은에...
106010 #1 빨앙 몬 다듬이로 다령...
106010 #2 그거 풀해영게, 마께로 두드령, 안반에 낵.
106010 @ 예...
106010 #2 경혜영, 이불안헝곡, 요안헝곡.
106010 #1 그게 최고랏주.
106010 @ 음...
106011 @ ‘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6011 #2 홍세?
106011 @ 예.
106011 #2 홍세는게 장개가젠 하믈게 홍세 놓는거.
106011 @ 아...
106011 #1 시라목, 시라목.
106011 #2 지금은 시라목헝주만은 옛날은 미녕. 미녕 혼필.
106011 @ 아, 옛날에는...
106011 #2 옛날에는 미녕 혼필, 홍세함에.
106011 @ 홍세함?
106011 #1 그게 조건부를 알아야돼. 그 홍세함에 기저귀 멘들라 헝는거, 그거.
106011 #2 거이, 중간이부터는 시라목헝네 애기들 허랜 해났주.
106011 @ 옛날에는 미녕으로?
106011 #2 응, 미녕으로. 홍세 놓첸 헝믈 미녕해당으네.
106011 @ 기저기 만들라, 영 헝으네예?
106011 #2 응.
106011 @ 지성기예?
106011 #2 근디 요즘은 그냥 시라목헝네 기영 기자...
106011 #1 기성기주, 옛날 기성기...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12 #1 멘화를? 멘화는 안 해나고.
106012 @ 그냥예?
106012 #1 야, 야.
106013 @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2 모시로 뭐, 뭐 만들어. 치메도 만들엉 입곡, 모시적삼도 만들어 입곡.
106014 #1 모시적삼. 그계 삼베 적삼이주.
106015 @ 모시 재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6015 #2 아니, 키우진 안해연.
106015 @ 모시 적삼, 치메 만들고?
106015 #2 그런거 만들고.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6 #2 삼이엔 현건 몰라, 우린.
106016 @ 신도 만들곡 해난거.
106016 #1 무신거?
106016 @ 삼베에 삼, 삼.
106016 #1 아, 삼. 그건 우리로 말하면 대마촌데,
106016 @ 아, 기파?
106016 #1 모시, 모시가 딱로 있고, 대마초 삼이 이서수다.
106016 @ 아...
106016 #1 예. 대마초 삼으로 옷을 짜서.
106016 @ 아...
106016 #1 모시도 짜긴 합니다.
106016 @ 예...
106016 #1 예, 견디, 육지서 보민 베틀해서 모시실 내오고 삼이우다.
106024 @ 남자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4 #2 남제옷도 마찬가지주, 뭐. 바지, 저고리, 적삼. 뭐, 후루메, 두루메기.
106024 @ 두루메기...또 뭐 이수파?
106024 #2 남자들 마첸가지.
106024 #1 또 베랑 이서게. 도복도 들어가고계.
106024 #2 도복은 거, 호상으로 죽어갈 때 멘 우에 입는 거.
106024 @ 아...
106024 #1 음, 음. 건 여기서만 죽어갈 때 입는 거주. 큰 체를 보게 되민 도복을 입는 거, 유건 쓰고. 남자들은.
106024 @ 유건쓰고, 아...
106024 #2 거, 뭐. 동네 포제나 할 때.
106025 @ 여자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5 #2 치메, 저고리, 바지, 속곳이영. 살마다.
106025 @ 살마다는 뭐파?
106025 #2 살마다가 뭐라?
106025 #1 뺨스는데.

106025 #2 뺨스.
106025 @ 아...
106025 #2 뺨스 곱아 옛날에는 살마다. ㅎㅎㅎ.
106025 @ 살마다, 치메, 저고리, 바지, 속곳...또 마씨
106025 #2 으. 속곳은 옛날이고, 살마다는 이 중간이 나온거고.
106025 @ 중간?
106025 #1 왜정말이주, 살마다. 펜티는 미국말이고.
106025 @ ㅎㅎㅎ.
106025 #2 하하.
106025 @ 또 뭐 이수좌?
106025 #2 장옷.
106025 @ 여자는 두루메기 안 입어마씨?
106025 #2 여자는 무사 여자도 입는 사름은 두루메기 입주.
106025 @ 아, 예.
106025 #2 겐디, 여자는 장옷 하나 입으민 마는 거.
106025 @ 음...결혼 할 때 남자는 사모관대좌?
106025 #2 응. 사모관대. 갓 썩으네 영 빨 돋은 거. 사모관대, ㅎㅎㅎ.
106025 @ 아...
106026 @ 아이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6 #2 지성치메, 뺏지, ㅎㅎㅎ.
106026 @ 맞다, 뺏지예?
106026 #2 샤쓰도...
106026 #1 똥빠대도 있쥬, 똥빠대...아이들. 쪼깨 닳은 똥빠대.
106026 @ 똥빠대...
106026 #1 어때말이라고 거.
106026 #2 쪼깨, 어깨말이주.
106026 @ 어깨말이가 이거좌?
106026 #2 어깨말이라고.
106026 #1 여자들...
106026 @ 여자들 마씨?
106026 #1 응, 여자나 남자나 게.
106029 @ 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9 #2 응, 볼모작.
106029 @ 아, 볼모작마씨?
106029 #2 응, 그거. 험벽새기 막 대왕으네 짜는 거. 멘드는 거. 볼모작.
106029 @ 이건 뭐좌?
106029 #2 그건 그냥 단추.

106029 @ 단추마씨?
106029 #2 응, 단추. 보당.
106029 #1 보당은 일본말이라.
106029 @ 보당은 뭐짜?
106029 #1 보당은 일본말.
106029 #2 보당은 두 개 영 꼭 찢르는 거.
106029 @ 아...똑하는 거마씨?
106029 #2 응. 두 개 행 똑해영 찢르는 거.
106029 #1 찢르는 거. 똑 소리 나는 거.
106029 #2 것 낄양 보당이렌 해났주게.
106031 @ 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2 갈옷 염색이라 허주게.
106031 @ 건 어떻습니까?
106031 #2 감 뽕상으네.
106031 #1 무신 감마씨?
106031 #2 감 옷에 들이는 거 해사주. 든 감 말고. 쪼락진 감. 풋감해당은네.
106031 @ 쪼락진 감으로예?
106031 #2 응.
106031 #1 막 뜯본거. 뜯본감.
106031 @ 아, 예.
106031 #2 쪼락진 감 마개로 두드령.
106031 @ 두드령마씨.
106031 #2 복삭 두드령은넵에 형벽세기 영 막 물짜냥. 물짜냥 옷 우터레 이레저
레 막 백여그넵.
106031 @ 형벽세기에 낱 막 짜냥, 물만 나오게.
106031 #1 응. 막 물만 나오게. 경해냥 삼베를 우에 놔사주.
106031 #2 그걸 또 막 놀려사주, 막 놀려.
106031 #1 골로로 가게.
106031 @ 삼베를 놓고마씨?
106031 #2 응. 삼베 우이 그걸 낱. 삼베를 물에 당강 놓고. 그 삼베를 막 놀려야
되어.
106031 @ 아... 막 주물락주물락 해마씨?
106031 #2 응. 막 그걸 놀려.
106031 @ 놀려 낱 그다음은 마씨?
106031 #2 놀령 터령 널영 들려와.
106031 @ 널영 말려마씨?
106031 #2 응. 물 적시멍 메날 발래여야 되어. 벌경헉게.

106031 @ 마르민 물적성 말리곡 또 물적시고 말리고...

106031 #2 으. 또 물적시고 뒷날은 뱃나민 말리곡.

106031 #1 경혜야 별정한 색이 나와.

106031 #2 경허민 그것이 별정하게 바라.

106031 @ 아... 바라.

106031 #2 응. 허영혜난 것이 별정하여.

106031 #1 물이 어신 때는 이슬, 그 밤이슬.

106031 @ 예.

106031 #1 밤이슬을 맞기 위해서 널영 배불여.

106031 @ 아하.

106031 #1 경혜민 이슬에 축축한다 말입니다. 겨민 그 이슬이 몰라 가면은 발강해가.

106031 @ 그냥 내불민 되는거구나예.

106031 #1 기냥 내불어도 되어. 비만 맞히지 말아.

106031 #2 비만 맞히지 말민.

106031 @ 비 맞히믄 안되고.

106031 #1 으. 밤이슬을 맞아야 되어. 원래는.

106031 @ 아...

106031 #1 물로 적시믄 요 중간에 물로 적셨지. 그 전에는 노다지 밤이슬만 맞혀수다.

106031 @ 아...경허민 나중에 별정케 되는 거구나예.

106031 #1 별정해여, 나주에.

106031 #2 응. 별정해여.

106031 @ 경행 이걸로 뭐 만들어나수파?

106031 #2 무신걸 만들어. 갈옷이라고계.

106031 @ 기파?

106031 #2 갈적삼, 갈중이.

106031 #1 그계 제라흔 거주계.

106031 @ 갈중이, 갈적삼은 어떻 만듭니까?

106031 #2 어떻 만들어계. 갈중이. 옛날은 할망들 갈중이 이만이 퍼진거 입영으네 이디 다림치고.

106031 #1 그건 굴중이라고. 또 트로 이서.

106031 #2 응. 굴중이라고.

106031 @ 다 자르곡행 만듭니까?

106031 #2 응. 기자 이녁 짐작대로 밀랑은에 손으로 다 했주계.

106033 @ 가족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1 그건 실도 안 들어가 가족으로 신을 박아. 가족을 2세로 2양 실을

멘들아. 그 가족신 ㄹ라 뭐렌 허드라만은.

106033 @ 창신 말양 다른 신발도 이서마씨?

106033 #1 것도 잊어불었네. 창신 멘드는 실 말이어.

106034 @ 나막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4 #2 그건 목시가 멘들아. 목시가.

106034 @ 목시가?

106034 #1 건 극쉐행 파는 거.

106034 #2 극쉐로 팍곡.

106034 #1 숫구락 닳은거 낭 파는 거 이서나수다. 극쉐렌 허는게. 수제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그게 혼 서너너질 되는데. 죽은 고망 팔 때는 호뎀 죽은 걸로. 저 커피 숫구락 닳은 걸로양.

106034 @ 예.

106034 #1 호뎀 큰 고망 팔 때는 큰 숫구락 닳은걸로 행은네 북북 파가민 신이 모양이 다 나와. 기민. 통나무 같은 걸 갖다당.

106034 @ 북북 굽영 팡

106034 #2 남시이라고 게

106034 @ 언제 신어마씨?

106034 #2 비 온 날 신곡게, 비온날. 눈 온 날도 신곡게.

106034 @ 음.

106034 #2 기민 우리도 그거 ㄸ성 아정 다니젠 허민 발에 막 눈덩어리 부뜨민 막 잘빠지멍 땡겨나서.

106034 @ 굽에 눈이 부뎡마씨?

106034 #2 응. 굽에 막 눈 부뎡.

106034 #1 잘뿌러지곡, 굽아리 다 꺾어지곡. 혼이 나주 그런거.

106034 #2 어른들은 그 남신 신영 저을 들어 보리 밧디 검질 메곡.

106034 @ 허...

106034 #2 비 온 날도 그 남신 신영 땡기곡. 우리 어머니네 남신 신영 땡겨났주 게. 보리밧디 가곡게.

106034 #1 우리 조상들은 죄택거리엔 해서 그 남신신영 걸어가도 못해나서.

106034 @ 초신은 또 뭐 잇텐 햇져마는, 예

106034 #2 초신은 저 산디짚으로 즈는 거난게.

106034 @ 아 예.

106034 #2 즐양 깧내멍.

106034 #1 이딧말로 즈는 거주. 짠덴 말을.

106034 #2 즐았주. 즐아. 초신 즐아. 우리 죽은 할으방 게나제나 그 신클에서 초신 삼양 김녕 장에 강 풀멍 해났주.

106034 @ 그때 부깧신이여, 비빔깧신이여 그런거 이서났덴 햇지에?

106034 #2 응, 응. 부각신을 북베기로 깎내명 즈는 거꼭, 깎신은 꼼닥허게 깎 내
엇당 붙이명 즈는 거꼭.

106034 @ 맞다예.

106034 #2 깎 내명하는 건 비빔깎신, 그냥 내명하는 건 부각신.

106037 @ 모자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106037 #1 벌립?

106037 #2 모자? 뭐 무신, 옛날은 샷갓모, 대패랭이 기자.

106037 @ 샷간, 대패랭이 마씨?

106037 #2 옛날은 기자 그거.

106037 #1 벌립, 벌립이 이섯주.

106037 #2 벌립이에, 병것이 이섯주.

106037 #1 벌립이랜 험게 있고, 병것이랜 험게 이섯주.

106037 #2 터럭병것이랜 험게 이서나서.

106037 @ 터럭병것마씨?

106037 #2 으, 터럭병것. 옛날.

106037 #1 꼭 격그레 갔당으네 베 아이 가져가난 저 벌립 튼으네 베 줄양 꼭
정 오라났덴 행계. 그계 정당 벌립이주. 정당벌립.

106037 @ 정당으로 만들어마씨?

106037 #1 응. 정당으로 만든 벌립.

106037 #2 정당으로 짠거. 그거 패랭이라.

106037 #1 패랭이.

106037 @ 아,아.

106037 #2 패랭이 닳은 거. 모저.

106037 #1 정당벌립. 그 꼭 거끄레 갔다네, 베를 아이 가정 가져서 이저불렁.

106037 @ 아, 예.

106037 #1 묶엉 지어와야 될거 아니야, 베 대신. 근디 그 멍청한 사름이.

106037 #2 호호호

106037 #1 정당으로 짠 패랭이를 튼으네.

106037 #2 옛날 할르방들게.

106037 #1 그 꼭으로 지영 오민 될건데, 정당벌립을 다 튼어네 베로 행에 지영
왕 집이 왕 보니까 멍텅현 짓을 해졌거든. 계난 꼭 끌르에 간 놈이 베 아이 가져가
졌ㄴ렌 정당벌립 튼어 아정 베로 행 정 아저 왔덴 험다.

106037 @ 아!

106037 #1 속담에 그 말이 나옵니다.

106037 @ 바보같은 행동을 했던 험 말이구나예.

106037 #1 으으. 바보긋지 해여졌다 이말이우다. 꼭으로 허민 베가 얼마든지 되
꼭 할건디.

106037 @ 깨매예.

106037 #1 그건 생각 안하고 썩간 패랭이 그 정당으로 짠.

106037 @ 정당만 생각헀거라예.

106037 #2 정당 벌립. 호호.

106037 #1 패랭이만 생각허연. 정당벌립, 정당벌립 협주.

106037 @ 정당벌립은 여름에만 쓰겠다예?

106037 #1 예, 여름에.

106038 @ 여름에는 어떤 모자를 씩니까?

106038 #1 여름에는 기자 패랭이게.

106038 #2 대패랭이, 뒤. 샷갓.

106038 @ 다 여름에만 씩니까?

106038 #2 응.

106039 @ 겨울에는 어떤 모자를 씩니까?

106039 #1 감티라고. 지달피 감티여 뒤 뒤신, 털 병것이여 행은네 거 아무나 아
이 씩니다.

106039 #2 옛날 병것이렌 현 것도 아무나 아이 써났주.

106040 @ 양태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0 #2 양태가 탕근 아니?

106040 #1 탕근에서 양태 그...

106040 #2 양태가 탕건일거라.

106040 #1 탕근이여 무시거영 멘들어난거주.

106040 @ 탕건은 만들어나수과?

106040 #2 탕근 우리 안 만들어뵈. 옛날 우리 어머니네 만들어뵈주.

106040 #1 함덕 살 때들 멘들어났주. 함덕 사름은 지방도 멘들아.

106040 @ 탕건은 만든다고 합니까, 졸인다고 합니까?

106040 #2 실로 짜는거.

106040 @ 짜는 거 마씨?

106040 #2 말총으로 행은네 뭇풀랭이에 거 행은네 짜는 거.

106040 @ 아, 아.

106040 @ 총모자는 뒤랜 허는 것과?

106040 #2 총모자?

106040 @ 예, 총모자.

106040 #2 뭇 총으로 만드는 거 아니? 총모자.

106040 @ 뭇총으로.

106040 #2 응.

106040 @ 뭇총으로 탕건 망건 말고 또 뒤 만듭니까?

106040 #2 탕근 말앙, 무시거, 멩긴?

106040 #1 탕근이여 멩긴이여...

106040 #2 탕근 우이 쓰는 게 멩긴 아니?

106040 @ 탕근은 예 여기 게 맞고예. 멩근은 그 위에 영 쓰는 걸거우다.

106040 #1 멩긴은 머리띠를 말하는 거구나.

106040 #2 탕근, 멩긴. 탕근 우이 영 패랭이 꺾지 쓰는게 멩긴 아니?

106040 @ 패랭이 같이 쓰는 거 마씨?

106040 #1 건 갓이주, 갓.

106040 @ 예.

106040 #1 갓이 있고. 탕건은 그 앞에 두건 모양으로 쓰는 거고.

106040 #2 탕근은 앞이 영 툅 지영으네 영.

106040 #1 응. 툅진거고. 이 우이 쓰는 건 갓.

106040 @ 갓, 갓마씨.

106040 #1 탕근, 갓.

106040 @ 갓도 말총으로 만들어마씨?

106040 #2 이. 갓도 말총으로 멘들아.

106044 @ 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4 #2 도롱이?

106044 @ 예.

106044 #2 도롱이가 무시거라. 개 우이나 도롱이 올른덴 허주.

106044 #1 하하하. 그건

106044 #2 개 우이나 도롱이 올른덴 허주.

106044 @ 피부병?

106044 #2 피부병 닳은 거주. 개 터럭 먼쩍 벗어부는 거. 도롱이 올랐덴 허주.

106044 @ 아하. 도롱이 올랐덴 예? 하하. 우장마씨.

106044 #2 우장?

106044 @ 예. 안들어봐나수파?

106044 #1 여기는 우장이렌 허주.

106044 #2 우장?

106044 #1 주쟁이 굵은 거 그런건 늘 덕그는 거고. 늘암지, 주쟁이.

106044 @ 비올 때 쓰는 거 뭐마씨?

106044 #2 비올 때 쓰는 거 뭐? 우장?

106044 @ 우장, 계난.

106044 #2 응, 우장.

106044 @ 우장은 어떻 만들어마씨?

106044 #1 아이고 그거 상당히 어려워.

106044 #2 우장도 짜는 사름은 짜주.

106044 @ 긴 거 짧은 거 이수과?

106044 #1 아이 똑 끝이 들어갑시다만.
106044 @ 예.
106044 #1 근디 그거 모작 수가 엄청나게 만하여.
106044 @ 아, 기파? 모작수...
106044 #2 베끼씨는 멘 떠럭이고 안네는 멘 모작이라, 모작.
106044 @ 아...
106044 #2 노끈 모작.
106044 #1 계난 어떤 태풍이 불어도
106044 #2 우장이렌 현거는
106044 #1 우장 쓰고 우이 감테같은 거나 썩민 꼬덕 어서 났주. 불려나가지나 안허민.
106044 @ 아...
106044 #1 어떤 비보름이 불어도 방지되는 거주. 그이상 우의가 좋은 게 어서났 주.
106044 #2 옛날엔 게 우장백기 어서났주게. 비웃이렌 현게게.
106044 @ 안에는 실 짜듯이 영 모작으로 짜고.
106044 #2 안에는 문딱 모작.
106044 @ 위에는 나풀나풀
106044 #2 터럭, 새.
106044 #1 새, 새.
106044 @ 아, 새.
106044 #2 새 터럭. 비가 반경.
106044 @ 새는 나는 생이파?
106044 #2 아니, 집 잇는 새.
106044 @ 아, 그냥 새.
106044 #1 집 잇는 새도 문 다듬어야 돼.
106044 @ 아...
106044 #1 새 사이에 나무 땅땅한 거. 거 어서불어사메.
106044 @ 아, 얇게 깎으멍예?
106044 #1 응, 얇게. 야.
106044 @ 그걸 터럭이렌 하는구나.
106044 #1 응, 그거 터럭.
106044 @ 나풀나풀한 걸.
106044 #1 하하하.

7.식생활

- 107024 @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24 #1 재료에 따라서 죽이 다른 게.
- 107024 #2 콩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 107024 #1 곤죽도 있고.
- 107024 @ 아, 곤죽.
- 107024 #1 피국죽도 있주.
- 107024 @ 곤죽하고 흰죽하고 틀립니까?
- 107024 #2 아니라. 곤죽이엔 흰 건 지름 낱은에 곤죽을 쭈어 먹주.
- 107024 @ 아...
- 107024 #1 쌀만 낱 죽을 쭈는 걸 곤죽을 말하는 거고.
- 107024 @ 어떻 멘듭니까?
- 107024 #2 어떻게 지름 볶양은에게 경행 죽 쭈는 거.
- 107024 @ 찬물 낱 마씨?
- 107024 #2 응. 언물. 찬물이엔 헤여? 언물이엔 허주.
- 107024 @ 언물을 놔.
- 107024 #2 언물을 낱 죽 끓여 먹주 뭐. 많이 있주 뭐. 모믈죽도 있고.
- 107024 @ 모믈죽도 있고.
- 107024 #2 으. 피찰죽도 있고 뭐.
- 107024 #1 피국죽을 흰 번 누물이영 담아 낱 맥여봐사 맛을 알게.
- 107024 #2 하하하.
- 107024 @ 피국죽 마씨?
- 107024 #2 국죽, 국죽.
- 107024 @ 그냥 국죽.
- 107024 #2 그냥 국죽. 막 승키 담아 놓고 아무 쓸이라도 낱.
- 107024 #1 아무 쓸이라도 낱.
- 107024 #2 막 노물 담아 농곡 무신 놈빼도 썰어 농공 행은에.
- 107024 #1 불러 먹기 위해서
- 107024 #2 경행 국죽.
- 107024 @ 국죽. 이진 국죽마씨? 쌀하고 승키 같이마씨?
- 107024 #2 아니 쓸 낱 쭈어져 가민 승키 낱.
- 107024 @ 승키 나중에
- 107024 #1 응. 승키. 채소를 놓는다 말이우다. 아무 채소나.
- 107024 #2 아무거나 노물도 담아 농곡게.
- 107024 #1 고사리를 놔서 쭈던, 배추를 놓던, 무수를 놓던.

107024 @ 아.

107024 #1 불와 먹기 위해서. 옛날.

107024 @ 음.

107024 #1 보리 국죽. 보리쌀로 죽을 쑷니께. 여기 좁쌀이나 곤쌀이나 아무 쌀이나 낱은에 불와 먹기 위해서.

107024 @ 아...

107025 @ 곤죽하고 흰죽은 틀린거라고 마씨?

107025 #2 으. 흰죽은 그냥 심심하게 쭈영 먹는 거.

107025 @ 아. 흰죽은 그냥 쌀만.

107025 #2 으으. 쌀만.

107025 @ 그건 흰죽이파?

107025 #2 으. 흰죽. 모물죽. 모물쌀 낱 쭈는 건 모물죽.

107027 @ 풀죽은 마씨?

107027 #2 풀죽은 그냥 풀죽이주게. 녹디죽도 있고.

107027 #1 풀죽, 녹지죽은 옛날엔 이젠 떡들허멍 즈베기들 허멍 험디다들 옛날은 그런 법이 어서수다.

107027 @ 풀죽은 어떻 쑷니까?

107027 #2 무시거 풀 솥양은에게

107027 @ 풀을 솥아.

107027 #2 그냥 무시거게 문대경은에게

107027 @ 아, 문대겨.

107027 #2 그냥 물 낱 쌀 낱 쭈면 되주게.

107027 @ 솥은 물 안 버립니까?

107027 #2 물 안 버려.

107027 #1 물 버려 되어게.

107027 #2 물 버리민 맞아서게 멋엇주.

107027 @ 풀 솥아난 다음에 호끔 문대겨

107027 #1 끝이 그것에 문대겨

107027 #2 국자 신 때 국자로 꺽꺽 놀렁 문대경은에 풀죽 쭈어.

107027 #1 설사 난 사람도 그거 막 단약이라.

107027 @ 문대겨 낱 물 낱 쭈어.

107027 #2 으. 물 더 낱. 경 행 쌀 낱 쭈민 되주.

107027 #1 풀죽도 쭈는 거 몰라.

107027 @ 어떻할 때 풀죽은 먹는 것과?

107027 #2 풀죽은 동지에도 먹곡.

107027 @ 동지에.

107027 #1 이디 큰일 나크라. 동지에 방서로 쭈어 먹는다. 아귀를 쫓기 위해서.

107027 #2 절간에서도 그건 쭈어 떡곡.
107027 @ 예.
107027 #1 풀죽을 쭈어 문에도 잡앙 던지곡.
107027 @ 예.
107027 # 저런디도 만딱 돌아가명 흐쓸씩 뉘, 캐우립니다.
107027 @ 예.
107027 #2 풀으로이 풀은 귀신을 방지하는 거난.
107027 #1 방지하는 거우다.
107027 @ 예.
107027 #2 저 이사나 가젠 허민 집이 상 가나 이사가젠 허민 그 집이 강 풀을
막 뿌리는 거라.
107027 @ 아...
107027 #1 소곰, 소곰. 풀이나.
107027 #2 쟁이나 안허면 동지에
107027 #1 방사로 경허고. 바싹 추우민 풀죽 쭈어 먹어 좋은 거주게.
107027 #2 추울 때 댕댕허주게.
107027 @ 예.
107028 @ 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8 #2 콩을 곱아당. 옛날은 기계 어스난에 돌궤에 콩 곱앙.
107028 @ 돌궤에 마씨?
107028 #2 응.
107028 #1 정궤, 정궤.
107028 #2 정궤에 곱앙 경행.
107028 @ 그믐 그 궤로 바로 끓입니까?
107028 #2 아니, 쫄 낱 쭈당계.
107028 @ 아, 쭈당.
107028 #2 쫄 낱 쭈당 궤여가민 콩궤를 낱 남죽으로 휘 젓으멍.
107028 @ 남죽으로 젓으멍.
107028 #2 으. 놀카부덴. 남죽으로 젓으멍계.
107028 @ 예.
107028 #2 쭈멍 먹었주.
107028 #1 콩죽 쭈어 먹어난 거로구나. 하하. 오랜 역사주.
107028 @ 예.
107029 @ 모물축마씨? 그건 어떻습니까?
107029 #2 어떻게여계. 물낱 쭈민 되는 거주.
107029 #1 하하하하.
107029 @ 그냥 물 노민 되마씨?

107029 #2 으. 물만 놔.
107029 #1 쌀만 노민.
107029 @ 모물에 쌀도 넣고 마씨?
107029 #2 으. 쌀 낱.
107029 #1 모물쫄게 모물.
107029 @ 아, 모물만.
107029 #1 모물이 아니고 모물쌀. 모물은 껍질이고.
107029 @ 하하하.
107029 #1 모물은 껍질을 말히는 거고. 모물에 껍질을 벗어난 것은 쌀, 모물쌀.
107029 #2 모물쌀.
107029 @ 예. 벗겨 놓은 거예?
107029 #1 으. 그건 벼도 마찬가지로. 벼 껍질광 벼쌀이 또 틀린 거주게.
107029 @ 아..
107029 #1 껍질을 벗어 나야 벼도 쌀이 나오게 되는 거.
107029 @ 모물 껍데기는 뭐렌 글아마씨?
107029 #2 모물체. 베개도 허고 허주게.
107029 @ 모물체하고 쌀 사이에 있는...
107029 #1 그건 느쟁이.
107029 @ 아, 느쟁이.
107029 #1 그건 느쟁이엔 낚는 거.
107029 #2 하하하.
107029 #1 막 곳인 것을 말하는 거.
107029 #2 느쟁이는 시커멍헌거.
107029 @ 느쟁이는 모물에만 이신 거파?
107029 #1 응. 모물에만.
107029 #2 모물에만 있주게게. 쌀 글아나민.
107029 @ 예예.
107029 #2 느쟁이...
107029 #1 피쌀같은 거 글아나민 또 피보미가 있주. 그냥.
107029 @ 피보미는 피쌀하고 피 껍데기 사이에 있는 거파?
107029 #2 피 글아나민 체에 치면은 보미가 나와.
107029 @ 하얗게 가루 같은 거 마씨?
107029 #1 쥐색 닳은 가루가 나와.
107029 @ 아..
107029 #1 쌀이 검습니다. 쌀이 검은니까 쌀 일부 벗어지멍 그 가루가 나와.
107029 @ 보미는 피에만 이수파? 다른 쌀에는 어수파?
107029 #2 으서으서.

107029 #1 뜯 쓸에는 어서. 피에만.
107029 @ 피에만.
107029 #2 피에만 이서. 느쟁이도 모물에만.
107029 #1 으. 모물에만 잇꼭. 느쟁이도.
107029 @ 보미는 주워 먹는 거파? 죽이라도 쭈영 먹는 거파?
107029 #2 느쟁이?
107029 @ 아니 보미.
107029 #2 보미? 아니 그냥 흐쓸 줍아 먹으면 들큰은 해여.
107029 @ 줍아 먹어마씨?
107029 #2 으. 먹지 안해여.
107029 @ 해 먹지 안해여마씨?
107029 #2 으. 먹지 안해여.
107029 #1 아, 겐디 우린 먹어낫주. 흥년에.
107029 #2 무시걸 행 먹습니까?
107029 #1 겐디 많이 먹지는 못해여. 막 독해여.
107029 @ 아아.
107029 #2 목이 막 웨허영 못 먹어.
107029 #1 게나 간식으로 밥 대신 조금 그자. 사발에 숯구락 두어 숯구락 그자.
107029 @ 아.
107029 # 옛날이사 게역행 먹주.
107029 #2 옛날이 게역이 어디 셔서. 게역.
107029 @ 하하하.
107029 #1 우린 그때 송당서 보리를 갈아서.
107029 #2 아니 물룻이라도 솥양 먹주.
107029 #1 게, 옛날은 물룻 솥아서.
107029 @ 물룻은 어떻 솥아 먹습니까?
107029 #2 물룻 솥양 막 폴레 땡겨났주게.
107029 #1 물룻 솥으면은 정각 노오메
107029 @ 정각?
107029 #2 패주 무신 정각?
107029 #1 아, 패, 패! 정각은 우리 생차로 먹는 거고. 패, 넵패라고.
107029 #2 물룻에 낱 솥아.
107029 #1 넵패 낱 막 솥아가민 이게 돌아.
107029 @ 넵패하고 물룻하고 같이 솥으면 마씨?
107029 #1 막 계속 솥아 가민 한 이십사시간 이상 솥아야 돼.
107029 @ 예, 예.
107029 #1 게른 이게 새카망 해여. 옛이 되어.

107029 @ 예?

107029 #1 야. 쟁 먹으면 돌아. 돈데 많이 먹으면 여기 목 아파.

107029 @ 아...

107029 #2 모가지 아팠 하영 못 먹어.

107029 @ 쟁 무시거에 곱습니까?

107029 #2 무시거엔 곱아.

107029 @ 그냥 물룻 삶은 거 마씨?

107029 #1 야, 야. 경해영 그거 이 촌더레 나옵니다. 그거 흔 사발에 쓸 흔 흡이 면 흔 흡 바짜.

107029 #2 쓸 쥬 바짱 먹었주게.

107029 #1 견디 부제 이 양반네들은 경행 바짱 먹었지만은 우리는 옛날 보리도 안 갈아나수다. 송당에는.

107029 @ 예.

107029 #1 쟁행 그 보미를 연자방에에 강 피 곱아가가민 그걸 치면은 피썰, 줌 썰이 이수다. 줌썰이라고.

107029 @ 예.

107029 #2 가시 피썰.

107029 @ 가시 피썰마씨?

107029 #2 그것 마라. 아시, 아시 피썰.

107029 #1 아시 피썰인데 그거 해영 또 치어난 사민 보미가 나와. 마루가. 겨민 우린 그걸 간식으로양 우리 빵이영 우유 먹듯 그거 두어 숯구락 먹영 점심 때우고.

107029 @ 음.

107029 #1 야, 영해나수다.

107029 @ 아까 물룻 삶은 건 어떻게 때 먹는 거 마씨?

107029 #2 그거 그자 간식으로 사 먹어 났주.

107029 #1 그건 간식으로. 그거 막 듭니다. 돌아. 그제.

107029 @ 아. 헤벤이서 만들영 이디 가정 와마씨?

107029 #2 아니, 아니. 촌에서 해났주.

107029 @ 촌에서.

107029 #2 촌에 이디 못 사난, 못 사난.

107029 @ 아, 이런 디서 만들어마씨?

107029 #2 으, 먹을 거 어스난 그것도 매 집에 안 허주게. 어떻게 그거 허는 집 이서가 삶양 물룻 삶양 풀암져 허든 쓸 가정강 바짱 오는 사람도 잇곡. 동네서.

107029 @ 간식으로 마씨?

107029 #2 우리도 송당서 덕천 풀레 가난.

107029 @ 물룻 삶양은에 마씨?

107029 #2 으으. 바짱 먹어 났주게.

107029 #1 경헌디 그 애월 소실에서가 이 과질, 시방 과질 있지 안합니까양?
 107029 @ 예에.
 107029 #1 거기 공단 출려냥 대대적으로 향토음식으로 해영 방송헙디다. 허건 송당 사름도 멘들당 못 먹어부난 뭘 했는데 저 수산 가시리서 저게 옛날부터 나온 거우다, 저 과질이.
 107029 @ 예
 107029 #1 겨헌디, 애월서 이 제주 향토음식이렌 허영 공장을 출령 막 스무나무 들양 헙십디다. 방송에 보난.
 107029 @ 음.
 107029 #1 옛날 그런 식으로 과질도 꽤 오래수다. 그것도.
 107029 #2 과질이 그거 일본 법으로 나와실 거라게. 그게.
 107029 #1 그난 이디서 피 내영 피보미... 아이고 참. 물룻 삶은 거, 그거 누게 송당에 아는 사름 어실 거우다.
 107029 @ 예, 물룻 삶은 거.
 107029 #1 또 뜯 부락에서는 몰라.
 107029 @ 물룻은 그냥 풀이파?
 107029 #2 그냥 밧디 나는 거.
 107029 @ 검질예?
 107029 #2 으, 검질. 지금은 물룻도 어려워. 막 약 쳐부난.
 107029 @ 아...
 107029 #2 지금은 물룻 어려워.
 107029 @ 음.
 107029 #2 물룻 그자 마농곶이 나오는 거.
 107029 @ 마농 곶이 나와마씨?
 107029 #2 마농곶이 나오주게. 이파리 넓적넓적하게.
 107029 #1 그놈의 넙패를 아니 노면은 양 그 독성이 제해지지 안헌답디다.
 107029 @ 아, 예. 거나 ㄱ치 놓는 거 마씨?
 107029 #1 야. 게서 필히 헤벤에 강 넙패를 톤양 와.
 107029 #2 응.
 107029 @ 아...
 107029 #1 갹 넙패가 요 중간까지 먹어수다.
 107029 #2 이젠 넙패도 어려워.
 107029 #1 넙패도 없어. 이젠 몬 뜯어 가불연. 가시리곶은 거 넙패 전연 못 봐.
 107029 @ 아.
 107030 @ 녹두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0 # 풀죽하고 꼭 곶아.
 107030 @ 녹두죽이 마씨?

107030 #2 녹디도 흔번 솥양 호끔 문대겨.
107030 @ 문대겨마씨?
107030 #2 으. 경행 쓸 농곡 물 농곡 해영 쭈어.
107030 #1 잘 쭈지 안허민 설사나메.
107030 @ 녹디는 마씨?
107030 #1 으.
107030 #2 콩죽, 콩죽.
107030 #1 콩죽하고 녹디죽은. 하여튼 콩종류는.
107030 #2 잘 쭈어사주게.
107030 #1 녹디는 생차로도 먹는다,
107030 #2 설사나는게 아니고 배아푸주. 두루 솥으민.
107030 #1 게난 잘못 쭈민 설사나는 거라.
107030 #2 모큰 오래 쭈어사.
107030 @ 모큰?
107030 #2 으, 모큰 오래쭈어사.
107030 #1 하하하하.
107030 @ 콩죽은 안 먹어나수다.
107030 #1 죽은 돼지고기나 쇠고기. 물론 고기는 죽어야 잡지만은 양.
107030 @ 예예.
107030 #1 옛날은 눈이 이만씩 오면 양, 들 소 같은 거 벋기 내놔당 통제하지 못해영 그냥 죽어. 죽으민 강 그 괴기 잡양 올 거 아니짜. 잡아 오면 필히 이런 백 사기에 모사놔야. 그게 살을 죽이는 거주. 거기 신 충을. 그런 비결이 수다. 시방은 뭐 그런 고기 아이 먹읍니다만은.
107030 @ 예, 예.
107031 @ 뉘죽도 쭈영 먹어났주예?
107031 #2 쭈영 먹어났주.
107031 @ 뉘.
107031 #2 뉘? 으, 쭈영 먹어났주.
107031 @ 어떤 때 먹는 거짜?
107031 #1 유월 스무날.
107031 #2 유월 스무날.
107031 @ 하하하. 유월 스무날.
107031 #2 으. 유월 스무날 빙애기 피왕.
107031 #1 시방은 초복에 행 먹주만은.
107031 #2 빙애기 피왕 빙애기 크민,
107031 @ 예.
107031 #2 그거 저 빙애기 하나 쉼 검질도 빌어 매곡.

107031 @ 예?
107031 #2 빙애기 하나 췌 검질도 빌어 매어.
107031 @ 누게 신디 쥐마씨?
107031 #2 동네 사름게.
107031 @ 아...
107031 #2 동네게 빙애기 안 질루는 사름덜 경허민 검질 하루 매민 빙애기 흐
나 주민.
107031 @ 아...
107031 #2 빙애기 딱 흐 사름 먹을 만이 허메게.
107031 @ 아... 그믄 고기 먹어난 다음에 죽 췌니까?
107031 #2 아니 우리 옛날이는 그자 톱 신냥 죽 췌어나서.
107031 @ 끝이마씨?
107031 #2 으. 지금은 톱 건정동덜 췌영 먹엄지만은.
107031 @ 그디 마농이영 무신 거 뇽니까?
107031 #2 아이고 옛날은 마농이 어디셔게.
107031 @ 나영영 똑같은 말 허염수게.
107031 #2 그자 톱하고 췌만 뇽 췌영 먹었주게.
107031 #1 방세 하나. 새나 털어정 죽으거 좃으거나 이시민 양, 게믄 고기가 어
려운 때 그 고기를 해다 노민 그때는 백사기를 뺏아 놔야 해. 백사시를 놔야되어.
107031 @ 백사기가 뭐파?
107031 #2 사시 그릇.
107031 @ 아...
107031 #1 사기를 놔야 되어.
107031 #2 아니 톱 숲을 때도 그거 놔났주.
107031 @ 그거 놔 나수파?
107031 #2 으. 새금파리 봉가당게, 새헤영한 거. 벌러진 거
107031 @ 독을 제거하는 거.
107031 #2 응. 톱죽 췌 때 그거 뇽 해났주게. 지금은 안 뇽주게, 지금은 마농도
농곡게
107031 @ 계난예.
107031 #2 옛날은 침, 마농 어서부난 그 새금파리 놔났져.
107031 @ 음.
107034 @ 범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4 #2 밀췌시는 안 먹어봤주, 김녕서는. 췌디 이디 오난 밀췌시를 먹었어.
107034 @ 밀췌시.
107034 #2 밀췌시게. 지금은 소나 먹엄지게. 소 사료야, 그거.
107034 @ 그땐 뭐 어선게 예?

107034 #2 그거 행 범벅해노민 진짜 먹젠 허민 힘들어.
107034 @ 범벅도 이셨구나.
107034 #2 사락사락사락행은네 힘들어.
107034 @ 사락사락행...
107034 #2 감저 빼떼기 사당 감자ㄱ를 멘들앙.
107034 @ 범벅으로 마씨?
107034 #2 으. 범벅으로.
107034 @ 감저 범벅은 어뎡 멘드는 것과?
107034 #2 감저 범벅 마찬가지주.
107034 @ 빼떼기를...
107034 #2 빼떼기 슥양 먹었주. 빼떼기 뺏으민 ㄱ루해영 그걸로 범벅행.
107034 @ 음... 범벅은 어떤 거 이수파?
107034 #2 범벅이 해주게. 느쟁이 범벅도 잇곡.
107034 @ 느쟁이 범벅?
107034 #2 모물. 모물 느쟁이.
107034 @ 모물 느쟁이...밀 주시 범벅도 있고.
107034 #2 밀주시 범벅은 스테에. 막 어려운 때에.
107034 @ 또 아까 뭘로 범벅한덴 해수파?
107034 #2 감저 빼떼기로 꿀면 ㄱ루행 범벅도 허고 떡도 행 떡곡. 돌레떡.
107034 @ 범벅이 지금은 별미라도 그때는 밥 대신 먹은 거지예?
107034 #2 밥 대신게. 쓸이 귀하니까.
107034 @ 밥 대신에...
107034 #2 그때는 쓸도 알량미 쓸이야. 알량미쓸.
107034 @ 알량미쓸... 범벅은 또 뭘로 해 먹습니까?
107034 #2 범벅 해먹는 거. 아무 ㄱ룰이라도 범벅이주, 뭐. 아무거라도.
107034 @ 어뎡 만들어마씨?
107034 #2 무수 썰영 물에 슥양 익으면은 ㄱ루를 노양.
107034 @ ㄱ루 낱.
107034 #2 익으면은 ㄱ루 노양 한동안 불 슥앗당 익으면은 남죽으로 짓주게.
107034 @ 짓어.
107034 #2 어. 겨민 범벅.
107034 @ 범벅.
107034 #2 하하하.
107034 @ 우리 어머니도 오빠 장가가는 날 일하는 사람들에게 범벅해줘난 거 답수다. 모물로.
107034 #2 모물ㄱ루로 하민 해영허곡. 느쟁이범벅은 거명하곡.
107034 @ 거명하고... 모물 범벅.

107035 @ 즈베기는 안 행 먹어수파?
107035 #2 무사 안 행 먹어. 즈베기도 행 먹곡.
107035 @ 즈베기는 뭘로 만들어나수파?
107035 #2 밀ㄹ루도 허곡게 모물ㄹ루도 허곡게.
107035 @ 예...
107035 #2 이녀 먹구정 현대로 아무거나 먹주무신.
107035 @ 하하하하. 모물 즈베기는 언제 먹는 거파?
107035 #2 모물ㄹ루 국시.
107035 @ 모물ㄹ루 국시는 먹는 때가 이수파?
107035 #2 옛날은 모물ㄹ루 국시... 지금은 보통 다 설렸어. 정월 멩질에 아침 세백이 떡국 먹듯이 고기나 낱 국시를 해여.
107035 @ 모물 국수를.
107035 #2 모물 국시를 아침 세백이 하는 거라. 국시해여.
107035 @ 아...
107035 #2 이건 무사 세백이 햄신가 하면은 조상들이 세백이 오젠 허난 속았다고. 추운디 오젠 허난 속았다고 그 국시를 몬녀 행 안내는 거라.
107035 @ 아... 세백에. 그거 무신 국물에 국시힘니까?
107035 #2 국시?
107035 @ 예.
107035 #2 아, 아무거라도. 소고기 낱 해도 되곡, 돼지고기 낱 해도 되곡.
107035 @ 아, 고기 낱 해여예?
107035 #2 으. 경행 허주.
107035 @ 꿩메밀 국수 이런 건 안 해마씨?
107035 #2 아, 그런것도 낱 해여.
107035 @ 그런것도 해마씨?
107035 #2 꿩도 시민 꿩국시 허곡.
107035 @ 하하하.
107035 #2 근디 꿩은 경 보통으로 허나게.
107035 @ 세백 국시 해놓고 또 제를 지내마씨?
107035 #2 으. 그다음엔 멩질 허주게.
107035 @ 아, 경해낱 제를 지내고.
107035 #2 저, 국시는 조상님들이 오명 추운디 오젠 허난 좀 속았다고.
107035 @ 상에 올리는 거 아니고마씨?
107035 #2 간식으로 해여. 메 갱 하기 전에 아척 세백이.
107035 @ 새백이.
107035 #2 으. 세백이. 지금이른 혼 으섯시 반.
107035 @ 상에 올려마씨?

107035 #2 상에 허는 사람은 상에 해도 우리는 상에 안해봐서. 그냥 아래. 찻자리 꿀국 아래.

107035 @ 아래에.

107035 #2 으. 그건 간식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국시하는 거 보통 다 설러붙었어.

107035 @ 예.

107035 #2 다 설러붙어신디 우리도 해나서.

107035 @ 정월 멥질에예?

107035 #2 으. 정월 멥질에.

107035 @ 애기 나난 다음에 모물로 된거 먹지 안해수짜?

107035 #2 아이고. 모물ㄱ루. 뭐 해다쥬 먹는 사람은 먹주만은 우리는 해다주기 안 해나난 못 먹어 봐서 애기 나도.

107035 @ 메누리한테 해주지 안한 마씨?

107035 #2 메누리들 모물 즈베기 해주민 먹어? 안 먹주.

107035 @ 우리 어머니는 메누리한테 해줍디다.

107035 #2 우리 메누리들은 다 병원에서 나부난, 윈.

107035 @ 경해도 해줍디다...

107035 #2 우린 안 해줘반. 하하.

107035 @ 국도 미역국에 ㄱ루 낵 꿀영게 마씨.

107035 #2 게민 좋주게. 푸달푸달.

107035 @ 하하하.

107036 @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6 #2 국수도 모물 ㄱ루로 하는 거.

107036 @ 모물 가루로마씨?

107036 #2 저 밀ㄱ루도 하곡. 왜밀ㄱ루.

107036 @ 왜밀가루마씨?

107036 #2 옛날에 토종 밀ㄱ루도 있고 왜밀ㄱ루도 이서나서. 지금이야 밀ㄱ루 나오는 시난 햅주만은.

107036 @ 파는 거예...

107036 #2 근디 옛날은. 왜밀ㄱ루... 토종도 밀이 이서나고.

107036 @ 왜밀ㄱ루하고 토종 밀ㄱ루는 뭐가 달라마씨?

107036 #2 에이 다 곱으주만은 왜밀이 토종보다 희주게.

107036 @ 아, 색깔이.

107036 #2 으. 색깔이.

107036 @ 둘 다 농사 지어수짜? 아니른 ㄱ루로 사당 햅마씨?

107036 #2 으. 옛날은 밀농사 해낵주. 밀도 왜밀이나 토종밀이나 ㄱ레에 낵 곱아.

107036 @ 음...

107036 #2 ㄱ레에 곴아서 ㅈ베기도 행 먹고 범벅도 행 먹곡.

107036 @ ㄱ레에 낵예?

107036 #2 모믈쫄도 ㄱ레에 곴아가지고. 옛날은 암반.

107036 @ 암반?

107036 #2 암반에서 밀어. 경행 썰어.

107036 @ 썰엉.

107036 #2 암반은 옛날에 이불안 곴은 거 요안 곴은 거 몬딱 광목으로만 했어. 지금은 일천거 다 나니까 해도 옛날은 광목벳기 어서나서이.

107036 @ 예.

107036 #2 광목으로 이불안 요 곴은 걸 슸아 경행 벳디 발래여. 풀해냥 그 암반에 낵 두드려.

107036 @ 그냥 두드려마씨?

107036 #2 짜글짜글한게 짹 폐와지거든.

107036 @ 국시할 때는 아무것도 안놔마씨?

107036 #2 아무것도 안 놔.

107036 @ 깨도 안 놔마씨?

107036 #2 노민 먹기 좋주만은 아무것도 안 놔. 간이나 행.

107048 @ 첫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8 #2 자리젓, 각제기젓, 멜젓.

107048 @ 뭐 답어나수짜?

107048 #2 멜젓도 담곡, 자리젓도 담곡. 근디 난 멜젓벳기 안 답아난.

107048 #1 고도리젓도...

107048 #2 고도리젓도 셔.

107048 @ 아, 고도리젓도 마씨?

107048 #1 갈치젓도 담양 사당 먹어봐수다만은 거기가 거기야.

107049 @ 자리젓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9 #2 앞으로 자리 나가민 담주게.

107049 @ 몇 월쯤 되민 마씨?

107049 #2 그걸 알 벤 때 담젠 허민 유월 들 전이 답아야.

107049 #1 유월절 전이.

107049 #2 칠월절 전이.

107049 @ 칠월절 전이 마씨?

107049 #2 으. 칠월절 전이.

107049 #1 알 싸지 안 현 때, 그 때 새끼.

107049 #2 칠월절 들어가면은, 칠월절 보더 가면은 알 싸불영 맛이 어서.

107049 @ 아...

107049 #1 보리 빌 때, 그때. 망종 소시.
107049 @ 지금마씨?
107049 #2 지금은 보리 이제사 단풍 드는 디.
107049 @ 하하하.
107049 #2 음력 오월 쯤에.
107049 @ 보통 언제 얼마나 담았수파?
107049 #2 옛날에, 자리젓 안 담아봤.
107049 @ 아, 안 담안...
107049 #2 옛날에 어디 자리가 셔서. 정 메날 폴레 다녀도 자리도 어려완.
107049 @ 밧디강 덕젠 허민 자리젓이나 멜컷 안 담아수파?
107049 #2 아유, 된장만 앓앙 갔주.
107049 @ 하하하.
107049 #2 옛날은 밧디가젠 하민 마농지시민... 아이구.
107049 #1 거, 호강의 소리. 호강의 소리.
107049 @ 예.
107049 #1 하하하.
107049 @ 그른 자리 담을 때 소금 알아지구과?
107049 #2 자리 혼 관대에 소곰 혼 사발.
107049 @ 아, 소곰 혼 사발.
107049 #1 그것도 사발로 가난 그건 전업자한테 물어.
107049 @ 하하하.
107049 #2 자리 장시한테 빌영 담아도 맛 어성계.
107049 #1 할망 자리젓 멧번 실수행은에. 짜불여, 고려불여. 고린게 맛은 좋아.
싱거운거. 냄새가 거 허나 꺼내노민 집안에 냄색 난리 나. 맛은 좋은데.
107049 @ 예예, 하하하.
107049 #1 경혜근에 앓아당 먹질 못허곡. 짠 건 또 양.
107049 #2 너미 짜도 맛 어서.
107049 @ 예.
107049 #1 으. 짜도 그 객객. 짜다는 말은.
107049 #2 그 자리 장시한테 빌영 담은 건 뭐 맛좋읍디가, 잘 흐노랜 해도, 윈.
107049 #1 짠짠하단 말은 객객해여.
107049 @ 객객해여.
107049 #1 짜단 말은 객객해여. 경험니다.
107049 #2 하하하.
107049 #1 객객하민 양, 그 자리젓 혼 삼년 된 거 우리도 시방 저기 이수다.
107049 @ 안 썩습니까?
107049 #2 자리 장시한테 빌영 담아도 뭐 짠짠헌계.

107049 #1 하하하.

107049 #2 맛 어서.

107049 #1 껌껌혜여부난. 맛 어성 말이여.

107049 @ 하하하.

107049 #1 짜민 맛이 엇고. 싱거우면 냄새는 이서도 맛이 나.

107049 #2 근이 잘 맞아사.

107049 @ 예. 근이 잘 맞아사.

107049 #2 근이 잘 맞아사...

107049 #1 하하하.

107049 @ 얼마나 묵히민 먹어집니까?

107049 #2 담양 혼 두달만 시민 먹주게.

107049 @ 두 달만...

107049 #1 으, 혼달이민 먹어, 혼달이민.

107049 @ 무신거에 담아봐 마씨?

107049 #2 무시거, 단지에 담주.

107049 @ 단지에.

107049 #1 막 많이 허젠 허민 뭐 황아리에도 담아도 되주워.

107049 #2 하하하하.

107049 @ 버므려냥 답습니까?

107049 #2 으. 버므려냥 답아.

107049 @ 소곰에예?

107049 #2 응. 버므령. 버므령 답아.

107049 @ 단지에 답아...

107049 #1 멜컷이나 자리컷이나 그 멜각지덜 쨌쨌흔 것들.

107049 @ 예.

107049 #1 그런거 대개 갈치젓은 창란젓이엔 허곡 갈치가 그 담는 게 이수다게.

107049 @ 예예.

107049 #1 갈치젓, 그 쨌쨌흔 것들. 갈치젓은 양념 잘 하면 맛이 이서.

107049 @ 예.

107049 #1 자리젓은 옛날 자리젓이지. 가시가 썬어.

107049 @ 예. 가시가 썬어.

107049 #1 가시가 되게 썬어. 경허고 요놈의 거 대가리 뿔이가 이서. 머릿박에.

107049 @ 예? 뭐마씨?

107049 #2 아니 뭐 무신

107049 #1 딱딱해, 돌돌돌.

107049 @ 돌 마씨?

107049 #1 무신 보석 모양으로. 현현.

107049 @ 예예.

107049 #1 머릿박 깨영 보면 머리, 우리 볶아 먹을 때 보면 양, 그게 바로 사기
닭은 게 이서. 두 방울 들어가는 게 있고. 혼 방울 들어가는 게 이서.

107049 @ 두 개 들어가는 게 이서마씨?

107049 #1 암놈은 하나도 안 들어가.

107049 @ 아...

107049 #1 자리도. 그게 성가시곡. 가시 자리 읊 가지도 상당히 사납수다게.

107049 @ 예 맞아마씨.

107049 #1 경허는데 고도리젓하고 이 멜치젓하고 갈치젓은 가시가 수월힙니께.

107050 @ 멜치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0 @ 멜치젓하고 자리젓하고 비슷할 때 답아마씨?

107050 #2 멜치젓은 저 가을 들영 혼 구월.

107050 @ 음.

107050 #2 그 때 답아야주.

107050 @ 멜에는 소곰 얼마나 놓읍니까?

107050 #2 어?

107050 @ 소곰마씨.

107050 #2 무신것에.

107050 @ 멜마씨.

107050 #2 멜도 마찬가지로. 혼 관대에 소곰 혼 사발.

107050 @ 이것도 버물립니까?

107050 #2 버물령 답아.

107051 @ 아감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1 #2 아가미젓?

107051 @ 아가미젓이엔 허는구나.

107051 #2 아가미, 아가미. 배설 창지 빼내는 거.

107051 @ 예.

107051 #1 아가미가 일본말이라.

107051 #2 아가미, 아가미.

107051 #1 아우생이.

107051 @ 그것도 젓 답아마씨?

107051 #2 아가미도 젓 답는 사람은 답주.

107051 @ 무슨 고기 아가미로 마씨?

107051 #1 아니. 어우생이 젓은 우리 아이 먹어보난 모르크라.

107051 @ 예.

107051 #1 젓 담넌 말만 들어봤주.

107052 @ 계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2 @ 강이젓은 안 험니까?
107052 #1 강이젓?
107052 #2 무사 강이젓도 장에 가민 천지만지 뭐.
107052 @ 이 동네는 어시난 안 답아신가 마씨?
107052 #2 아유, 이 동네는 어서.
107052 #1 볍앙 먹기도 바뵤니게. 젓을 어떻 답아?
107052 @ 하하하.
107052 #2 잡아와져나 시민 볍앙이라도 먹주만은.
107052 @ 민물 강이도 있지 안험니까?
107052 #2 민물 강이 어서.
107052 #1 야, 민물강이가 가재하고 비슷한 건데.
107052 @ 예.
107052 #1 그게 우리가 아이 먹어보난 모르쿠다.
107052 @ 예.
107052 #1 강원도 같은 디서 가재도 잡아먹고 게도 잡곡 군인 간때 보난 우리도 심어봐수다 만은.
107054 @ 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4 #2 출레?
107054 @ 예.
107054 #1 출레?
107054 #2 아, 게 무신 하간 반찬ㄹ라 출레엔 허주.
107054 #1 그 이 젓갈 보고 출레.
107054 @ 아, 젓갈종류.
107054 #1 젓갈 보고 출레. 무신 육식의 반찬들은 반찬이여 무신 피기이고.
107054 #2 무신 출레 출리곡 아무거라도 옛날은 출레.
107054 #1 출레는 해어, 이 종류 곁은 곁 출레.
107054 @ 음. 이런 장아찌는 아니고 마씨?
107054 #1 장아찌는 별도로 있주게.
107054 @ 그니까 장아찌는 빼고 젓갈만 출레엔 곁아수파?
107054 #1 응, 겨난 젓갈에만 출레.
107054 #2 아니 무시거게 멜도 지지난 출레, 갈치도 지지난 출레. 옛날은.
107054 @ 반찬이 다 출레구나예.
107054 #2 으. 반찬ㄹ라 출레.
107054 #1 출레. 반찬 보고 여러 가지 반찬 보고 출레들 보라 무시거 떨어진 거 시냐? 영 해났주.
107054 #2 옛날은 출레주, 출레.
107054 @ 젓갈만 출레엔 허는 게 아니라.

107054 #1 야. 반찬야. 출레에서 간장도 들어갑니다.
107054 @ 간장도?
107054 #1 야, 간장도. 싱겁건 거 장물 앓아내라. 영 해났다 말입니다.
107054 @ 예.
107054 #1 소곰 앓아내라 영허곡. 반찬보고 출레엔 해시난 전부.
107055 @ 장아찌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5 #2 옛날은 꽤마농 지시, 콥대산이 지시.
107055 #1 꽤마농지시건, 콥대산이 지시건 겁니다. 들으마농, 저 달래도 지시를
답곡.
107055 @ 것도 지시 담아마씨?
107055 #1 예, 아이고, 그게 상당히 쿠십니다.
107055 @ 양훼도 하고?
107055 #2 양훼는 지시 못 담아.
107055 #1 양훼는 지시 못 답곡.
107055 @ 아.
107055 #1 건 대평만 먹는 거주. 생차 떡곡. 게서 꽤농 지시하고 콥대사니 지시
하고 들은 마농 지시 영행 허면은 그게 구구 각각이 맛이 틀립니다.
107055 @ 예.
107055 #1 하하하.
107055 @ 혹시 파초, 반치도 지시 담어나수꽈?
107055 #1 야, 반치. 야. 반치.
107055 @ 예, 반치지시도 담아마씨?
107055 #1 그게 반치. 저디 지방 반치 있주만은 그 반치 지시는 무맛인데.
107055 @ 예.
107055 #1 그게 약재우다.
107055 @ 아...
107055 #1 나이 많이 갈수록 전립선이 생겨갑니다.
107055 @ 예.
107055 #1 경허면은 그거 방지인데 옛날은.
107055 @ 예예.
107055 #1 또 상기 걸렸다면 여든들 소나이든 그게 전립선입주. 상기라는 게 두
던이 아프고 여자들이나 소나이냐. 홀 경우엔 반치 굵에 강 오좁을 싸 불면은.
107055 @ 반지 굵에 강?
107055 #1 응. 반치 굵에 강. 즐라난 굵에.
107055 @ 예, 예.
107055 #1 옛날 반치 먹영 허젠 허민 ㄱ슬 들어가민 그거 캐어봅니다.
107055 @ 예.

107055 #1 캐영 그거 장물에 컷당은에 떡곡 허는데. 시방 저디 행 나도 작년에 해영 먹어 봤는데 맛다가리가 어십니다.

107055 @ 하하하하.

107055 #1 게난 차라리 콤대사니 지시나 패마농 불리 지시나 들은마농은 또 보통 이것저것 먹어지지 안해영 아이들 왕 기자 이만씩 아정 돌아나불곡, 돌아나불곡 하는데.

107055 @ 김치가 아니고 지시로예?

107055 #1 옛날 곶으민 그걸 지시를 담양 먹는데

107055 @ 아...

107055 #1 이젠 그걸 아니 담읍주게. 콤대사니나 흥곡 패마농 빨리만 담양.

107055 @ 유입은 마씨?

107055 #1 유입 그거 요즘 장아찌, 장아찌하는데, 하하 나 그거 춤. 유입은 옛날 도 장물에 미청 먹어나수다.

107055 @ 예.

107055 #1 장물에 미청 떡곡. 경남 양산을 강 보난 콩잎 톨아당 장물에 막 절 연. 장물에 절이니까 콩잎을 아저당 상에 반찬으로 노난, 보니 콩잎이라.

107055 @ 예

107055 #1 먹어보니 그냥 간장 맛.

107055 @ 하하하. 간장 맛.

107055 #1 콩잎도 그때 지시한 걸 처음 봤는데, 양산 서 처음 봐수다.

107055 @ 아.

107055 #1 근데 유입은 그냥 났당 장물에 미청 장물에 그냥 등강 났당 허면은 흔하시 색이 아이 변합니다.

107055 @ 음.

107055 #1 짜서 반찬 담지 안허난 그렇지.

107055 @ 예예.

107055 #1 경허고 요즘은 수시로 유입이 나 노니까.

107055 @ 예.

107055 #1 육지서도 콩잎 등글 때는 유입이 나가 흔 이십년 되었으니까 경 어 슌 때니까 하우스가 엇곡 허난 그 콩잎을 등갓단에 지시로 내방은에 잘 떡곡. 이디 도 오래 먹젠 허면은 이 할망도 흔 두어달은 나 듭니다. 유입 다 가물아불민 엇다 말입니다.

107055 @ 예.

107055 #1 겨른 마트에 강 사와야 되어 몇 천원 주곡. 사오민 등강 나두민 아사 하게 먹으민 맛이 좋아 그렇게.

107055 @ 예, 예.

107055 #1 어성 귀한 때니까 양. 경형 그 유입을 등갓당 지시로 먹읍니다.

107056 @ 마늘 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2 마농지시라.
107056 @ 콥대사니 지시파?
107056 #2 콥대사니 지시.
107056 #1 꽤마농 불리는 벳겨야 되어 꺾질.
107056 #2 콥대사니 지시게. 우린 아무것도 안 낳 장물에만 등강 먹엄주.
107056 @ 콥대사니를 어떻 해마씨?
107056 #2 콥대사니? 지금은 돈 새불연.
107056 #1 혼달 앞서 사월달에.
107056 @ 사월달에예?
107056 #2 으. 음력으로 이월 그믐어 가거든. 혼 삼월 초이.
107056 @ 예예.
107056 #2 경헌때 해사.
107056 @ 그 때 잘랑 왕.
107056 #2 경행 그추룩 즐랑.
107056 @ 예.
107056 #2 우린 기자 저런 통에 담양 장물 비와나부난 몰라.
107056 #1 임시 먹을 거.
107056 @ 콥대사니를.
107056 #2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는 거 보민 장물에 무신거 낳 피엇당 담아서
라만은 난 피우지도 안 허고 그대로.
107056 #1 그대로 비와, 그대로. 자연 우리 그대로.
107056 @ 예.
107056 #2 우린 그대로 담아.
107056 @ 장물은 사당 햄수파, 집에서 담양 햄수파?
107056 #2 이젠 된장 안 담양 장물 어서부난 사온 걸로 해여.
107056 @ 해해.
107056 #2 오복간장으로.
107056 @ 오복간장? 하하.
107056 #2 으.
107056 #1 그 전이는 이녁 담은 장물이주. 자연 그대로.
107056 #2 그 전이는 장 담아났주. 요즘은 장 안 담아부난 장물 사당.
107056 @ 담양 얼마만에 꺼낸 먹읍니까?
107056 #2 혼 달만 되민 먹주게.
107056 #1 무시거 혼 달. 그 뭐, 그 즉시 먹주 뭐.
107056 @ 그 즉시 먹어도 되마씨?
107056 #1 무신 그냥 된장에 찍어도 먹는다, 무신. 겐디 꽤마농 지시는 조금 오

래 훔쓸 서사.

107056 @ 패마농 지시는 어떻게여.

107056 #1 패마농 지시는 빨리도 허곡 썬도 허는데 썬은 떼어붙여.

107056 #2 에이 썬은 안 해여.

107056 #1 빨리로만 햄서. 빨리. 빨리로만.

107056 #2 패마농 빨리 벳경 낵.

107056 #1 큐서.

107056 #2 벳경은에 그건 훔쓸 시들왕.

107056 @ 아. 호끔 시들왕.

107056 #2 으. 벳기디서 훔쓸 시들왕은에 그것도 그냥 장물에 둥가.

107056 #1 패마농 지시가 그제 색은 거멍해도 쿠십니다.

107056 @ 들은 마농 지시는 마씨?

107056 #2 들은 마농 지시도 마찬가지로주게. 것도 훔쓸 빨리를 시들뤄야 되어.

107056 @ 시들뤄야 되어.

107056 #2 으.

107056 #1 그냥 장물에 앓당, 그냥 소곰물에 앓당 담양 해도 맛이 나나수다.

107056 @ 우에 썬은 안하고 밀에 것만?

107056 #2 밀에 것만.

107056 #1 어디?

107056 #2 춤, 우에 거는 짐치 담양 먹주게.

107056 @ 건 짐치로 허고...

107056 # 짐치...짐치 담야.

107056 @ 그른 들은 마농 아래 쪼그락한 걸로만 마씨?

107056 #2 으. 빨리만 해영.

107056 #1 빨리만은 어디 경 이서. 썬도 다 행.

107056 #2 옛날이주. 지금은 그런 거 담는 사름 어서.

107056 @ 이젠 짐치추룩 그냥 무청 먹엄주예?

107056 #2 응. 기자 경 행 무청 먹엄주.

107056 #1 그냥 걸저리로 무청 먹었주만은 짐치를 제라하게 담으민 그제 진짜 쿠셔.

107056 @ 아...

107056 #1 저게 소곰물에만 행 담야도. 저 맛을 몰라서들 시방 경해.

107056 @ 유썬은 어떻 만듭니까?

107056 #2 유썬은 뒤 장물에 게 무시거 양념게.

107056 @ 양념 줌 해마씨?

107056 #2 유썬은 우리 몰라. 우린 뒤 춤지름만 장물에 낵 해나난. 몰라.

107056 @ 해난 거 곶아줍써.

107056 #2 춤지름하고 장물하고 섞어.
107056 #1 섞영 게 고치장하고 영영 섞어봐근에 한 잎, 한 잎 불른다 말입니다.
107056 #2 유썸에 무치명 담주게.
107056 #1 나원 시끄러와서.
107056 #2 그거 막 공들어, 공들어.
107056 #1 공들면 맛이 좋은데이. 나 먹어보민 꼭 곱아. 경행 공 들인 거나 그
대로 아멩이나 비와냥 그냥 숫구락으로 뒤집영 미칭거나. 간장만 들어가민 되어.
107056 #2 하하하.
107056 @ 예.
107056 #2 경허민 골고루 안 미쳐져.
107056 @ 골고루 안 되어예?
107056 #2 골로루 안 되어. 가는디 가곡.
107056 #1 계난 헨나 헨나라. 헨나 헨나 뒤집으멍 시끄럽게 그거 본다가리 좋은
거.
107056 @ 하하하하.
107056 #2 요즘 뭐 마놓지시 담는 말들 곧는 거 보면 뭐.
107056 #1 식초 놓고, 사이다 놓고 하이고
107056 #2 유슈가 놓고 사이다 놓고 뭐.
107056 @ 양훼끈은 안 헉니까?
107056 #2 무사 양훼끈도. 지시하는 사름은.
107056 @ 이디서는 안 헉니까?
107056 #2 우린 그냥 숲양 먹주.
107056 @ 음. 그냥 숲양만 예?
107056 #2 숲양 그냥 된장에 떡곡.
107056 #1 그계 무신 훌훌시 귀한 거라.
107056 #2 미청도 떡곡.
107056 #1 아니 일년이 넘어가난 양 찾아냥 놈 해논 거 서너개 씩 보시에도 아
니랑 시접이라이. 시접이엔 현건 좀 얹주룩헌거, 베조룩한 게 시접이고.
107056 @ 예.
107056 #2 헤헤.
107056 #1 보시는 움트랑 현게 보시인데.
107056 @ 예예.
107056 #2 하하하.
107056 #1 것도 맛이 그릇에 달라. 그릇에. 보시에 논 것광 영 베조룩한 시접에
논 것이. 시접에 영 체영 노난 양 그렇게 맛이 좋습디다.
107056 @ 하하하하.
107056 #2 놈이 앓당 주난 맛 좋주.

107056 #1 맛이 경협디다.
107056 @ 누구랑 먹으난 맛 좋아수꽈?
107056 #1 하하하하 아니 그게 누구랑 안 먹어도 그릇에 논 거에 따라 맛이 틀
립디다. 그게 비결입디다.
107056 #2 놈의 집이 강 먹으난 맛 좋은 거주.
107056 @ 놈의 집이 강 먹으난?
107056 #2 어디 식당에 강 먹으나.
107056 @ 또 다른 건 지시 안 당급니까? 반치도 할아버지 곶안게만은.
107056 #2 아이고 반치도 지시 담주게.
107056 @ 계난예?
107056 #2 반치도 지시 담아.
107056 @ 것도 똑같읍니까?
107056 #2 우린 몰라. 반치 지시 담는 건. 아니 해봐나부난. 장물에 등그는 거주
게.
107056 #1 할망네 몰라.
107056 @ 할망네 몰라마씨?
107056 #1 으. 이 할망들은이 외딸로 행 부제칩이 살아노난.
107056 #2 하하하.
107056 #1 우리 어뎡 살아난 걸 몰른덴 허난.
107056 #2 우리 부제라도 톨밥도 먹고 해나수다게.
107056 @ 톨밥도 행 먹곡.
107056 #1 톨밥, 무수밥은 보통 다 먹어서. 그 때 55년돈가 53년도에. 저 사람
뿐이 아니라. 제주도 일원에 전부 다 경행 먹어서.
107056 @ 으흐흐흐.
107056 #2 어디 제주도 일원에 다 먹어수꽈? 어디 스테에만 경 먹어주.
107056 #1 아이가, 아이가.
107056 #2 스테에 아무것도 어신 사름들 먹었주. 해벤 부제 사름들 그런 거 안
먹어수다.
107056 #1 부제 사름도 톨밥 너미만 먹어서. 말 말아.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장? 요즘덜은 선달 그믐들 담곡 헐디, 우린 아이들 성이 장 담그젠
허민 메주 숲젠 해도 날뵙 영 좋은 날 해영 모날이나.
107059 @ 모날이나.
107059 #2 또 개날 허젠 해도 우리가 개 해치라부난 못 해여.
107059 @ 예.
107059 #2 모날이나 토끼날이나 영 날 좋은 날 뵙. 이녁집이 본명일 어슨 날.
107059 @ 음.

107059 #2 그런 날 좇앙 메주를 숭으곡.
107059 @ 예.
107059 #2 또 장 담을 때도 경허지.
107059 @ 아...
106060 @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60 @ 이디선 고추장은 안 담가나수파?
106060 #2 고추장 우린 안 담아반.
106060 #1 중간에 담아나수다, 중간에. 업자들 완에.
106060 @ 아...
106060 #1 고추ㄱ루들 가정 오난에.
106060 @ 음.
106060 #1 요새 간새행 기자 뭐, 다... 사당 먹주. 아멩 들어 허젠 해도 아니꼽 거든.
106060 @ 사당 먹엄수다.
106060 #1 흥나 강 사와볼게. 이거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106060 @ 그게 더 싼 거 닻아마씨?
106060 #1 어차피 그런 것이 어섬시면은 담아압주. 어떻힙니까?
106060 @ 예...
106060 #1 고추장도 담아압주.
106060 #2 아니 저, 육지서 온 사람들은 고치장도 담압주게.
106060 @ 예, 예.
106060 #2 육지서 온 사람들은 담아. 육지 여자들이 먹는 거는 잘해여.
106060 @ 여러 가지 잘해여예?
106060 #2 육지 사람들은 여자는 놀곡 남자만 일허난 여자는 먹는 거는 잘 해여.
106060 #1 실상은 그게 아니라게.
106060 #2 우리 제주도는 여자는 죽자살저 일허곡 남자는 놀아부난 여자들 먹을 거 혈 줄 몰라.
106060 #1 게, 흥 사십년 전이ㄱ지는 경 했주만은 이젠 경 안 햄서.
106060 @ 하하하.
106060 #1 스나이 다 그릇 씻엄서.
106060 #2 하하하.
106060 #1 하르방도 다 햄서.
106060 #2 제주도 여자들은 먹을 거 혈 줄 모릅니다.
106060 #1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라.
106060 #2 육지 여자들은 먹을 건 잘 해여. 맛 있게도 허곡.
106060 #1 육지 남자들 제주도 왕 우리들 일허는 거 뺑 노래덴.

106060 @ 맞아마씨.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쏘니까?

107062 #2 콩 삶양.

107062 @ 콩 삶양...

107062 #2 지금은 막 하영 안 허난 발에 보선 신영 쏘 마다리에 담양 그냥 막 발로 툄람주마는.

107062 @ 예

107062 #2 옛날엔게 우리도 콩을 닷말씩 삶아나서.

107062 @ 아.

107062 #2 콩 혼 두 말씩 뇌근엔게 큰 솟디 해영 경행 우리도 메주 혼 닷 말 삶으민 물을 혼 으덥 허벅 일곱 허벅.

107062 @ 해?

107062 #2 소곰 뇨 곶양 메주해영 담으멍 해났주.

107062 @ 하... 양 많아서 불르지 못하민 어떻힙니까?

107062 #2 옛날에 방에 신디 방에에 지영.

107062 @ 아, 방에예.

107062 #2 응. 방에예 뺌상. 방에예 지어근에 허곡. 그로 후절, 그로 후젠 기계 나난 기계방에 강 곶양 오곡.

107062 @ 삶아근에 마씨?

107062 #2 삶양. 지금도 기계방에 가민 곶아췌주. 떡침이 가민.

107062 @ 아, 기짜?

107062 #2 응. 돈만 주민, 뭘.

107062 @ 아, 삶은 콩을 ?

107062 #2 응. 메주콩.

107062 @ 메주콩을 마씨?

107062 #2 응. 삶양 가도 곶아주곡. 그디서 삶양 곶아도렌 허민 삶양 곶아주곡.

107062 @ 아...

107062 #2 경해여 지금도.

107062 @ 경행 메주 만들어살 거 아니짜?

107062 #2 메주 만들어.

107062 @ 어떻 만들어?

107062 #2 어떻 만들어. 동글랑허게 만들곡.

107062 @ 동글랑하게 마씨?

107062 #2 으. 동글랑허게 만들어근에.

107062 @ 네모나게 허는 거 아니고 마씨?

107062 #2 아니, 네모나게 허는 사름도 싯곡, 동글랑허게 허는 사름이 하주게.

107062 @ 아...

107062 #2 어디 기계방에 강 맞추민 네모나게.
107062 @ 아... 할머니는 동그랑허게 해나수파?
107062 #2 응. 그냥 동그랑허게.
107062 @ 메주를 멘들앙.
107062 #2 메주를 동글랑허게 멘드랑게 무신 산디짚 시른 산디짚에 싸멍 돌아
메영.
107062 @ 무신거 만들영 돌아메영 마씨?
107062 #2 산디짚해영
107062 @ 산디짚으로.
107062 #2 영 멧겍 심영 땡가리 똑허게 즐라 메영.
107062 @ 예.
107062 #2 혼 가달이나 네 가달에 영 벌령.
107062 @ 아, 벌령.
107062 #2 메주 덩어리를 낳.
107062 @ 예.
107062 #2 이젠 부리 똑허게 영허게 묶어근에.
107062 @ 묶어근에.
107062 #2 또 하나 만들민 영허게.
107062 @ 두 개마씨?
107062 #2 으. 두 개에 즐라 메영. 경행 저 공장에 돌아메영.
107062 @ 이 공장에 돌아메여...
107062 #2 경행 물리민 게.
107062 @ 아...
107062 #2 우린 이제 하영 안 해여. 저 창고에 강 메영 나두민 몰라불주게.
107062 @ 물리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107062 #2 물리민 게 선달 그믐날 게 느려.
107062 @ 내리민 그걸 씻습니까?
107062 #2 으. 씻어사주. 씻어사.
107062 @ 무사마싸?
107062 #2 거 막 곰생이 피어나부난.
107062 #1 거 막 솔로 행 닭아사.
107062 @ 솔 어신 때는 뭘로 해나수파?
107062 #2 옛날에는 산디짚 수세.
107062 #1 산디짚 수세 몽크령.
107062 @ 예.
107062 #1 산디짚 수세 몽크령 그레 막 밀주.
107062 #2 옛날은 무시거 셔게. 솟도 씻젠 허민 산디짚.

107062 @ 음.

107062 #2 그릇, 사발도 씻젠 허민 산디짚.

107062 #1 산디짚하고 재.

107062 @ 불치마씨?

107062 #2 재는 사발같은 데. 아니 불치로 안 되어.

107062 @ 그믐 뿔로 마씨?

107062 #2 사리(화로)에 불 슬라난 거. 그건 재라사.

107062 @ 재라사...

107062 #1 건 재.

107062 @ 아...

107062 #2 재라사 그릇도 닦아지주. 불치로는 안 되어.

107062 #1 솥 강알에는 불치.

107062 @ 음...

107062 #1 것도 종류가 다 틀리우다.

107062 @ 화리에 이신건 재예?

107062 #2 으.

107062 @ 메주 씻어낭 물 빠지와마씨?

107062 #2 그냥 씻영 항에 담양 근물 퍼 노민 되주게.

107062 @ 근물은 어떻 소금을 얼마나 놔야 험니까?

107062 #2 물 한 허벅에 소곰 한 세 관대.

107062 @ 물 혼 허벅에 세 관대.

107062 #2 세 관대.

107062 @ 음.

107062 #1 그 비율로 육지 어디 어디여도 다 경 담주게.

107062 #2 선홀도 된장장시도 저 정철이 누이도게.

107062 #1 육지서 보민 막 고치도 돌아메곡 솥도 놓곡 계란도 놓곡.

107062 @ 그런 거 안 놉니까?

107062 #1 여기는 그계 집안에 우환이 생기젠 허민 장이 변동이 생겨불여.

107062 @ 아...

107062 #2 장도 싱겨우면은 브랭이만 일곡 장이 맛이 어서.

107062 @ 예. 장버랭이는 뭐렌 험니까?

107062 #2 장버랭이주게. 장버랭이 해영헌 게 그물락그물락 된자에 바글바글헤 불어.

107062 #1 옛날엔 징그로와.

107062 @ 예...

107062 #2 옛날은 징그로와. 옛날은 국도 끓영 보민 장버랭이가... 흐흐흐.

107062 #1 나와, 으. 흐흐흐.

107062 @ ㅎㅎㅎ.

107062 #1 배치국에라도.

107062 #2 밧디도 된장 앓아강 보민 그물락그물락.

107062 #1 살양 밧디 된장에도. 아이 더러와.

107062 @ 싱거우면 장버랭이 생기고...

107062 #2 싱거우민 맛이 어성 벌거지가 더 생겨 게.

107062 @ 아... 짜도 벌레 생겨마씨?

107062 #1 생겨, 버랭이.

107062 #2 생겨도 하영은 안 생기주게. 싱거우면 더 생겨.

107062 #1 집 안이 우환이 생기젠 허민 장이 변덕이 옵니다. 변덕이 와.

107062 @ 예...

107062 #1 경허민 계란도 농곡 요즘은 뭐 근물을 곁면은 그 근물 도수를 맞추젠 허니까

107062 @ 예...

107062 #1 계란을 낳 요즘 학자들 보니까 계란이 어느정도 뜨면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 근데 옛날 할망들은 그거 기준으로만 근물을 곁아근앵에 흔 열두 시간쯤 근물을 곁양 나뒀당 굿인 거 문딱 제하고 우에 올라온 것은 올라 온대로 문딱 건져 불곡 아래 거 뜯라놔근앵에.

107062 @ 예.

107062 #1 소곰에도 나쁜 흑이 이습니다. 게서 그런거 다 뜯랑 데껴 동 메주를 담는거라.

107062 @ 근물은 소곰하고 물마씨?

107062 #1 야, 근물 야.

107062 @ 근물 비와 낭 얼마나 지나야 열어마씨?

107062 #1 흔 두 달? 흔 달?

107062 @ 언제 메주 건집니까?

107062 #2 건 기자 이녀 해지는 게 다르주게.

107062 @ 할머니는 어떻 해나수파?

107062 #2 우리는 옛날에는 게 흔 이월 썸에.

107062 @ 메주 건전마씨?

107062 #2 으. 장을 흐썰 일찍 담으면은 된장을 흐썰 일찍 건지곡.

107062 @ 예.

107062 #2 된장이 이 새해낭 담으나 담으민

107062 #1 흔 이개월.

107062 #2 흔 삼개월이나 셔사.

107062 @ 음.

107062 #2 된장이 막 흐랑하게 물이 울어사 건지주게.

107062 #1 견데 경해사 귀어낭 별도로 견정 청국장을 멘드나 뭘 멘드느 할 거 아니파.

107062 @ 된장 거린 후에는 마씨?

107062 #2 된장 거려근에.

107062 @ 메주를 견정?

107062 #2 메주를 견정 옛날은 무신 도구리에 견져 낱게 막 귀어근에 담주. 견디 옛날은 경 귀영도 아이 담아나서. 된장을 먹젠 허민 강, 된장 병텅이 그냥 견져 오난 하영 먹젠 허민 혼 덩어리 그냥 견져 오곡.

107062 @ 아...

107062 #2 경 안허민 그 장항에서 된장을 끈영 가정오곡 해주게.

107062 @ 아...

107062 #2 경허민, 경허당 보민 버랭이가 붙영 오는 거라. ㅎㅎ.

107062 #1 그 버랭이 간수 잘못 해부난, 우에 씹을 잘못 해부니까 푼리가 아자서 푼리 똥을 싸부난 그거주게. 옛날은 경 양 뉘 경 신경을 경 안 써수다. 그런데 하나 비결이 양, 1개월만 되면은 된장 담았당 1개월만 되면은 그 보듯 물이 열거 아니파.

107062 @ 예.

107062 #1 된장이 막 헤카지기 전이 아니파. 그걸 반착만 끈어 당 기름 낱 그걸 지정 먹어봅써. 그 이상 맛이 어수다.

107062 #2 하하하.

107062 @ 된장을 마씨?

107062 #1 된장을 마농 썰어낱 지정 먹어봅써. 대신이 썰어 낱.

107062 #2 된장 병텅이.

107062 @ 아...

107062 #1 계란 아니 벨거 보다 베지근하니 맛이 좋아. 우리 족은 아들은 그거 먹어뵙 된장 지정 노민 그거 냄비짜 가정 가붙여.

107062 #2 하하하.

107062 @ 하하하.

107062 #1 뜯 놈들은 가정가켄 소리를 안 허주. 지정먹는 거 봐낱 그거 부모들 사는 거 생각해영 반찬이난 부모들 먹는 거렌 생각해영. 근디 족은 아들은 아정가 붙여.

107062 @ 족은 아들 아니파? ㅎㅎ.

107062 #2 하하하하.

107062 #1 아니 그 진미가 나와. 그렇게.

107062 @ 맛이...

107062 #1 지름 농곡 양 콧대사니 이만씩 썰영 노민 그렇게 맛이 났다니까.

107062 @ 음.

107062 #1 고기 안 바꿔줘, 우린.
107062 @ 메주하고 장하고 따로따로 놔 두진 안 됩니까?
107062 #1 딱루 놓주게.
107062 #2 된장 지정 먹음도 건지기 전이.
107062 @ 건지기 전에 흔 달만 이시든 먹는덴예?
107062 #2 막 물우지 안 헨 때에.
107062 @ 된장을 따로 놓고 그다음엔 마씨?
107062 #2 으. 무시거게 냄지에 된장 낱 지저먹는 거?
107062 @ 아니 그냥 된장 만들 때마씨.
107062 #2 된장 허는 거게. 그냥 건져낱 꾸여근에게 딱루 무시거에 담주게.
107062 @ 따루 나두면 되는거파?
107062 #2 아니, 아니. 요즘은 하영 안해부난 두경 두 개에 담양 냉장고에 담아.
107062 @ 하난 된장, 하난 간장 되는 거파?
107062 #1 야, 계난 장물이 간장. 장물을 또 삶습니다.
107062 @ 삶아마씨?
107062 #2 예, 삶으는 사름은 삶주. 난 안 삶아.
107062 #1 삶으므로써 장물이 진미가 더 납니다.
107062 #2 무신 더 나와?
107062 #1 아무래도 그냥보다 맛이 더 나온다니까.
107062 #2 장물이 장이 싱거와근에 뽕 들엄직 허든 흔 번 삶아 부는 거.
107062 @ 아, 예.
107062 #2 소곰 더 낱은에 삶아부는 거.
107062 #1 소곰 더 낱 삶아야 돼.
107062 #2 우린 삶아부지 안 해부난 모르켜.
107062 @ 해해.
107062 #2 우리 안 삶아 받.
107062 @ 근물 낱 헨 때 뚜껑도 열곡 닫곡 해야할 거 아니마씨?
107062 #2 아이고.
107062 @ 장뚜껑은 뭐랜 됩니까?
107062 #2 무시거 항 뚜껑이주.
107062 #1 장탕이, 장탕이.
107062 #2 장탕이 그냥 덕영만 내부난.
107062 @ 뱃 날 때 열어살거 아니파?
107062 #1 우린 열어주질 안 합니다. 겐디 그게 열 중 쉬영 열어주면은 곰팡이 양, 갓.
107062 @ 갓?
107062 #1 곰팡이 피는 걸 갓이엔 합니다. 담양 나두민 태양열을 아니 받으면

갓이 허영케 피어.

107062 @ 예...

107062 #1 게민 그게 열어준다 말이우다. 열어줘. 그믐 태양열을 받을 거 아니
파 그럼 갓이 츠츋 제거되어. 건데 거기서 단점이 하나 봤디 게당.

107062 @ 비 와불민...

107062 #1 장탱이, 장항 열어동 간다 말이우다. 갑자기 비가 터질 땐 걸영담이
뛰라 돌아와도 감당이 어서.

107062 @ 물 들어예?

107062 #1 물 들어불민 장이 골여불여.

107062 @ 아이고.

107062 #1 경혜근에 욕도 듣고 매도 맞아 나수다. 어명한티.

107062 @ 하하하.

107062 #1 이놈의 시키들 집이서 방탱이 허지 말양은예.

107062 #2 장항 뒤으크라네.

107062 #1 장항 뒤으크라네. 비와 가건.

107062 #2 하하하하.

107062 #1 잊어불었다 말이여. 놀당 보민.

107062 @ 예예.

107062 #1 경행 우리가 매도 몇번 맞어나곡 해났고양. 맹심해집니께. 이 할망들
은 관심 안 가집니다. 췌째 그런건 내가 맹심해집니다. 장황 끝은 거라도. 이 할망
은 세상을 몰랑 큰 할망이라부난 모릅니다.

107062 #2 하하하.

107062 @ 하하하.

107063 @ 장 담들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3 #1 무사게 몸 곳인 사름은 되도록이민 접근을 마는 게 낫주.

107063 #2 이, 장 담글 때 아무층도 안해여.

107063 @ 팬찮아마씨?

107063 #2 이녁이 몸 곳인 때 허질 마는 거주, 무신.

107063 #1 그게 정성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민 깨끗허고 깨끗한 사름이 해지면
좋은 거우다게.

107063 @ 음...

107063 #1 이건 구신도 먹어가는 음식이고 생인도 먹어가는 음식이난 되도록이
민 깨끗할수록 좋은 거 아니파? 장이.

107063 @ 예.

107063 #2 겨난 날 뽕 숲으곡 날 뽕 담곡 게.

107063 @ 음...

107063 #1 날 뽕 메주도 숲곡 날 뽕 담곡.

107076 @ 지난 번에 굿할 때 우리 갖당 먹은 건 뭐마씨?
107076 #2 돌레떡.
107076 @ 돌레떡은 쌀로 한 거예?
107076 #2 쌀로 한 거. 당에만 가는 거. 돌레떡은.
107076 @ 아, 당에만 가는 거예.
107076 #1 모물쌀로도 하곡. 모물ㄱ루.
107076 @ 아, 모물도 헉니까?
107076 #2 모물ㄱ루도 허곡게.
107076 @ 모물도 허곡, 쌀도 하곡.
107076 #2 응. 돌레떡. 돌레떡만 행 가민 되는거.
107076 @ 음...
107076 #1 모물ㄱ루로 하민 모물돌레.
107076 @ 모물 돌레.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9 #2 숨메.
107079 @ 아, 안에 놓는 건 숨에 침떡 위에 놓는 건.
107079 #2 건 쉬. 끈떡 안에 담는 건 숨메 담는 거고 침떡에 놓는 거 쉬.
107080 @ 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0 #2 콩도 숨메하곡, 팥도 숨메하곡, 녹디도 숨메하곡 껀도 숨메하곡.
107080 #1 설탕도 놔.
107080 #2 설탕도 숨메하곡 뒤.
107080 #1 헤헤. 숨메엔 허는 게 혼이 없는 거라.
107080 @ 떡 속웁에 담는 것도 숨메. 바깥에 미치는 것도 숨메마씨?
107080 #2 아니 그건 쉬 미치는 거.
107080 @ 아, 그건 쉬?
107080 #2 뱀에디는 쉬 미치는 거.
107080 @ 쉬는 또 어떤 거 이수파?
107080 #2 쉬도 마찬가지로. 콩쉬나 팥쉬나, 녹디 쉬나, 뒤. 그겨주게.
107080 @ 음...침떡 같은 거 헉 때 우에 하는 것도 쉬마씨?
107080 #2 거, 쉬이.
107080 @ 쉬이...
107080 #2 응.
107080 @ 송편 안에 놓는 건 숨메고 마씨?
107080 #2 으. 숨메.
107080 @ 아. 팥이나 녹디는 숨양 해마씨?
107080 #2 숨양. 숨메허젠 허민 옛날인 뽕양 햇주만은 지금은 떡침이 가민 그냥 햄주, 무신.

107080 @ 해해.
107080 #2 솥앙 뽕앙 속웁에도 놓고 위도 쉬 미치고.
107080 @ 위에 쉬 미치는 것도 뽕앙 해마씨?
107080 #2 으. 뽕앙. 온차허민 털어정 붙으질 안 허주게.
107080 @ 아...
107080 #1 간혹 큰 거 이서도 상관어수다.
107080 #2 뽕아사 옛날 만디떡에도. 영영 허끄민 옛날 만디떡에도 붙으죽.
107080 @ 음.
107080 #2 통차 노민 털어져붙어. 다 붙으질 안 허주게.
107081 @ 솥메 놓는 떡은 무신 떡들 이수파?
107081 #2 무신 떡이라 곤떡에 새미떡, 만디떡.
107081 #1 송편, 송편.
107081 #2 곤떡이렌 했주게 송편도 이제사 난 말이곡.
107081 @ 곤떡이 송편이라예? 새미떡, 만디떡. 속웁에 담는 게예? 또 마씨?
107081 #2 빙떡.
107081 @ 빙떡도 풋 담앙 합니까?
107081 #2 으. 풋 담아.
107081 @ 아, 빙떡. 그 다음에 속웁에 뭐 담는 거는...
107081 #1 솥에옌 허주. 솥메.
107081 @ 솥메 담는 거는게?
107081 #2 속웁에 건 솥메.
107081 @ 곁에 쉬 미치는 건 무신 떡이파?
107081 #2 건 만디떡만 쉬 미치주게.
107081 @ 만디떡만 마씨?
107081 #2 으.
107081 @ 아까 그믄 침떡은?
107081 #2 침떡도 게 건 쉬 놔.
107081 #1 그건 징 놓는 거.
107081 @ 아, 징 놓는 거.
107081 #1 곱 갈랑 징 놓는 거.
107081 @ 아, 곱 갈랑.
107081 #1 단계적으로...
107081 @ 그건 쉬 아니파?
107081 #2 것도 쉬주게.
107081 #1 그놈의 솥메. 흐 줌 쥐영 앓당 어멍한티 매를 맞어나수다.
107081 @ 하하하.
107081 #1 풋 솥메가 어떻사 맛 좋은 디사 그 때 흐줌을 확 앓앙 들어나불었다

말이우다.

107081 @ 하하하.

107081 #1 아이고 저 놈의 새키. 부지땡이 아정 오랑은. 아이고. 그 놈의 숨메
흐솔 아정 먹엇당은 때 맞어나고. 게난 그 뵙을 지지면 양.

107081 @ 예. 뵙? 뵙?

107081 #1 뵙떡, 뵙떡이라고.

107081 @ 뵙떡을 뵙이렌 해마씨?

107081 #1 뵙떡, 뵙떡이렌 해났주. 옛날은, 옛날도 무수채를 놓니다. 무수채에
꽤마농 썰어낱.

107081 @ 꽤마농.

107081 #1 궤도 놓고 미칩니다. 잘허젠 허믄 경허는데.

107081 @ 예, 예.

107081 #1 그 놈의 숨메는 먹으면은. 그때는 놈뵙도 어려와수다. 놈뵙도.

107081 @ 아...

107081 #1 궤도 검은궤 뵙기 안 같아나수께.

107081 @ 예.

107081 #1 흰궤가 어서수다.

107081 @ 아, 예.

107081 #1 아, 야. 궤가 어성 검은궤만 노양 허민, 궤도 흐뵙을 놓곡 행 허민,
그 숨메는 먹어도 매를 아니 맞아십주.

107081 @ 흐흐.

107081 #1 아, 궙 숨메는 중간이 궙 어려울 때 행 바싹 먹구쟁 행, 흐 굴레를
먹엇당 부지땡이 아저당 서너번을 맞이난. 이거 이거 이거, 사름 못 먹을 노릇이구
나. 야, 이거 우리가 세상 영 허멍 컷으니.

107081 @ 하하하하.

107081 #1 영 해져나서. 경허곡 또 그 궤하곡 꽤마농하곡 저 무수가 어신 땡양,
뵙 놓질 안허주. 그믄 놈뵙 숨메가 맛이 어서.

107081 @ 아...

107081 #1 견데 떡을 많이 분량을 불루우젠 허면은 고량창에 담양양, 제사상에
올리젠 허면, 이 할망도 많이 해봤주만은 그 무수채를 많이 담아야 떡이 술질꺼 아
니파?

107081 @ 예.

107081 #1 열 개 답을 거, 열 다섯만도 답을 수 있고.

107081 @ 예.

107081 #1 또 다섯 개 답을 거 열 개 답을 수 도 이서. 숨메가 좋으면은.

107081 @ 예, 예.

107081 #1 견데 저 김녕 어른들은, 여(할머니를 가리키며) 알거우다만은.

107081 @ 예, 예.

107081 #1 우리 노인당에서도 곶앳주만은, 동네 제사 먹으러 갈 땐, 빵떡. 그 낭
 폰이가 요만히 현 사발이 있다 말이우다.

107081 @ 예...

107081 #1 동네 먹으러 갈 때는 다섯 개 담곡.

107081 #2 아까 우리 속 먹은 낭폰 님은 거.

107081 #1 아, 근건 들어.

107081 @ 예.

107081 #1 경행 또 제라하게 부모집에 갈 땐, 동이가 있덴.

107081 @ 아... 좀 더 크다.

107081 #1 예, 동이에 상웨떡을 행 가곡 한다. 그 김녕을 식게 먹으레 강 보나
 꼭 그 왕대집에 떡다섯 개씩 제사 먹으레 갈 때 대집에 낭 갔더라 해여.

107081 @ 무신 떡 마씨?

107081 #1 상웨떡.

107081 @ 아, 상웨떡...

107081 #1 야, 야. 보리 ㄱ룰로 멘 든 상웨떡.

107081 @ 예, 예.

107081 #1 야, 그 메밀ㄱ루하고 해서 흰빵이 어서수다. 저 신촌에 보리빵 있지
 안 허우파?

107081 @ 예, 보리빵.

107081 #1 그런식으로 거멍케 해영 멘드랑.

107081 @ 예.

107081 #1 갹 그런 떡을 행 가민 나도 봐 나긴 해나수다. 견디 우리 밑에 놈들
 이 그 말을 허길래, 으, 그게 풍습이다.

107081 @ 제사 먹으레 갈 때.

107081 #1 우리는 메썰을 가정 갔다. 게문 벵떡을 안 해문 작박으로 현 작박 메
 썰을 낭폰에 낭 가정 가수다.

107081 @ 아...

107081 #1 메썰.

107081 @ 산디썰마씨?

107081 #1 으, 산디썰. 그렇게 귀해십주게.

107081 @ 예.

107081 #1 그 부락에 풍습으로 갑니다.

107081 @ 예.

107081 #1 경허난 저 사람이 김녕에 이서나난 상웨떡들 지세 좋게 낭폰이여 무
 신 사발이여 낭 간 거 아이 봐나서?

107081 #2 낭폰이에 낭 땡겼주게.

107081 @ 아까 속 먹어난 낭푼이 닳은 거에 마씨?
107081 #2 그보다 죽은 거. 그 낭푼이 닳은 거에 상웨떡 으남은 게 낱.
107081 #1 다섯 개엔 허난.
107081 @ 제사 먹으레.
107081 #2 식게 먹으러 갈 때. 김녕이 제일 짜주게 짜.
107081 @ 풍습이예?
107081 #2 김녕이 제일 부자니까 풍습이 경해여.
107081 @ 아... 밥 헐 때 콩이나 풋 노는 것도 숨메엔 험니까?
107081 #1 밥숨메게.
107081 #2 것도 숨메엔 곺아.
107081 @ 밥 숨메마씨?
107081 #1 으. 밥 숨메.
107081 #2 술메 낱 했젠 곤주.
107081 @ 술메 낱 밥 했덴 곺아?
107081 #2 으.
107081 @ 술메마씨?
107081 #2 술메, 숨메. 밥 해영 풋을 노나, 콩을 노나.
107081 @ 아...
107081 #2 아이고 콩난 밥했구나게. 영 곺으멍.
107081 #1 그 전이는 양, 콩 곺은 거, 숨메밥을 하영 안 해수다.
107081 @ 음.
107081 #1 야. 콩 곺은 거 전혀 아이 가정 다니곡. 시방은 약콩이여 푸린 콩이
여 두불콩이여 눅니께. 콩밭은 교도소.
107081 @ 하하하.
107081 #1 지넉 간 눅 옛날은 진역간 눅.
107081 #2 하하하하.
107081 @ 하하하하.
107081 #1 진역간 눅만 콩밥을 먹는다. 경허는 말 때문에 양 밥에 숨메를 아니
되나수다.
107081 @ 아... 콩으로는 예?
107081 #1 야, 일절. 건디 요즘은 그계...
107081 @ 건강에 좋덴 험니께.
107081 #1 건강에 좋덴허난 콩밥, 벨밥 다 나왓서.
107081 @ 예.
107081 #1 대추여, 무신 밤도 막 깡 썰영 오곡밥이여 막 끓여 놓는 거 보민, 윈.
계난 우리도 텔레비에 나오난 보름이여 개대맹이여 했주. 옛날에 오곡밥, 아이구.
107081 @ 하하하.

107081 #1 어디 제주도사. 쫓.
107078 @ 만디도 해난마씨, 옛날에?
107078 #2 만디도 해난. 옛날 해났주게.
107078 #1 만디가 있고, 새미가 있고.
107078 @ 어떻 다릅니까?
107078 #1 물떡이 있고.
107078 #2 만디엔 현건 풋 쉬 미쳐 하는게...
107078 @ 바깥디 마씨?
107078 #2 그제 만디.
107078 @ 음...
107078 #1 우리 오메기떡 멘들 듯.
107078 @ 예, 예. 무치는 거.
107078 #2 무치는 게 만디. 물떡은
107078 @ 새미떡은 마씨?
107078 #2 새미떡은 아무것도 아니 미친게 새미떡.
107078 @ 안에 숨메 놔마씨?
107078 #1 숨메 놔.
107078 #2 숨메 흥쓸 나도 좋곡. 안 나도 되곡.
107078 @ 풋예?
107078 #1 풋이라게 녹디 숨메주.
107078 #2 풋이라도 흠방울.
107078 #1 그거 아니 담으민 거짓말헌데 허메.
107078 @ 하하하.
107078 #1 조상 위해 올리는 건데, 제사때.
107078 #2 놓는 책만 허는 거.
107078 #1 거짓말 허는 즈순 나온덴 해영 꼭 서너방물이라도 놔야 되어.
107078 @ 새미 떡에는마씨?
107078 #1 새미떡에는. 만디떡에는 쉬 미치는 거.
107078 @ 만디 떡에는 숨메 안 놔마씨?
107078 #1 무수.
107078 #2 무수 놔.
107078 #1 요새 뽕떡 모양으로 무수 놔.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
107078 #2 그런 떡을 행 먹어지른 종주만은.
107078 @ 만디는 속에 무수 숨메 담양, 곁에는 풋 쉬 미쳐.
107078 #2 풋 쉬 미쳐.
107078 @ 아...
107078 #1 물떡을 숫자 불루기 위해서 양휘썰 담양. 그 종류가 세 가지우다.

107078 @ 만디, 새미, 물떡.
107078 #1 아니, 새미, 만디, 물떡.
107078 #2 나 순 할 때 만디떡 해당.
107078 @ 순이 뭐짜?
107078 #2 영장 나민 방상 해당 맥이는 거.
107078 @ 그걸 순 맥인댄 허는 구나예.
107078 #2 어어. 요즘은 뭘 라멘이나 나난 햄주.
107078 @ 음.
107078 #2 옛날은 그런거 저런거 어시난 방상에 영장이 나나 무신 거 허면 물떡, 만디떡 해당 맥이는 거.
107078 @ 음.
107078 #2 혼 사름에 두 개를 주나 세 개를 주나.
107078 @ 물떡도 하고 만디떡도 하고마씨?
107078 #1 아니. 만디떡은 안 해여.
107078 #2 물떡, 물떡. 만디떡은 제삿날이라도 먹젠 해여.
107078 @ 아, 물떡만 영장빳디서.
107078 #1 만디는 그런 때 안허고. 만디는 제사때.
107078 #2 만디는 제사먹기 위해서 하는 거.
107078 @ 제사 때...
107078 #1 쉬 미친 만디떡이엔 허메.
107078 @ 아, 미치다고. 모양은 다 반으로 접은 거 마씨?
107078 #2 응. 모양은 다 영 접어진 거.
107078 #1 모양은 똑같은 거라. 새미나 만디나 물떡이나.
107078 #2 똑같아.
107078 @ 아...
107082 @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2 #2 순대도 만들주게.
107082 @ 순대는 어떻 만들어난 마씨?
107082 #2 순대를 어떻 만들야. 모물ㄱ루해영. 큰 다라에나 도구리에나 카근에.
107082 @ 모물ㄱ루에.
107082 #2 두박하게 카근에. 물 놓고 ㄱ루 놔근에 .
107082 @ 그 다음은 마씨?
107082 #2 도새기 베설에 그걸 다 담양.
107082 @ 다른 건 안 놓니까?
107082 #2 도새기 피도 섞영. 베설에 담양.
107082 #1 아, 수애?
107082 @ 예, 수애.

107082 #1 하하하하. 그거...

107082 #2 경행 베설에 담양 베설 숯으민 수애주게.

107082 @ 언제 험니까?

107082 #2 거, 아무 때라도 뉘.

107082 @ 떡구정 허믈?

107082 #2 다 어디장 베설 사 오지 안해여.

107082 @ 옛날은 마씨?

107082 #2 옛날에는 어디 저 큰일 칩이나.

107082 @ 큰일칩이나 백기.

107082 #2 게. 수애 담으멍 해서, 옛날은. 숯양 두어점 썰엿 먹었주.

107082 #1 먹기는 했주. 근디.

107082 #2 피기 서넉점 먹고 수애 베설 혼 점농곡 했주.

107082 #1 지방 ㄹ치 수애 담는디 양념을 아이 놓니께게.

107082 @ 아...

107082 #1 피. 경 안해영 보기로 먹는 것은 열독배, 전각, 후각, 갈리, 수애... 열 독배 고기를 다 담아냥. 지방은 믹사나 있지만은 난도질 험니다. 막 믹사. 즈질게. 고기 끈어 놓은 걸.

107082 @ 아, 예. 예.

107082 #1 몬 믹상 수애에 피에 양 내장도 몬 끈어 놓고 경행 몬딱 끈어냥 그 걸 수애 답음주.

107082 #2 아이고, 그거 부제칩이나 경 했주.

107082 #1 경 행 수애를 담으면은 그게 보약도 된단거주. 옛날은 고기 혼 마리 치 고기를 다 먹는 거니까.

107082 #2 고기 반에 베설 혼 점씩 썰엿 쥐났주.

107082 #1 경행근에 수애를 담으면 맛은 좋은데. 누게 말맛짱아구라, 그건 보신 탕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107082 @ 예, 예.

107082 # 요 중간에는 수애 담을 저르가 어서수다. 잔치라는 게. 대소상 때도 바쁘면은 그자 베설 숯양 양.

107082 @ 음.

107082 #1 썰엿 대창 같은 거 기자 썰엿 혼 두점 썩 놓고 피기 혼 두점씩 놓양.

107082 #2 경허고 존 베설은 회행 먹어불구게.

107082 @ 회도 행 먹언마씨?

107082 #2 막 모다 아정 회행 먹어불어.

107082 @ 육고기 회는 어떻게 행 먹어나수짜?

107082 #2 새끼회도 하고 존 베설하곡. 큰 베설은 숯양 떡곡.

107082 @ 숯양 떡곡.

107082 #1 아니 그난, 으 호르기 초밥을 상 왔는데 아흐들이.
107082 @ 예.
107082 #1 보난 갈치도 양, 초밥 우에 덮으곡 양, 벨랑 이름 모를 새우도 덮으
고 양, 베라벨 노무 방어여 무시거여 우린 모르릅디다. 벌경헌 거예, 노랑한 거예.
107082 @ 예, 예.
107082 #1 갈치를 먹어보니, 갈치도 양, 초밥에 적성 먹어보니 맛이 나긴 해. 허
허 이거 세상은 벨로무 세상이구나.
107082 @ 하하하.
107082 #1 왜 옛날은 꺏사 곶았주만은 영 거, 돛베설 회라는 것도 양, 어느 의
학 박사가 곶아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옛날은 경도 아니 먹어수다.
107082 @ 음.
107082 #1 회 아니 먹어반. 무주건 슻았어, 슻안.
107082 @ 예.
107082 #1 야, 슻양 슻영 정반에 노명 먹어십주.
107082 #2 겨당 충들이 난겨주.
107082 @ 아.
107082 #1 게서 이 회라는 것도
107082 #2 우리 키울 때 옛날은 일절 회 아니 먹어서.
107082 @ 새끼회도 마씨?
107082 #1 새끼회 좋주게. 슻으나 회라 해도. 요건 보약으로 그때부터도 해십주.
107082 @ 어떻 만듭니까?
107082 #2 새끼회?
107082 @ 예.
107082 #1 믱사로 곶으나 양.
107082 #2 옛날은 새끼회도 돛베에서 즘질게 썰어나지 안해서?
107082 @ 아,,,
107082 #1 썰어났주게. 믱사 어신 땐.
107082 #2 옛날 믱사가 어디싯과게.
107082 #1 돛베로 다 찌언.
107082 #2 돛베로 다 썰어나서. 막 난두질 해영.
107082 @ 경허고 마씨?
107082 #2 경행 무신겨.
107082 #1 시방 곶은 양념을 해봍써 참말로 진미가 나올거우다. 근디 옛날은 무
시거 이수파. 소곰 놓고 간장 놓고. 무신 고치장이 이서수파. 마농이나 신 집인 마
농 놓고.
107082 #2 무신 식초 서나신가? 흐흐.
107082 #1 이젠 식초나 혼하난. 옛날은 식초 담양 먹어수께. 담양.

107082 @ 예.

107082 #1 밥 씹거 씹다리 행은에 식초를 멘들아.

107082 @ 아, 예.

107082 #1 육지서 보난 감으로 행 식초를 멘들아.

107082 #2 그 옛날이는 새끼회 보통으로 아니 해연. 막 부제칩이나 어떻행 큰일로 했주. 그런거 보통으로 허질 안 해여.

107082 #1 그거 소 한 마리 잡음이나, 우리 곁은 높은 맛도 못 봐수다. 크난 맛 봐왔주.

107082 #2 이 중간이부터 새끼회여 베설회여 했주. 것도 옛날이는...

107082 #1 그기 요즘 시방 놓는 양념, 야, 양념만 노민 뭐, 으뜸이주게. 옛날 어디 양념. 아이고. 겨 안해도 똥창 ㄱ듭지 못해영 허는다.

107082 #2 흐흐흐.

107082 #1 양념이 싯고 엇고.

107082 #2 드르에 난 멜순이나 걷어당 된장에다 떡곡.

107082 @ 멜순?

107082 #2 으. 멜순. 집에 오민 양훼나 콩잎이나 뜯어당 된장에 떡곡들 했주, 무신. 옛날 어디 경 기자. 무신 출레는 이서서? 된장이 출레주.

107083 @ 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3 #2 두부가 뭐라?

107083 @ 둤비마씨.

107083 #2 안 만들언.

107083 @ 큰일칩이선 마씨?

107083 #2 큰일칩이도 보통으로 둤비 아니 해나서.

107083 @ 아...

107083 #1 거 ㄱ레에 곁양 둤비를 해여게.

107083 #2 옛날도 둤비를 허젠 허민 콩을 ㄱ레에 곁아사 할거난 게.

107083 @ 예 예.

107083 #2 보통은 둤비 안 해반.

107083 #1 아니 몇 번 기계에당 곁아당 멘들아 봤주만은.

107083 @ 아... 곁양 어떻합니까?

107083 #1 할망이 멧번 잘 만들어 나성게.

107083 @ 집이서 만들언 마씨?

107083 # 콩ㄱ루 곁아당 큰 무쇠 솥디 낱 그걸 막 쭈영.

107083 @ 예.

107083 #2 콩ㄱ루 익게 스리 쭈어근에 무신 얇은 사나 무신 시나지 곁은 거이 알룬 거.

107083 @ 예.

107083 #2 그런거 무신 큰 차룽에 깔앙.
107083 @ 예.
107083 #2 깔아근에게 솟디거 풀어 낱 .
107083 @ 예.
107083 #2 퍼 낱 이제 옛날은 무슨 암반. 암반이 지들랑 우이 ㄹ레착 지들랑
107083 @ 하하, 예.
107083 #2 우이 ㄹ레착 지들랐주.
107083 @ 쓸 때 뭐 놓지 안 험니까?
107083 #2 무신 거 놔?
107083 #1 에이 근수 노는 말도 아이 ㄹ암서, 할망.
107083 #2 소곰이나 놓주 무신.
107083 @ 하하하하.
107083 #1 큰 일, 큰 일이여, 저.
107083 #2 무신 거 노는 거 셔.
107083 #1 물, 소곰물 노명 행계계.
107083 @ 하하하하.
107083 #2 하하하하.
107083 #1 참.
107083 #2 그건 근이주게. 근.
107083 @ 근.
107083 #1 우리 할망 큰일 났져. 완전히 머리가 어땡. 윈 이녁 해난 것도 다 잊
어불영 안되크냐 윈.
107083 #2 하하하.
107083 #1 난 그거 보았거든.
107083 @ 콩물을 땡 ㄹ레착으로 놀러.
107083 #2 암잔 옆영 지들랑 ㄹ레착 암반 우이 들리당 낱.
107083 @ 경해낭 얼마나 있당 마씨.
107083 #2 경해낭 물이 짹 빠져사.
107083 #1 ㄹ레착 무거우나. 무거운 거 우이 지들뢰사.
107083 #2 물이 짹 빠지믄 칼로 강 끈영.
107083 #1 막 모여, 모여.
107083 #2 게난 그런 둘비는 막 부제칩이나 옛날 그런 둘비 해여 낱.
107083 #1 막 모여 맛있어. 그 식은 막 베지근 해여.
107083 @ 예.
107083 #1 할망이 멧번 해났주, 뭐.
107083 #2 몰라. 난 혼 두어번쯤 해져나신가.
107083 @ 옛날에는 바당에 강 물떠낭 해수파?

107083 #2 둠비허젠 허문 바당물, 쫘물.
107083 @ 계난예?
107083 #2 질어와당 허는 사름은 질어당 험젠 헨게,
107083 @ 기지예?
107083 #2 옛날은 소곰도 어려우난 아멩이도 그 쫘물을 가져당 해나신디.
107083 @ 음.
107089 @ 쉰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9 #2 밥 쉬든 물냥 누룩 덩어리 들이청 나두민 부게기 괴민, 그걸 솥으민
그게 쉰다리주게.
107089 #1 맛은 좋아.
107089 @ 솥아사 마씨?
107089 #2 솥아사주게.
107089 #1 괴와야 돼, 거 막.
107089 #2 솥아사.
107089 #1 바글바글.
107089 @ 아, 솥아야.
107089 #2 식영 먹으민 쉰다리.
107089 #1 건디 그거 설사 남직 해도 참 맛이 잇곡, 새콤 득콤허게 맛이 이슨게
막 조습니다.
107089 #2 밥 쉰거나 시그름해여. 밥 텍겨불지 안첸.
107089 #1 거 골감지난 마찬가지주. 골감지.
107089 @ 골감지는 어떤 거짜?
107089 #2 흐린 좁쌀 해영게 된죽 그추룩 풀풀 하게 죽 쑤영게.
107089 @ 흐린 조로.
107089 #2 이젠 무신 그릇에 퍼 냅. 이젠 물 노왕. 그것도 막 되분 때 골을 노
민 골이 익어 안 되불여. 계난 손 영영 해보멍.
107089 @ 식었을 때마씨?
107089 #2 응. 손 영 해보멍 식은 때예 골 해영 허꺼근 영 나중에 부각하게 괴
주.
107089 @ 예.
107089 #2 겐디 이젠 미시거로 걸렁. 체로.
107089 @ 예.
107089 #2 걸러근에 솥으민 감쥐.
107089 @ 솥으민.
107089 #2 으으.
107090 @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0 @ 골은 보릿골 하는 거짜?

107090 #2 으. 주냉이 보기골. 옛날은 주냉이 보리골.
107090 @ 주냉이 보리골.
107090 #1 골은 그거 술 나오는 거.
107090 @ 골은 어떻 허는 거짜?
107090 #2 보리 물 컷당, 물 울민. 건정 장탱이에나 나두민 빨이 뿌죽뿌죽 나주
게 수염발도 박색이 나곡.
107090 #1 콩나물 키우듯.
107090 @ 예예.
107090 #1 밀콜이나 보리골.
107090 #2 베겏디 널어 물리와.
107090 @ 아, 물리와.
107090 #1 밀콜이나 보리콜이나 물리왕 그걸 ㄹ레에 골아사.
107090 @ 물리왕 ㄹ레에 골민 그게 보리골.
107090 #2 그게 보리골.
107090 #1 골, 골. 골ㄹ루.
107090 #2 응. 골ㄹ루.
107090 @ 아, 골ㄹ루마씨?
107090 #2 야, 보기ㄹ루가 아니고 보리골ㄹ루, 밀골ㄹ루.
107090 @ 아... 밀도 골 만드는데?
107090 #2 으. 밀도 골 만드주게.
107090 #1 골. 그게. 중요한 거우다. 골감지, 시방.
107090 #2 이젠 골감지 하는 디도 어서.
107090 #1 민속촌에 햄실거라. 성읍리.
107090 #2 이제는 식혜만 허주. 우리 며느리들도 식혜만 해여.
107090 @ 음, 식혜.
107090 #2 골감주 허미 쉬운거 아니난.
107090 #1 계난 골감주엔 현건
107090 #2 흐린좁쌀해사 허고. 지금은 뭐 좁쌀로 허민 되주만은.
107090 @ 아...
107092 @ 감주는 해납디가?
107092 #2 감주는 해났주게.
107092 @ 감주는 어떻 허는 거짜?
107092 #2 흐린좁쌀해영 밥 해영 물낭 젓영. 골.
107092 @ 골? 보리골예?
107092 #2 으. 보리골 낭 젓영 나두민 그게 보색이 괴어.
107092 @ 예.
107092 #2 보색이 괴민 그걸 체로 걸러.

107092 @ 예.
 107092 #2 체로 걸렁 딸렁.
 107092 @ 아하.
 107092 #2 김허민 감쥐.
 107092 @ 감쥐?
 107092 #2 으.
 107092 @ 감쥐 맛은 어떻해마씨?
 107092 #2 어떻해. 골 노민 들하주.
 107092 @ 들하여.
 107092 #2 골을 노민 들하여. 흐린 좁쌀 하곡 허면은.
 107092 @ 아하.
 107092 #2 아이고 제사할 때 했주. 이젠 제사도 안 허난.
 107092 @ 옛날에예?
 107092 #2 으.
 107092 @ 술도 옛날에 해나수파?
 107092 #2 아니 술은 안혀보고.
 107092 @ 술은 안해난마씨?
 107092 #2 으.

9. 신앙

109002 @ 성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2 #2 성주는 집 문밖 지서낭으네 성주 느릅넝 허는거.
 109002 @ 그건 어떻합니까?
 109002 #1 그건 목시레들 허는거 그건.
 109002 @ 게문 어떻합니까?
 109002 #2 그거 허젠 허문 심방 빌어사주게.
 109002 @ 뭐 준비합니까?
 109002 #2 무시거허여 것도 떡허곡, 밥허곡, 국허곡, 바닷고기 굽곡.
 109002 @ 예.
 109002 #2 제숙이라고.
 109002 #1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들어가. 일절.
 109002 #2 돼지고지 안 들어가주게. 바닷고기벳기 안 들어.
 109002 #1 바닷고기벳기. 계란호고.
 109002 #2 옛날도게 감주하고, 술하곡.
 109002 @ 예. 그문 집 다 지어낭 아무 때나 허문 됩니까?

109002 #2 아니, 날 봐사주게.

109002 @ 아, 날 빵.

109002 #1 날봐야 해여. 가족들 숫자에 다 맞추왕.

109002 @ 해치 맞추왕마씨?

109002 #1 에이, 우리가 경했주마는 몰라. 요즘은 말이여. 경허는지.

109002 @ 해난거 곁아주민 됩니다.

109002 #2 지금은 경 햄주기.

109002 @ 난 해수다. 하하하.

109002 #1 멍심허는 사람들은 허여. 즈순들 연영들 다 봐아.

109002 #2 느려야 주게. 새 집 시시븐 성주 느려사주게. 집 시시븐 성주 느려야 제사 명절 허는거.

109002 @ 예, 제사허젠 해부난예, 성주 헨마씨.

109002 #2 음.

109002 #1 성주가 딱 직형은네 조상들 못 들어온게 헨다는거주.

109002 @ 아.

109002 #1 성주 귀신이.

109002 @ 예...

109002 #1 게민 조상들은 성주 느립기 전에 제사가 닥치면은 여기에 잠몽이나 자귀 아땅으네 딱 박아놔 제사해야 되어.

109002 @ 무사마씨?

109002 #2 아 저, 아이들이나 아팡으네 새풀이라도 허젠허민 집가지에 칼을 찢렁 헨덴 해났주게.

109002 @ 아...

109002 #2 성주 아니 느린 집인.

109002 @ 아...

109002 #1 그제 잡귀같은 것들을 범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9002 #2 경해도 성주 아니 느린 집이는 아팡으네 새풀이 허젠해도 집이 가지에 칼을 찢렁 헨덴 해나서.

109002 @ 새풀이 마씨?

109002 #2 응. 새풀이허젠 허민.

109002 @ 아픈 사람 구환하는거예?

109002 #2 응. 구환하젠 허민 새풀이 곁은 거 허젠 허민.

109002 @ 칼을 꽃앙 해마씨?

109002 #1 게매 것도 악귀로 알면은 그런 칼을 사용하고. 삼신할머니들 아이들 아플 때는 그런거 어십니다.

109002 @ 아? 예...

109002 #1 기자, 삼신할머니가 초삼일, 초일레 , 열일레...뭐..

109002 #2 아이들 아플 때 낚들여나는거주, 그런건.

109002 #1 초3일, 사흘에 지곡하는 할망. 초일레에 직곡하는 할망. 구삼승이라고 아흐레 지곡하는 할망. 삼승, 삼신이 세 개가 있넨 허는 거우다. 즈식들, 손지들 열다섯살 안네에 이 키우젠 허면은.

109002 @ 예.

109002 #1 열다섯이 넘으면 그건 복력이렌 허곡. 그 안네는 삼신이 보호한덴 허는겁주.

109002 #2 삼신할망이 키와준다, 허는 거주게.

109002 @ 음, 예.

109002 #1 구삼승이라고 해서.

109003 @ 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3 #2 문전도 마찬가지로 뭐.

109003 @ 문전은 무사하는 거 마씨?

109003 #1 그거 그전이 ㄴ찌 안헙디까? 강태공 할로산에 강. 나무 끈는 사람 강태공 서목시 직시라고.

109003 #2 성주 누리젠 허민 목시 정 불리지 안허여. 강태공 허목시~.

109003 @ 오허...

109003 #2 멜망탕이 둘러메곡. 도치 노양 둘러멩 행 돌아다니곡.

109003 @ 아.

109003 #2 하하하.

109003 #1 나무꾼 행 다니는 형국이주게.

109003 @ 문을 향해 절을 몇 번 허지 말랜 했지예?

109003 #2 문전에 절을 헐 때?

109003 @ 예.

109003 #1 문전에 하직?

109003 @ 예.

109003 #1 계난 그거 가운마다 틀립니다. 이 성주라는 것은 문지방에 언제나 귀신이 있다하는 의미에서 하직을 말곡. 뜯디는 하직을 세 번을 합니다. 잘갑서 성주 귀신.. 헤영. 돌아가서 헤영.

109003 @ 예.

109003 #1 근디 성주귀신이 이 집안에 있는 거우다. 그게 아니고.

109003 @ 문전제는 그거마씨?

109003 #1 헤헤.

109004 @ 조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4 #1 조왕은 절이 어십니다. 심방들 행 조왕

109004 #2 조왕제라고 기자 조왕에 아장 조왕할망들한테 비는거.

109004 @ 예. 어디서 마씨?

109004 #1 심방들 아장.
109004 #2 계, 부엌에 강계. 정지예.
109004 #1 정지가 부엌.
109004 @ 예.
109004 #2 옛날 솥 아찐디 정지.
109004 @ 예. 솥 아찐 정지, 부엌예?
109004 #2 솥 아찐디 아장 조왕할마님한테 비는거주.
109004 @ 예.
109004 #2 아무일도 어시 험서. 영 행.
109004 @ 아, 예. 이걸 따로 준비행은네 허는 거 어수짜?
109004 #1 문전코시엔 힘니다. 그 조왕제를 허게 되민.
109004 @ 아, 예.
109004 #1 문전 코시라고 해서.
109004 @ 이거 그럼 같은 말 마씨?
109004 #2 그 제를 하민 문젠코시고 조왕제만 하는 사람은 조왕제만 하고.
109004 #1 조왕제, 조왕제.
109004 @ 예.
109004 #2 조왕제만 하는 사람은 조왕제만 허곡, 문전에 하는 사람은 문전코시
렌 허영 문전에 허곡.
109004 @ 예.
109004 #2 경허주게.
109004 @ 조왕에 허젠허민 준비하는 거 똑같아마씨?
109004 #2 아니 문전할 때 만이 안들어, 조왕에는.
109004 @ 문전에는 뭐 준비해야 되어마씨?
109004 #2 문전에 허젠 허민게. 떡도 들고 밥도 들고.
109004 @ 이걸 몇 개 들곡 안험니까?
109004 #2 메 하나민.
109004 #1 다 험나주.
109004 @ 예.
109004 #2 조왕할망이 세겐가?
109004 @음...
109004 #1 심방들 하는거 아이 봐서.
109004 #1,2 하하하.
109004 @ 또 뭐 들어마씨?
109004 #2 고기여, 술이여, 감주여.
109004 @ 이거 다 준비해야 합니까?
109004 #2 으. 채, 콩늬물이여, 뭐.

109004 @ 아, 채소도 다.
109004 #2 으.
109004 @ 세 개마씨?
109004 #2 으. 무수채나 무신거 그런거 해여지믄 다허는 거주게.
109004 @ 예. 고기영, 술이영, 떡이여, 과일이영...
109004 #1 신가지 지물이라. 이시믄 이신양 다 해여.
109004 @ 감주영...
109004 #2 응 감주영...
109004 @ 다 준비해영 문전하는 거 마씨?
109004 #2 으으. 문전에.
109004 @ 이거 제사 때 말고 따로 하는 거지예?
109004 #2 응. 따로 허는 사름 있주게.
109004 @ 그믄 문전은 언제 허는 거파?
109004 #2 문전게 이녁 날봐사 하는 거주. 것도게.
109004 @ 이걸 무사해마씨? 무슨 일 이실 때 허는거 마씨?
109004 #2 아니아니. 지금도 허는 사름들은 햄주게.
109004 #1 문전은 그전부터 날 봐사 허여.
109004 #2 문전코시게.
109004 @ 날 빵 뭐 좋으렐 허는거파?
109004 #2 시님 빌어당 하는 사름도 있고.
109004 @ 뭐에 도움되헐 허는거파?
109004 #2 뭐에게. 집안에 기자 다 편안협서 행은네.
109004 @ 구진일 이시믄 마씨?
109004 #2 으.
109004 @ 아, 편안협서. 행은네.
109004 #2 편안협서.
109004 @ 성주는 집 지스니까 허곡 문전은 호뎀 곳인거 담다 허믄 허는 거곡.
109004 #2 어어.
109004 #1 손이영 뭐영 뭐든 편하게 해줍서 허는거주.
109004 @ 조왕은 마씨?
109004 #2 조왕제도 허민 날봐사 하는거.
109004 @ 예, 이거는 무사험니까?
109004 #2 무사해여. 것도게 조왕에게 곳인 일도 나지 맙서. 기자...
109004 @ 이거 다 갖춰 하젠 허민 다 해사쿠다예.
109004 #2 아니. 조왕에는 문전 만이 안 들어.
109004 @ 아, 안들어.
109004 #2 조왕제는 기자 쫄이나 혼 사발, 물이나 혼 사발 걸여 나도 되곡, 이.

109004 @ 아니면 메 올리곡?
109004 #2 으. 기자 헤지른 허곡.
109004 @ 예...
109005 @ 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5 #2 칠성이라고, 게. 칠성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네가 칠성제를 해
났는디
109005 @ 예...
109005 #2 칠성제를 허젠 허민 막 두일레 열 아홀, 그릇들도 베갯디 내냥 이슬
맞히멍 발레곡.
109005 @ 아...
109005 #2 칠성제 허젠 허민.
109005 @ 막 정성을 허야 하는 거구나예...
109005 #2 으으... 두 일레 열 아홀... 베갯디 새 깔앙 그릇 싯으멍 그디 옹영 이
슬 맞창.
109005 @ 아...
109005 #2 막 두 일레 열 아홀 그걸 막 발레여 그릇들을...
109005 @ 음...
109005 #2 경혜영 칠성제 하는 거 봐나서 게.
109005 @ 음...
109005 #1 칠성제엔 헛게이.
109005 @ 이거는 무신 일 생기면 해마씨?
109005 #2 칠성이엔 헛게 배염이라. 배염.
109005 @ 예...
109005 #1 토산 한집.
109005 #2 토산 한집이라고.
109005 #1 저... 남군에.
109005 #2 저, 정의레 해주게. 정의레. 시방 성읍리 쪽더레 해주게. 그런거.
109005 @ 예... 그 막 정성으로 모심으로 하는 거 아니예?
109005 #2 응.
109005 @ 궂은 일 났덴 허는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짜?
109005 #2 그냥 게.
109005 @ 해마다, 달마다 하는거 마씨?
109005 #2 흔 해에 흔 번 흔는거주게. 두 해에 흔 번도 흔곡.
109005 @ 아, 예... 정성으로 하는 거구나예.
109005 #2 응 정성으로 하는 거.
109005 #1 게난 칠성도 옛날 고향에 모시는 사름도 싯고,
109005 @ 예.

109005 #1 베갯디 저 기왓장 하나 놔그네, 주집 썩어놔그네 모시는 사름이 이서
나수다.

109005 @ 아...

109005 #2 안칠성, 반칠성이라고.

109005 @ 아...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거마씨?

109005 #1 야.

109005 #2 안칠성, 밧칠성이엔 흥영.

109005 @ 기구나예. 안칠성하고 밧칠성은 틀린 거파?

109005 #2 ㄱ튼 거주. 칠성이라고.

109005 @ 예...

109005 #1 그거 배염이우다. 배염.

109005 @ 예...

109005 #1 저 백조할망이 일부 즈식이 하나 토산 감시난 그 조상 노릇하명 시
방 얻어먹영 살암수다.

109005 @ 예...

109005 #1 계난 즈식을 못 키우는 사름은 양.

109005 @ 예...

109005 #1 대개 칠성제를 흥니께.

109005 @ 아... 자식 없거나 하면...

109005 #1 예... 즈식들 무사안녕이나 집안의 모든 곡식 모든 걸 무사안녕 하기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

109005 @ 예...

109005 #1 첫째... 즈식의 무사안녕을 위해서는 칠성제를 합니다.

109005 @ 예...자식 잘 되젠 허민 칠성제를 해야 하는 거구나예.

109005 #1 야...

109005 #2 자식들 펜안흥렌.

109005 @ 나도 헤사큰가 마씨?

109005 #1 즈식 나지 못하고 해도 경해도 흥는거.

109005 @ 아... 자식 귀해도 하는 거고 이서도 하는 거고...

109005 #1 예... 이성 즈들라도 하는 거고. 칠성제가 잇고 마제 치는 것도 이수
다.

109005 @ 마제 치는 거...

109005 #1 마제 치는 거렌 허는 거는 즈식을 위해 흥는 거

109005 @ 예...이건 뭐파?

109005 #2 마제는 집에 굿할 때

109005 @ 굿할 때 마씨?

109005 #2 굿할 때 마제 치는 거...

109005 #1 아니 별도로 마제를 치주게.
109005 #2 마제 치는 거, 아이들 별도로 얘기 못 나는 사름도 흥곡.
109005 @ 예...
109005 #2 얘기 낭 흥도 즈들라도 하는거.
109005 @ 예...
109005 #2 키우지 못해가도 흥곡.
109005 @ 예...
109005 #2 아오. 우리도 옛날 하도 그냥 녀만 들여줍센 가민 에에, 마제치렌 하
민 안헤여.
109005 @ 아, 마제치렌 하는 구나.
109005 #2 녀들여 줘써, 녀만 들어 줘써 햄댄. 들으멍 해나서.
109005 @ 마제치렌 흥는구나예 그거보고.
109005 #2 응.
109005 @ 아이들 잘 되렌 하는거.
109005 #1 무사 안녕하라 하는 거라, 아이들이.
109005 #2 우리도 굿혜영 마제 청 낫곡.
109005 #1 즈식 못 나는 사름도 즈식 낭게 하는 거곡.
109005 @ 음...예.
109005 #1 마제 치젠 흥민 상단 초사흘 할망 나시 뵈 놓고.
109005 @ 예.
109005 #1 초일레 할망 나시 뵈 놓고.
109005 @ 마제칠 때 마씨?
109005 #1 야. 마제 칠 때. 구삼승 나시라고 아흐레.
109005 @ 아...
109005 #1 이 아흐레 오는 할망은 악할망이고 중간에건 중간이고 초 사흘에 지
곡흥 할망은 순한 할망이곡.
109005 @ 예... 언제 언제마씨?
109005 #1 초 사흘, 초 일레, 초 아흐레.
109005 @ 초 아흐레...
109005 #1 아기 구덕 혼들 때도. 예, 경허주. 초사흘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일
레에 지곡하신 할마님아, 초 아흐레에 지곡하신 할마님.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왕이.
109005 #2 ㅎㅎㅎ.
109005 #1 할마님이 도와줍써. 어우 우리 얘기. 왕이 자랑 왕이 자랑.
109005 #2 ㅎㅎㅎ
109005 #1 경허명 입담을 해여 가민 아이들도 입담을 들어가민 즈을 잘 들어.
109005 @ 잘 자마씨?
109005 #1 응. 즈을 그렇게 잘 자. 패라왕 막 양작만 하던 것들이.

109005 #2 애기 구덕들은 봐 나고?
 109005 @ 예, 예.
 109005 #2 대구덕들 봐나신가?
 109005 @ 대구덕은 안 봐나마썸.
 109005 #2 대구덕 말해주. 시방 쇠구덕이사 무신.
 109005 @ 대구덕 안 봐난 마씨.
 109005 #1 대구덕 그자 아이 판?
 109005 #2 대구덕이라났주, 애기구덕은.
 109005 @ 그게 제라한 건디.
 109005 #2 응. 시방 쇠구덕이사 거 무신.
 109005 #1 거 무신.
 109005 #2 대구덕 이서났주. 수량한 거.
 109005 @ 수량한 거마씨?
 109005 #1 웅이 자랑 웅이 자랑하민 말이여, 아이들이 그렇게 악흥던 할망도 할
 망 입담만 해가민, 구신 그치이, 아이 머리맡에 삼싱 할망 지곡한 거 닳아. 아이들
 이 악하당도 경 즘을 들어.
 109005 #2 하하하.
 109005 @ 예, 말 잘들어예.
 109005 #1 응. 경허당도 말 안들어가민 팔락탁 팔락탁
 109005 @ 하하하.
 109005 #1 와닥탁 와닥탁 흔들곡.
 109005 #2 와글와글...
 109005 #1 경 흔들어 가민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이래착 저래착, 정신이 혼동되
 어이.
 109005 #2 하하하.
 109005 @하하하.
 109005 #1 정신 혼동되영 울당도 아이 울주.
 109005 @ 너무 놀랭 못 우는 거 아니예?
 109005 #1 노래영 아이 우는 거주게.

10. 세시풍속

110001 @ 정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1 #2 조상들게 새벽이 오젠허난게 바싹언디 고생했쑤다 해영 므밀국시허
 영
 110001 @ 므밀국시 이건 아까 이름이 뭐라고 마씨?

110001 #1 새백국이라고.
110001 #2 세백국.
110001 @ 아 세백국.
110001 #2 새백이 일찍 허는거난 새백국 경행 그 조상들이 새백이 오명.
110001 #1 간식으로.
110001 #2 고생해수다 해영.
110001 #1 오젠허난 고생해수다 이런식으로 그 그자 다 위쉬바다 혼 그릇씩 거
려냥.
110001 @ 아...아 혼 그릇씩.
110001 #1 할망 하르방 다 따로 따로.
110001 @ 아...
110001 #1 게메 어떤디는 그전에 스무개 스무개도 넘어나잇주 허허허.
110001 #2 조상 한디는 막 요라개.
110001 @ 할망 하르방까지 다하젠 허든 스무개도 넘어서쿠다.
110001 #1 넘어가말이여 경허난 이제 다 모든걸..
110001 #2 조금쉬 한사람들은 다거려놔사라난
110001 #1 지제해부난 이주 지제헌 조상들은 안거려놉니다. 이녁집이서 제사맹
질 현재 허는 조상만 거려놓지 지제해여분 조상들거 허젠하민양 100개 되주 게난
지제는 끈나고 새 제사 맹질만하는 조상들의 각각이 허여도 스물한개가 되어서.
110001 @ 그른 경해난 다음에
110001 #1 개 잡식행 소주 혼잔 비왕 절허영 한번 절해그냉에 잡식행 올려뵈
이제 그다음부터는 맹질제를 헐거 차리는거주. 목두 끊영 꿰고 적들도.
110001 #2 돌화리에 피기두 굽고 해해해.
110001 #1 피기두 굽고 화리에 행 불살라.
110001 #2 돌화리에 돌화리에 수량한 돌화리에 적쇠걸청.
110001 @ 적쇠걸청.
110001 #2 그레 고기두 굽고 목도 구루곡.
110001 @ 으흐 경해그냉 맹질제는 아침 뿔 시쯤 합니ㄷ 여기 메씨쯤 해난 마
씨? 돌아가명
110001 #1 돌아가명 허기 때문에 종손집이는 혼시 두시ㄷ지 됩니다. 경허는데
초가지가 먼저 합니다. 제일 이..
110001 @ 작은 집이가
110001 #1 것도 작은 집이두 맹질 조상을 맡아온 즈손은 허곡 아니맡아온 안협
주마씀. 게른 두 번째놈으로 가라 세 번째 놈으로 가라 영해그냉 제일 막내를 허당
보민 혼집이가 혼 시간씩 허당보민 최소한 대여섯시간 걸려. 혼 시간은 막 뽀른거
우다.
110001 @ 음.. 제 지녕 음복까지 허고 영허당보민.

110001 #2 두시반엔 끝나지 안해여.

110001 #1 게메 게난 예를 들어서 다섯 바티민 다섯시간을 잡는거 기준을 잡는 건데 제일 밑에 예, 초가지강 제를 지내잔 허믄 그디강 다 올동안 기다려야주게.

110001 #2 현 아홉시 아홉시 아홉시.

110001 #1 그 사람들도 왕 이 차례를 행 절을 해야 세배를 진설 다 해노민 세배를 헉니께.

110001 #2 우리는 두 번짜 니까 현 열흔시.

110001 @ 아, 그렇게.

110001 #1 종손집이 가젠 흐당 보민 현시, 두시.

110001 #2 일찍 끝나야 현시 쟁 안허민 두시.

110001 @ 빨리 끝나야 현시.

110003 @ 방사와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3 #1 대보름 전에. 정월 열사흘이 본향당이라고.

110003 @ 아, 예.

110003 #1 육지는 보름을 크게 하는데 여기는 열사흘 당 할망 나시 있당 갔다 왕. 보름에는 허는게 어수다. 보름에는 뭇하느냐허면은 대개는 조왕제라고양 날받양 방서도 허곡.

110003 #2 건 저 삼월달에도 하고 이녁 허고 싶을 때 허믄 되주게.

110003 #1 게나 대개이. 정월 보름 안에는 우리 제주도사름은 방서나 조왕제. 상들이라고 해서 이월달에는 영등 할망인지 하르방인지가 들어노니까 정월 보름 안에. 되도록이민.

110003 @ 예. 방서는 어떻허는 거 마씨?

110003 #2 거 저, 심방 왕.

110003 @ 예.

110003 #2 심방왕 집안이 편안해 줘써. 문전에도 불쌍왕 조왕에도 불쌍 왕.

110003 #1 안에영 뉘, 여라군데 뵙니다. 비는데 방서라는 것은 해안도로 영등할 망, 영등하르방 나가젠 허민 짚으로 배 짱양.

110003 @ 예, 예.

110003 #1 돈대 멘들양은에 거기에 뉘 음식도 낳은에 어디 뉘야, 질 가운데 사름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나 오거리나. 아주 복잡한 데에. 모로게.

110003 @ 아...

110003 #1 아무도 모로게 아닌 밤중에 술찌기 갖당 노는 거. 갖다 노면은.

110003 @ 송당서도 마씨?

110003 #1 아, 송당서도.

110003 @ 아, 그게 방사하는 거봐?

110003 #2 옛날은 경 했주게. 지금은 안 해도. 옛날은 경해나서.

110003 @ 지금은 안 허주만은

110003 #1 경해서 그 겨난 우연만 하는 사름은 그걸 아니 가져 갑니다. 어떠당 천한 사름을 빌영 가져 가나. 갱 안허면 심방ㄴ라 당신네가 집이 가면서 어느 위치에 갖다노라. 경호고 또 심방네는 심방네 대로 욱 아이 들젠 허민 어느 정도 저 흔 짝더레 앓당 노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방서에 첫 번 본 사름이나 재수 굿은 사름이 아다로하면 사람 많은 위치에 앓당 봐야야만이 어느 재수 없는 사름이 그걸 걸러 들어가는 거라. 경허민 재수 나오는 거라. 자기의 괴로운 것들이 몸에서 집안의 운이나 어떠한 그 액을 말양 온덴 허는 겁주.

110003 @ 여기서도 방사하젠 허민 심장빌렁 음식 준비하고.

110003 #2 돌레떡.

110003 @ 돌레떡 준비하곡.

110003 #2 돌레떡만 허여.

110003 @ 아... 돌레떡만.

110003 #2 과일하곡 채소하고 술하고 기자.

110003 #1 욱식만 안 합니다. 욱식만.

110003 #2 밥해놓곡게.

110003 #1 돼지고기, 소고기들만 안 해영.

110003 @ 문전에도 하곡 조왕에도 하곡 빌영.

110003 #2 이제는 뭐 조왕에도 이런거라부난 안해영 문전에만 허는 사름은 지금도 햄주. 지금도 해여.

110003 @ 음...경행 짚으로 배를 만들어 사거리, 오거리에 강 놔.

110003 #1 음. 배 모양으로 멘들아.

110003 @ 슬째기 새백이.

110003 #2 밤이, 밤이.

110003 #1 사름들 어실 때 갖자 낱. 밤이 고요한 때에.

110003 #2 심방도 밤이 오랑 허주게. 밤이.

110003 @ 밤에...

110003 #1 거 계난 벨롱갱이렌도 말하고.

110003 @ 벨롱갱이마씨?

110003 #1 으. 벨롱갱이. 집집마다 운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빌기 때문에. 벨롱갱이, 벨롱갱이 합니다.

110003 @ 아...

110003 #1 아, 저 집은 벨롱갱이 햄서. 헤헤헤.

110003 @ 벨롱갱이 햄서...

110003 #2 흐흐흐.

110003 #1 저 집 문전코시햄서. 여러 가지우다. 말도.

110004 @ 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4 #2 옛날 포제 허주게.

110004 @ 포제 허젠 허민 정성허지예?
110004 #1 야.
110004 #2 포제를 허젠 허민 혼 집이 딱 정해영 포제 제관이 다섯이든 다섯. 여섯이든 여섯 영 정해영.
110004 #1 최소한도 열은 됩니다. 최소한 열.
110004 #2 다들 그 집이서 살아.
110004 @ 아...
110004 #2 포제 돌아올 때까지.
110004 @ 예, 예.
110004 #2 그 집이서 살면서.
110004 @ 며칠이나 삽니까?
110004 #1 일일날 지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칠일.
110004 #2 혼 일주일은 살아. 그 집이서.
110004 #1 그 집이서 나오지 못해여. 절대로.
110004 #2 나오지 못허민.
110004 #1 그집이서 밥 먹곡.
110004 #2 우리도 옛날 우리 아버지네 그런디 강 안자부난 밥행 가정간. 조반도 행 가져가고. 점심도 해영 가져 가곡. 저녁도 해영 가져가곡. 경행 포제 헐 때사 그 사름들이 다 그.
110004 @ 나와..
110004 #1 제 끝나야.
110004 #2 옛날은 포제터. 저 마장 안에이.
110004 @ 아...
110004 #2 마장 안에에 어디 소 놓는 케에. 영 담 빙하게 다왕 포제터라고 이서 났주.
110004 @ 포제터예?
110004 #2 으. 케민 그런디강 제를 지내는 거라. 도새기도 전머리 올령.
110004 #1 깨끗한디 지정합니다.
110004 #2 도새기도 전 머리. 잡지 안해영 그냥.
110004 #1 생겔로.
110004 #2 생겔로 강. 그냥 우구시 세와근에 이.
110004 @ 아.
110004 #2 경행 포제. 탄 거는 크게 안들어. 도새기 한 마리.
110004 @ 살아 잇는 돼지 마씨?
110004 #1 아니아니.
110004 #2 아니 죽영 털 벳기곡. 반직 단장해영.
110004 @ 아, 잡았는데 생겨.

110004 #1 으. 생거.

110004 #2 생걸로. 산토새기 추록.

110004 @ 장만 안 헌거예?

110004 #1 살도 안 끈어. 배만 속옴에 내장만 끈어봐동 차롱이나 구덕에 몽크령 양쪽에 꼭 하나는 안돼. 저쪽 이쪽 마주보기 위해서 꿩여 앓형은에.

110004 @ 아...

110004 #2 도새기 한 마리 온차 올리는 거.

110004 @ 두 마리 해야 되네.

110004 #1 혼 마리는 안 올리메.

110004 @ 그른 마을제 제관들은 돌아가명 해마씨?

110004 #1 아니 그저 유식한 고명한 사름들이 험니다.

110004 #2 허염직한 사름덜.

110004 #1 소소한 사름덜, 아무나 디디한 사름덜 아니 험니다.

110004 @ 예.

110004 #1 안 됩니다. 해당도 아니 되메. 제관 자격도 아니 되어.

110004 @ 붉은 흙 뿌리는 것도 이수파?

110004 #1 아, 그건 굿혈 때.

110004 @ 굿 혈 때.

110004 #1 야. 그 황토 뿌리는 거.

110004 #2 올레로 일로 이레 벌겁게 뿌려 오주게.

110004 @ 굿 허젠 허민.

110004 #1 아, 포제 때도 험니다.

110004 #2 포제 때 무신 집에서 험수파.

110004 #1 아니, 흑 뿌리는 거 집에서 안 해도게.

110004 #2 산에 강.

110004 #1 제관들 왔다리 갔다리 허는디 어떠든지 황토는 뿌려지민 좋다는 겁주. 어디든지. 깨끗하니까.

110004 @ 예.

110005 @ 안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5 #1 안택이 벨롱갱이.

110005 #2 안택이... 이제 시님들 왕 하는 거는 안택이엔 허주.

110005 #1 안택이 집안에서 하는 거. 그때 곧지 안 험디가게.

110005 #1 집이 안녕한 가 하는가.

110005 #2 절간에서 시님이 왕 하는 거는 안택이엔 하곡. 우리 저 심방 빌영 옛날 혈 때 허는 거는 조왕제, 문전.

110005 @ 음...

110005 #2 응. 경허는 거.

110005 #1 문전 코시. 조왕제. 기자 조왕제...

110005 #2 절간에서 시님 빌어당 허는 건 안택이엔 허주게.

110005 @ 우리집 올 한해 잘 되게 해줍서.

110005 #2 일년 열 두달 기자 편안하게 해줍써.

110005 #1 문전 콧스엔 험니다. 문전 콧스.

110006 @ 보리밭 밟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6 #1 건 정이월에.

110006 @ 정 이월에예?

110006 #1 으. 건 동사똥 올라오지 못하게.

110007 @ 걸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7 #1 걸궁은 우리가 말하민 요즘 농악이고 광대.

110007 #2 걸궁이라고 밭에서 젊은 사름들 행 걸궁을 꾸미주게. 걸궁을 꾸며 근에 막 들렁 땡기땡 그 우이 사름 하나 태와. 막 노래 부르땡 소리하땡이. 사름들이 메여근에 땡겨.

110007 @ 구경하고 마씨?

110007 #2 구경하주게. 걸궁 마을제라고. 걸궁.

110007 @ 아...

110007 #2 마을에 돌아땡기땡.

110007 @ 마을제 할 때 허는 거 마씨?

110007 #2 마을제도 아니고. 젊은 사름들 그자 걸궁,

110007 @ 연초에만 마씨?

110007 #1 정월에 보름 안짜에. 그자 광대 놀이. 농악 놀이라 이게. 우리가 말하민 시방 농악 놀이 마썸.

110007 #2 그자 아무 때나 허주. 삼월에도 허곡, 사월에도 허곡.

110007 #1 계난 포수하곡. 포수행 땡 하나 맞추왕 양도리에 둘러메곡. 총도 낭으로 있당. 목총이주. 멘들앙.

110007 @ 아...

110007 #1 또 지달피 감테 쓰곡. 아주 그제 매력이라. 옛날 포수 역할 하는게.

110007 #2 건 저 웃기는 거난게. 웃기는 거. 젊은 사름들 막. 청년덜.

110007 #1 농악. 계난 요즘은 농악이엔 허주만은 그전 사름들은 걸궁. 그전이는 광대.

110007 @ 걸궁은 무사하는 거 마씨?

110007 #2 그냥 노는 거. 젊은 사름들 그냥 놀이개해영.

110007 #1 놀곡. 매 부락에 저, 무시거 달집들 캐우지 안 험니까양.

110007 @ 뭘 마씨?

110007 #1 달집, 달집.

110007 @ 아, 달집.

110007 #1 육지서는 달집행 캐웁주게, 육지는. 헌데 여기는 경을 안 허고. 그 집에 강은에양 포수나 총 딸리맹 허는 놈이나 그디 뺑과리 대양 치는 놈이나 집 주위를 액을 막기 위해서, 나쁜걸 다올리기 위해서 막 치명 돌아 줍니다.

110007 @ 아... 그든 동네를 경허명 다 다니는 거구나예?

110007 #1 게난 집집마다 강. 가서 허는데.

110007 #2 안 허는 집도 있곡. 아이 가는 집도 있곡. 경행 들어가면은 그냥 못 보내주. 돈 줘야.

110007 @ 아하. 돈을 줘야.

110007 #2 돈을 줘사주게. 그 사람들 오랑 해줘신디게. 이제는 회사한다, 회사한 다 허주만은 그때는 게 돈이라도 얼마 줘사 그 사람들 게.

110007 @ 맞아, 맞아.

110007 #1 돈이 그때는 경 나도 안허곡.

110007 #2 그때 무사 돈이 날때가 이서서게.

110007 #1 쓸 글은 거나 무신거 중요한 거 헛쓸씩 줍니다게.

110007 #2 돈 주는 디도 있곡.

110007 @ 애써시난 이거 받앙 갑서 허는 거구나게.

110007 #2 갱 해영 게.

110008 @ 입춘 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8 #1 입춘절인 뭐 업고.

110008 @ 제 말앙마씨.

110008 #1 입춘에는 어수다.

110008 @ 붙이는 것도 엇고.

110008 #1 거 무신 입춘대길 해서 글 잘 쓰는 사람들 글 자랑행 친척들 다 붙이렌 행 다 해줍니다. 그자 그거.

110008 @ 그건 특별한 거 아니고?

110008 #1 그거 기자 뭐 특별한거렌 아니로 생각합니다.

110008 @ 입춘에 늬이 집 가지 말렌 허는 말도 이수게.

110008 #2 새철날?

110008 @ 예.

110008 #2 새철날 새백이 예펜이 가면 밧디 검질 짓나고.

110008 @ 아하.

110008 #2 흐흐. 검질 짓나고 예펜 오지 못하게.

110008 @ 검질 짓나는 게 뵤고.

110008 #2 검질 많이 나는 거. 짓어.

110008 @ 아, 짓어.

110008 #2 산디밧디나 보리밧디나 막 농사 지면은 그 밧디 검질 짓넌. 검질이 많이 낭.

110008 #1 그 사름신디 또 다른 말 곱아줘불어.
 110008 #2 새철 나민 여자 못 오게 해여.
 110008 @ 계난 무산고마씨?
 110008 #2 가지도 안 해여.
 110008 #1 경헌데 몰랑 왔다 말이우다.
 110008 @ 예?
 110008 #2 그든 옥들어. 하하하.
 110008 #1 옥 보다도 검질을 도저히 짚어지왕 보내불여. 그계 그 방서가 이서. 제주도예 특별한... 입춘예. 검질을 꼭 지왕 보내불메.
 110008 @ 검질을 지왕 보내마씨?
 110008 #1 으으. 흐쓸이라도. 새철날 아침이 무시거허레 와서니. 영허멍.
 110008 @ 그든 둘 다 어떻 안해여 마씨? 검질도 하영 안 나고 그 사람도 옥 안 먹고마씨?
 110008 #1 그계, 방서라는 거주. 재수가 없을 시에...
 110008 #2 입춘 새철 제일 체암에 새해 드는 거라고.
 110008 #1 재수 없다 시에 경허는 거우다.
 110008 #2 경허민 계...
 110008 #1 우리가 경 해난 거.
 110008 @ 우리 어머니도 새철날 놈이 집 가지 말렌 해신디.
 110008 #2 지금도 새철날 우리 어드레 가구정 아니 해여. 놈이 집이. 새철 넘어어나 시간 빵 시간 넘어 경해사 거주.
 110008 #1 그전이는 시간도 어디 이서수과. 입춘이엔 허민 오늘 새철 드는 날이여 허든 기자 시간도 어시 무조건 예펜들은 집에 아장. 옥들어.
 110008 #2 갈디가 엇주게 그때는. 그 옛날은.
 110008 #1 옛날은 그나저나 특아진 하르방들이라낫주. 쉬염도 이만씩 해둬서. 아이고.
 110009 @ 영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9 @ 바당 아닌디 송당도 영등 올 때 나갈 때 따로 뭐 합니까?
 110009 #2 안 해여.
 110009 @ 안 허는구나.
 110009 #2 기자 영등 들어와져. 영등 나감져. 그런거 뿐이주. 이디사 무신.
 110009 @ 따로 제 지내거나 그런 거 어서마씨?
 110009 #2 아니, 어서. 옛날 김녕 살 때는 영등곳 해나서. 열사흘날 영등곳. 이월 열사흘날 바당가에.
 110009 #1 헤벤가 영등제를 허는 거.
 110009 #2 바당가에서.
 110009 #1 시방도 허는디. 시방도 큰 예산을 들영 허는디. 영등 할망이나 하르

방이나 헌디.

110009 #2 우장 쓴 영등이여, 후루메 입은 영등이여.

110009 @ 아...

110009 #1 계난 남잔지 여잔지...

110009 #2 우장 쓴 영등은 비만 온덴 허고.

110009 @ 예.

110009 #1 십오일간 계속.

110009 #2 날이 좋은 영등은 후루메 입은 온덴 허주게.

110009 #1 계난 할망이나 하르방이나 허는디 저디선 할망으로 나와게.

110009 #2 하하하하.

110009 #1 영등곳 허는디 보난게. 송당 당내 심방들 그디강 곳하는 거 보난에.

110009 @ 예, 예.

110009 #1 영등 할망이 막 곱보딱지라.

110009 #2 하하하하.

110009 #1 경 그려냥 그걸 노리더만.

110009 #2 영등 할망이 들어 왔져, 영등 하르방이 들어왔져 허난에.

110009 #1 계나 추운 할망이여, 추운 하르방이여. 그때에는 이월... 계난 여러 가지우다양. 정월 보름에 들어 왕 이월 보름에 나간다는 부락이 있고.

110009 #2 아니라, 정월 그믐에 들어왕 이월 보름에 나가주.

110009 #1 겨난 소섬 강 구쟁이 까먹으멍 가불멍.

110009 #2 열 사흘 날은...

110009 @ 예? 정월 그믐에 들어 왕 이월 보름에 나가고마씨?

110009 #2 으. 정월 그믐에 들어왕 이월 보름에 나가. 경허민 이월 열나흘 날은 소섬 강 보름날은 구쟁기 보말 까 먹으멍 열 엿새 날은 육지로 나간덴 허주게.

110009 @ 아...

110009 #1 게서 영등곳을 허는 거주.

110009 #2 경행 영등제를 허는 거주. 헤벤서는.

110009 @ 음.

110009 #1 에이, 언 영등 들어왔져. 아이고. 속담에.

110009 #2 비만 오민 비오는 영등 들어온 생이여.

110009 @ 농사 할 때는 어떤 영등 들어와야 좋아마씨?

110009 #2 그런 문제는 엿주.

110009 #1 그런 전설은 어서난.

110009 @ 이월 날씨만 말허는 거짜?

110009 #1 야. 이월에 날씨만.

110009 @ 어떤 영등 들어오민 아무것도 어서분덴 허명예?

110009 #1 그거 다 까먹어 가부난.

110009 #2 영등이 나가불면은. 영등이 들어왕 다 까먹어부난 빈 거 있젠 곧는 거.

110009 #1 갱 빈 거. 구쟁기 소라, 보말 들어영 무신 다 잡아 먹어불어.

110009 #2 소라영 귀도 줄어. 영등 왕 나가불민이 흐쓸 줄어. 줄곡.

110009 #1 아니, 어서어서. 강 보민 많이 비어불여.

110009 #2 소라 구쟁기도 보민 빈 거이.

110009 #1 성계 곧은 것도 비어불여. 기름이 없어. 몬 똥만 이서. 성계 곧은 것도 까보민.

110009 #2 영등이 나가불민 흐쓸 빈 것이 많아 불여.

110009 #1 계난 양 그 헤벤 사름들 보니까 바릇 잡아 먹으레 갯것이를 가질 안 험디다.

110009 @ 뭐 어실 거난예?

110009 #1 하근게 줄언. 하르방인가 할망인가가 왕 까 먹어불영 가 부니까.

110009 @ 예, 예.

110009 #1 준다 이거라. 야. 계난 혼 달 까지 헤벤 사름들 안 가불여.

110011 @ 한식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1 #1 예. 청명 한식 다 해수다.

110011 #2 옛날은 청명 한식이라고. 청명에도 하고 한식에도 해났주.

110011 @ 제를 지내는 거 마씨?

110011 #1 청명 한식이엔 해서 이게 제주도에서...

110011 #2 청명 한식이 넘어가민 이제 봄이 왔다 하는 거 아니? 봄이 왔다 허는 거주.

110011 @ 예...

110011 #1 봄은 원래 동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주마는 한식이라는 게 찬밥을 올리는 제사 명절을 해나수다 옛날은. 기타 잡부 목동 칠성 그자 그 개자취라고 해서 쓸데기 없이 다니는 조상들을 위해서 한식을 해나수다.

110011 @ 예.

110011 #1 밥도 더운 밥이 아니라수다. 원래. 계난 한자도 찰한자로 나와수다만은.

110011 #2 우리 한식 안해나부난 몰라. 흐흐흐.

110011 #1 으, 양반들은 스물네절기에 전부 명절을 해나수다. 헨데 그계 한식이여 단오여, 무시거여 어서저가부난 불가 두서너개 백기 안 해는데 이 절기에 절기 명절을 계속 해수다. 우리 조상들도 이조말기에 잘 살 때는 명절을 다 했는데 촌츄 세상이 바빠가곡 해가니까 이젠 명절도 추석하고 설명절 백기 어수께. 그 전이는 양.

110011 #2 오월 명절.

110011 #1 오월 단오 같은거 철철허게 해십주.

110011 #2 오월 단오 해냈주께.

110011 @ 음.

110011 #1 오월 단오 같은 거, 한식 그거 뭐 곡우, 그런 거 다 해나수께.

110011 @ 곡우도 마씨? 그건 어떤 멧질마씨?

110011 #1 그건 ㄹ슬 곡석. ㄹ슬 곡석 어떻든지 잘 되게 해줍써 해연. 그냥 의지할 때 어시난 천지신명께 비는 거주마씨.

110011 @ 곡우 때도 제 지내마씨?

110011 #1 예, 기냥. 우리 밥 행 먹는 거 죽허게 조상들 나시 결영 놓읍니께.

110011 @ 아... 따로 제물 제숙 준비하지는 않고 마씨?

110011 #1 아니 따로, 그때는 경 제숙을 자꾸허젠 허민 힘들어수께.

110011 @ 계난 그냥 밥 올리고.

110011 #1 누께 말맞자거나 국이나 양. 특히 옛날은 해어가 어렵고 기자 꿩이나 사농하는 사람신디 강 빌어당은엔에 갭 꿩영 츄츄 줄어져 가난 그전에는 머리 곳은 제숙이다 해영 해어는 안 떨어져나신디 이제는 그런 조상들에 허는 건 해어가 어서도, 야. 해어가 시면 좋은것주께.

110011 @ 밥 국 올령 농사 잘 되게 해줍써... 비는 거 아니예?

110011 #1 야, 야.

110013 @ 초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3 #2 그건 절간이 강.

110013 #1 서당에서 선생이 그 전에는 글청에 한문들 배우러 댕긴단 말이우다. 거기두 사월 초과일이라고 해서 서당에서 등불 놀이를 합니다. 서당 당기는 아이들한테. 그때 서당에서는 초과일이 큰 멧질이라. 그 때 강을 주곡. 강이엔 헌건 지금 상장입주. 강이엔 해야 돈도 아니고 종이에 선생 관인 찍어. 글 썩 너는 성적이 우수해서 말이여, 뭘 잘했고 상을 줍니다. 서당선생들이. 초과일에 대대적으로 등불을 답니다. 아주 거대하게 출립주마씨. 절간에서도 서당이 어서지난 뭘 등행진이여 뭘 험디다 만든. 서당에서 나온 모양입디다. 서당에서 모녀 혼결로 뵙주.

110013 @ 아... 절에는 안 다녀수꽈?

110013 #2 절간에도 다니당 아이들 지네냥으로 다니켄 허난 아이 다니멘.

110013 #1 이제는 다 위임을 쥐불연. 이제 우리는 절간이고 뭉고 필요가 엇고.

110013 #2 이젠 팔십이 넘으난 필요가 없다고.

110013 #1 먹고 자고 그자 삼박자 인생이난.

110014 @ 절기: 입하, 소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4 #2 음력 사월... 농사 지젠 허민 옛날 산디 갈 때는 스월 달에 산디 갈주께. 지금은 콩 같은 것은 유월나사 농사짓주만은 더덕 가는 사람들은 양력 오월 초사월 말. 더덕 가는 사람들은 경허고. 우리 옛날 농사할 때는 사월달에 산디 갈아.

110014 @ 음력 사월마씨?

110014 #2 으. 음력 사월.

110014 @ 아, 산디를 갈아.
110014 #2 으. 산디 갈아.
110014 @ 기구나예.
110015 @ 오월에는 오월 명절해났던 해수계...
110015 #2 응. 오월 멧질 우리 해난.
110015 @ 건 어떻 허는 거파?
110015 #2 오월 단오 무시거 어떻 어떻 해여.
110015 @ 준비하는 거 똑 끝아마씨?
110015 #2 으. 준비하는 건 똑끝으주게.
110015 @ 떡도 겨울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거 틀린 건 없고 마씨?
110015 #2 똑끝아. 출리는 건. 친떡, 곤떡.
110015 @ 친떡, 곤떡예...
110015 #2 으. 그런 거... 똑끝아.
110015 @ 정월 멧질에 세백국 같이 단오엔는 그런 건 어서마씨?
110015 #2 그런 건 엇고. 아침이 세백국이라고 옛날은 기자 세백국.
110015 @ 오월멧질에도마씨?
110015 #2 단오 때는 어서. 팔월 멧질에도 엇곡.
110015 @ 아침에 진설하고...
110015 #2 으. 그냥 기자 상 싱거기자 멧질에, 정월멧질이던 오월멧질이던 출리는 건 똑끝으난.
110015 @ 음. 상차령 제 지내곡.
110015 #2 으. 제 지내곡. 제 지내영 그자 그거.
110016 @ 절기: 망종, 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6 #1 농사 지을 때 망종, 하지 같은거...
110016 @ 망종 때는...
110016 #1 망종 전이는 벼양, 우리말로 산뒤라고. 지방 변데. 망종에 소를 걸어야 된다. 이 말은 망종전이 씨를 뿌리면은 지방은 기후가 바꾸와 졌는데 옛날엔는 망종 전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씨를 뿌리면은 망종에 소를 걸어야 된다. 이 벼, 새 싹이 나서 두 개, 세 개 입이 나온다 이겁주.
110016 @ 그믐 소가 밭 걸어가게 허는 거구나예.
110016 #1 야, 그겁주. 씨 뿌령은에.
110016 @ 아...
110017 @ 닭 잡아 먹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
110017 @ 아, 유월 스무 날.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 우리도 옛날 집이 톱을 질루주. 질루왕 빙에기 깨왕.

110017 @ 빙에기 깨왕...

110017 #2 그 빙에기가 흘구면은 혼 사름이 혼나씩 잡아.

110017 @ 진짜마씨?

110017 #2 으.

110017 #1 요즘은 삼복날만 해였주만은 그때는 스무 날, 유월 스무 날.

110017 #2 으. 유월 스무 날.

110017 @ 무사 둘 먹어신가예?

110017 #2 아이덜 힘 칠리렌.

110017 @ 아, 힘 칠리렌...

110017 #2 으, 힘 칠리렌. 아이들 빙에기 혼나씩. 혼 사름이. 우리도 옛날 경했 주게. 빙에기 깨왕 집이서. 빙에기 독새기 열여섯 개이, 혼 열다섯 개나 해영.

110017 @ 헤... 집이서 깨왕.

110017 #2 응. 독을 아짱 놔두면은 혼 니딸을 하나 냉겨 열다섯 개. 어떤 때는 그거 열여섯 개를 문딱 깨울 때.

110017 @ 아...

110017 #2 어떤 때는 열다섯 개 아짱 나두민 열두 개 꺼우나 열시 개 꺼우나...

110017 @ 그믐 그걸 키왕.

110017 #2 응. 경행 그 빙에기를 키와.

110017 @ 뭐 주멍마씨?

110017 #2 무시겨 주어. 기냥 마당에 내불민 댕기명 벌거지 좃엉 떡곡.

110017 @ 벌거지 떡곡, 주녕이도 떡곡.

110017 #2 으. 주녕이고 벌거지고 봐지민 몬 주서 먹어붙어. 게, 우영에도 댕기 명이.

110017 @ 아.

110017 #2 경허당 보민 똥소루기 와근에 빙에기 차 가불곡 허주게.

110017 @ 똥소루기 마씨?

110017 #2 똥소루기엔 현겨, 가메기보다 큰 거. 얼룩얼룩헌 거.

110017 @ 아...

110017 #2 그거 옛날은 똥소루기, 똥소루기 허주게. 그것이 왕 빙에기 차 가불 여.

110017 @ 아고. 마당에 거마씨?

110017 #2 으. 마당에고 우영에고 댕기당이 그것이 놀아댕기당 빙에기 차 가불 여. 발로 확 행은에.

110017 @ 을큰 허쿠다, 경허믐.

110017 #2 어이구. 경헤근에 그 빙아리 키우민 아이들 우리도 다섯 개. 혼 높이 혼 므리씩 다섯 므리.

110017 @ 할아버지, 할머니도 떡곡.

110017 #2 으. 그 빙에기 잡아근에 다 혼 놈이 하나씩. 그 때는 낭 떼영 불 숲을 때난 솟디 다 담아낭 숲앙.

110017 @ 한꺼번에예?

110017 #2 으. 숲앙.

110017 @ 뭐 낱 숲아.

110017 #2 무시거 경행 곤솔 놈근에게 죽 쭈영. 죽도 주국, 톱도 하나씩 건져줘 두영. 흐흐.

110017 @ 예. 톱에 다른 건 안 놔마씨?

110017 #2 아이고. 지금 뭐 무신 마농이여, 대추여 낱주만은 옛날은 그런 게 어디서게.

110017 @ 예...

110017 #2 기냥 톱만 숲앙 줬주.

110017 @ 소곰 조금 놓고.

110017 #2 으. 소곰 쪼곰이나 낱. 곤이나 낱 기자. 경했주. 옛날은 어디 대추는 시명 마농은 어디 경 놀 생각은 나명. 흐흐흐.

110017 @ 개난.

110017 #2 아무생각도 어시. 기자 그 빙아리 낱 숲으멍 줬주.

110017 @ 육지는 삼복이렌 허는 게 있는데예.

110017 #2 으. 육지는 삼복. 삼복날 허메.

110017 @ 제주도는 삼복이렌 딱로 어수파?

110017 #2 제주도는 옛날 유월 스무 날이주. 초복에 잡앙 먹는 사람도 실거라.

110017 @ 아, 초복에도. 톱말앙 다른 건 안 먹읍니까?

110017 #2 여름에 뭐, 수박이나 뱃기. 옛날 수박 사당은에 아이들 하나에 하나씩 수박도 사당 주민 뵈허게 곡지 들랑은에. 흠팡 먹당은에 그거 이제 두깁 덕영.

110017 @ 덕거?

110017 #2 으.

110017 @ 하하하하.

110017 #2 덕거당 또 흠과 먹곡.

110017 @ 옛날은 수박 싸났지예?

110017 #2 수박도 싸나서. 경 큰 것도 아니 사곡. 요만씩 현 거. 혼 놈이 흐나. 경행 상왕 혼 놈이 하나씩 주민 싹지도 안 허주게. 이녁 것만씩.

110017 @ 그니까.

110017 #2 으. 이녁 거만씩. 영 곡지 들랑 흠과 먹당 그거 톱 덕거당 또 흠과 먹곡 허명. 하하하하.

110017 @ 하하하하.

110017 #2 아이고 옛날은 경허명 살았주.

110020 @ 칠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0 #2 칠월 칠석에는 우리 옛날에는, 어둑영 보민 저 칠성벨이 셔. 우린 그 거만 봐나서.

110020 @ 음.

110020 #2 칠성벨. 칠성날 아이고 저 칠성벨 봐사켜 허멍. 그 벨이 딱 일곱 개 라이. 두 개, 니 개, 으섯 개, 영 행 일곱 개허곡. 벨이 막 모두아져. 담월이라고이.

110020 @ 담월.

110020 #2 으. 담월. 그거 보곡.

110020 @ 그건 뭐짜?

110020 #2 벨이 막 모다진 거. 등글케 영 모다진 거.

110020 @ 벨 구경하는 것만 했구나예?

110020 #2 으으. 그런 거만 봐 났주. 뭐 허는 건 어서.

110021 @ 백중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1 #2 7월에 백중, 백중 그거 바령 뒤키 하는 사름들은 백중하곡 마령뒤키 안 허는 사름은 안 허곡.

110021 @ 아...

110021 #2 소나 몰이나 흥곡, 옛날은 헤벤 강 몰아당 봐주민 쓸을 두 관대 줘나 셔.

110021 @ 아. 하나 몰아당 봐주민.

110021 #2 으. 쇠를 봐주켄 해영 헤벤 강 몰양 오주게이. 그 헤벤 소 신 집이 강.

110021 @ 헤벤의 소를?

110021 #2 으. 이 송당이나 덕천이나 왕 소를 봐주켄해영 그 소를 아정 왕 소 하나 봐주는 갑이 쓸 두 관대이. 그거 받아당 먹는 사름은 그걸 받아당 먹어.

110021 @ 예.

110021 #2 소를 경 모다당 한 쉰나문 개, 설나문 개이.

110021 @ 예.

110021 #2 해영 모두아 오면 그거를 매날 그걸 보레 이제 목장에 넣은에 ㄱ꾸 멍 맥이당. 옛날은 걸름도 잘 어슨 사름덜 밧디 왕 어둑우민 그 소를 막 담아. 담으 민 밤에 그 소이, 똥 싸노민 그게 걸름이라이.

110021 @ 예.

110021 #2 그게 걸름이난 이제 백중 돌아오면은 그 바령하는 사름은 그 밧디 강 백중을 허는 거주게이.

110021 @ 아, 그 밧디강.

110021 #2 백중에도 돌레떡허곡, 밥 허곡. 그자 바닷고기 제숙허곡. 출리는 거 크게 어서. 떡은 돌레떡만 하곡.

110021 @ 예.

110021 #2 쉬를 안 놓주.

110021 @ 아...

110021 #2 상웨떡을 해도 속에 쉬를 안 놔.

110021 @ 쉬 안 놓는 떡으로...

110021 #2 돌레떡 못허민 그런 상웨떡을 해도 속옅에 쉬를 안 해여. 백중에는.

110021 @ 무산고마씨?

110021 #2 그거 무사산디. 경허곡 소나 몰이나 어슨 사름은 백중 안허고.

110021 @ 아... 소나 몰 키우는 사름들예?

110021 #2 으. 이제도 햄주. 소 신 집이들은.

110021 @ 아...

110021 #2 지금도 해여. 백중. 옛날은 백중도 딱 제사모양으로이 혼 열두 시 되
어야 그 맞디서 제를 지내여.

110021 @ 밤 열두 시마씨?

110021 #2 으. 혼 열한 시 넘영. 밤이 강 벌영 그디서 강 아장 놀주게들 사름들
토 가근에.

110021 @ 음.

110021 #2 계당 열두 시 되면은 백중에 제 지내영 허영 설렁들 와나신디. 지금
은 어두무민 강 해영 와불어.

110021 @ 확 행 와불엄구나예.

110021 #2 으으. 소 신 사름들 소 이신 디 강 기자 축사 에염이 강.

110021 @ 축사에염에.

110021 #2 으. 축사 에염에 강 행 그자 와불어. 옛날하곤 틀리주게.

110022 @ 모래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2 #2 여름에 삼양에들 모래뜸 허는 사름들 가주게.

110022 @ 허레 가나수짜?

110022 #2 아니. 그런 거 우리 안 텡겨판.

110023 @ 물맞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3 #2 물맞는 것도 우리도 절물이라고.

110023 @ 송당서마씨?

110023 #2 으. 한 일주일도 살곡, 혼 오일도 살곡.

110023 @ 아...

110023 #2 거기 먹을 거 행 강.

110023 @ 먹을 것도 행 강.

110023 #2 먹을 거 아지곡, 쏘이나 먹나 가지곡, 이불테기나 담요테기나 아지곡.
경행 강 그디 강 일주일 사는 사름, 오일 사는 사름들이.

110023 @ 아하.

110023 #2 경행 살명 그 물을 맞추게. 매날 하루 혼 번.

110023 @ 무사 맞는 거 마씨? 놀레 간 거 아니잖아예?

110023 #2 놀레 간거 아니주게. 하근 디 아프니까.
 110023 @ 아프니까...
 110023 #2 아프니까 물맞으레. 물이 탁탁탁 털어지건. 지금은 막 모옥탕도 있고 이 모옥탕 가민 강 냉수도 맞곡. 더운 물도 맞곡 허주만은 그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엇주게게. 모옥탕도 엇곡.
 110023 @ 여기 저기 아프난...
 110023 #2 경허난 그 물 맞으레 절물이엔 헌디 가민 허리 아픈디 빼 아픈디 그런 거 물 맞으레 가주게.
 110023 @ 음. 밥 행 그디서 먹어가명예?
 110023 #2 으. 그디 먹을 거 앓앙 강. 떡곡게.
 110023 #1 그디서 살았주.
 110023 #2 살명 해영.
 110023 #1 시방이른 야영이주.
 110025 @ 벌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5 #2 팔월더렌 벌초.
 110025 @ 언제 해마씨?
 110025 #2 팔월 초하룻날 문중벌초.
 110025 #1 게난 옛날은 무조건...
 110025 #2 옛날은 문중벌초도 어서서. 이녁만씩.
 110025 @ 이녁만씩...
 110025 #2 으. 이녁만씩 해영 말았주이. 지금이난 켤당이여 문중이여 햄주. 옛날은 원.
 110025 #1 그 스월달에 입하 스월이면은 옛날은 이 들녘이 불을 놔 나수다. 불을.
 110025 @ 아, 불마씨?
 110025 #1 소, 말 진드기 다 태왕 죽여 불곡. 새 풀이 나근엥에 소몰이 잘 먹기 위해서 입하 되면은 밧갈 소, 밧 가는 큰 소는 풀을 닷되를 튼넨 하곡,
 110025 @ 닷 되마씨?
 110025 #1 아니, 소는 혼 말을 튼곡. 물은 닷 되를 튼넨 협주. 그런 속담이 이수다. 게서 우리가 영 이땅 풀덜 나는 거 방은에 절기를 몰랑 강남썩이 몰굽만이만 되면은, 몰밭굽만이만 강남썩이 나면은 소는 풀을 혼말 튼곡, 물은 닷 되를 튼넨 경허근에 허면은 경허면 고사리들이 만권이라.
 110025 @ 아까 불 놓는 건 뭐파?
 110025 #1 그것은 들에 역새들이 그득을 거 아니파? 천연적인 삼림이라수게. 물하는 사름이든지 소하는 사름이든지 강만 허른 불을 놔나수다. 게민 산이곡 오름이곡 불어 자칩주. 불어 자치면은 물소들이, 물은 입하 사월절이 닷 되를 튼으면은 배가 좀 덜 불고, 밧갈썩도 입하 사월절이 들어 한 말을 튼어도 배가 좀 곱으다는 거

라. 게서 그 속담에 뭐이든지 입하 스월절이 되면 소도 방목시켜붙고, 몰도 방목시켜붙니께.

110025 @ 음.

110025 #1 이건 어느 정도 먹을만이 풀이 컸다 해서. 그 전에는 양 눈 온때는 눈이 짙영 쉼도 죽고 몰도 통이 즐랑 죽어봅니다. 눈이 짙영. 노리도 심어나수다. 눈이 얼리면은 노루는 눈 얼린디서 팡팡 자국이 빠지는데 사람은 눈 우로 밥주. 그런 때는 말이 통제는 거라. 들녘에 이신 물이 기동을 못해여. 못해영 굶어 죽곡 하는데 노리는 노리 사농을 나갑니다. 노리사농을 나가면은 사름이 노리도 심곡. 노리는 팡팡 빠지니까. 얼마 지칭 못 뛰여. 야, 사람은 그 위로 튀어. 경행 노루 잡곡. 옛날은 육식해영 노리, 꿩. 꿩도 눈만 경허면은 꿩도 무시거허고. 비둘기는 갑작스레 경 얼민 나무에 아쟈당 뒤갈라창. 이제도 경험니다. 강보민 서너 개씩 떨어정 죽영 이서.

110025 @ 추왕은에...

110025 #1 야, 추왕,

110025 @ 팔월 별초 곁아줍써.

110025 #2 이녁만씩 햇주게.

110025 #1 옛날도 츠츠히 후손이 되어가니까 이거 이삼백년 되가니까 조상들 숫자가 만해여 갑주게.

110025 @ 예, 예.

110025 #1 우리 증조부, 고조, 칠대 팔대 영 되었수게. 영허니까 벽차니까 친족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팔월 초하루로 하건디가 어느 시절이라... 이 무덤이 조선말에 생겨수과? 이 무덤 생겨서... 아 나 다 잊어불연.

110025 @ 같이 하는 별초를 뭐헨 해여마씨?

110025 #2 문중 별초.

110025 #1 이게 백년이, 백년 쯤 되어수다.

110025 @ 음...

110025 #1 조상이 만해여 가곡 무덤은 하 가곡.

110025 #2 모다정 제일 큰 하르방 신디 가면은 문중. 문중별초. 우리 시절엔 그런 거 어서나난. 하하하.

110025 #1 여기는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칠십 멧대되어. 경행 이천 몇백년 되어. 근디 우리 조상들은 저 광주에서 온 김계엔 해도 약 삼백 멧년 백기 안 되어수다. 겨난 아... 그 안에는 김00 장군이나 우리 선조들인데 몇 년 되수과? 겨난 문중 별초한지 한 이백년 벳기 안 되수께. 그게 제일 목적이고. 에 또 팔월에 양, 그 또 이디서는 속담에 정월달에 금년 일기를 다 판단합니다. 그건 뭘 보고 판단하느냐 들하고 브름. 게서 사월달에 브름이 세면은 팔월에 딱 맞춘다는 겁주. 팔월은 추석도... 그 전이도 태풍이 이름을 못 지왕 어서부난 했지만은 팔월달엔 곡석이 무성할 때나 브름은 막 경계를 험니다. 게서 팔월달에는 사월달에 브름이 세면은 맞추고

구월달에는 오월달에 브름에 썰면은 딱 맞추고. 브름이. 팔월에는 백중같은 거.

110025 #2 백중은 칠월에 허주, 팔월에 험니까.

110025 #1 으, 맞아.

110025 #2 팔월에는 멧질.

110026 @ 팔월 멧질에 특히 허는 건 뭐 이수파?

110026 #2 멧질이사 꼭같아. 출리는 것사.

110026 @ 아, 꼭같아...

110026 #1 특히 안 출리는 게 이수다.

110026 @ 뭐 마씨?

110026 #1 왜냐하면 어서부니까. 득 굶는 칠월 팔월이니까. 칠월 팔월은 흉년이 아다로 하기 때문에 이 중산간은 고역을 많이 당합니다. 득 줄 곡식이 엇다합니다.

110026 #2 해해.

110026 #1 어려워. 어려우니까 잘 허젠 해도 옛날부터 잘 못해나수다.

110026 #2 칠월 팔월엔 곡석도 안 들곡. 제일 어려운 때주게.

110026 @ 아, 어려왕.

110026 #1 추곡도 어슨 때고, 하곡도 경 많지 안헐 때우다. 하곡 해봐야 보리, 조 했당 먹는건데. 보리도 경 많이 갈아보질 안 해수다.

110026 #2 거난 득 굶는 칠팔월 경해났주게 옛날은.

110026 @ 득도 굶고 사람도 먹을 거 엇고.

110026 #2 으.

110026 @ 제도 지내기 어렵고.

110026 #1 야. 팔월달에 고역을 크게 당해났주게.

110026 @ 요새는 그때보다 낫인 거 님은디예.

110026 #2 요새도 팔월이 곡석 익지 안 해여.

110026 @ 아, 익지 안해여.

110026 #2 익지 안해여. 팔월달이 구물어야.

110026 @ 아, 구물어가사.

110026 #2 으. 구물어사 콩도 익어.

110026 @ 경해사 과일도 나오고.

110026 #2 으으. 팔월 추석이 제일 어려운 때.

110026 @ 그 어려운 때 무사 멧질이 이서신가?

110026 #2 게매. 근디 팔월 멧질이 제일 크는 거라.

110026 @ 젤 큰 멧질이께.

110026 #2 지금도 크주게.

110026 #1 그 전부터 팔월 한가위, 한가위. 전통이 있는데 이 팔월은. 팔월배, 팔월배하는데... 팔월에 익는 곡식이 분명 있는걸로 아는데 콩은 팔월배라는 명칭이 이십주.

110026 @ 그래도 뒤에 익는 거 아니꽈?
 110026 #1 계난 이게...
 110026 #2 아무 곡석도 팔월이 그물어사.
 110026 #1 팔월에 분명 익는 곡석이 있을텐데...
 110028 @ 절기: 백로, 상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8 #1 백로 상강일이라는 건 곡석하는 사름들 대개 문인들이나 고명한 집에서는 다 제사를 춤 멩질을 지내난 거우다양.
 110028 @ 제사 멩질 말고 마씨...
 110028 #1 백로라는 것은 곡석을 익어가는 말이고. 상강일 넘은 곡석 눈 곱양 비라. 영해나수다. 그건 뭐냐면 서리가 갑자기 내려불어.
 110028 #2 상강일 넘어가민 상강이 지어불주게. 상강을 지어부는 때문에 익지 안헌 것도 상강일 넘어가민 복삭 해불어.
 110028 #1 거난 상강일 전이 무조건...
 110028 #2 상강일 전이 상강일 기다리지 말양 눈 곱양이라도 비라.
 110028 #1 눈 곱양 비라. 곡석 해 들이라. 조금만 더 익히젠 허당은... 메일 끝은 건 상강일 넘어 서리가 조금이라 내리면 팍 죽어불어.
 110028 @ 서리맞으면 죽어불어.
 110028 #2 으. 그냥 복삭해불어. 여물이 안 들어. 계난 상강일 기다리지 말양 상강일 전이 허라.
 110028 #1 오월 망종은 보리 눈 곱양 비렌 해수다. 보리도.
 110028 @ 음...
 110028 #1 망종만 되면 보리를 눈 곱양 비어라.
 110028 #2 하하.
 110028 #1 또 추곡은 상강일만 넘기지 말양 비어라.
 110028 #2 상강일 전이 눈 곱양 비라, 옛날에 기자. 상강일이 넘어가민 상강이 저불민 곡석이 복삭해불어.
 110029 @ 절기: 입동, 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9 #1 곡석 다 해 들이민 게...
 110029 #2 시월달이 나면 보리나 갈겨주 뭐. 보리나 갈곡 밀이나 기자.
 110029 @ 집에서 겨울 준비하는 건 어서마씨?
 110029 #1 서 튼는 거 있주. 피 해다 노민.
 110029 #2 피... 하하하.
 110029 #1 피, 7랑조 해당 늘어 노면은.
 110029 #2 할망들 서 튼양. 하하하.
 110029 #1 선들끼지 그 흐나흐나 고고리를 심으면서.
 110029 #2 호미로 즐라.
 110029 #1 호미로 다 즐라.

110029 #2 호미 이디 이렇게 놔둬서로 이젠 툄 해당 고고리를 콧징하게 심어. 심어놔 호미로 툄 즐랑 요레 농곡 혼쪽더렌 밀렛당 그건 묶어당 쉼주곡.

110029 @ 아...

110029 #2 피짚은 쉼 주곡.

110029 #1 겐디 조하곡 피하곡 반질레기 섞어은엥 간다, 영했어. 조씨도 뿌리곡 피씨도 뿌려.

110029 @ 예.

110029 #1 게민 짬빵이 될 거 아니짜? 겨문 그씨들 익어. 익으면 그사 서 툄을 때가 문제라이. 혼짝에는 조코고리를 줍지고.

110029 #2 요디는 피 심고 요디는 조코고리 줍지곡. 경행 호미로 즈르면은.

110029 @ 따로 놔 마씨?

110029 #2 영 행 조코고리 놓는 디 농곡 피고고리 놓는 디 농곡.

110029 @ 우와.

110029 #1 짚은 밀령당 소한티 주곡. 불도 때곡.

110029 #2 묶어당 눌엇당 쉼 주곡.

110029 #1 그런 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시방 그런 거 힘들어.

110029 #2 옛날은 밀도 툄아나서.

110029 #1 밀, 보리도 툄았주.

110029 #2 오월들에.

110029 @ 호미로예?

110029 #2 오월들에이 밀도 툄앙이 밀도 못으로 한 거 데멧당. 영 콧징하게 심어근에게.

110029 #1 흐나흐나.

110029 #2 흐나흐나 영 행 끈영이 날 조민 마당에 낡 도께로 두드려.

110029 @ 아... 너무 어려왔다예.

110029 #2 옛날은 밀도 툄아났주게.

110029 #1 건 오월들에.

110029 @ 서 툄는 건 시월에 마씨?

110029 #2 으. 시월에.

110029 #1 시월 동짓달 선달까지, 기자.

110029 #2 서 툄는 거 겨울에.

110029 @ 농한기난 영 허는 거마씨?

110029 #1 응. 농한기난.

110029 @ 못으로 장만해 놔둔거를...

110029 #1 못으로 딱 놓어 나뉘당.

110029 #2 옛날은 피고고리 고리 낡. 고리 낡 정지 가운데 네 개 반듯하게 봉덕 이라고 불 살르는 봉덕.

110029 @ 예.

110029 #2 그 봉덕에 이젠 남해당 불 살랑 그 우이 고리. 큰 구덕. 큰 거. 큰 대 구덕. 대로 짠 거.

110029 @ 음.

110029 #1 대 등수리라고 허주.

110029 #2 대로 짠 거 큰 거 올려 낵 그 우이 피고고리 다 낵 그 불짐에 피고 고리를 들리우는 거라.

110029 @ 물려예?

110029 #2 물리왕 이제 그거 멍석 한쪽에 피왕 그건 이제 멍석 우이 비와낵 이젠 그걸 발로 보비여.

110029 @ 보비여예?

110029 #2 응. 막 그 듯듯한 걸.

110029 @ 아이고. 뜨고와.

110029 #2 응.

110029 #1 발로 보비니 이 발이 아니 남아. 다 벳경.

110029 #2 발로 보비영이 그거 이제 물 ㄱ레에 강 곶앙 그 밥은 맛 이서. 밥은 맛 조아.

110029 #1 ㄱ스허주.

110029 #2 ㄱ시롱허주게. 고리에 들리운 거라부난.

110029 @ 음.

110029 #2 거이 옛날이.

110029 #1 벨이 말린 건 시방 밥 맛 어서.

110029 #2 벨디 들린 건 밥이 살랑허곡. 고리에 현 건...

110029 @ 그게 흐뎡 쩌 진 거 아니꽈?

110029 #2 으으. 고리에 현 건 ㄱ시롱허곡 밥이 맛 이서 나서. 저이 옛날은.

110029 @ 고리에...

110029 #2 고리에 낵 피 물리왕.

110029 #1 고리...

110030 @ 동지 풋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0 #2 동지에... 옛날은 우리 동지죽 안 쭈어봤져만은.

110030 #1 옛날은 양 풋도 경 어려와나수다.

110030 #2 옛날은 무사 풋 가는 집이사 풋 갈아근에.

110030 #1 풋 갈아근에 동지죽을 쭈어 먹엄도 해났주만은.

110030 #2 우리는 동지죽 안 쭈어봐난. 그 때에는 어려우난 원 동지사 넘엄신 디.

110030 @ 동지죽 아니 헨 마씨?

110030 #2 으. 뭐사 넘엄신디 원.

110030 #1 무시거나 넘엄신디 알안?
 110030 #2 나 친정에 신 때도 동지나 넘엄신디, 무신 죽이나 쭈엄신디 말아신디 원.
 110030 #1 친정에 저 사람 하르방은 포수해나지 안해서 가죽옷 입엉 말이야.
 110030 #2 우리 외하르방.
 110030 #1 사냥... 으. 외하르방.
 110030 #2 꿩 맞히레, 노리 맞히레.
 110030 @ 꿩죽은 꿩 이신 사름만 먹는 거파?
 110030 #2 게, 이신 사름만 먹는 거.
 110030 @ 하하. 그믄 옛날 말앙 요새는 마씨.
 110030 #2 요새는 절간 가믄 동지죽 쭈지게.
 110030 @ 아... 절간서.
 110030 #2 으. 절간이서 동지죽 쭈어. 건디 아이 동지에는 죽 안 쭈곡.
 110030 @ 아이 종지는 뭐파?
 110030 #2 아이 동지에는 죽 안 쭈엉 아무것도 안 허곡. 할망도 늙은 할망 동지에는 죽 쭈곡.
 110030 @ 아, 예. 어떤 때는 아이 동지고 어떤 때는 할망 동지파?
 110030 #2 아이 건 몰라. 아이 동지엔 행 죽 아니 쭈난.
 110030 #1 아이 동지엔 허민 거 전렴병이 많은덴.
 110030 @ 계난 어떤 때는 아이 동지 되부는 거파?
 110030 #2 몰르크라.
 110030 #1 이것에서 찾아보젠 허난 그 비결을 시방... 하하하.
 110030 #2 하하하. 건 절간에서 내온 법이라.
 110030 @ 아이 동지 때는 동지 죽을 안 쭈고.
 110030 #2 으. 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쭈고.
 110030 #1 전렴병이 많은다는 거주. 애기 동지에는.
 110030 #2 늙은이 동지에는 죽을 쭈고.
 110030 #1 계난 봄이 챗번 드는 날. 드는 날이 동짓날이라.
 110030 @ 봄마씨?
 110030 #1 봄이 챗번 드는 날이 동지.
 110030 @ 예.
 110030 #1 풀이 새 므음 먹는 날. 그때부터 어떤 식물이든지 새 므음을 먹는다 해서 정시들 한테강 택일을 허젠 허민 양 동지로부터 그 해를 새해를 시작행 뭇 합니다.
 110030 @ 예...
 110030 #1 입춘이니 뭐 어서. 동지로부터 제일 챗번 짝이 트기 시작.
 110031 @ 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1 #1 남평날이라고. 그 저 무시거 특이한 뭐 저, 약초나 해영 약을 달이나 귀중한 거를 뭐 허는 날이우다.

110031 #2 우린 남평날 안 들어봤.

110031 @ 귀중한 거 뭐고마씨?

110031 #1 아이 들어봤? 약 곁은 거 들일 때 남평날 보고.

110031 @ 예.

110031 #1 이 미신 날 미신 날 좋은 날에 하는데 남평날에 우리가 뭐야 득 잡아 먹는 날이 무신 날이라.

110031 @ 유월 스무 날마씨?

110031 #1 계난 스무 날 말앙. 초복, 중복, 말복 행 득 먹는 날 아니파게. 계문 남평날은 약초 곁은 거 그런 거 택행 들이는 날이 남평날이렌 험니다.

110033 @ 친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3 #1 친구간이 그건 제주도만 이신덴 허는 거.

110033 @ 예.

110033 #1 석은 들이엔 허여.

110033 #2 선들은 석은 들.

110033 #1 예로부터 말하면 선들은 석은 들. 눈비브름만 와.

110033 @ 눈비브름만 와...

110033 #1 눈비브름만 와서 야외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사도 걸어들이난 어수계게.

110033 #2 셋이나 튼주게. 하하.

110033 #1 그런 거나 허는 게 뱃기. 동지 선들은 썩은 걸로 행 무시거 날짜를 아니 봐나수다.

110033 #2 눈 오꼭 무시거 허당 보민 재게 넘어가분다.

110033 @ 이사갈 때 ...

110033 #1 계난 그거 친구간에. 계난 거양 제주도에 문인들이 귀양완 문 이걸 멘들아 내였는데 시방. 대한 후 육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엔 허는데 혼 열흘간 일 주인간 놓는데. 글썬 견디 거기에서 그것만이면 좋은데 무슨 생은 동남방이 살극이여 평생 못가는 방이여. 나아들놈이 죽어도 못 갈 방, 살아도 못 갈 방. 이 글바치 들은 어디로 강 돌아아정 멧 시간만 있다근에 솟만 가정 가렌을 하거나.

110033 @ 이사할 때 멘 처음 가져가는 거 솟이파?

110033 #2 솟.

110033 #1 솟. 솟하고 단지.

110033 @ 아...

110033 #2 지금도 이사가젠 허민 가스가 젤 몬여 감주게.

110033 @ 예.

110033 #2 밥통하고 가스하고 제일 몬여 가는 거주.

110033 #1 하하하.

110033 #2 그거 조왕이니까.

110033 @ 음...

110033 #1 게난 그거 똑 따지우젠 허민 시끄러웁니다.

110034 @ 집 구혈 때는 어떻 해난 마씨?

110034 #2 어떻 구해여, 이 집 저 집 텅기명 집 빌립서 했주.

110034 @ 집 빌립서...

110034 #2 으. 아이들 살리젠 허민 이집 저집 텅기명 집이나 잇건 빌립서. 방이나 있건 하나 빌립서.

110034 #1 그건 요 옛그제. 시방도 경햄주. 어신 사름은 전화로 행은에.

110034 #2 시방은 전화나 시난 햄주만은.

110034 #1 응, 전화나 시난 햄주만.

110034 #2 우리 시대에는 전화 어신 때난.

110034 #1 호호 방문.

110034 @ 하하하.

110036 @ 집알이 어떻게 합니까?

110036 #1 집들이?

110036 #2 옛날 우린 그런 거 어서난.

110036 @ 집알이렌 해마씨?

110036 #1 이서 가민 이서잔치라고 있긴 이서수다.

110036 @ 이서잔치마씨?

110036 #2 이서잔치...

110036 #1 요 중간에. 동네분들 청해당 밥 한끼석들은 대접하는 거라. 중간에 잘 생각한 사름은 초 한봉 가정강 성냥 한 곱 심어가.

110036 #2 시방은 집들이 가젠 허민 무신 음료수를 한 박스 가지나 허주만은 그 옛날은 어서부난.

110036 #1 옛날인 피기, 생선 피기 끌레기에 싸.

110036 #2 불곽. 불곽을 어디강 앓아가나.

110036 @ 아...

110036 #1 생선을 어디강 끌레기에 싸근에에 가정 갑니다.

110036 #2 지금은 비니루포나 있져. 그 옛날은 그런 비니루포도 어서노난 산디 짚 묶영 끌레기 쌍. 하하하.

110036 #1 끌레기 멘드는 걸 또 셔시든...

110036 @ 끌레기가 꼬은 거 마씨?

110036 #1 꼬은 게 아니.

110036 #2 산디짚 혼짐해영 대가리만 딱허게 즐라 메영 그놈으 걸 갈라가지고 영 데싸.

110036 #1 포데기를 멘드는 거라.

110036 @ 아...

110036 #2 데싸냥 그 속옴더레 피기를 놓는 거라. 경해냥 꼬랭이를 영해영 묶어.

110036 @ 끝레기엔 해마씨?

110036 #2 으. 끝레기.

110036 #1 그제 죽은 아들 양. 성내 집이 제사나 멩질 먹으레 가젠허민 끝레기에 제숙 흐나 쌍 간댄 허는 거우다. 메쓸이엔 헌게 곤쓸이 어시니까 곤쓸보단 귀하고 좋은 게 불각제기 양, 그 조그만헌거주. 그믄 불각제를 끝레기에 쌍 제사 먹으레 가는 거라, 성내집이. 부모제사도.

110036 #2 옛날은 어려우난 게.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통
201005	제비초리	제비새꼬리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구십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뜯다	다운다
201014	비녀	비녀/빈네
201015	고수머리	뽑실머리/곱실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
201019	이마	머릿뺨/임뎡이
201020	넓다[廣]	널으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뺨/마뺨이
201022	숨털	터럭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낯[面]	양지
201025	웃다[笑]	우스웁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멘기
201028	씻다[洗]	시스다
201029	거울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볼치
201032	뺨따귀	*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
201035	불따구니	*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
201042	검은자위	검은방울
201043	눈꺼풀	눈꺼적/눈꺼죽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
201046	질다[濃]	*
201047	속눈썹	*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
201055	눈웃음	눈우심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
201058	콧마루	*
201059	세다[強]	*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

201070	바르다[正]	*
201071	뉘달하다	*
201072	입술	*
201073	헐다[毀]	벌어지다
201074	입놀림	*
201075	말하다	*
201076	입방아	소들이/소들이
201077	허풍	흥임소리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침
201080	삼키다[吞]	*
201081	가래침	*
201082	뱉다[吐]	*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트다
201087	헛바늘	셋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덧발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조그물다/악물다
201099	턱	아굴턱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빨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봉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막
201108	귀지	귀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말녹대쉬염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굽다[顛]	훑다
201115	모가지	*
201116	먹살	맥따리/맥사리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뒷머리/뒷대가리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모가지

상체

201121	어깨	웃독지
201122	어깨뼈	웃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
201124	겨드랑이	즈게기/젓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
201131	팔꿈치	푼무릅
201132	팔목(=손목)	폴목
201133	뼈	빼
201134	뼈다귀	*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착손
201137	오른손	ㄴ단착손
201138	왼손잡이	왼갱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극지다
201146	손가락	손ㄱ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ㄱ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에기 손ㄱ락/두 번착 손ㄱ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ㄱ락
201150	약손가락	논위에기 손ㄱ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ㄱ락
201152	손살	손즈게기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젓통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
201161	짜다[攥]	*
201162	울다[鳴]	*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
201165	고프다[餓]	고푸다
201166	배꼽	배또롱
201167	옆구리	읍갈리
201168	갈비뼈	갈빗대
201169	등	등다리/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
201173	가렵다[癢]	ㄱ롭다
201174	긁다[抓]	극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찬물
201178	등마루	등ㄱ루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
201182 가늘다[細] *
201183 엉덩이 잠지머리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똥고냥뼈
201187 궁둥이 *
201188 궁둥이뼈 *
201189 살 *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냥
201191 더럽다[汚] *
201192 가볍다[輕] 가볍다/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즈게기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뼈
201202 뼈다[櫛] *
201203 정강이 *
201204 정강뼈 *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
201207 오금 *
201208 복사뼈 *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
201213 발목 *

201214	겹질리다	*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바닥/발창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조골롭다
201220	간지럼	*
201221	발가락	*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 ㄹ ㄱ ㄹ ㄱ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 ㄹ ㄱ ㄹ ㄱ

201222	발살	발즈게기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말축
201225	고린내	내음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슬개[膽]	슬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마음
201231	곱다[麗]	조타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멍
201234	빼앗다[脫]	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독하다
202003	기쁘다[喜]	*
202004	입덧	내치는 거
202005	낱다[媿]	빵다
202006	태(胎)	*
202007	텃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
202010	터울	모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아이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지지빠이
202016	아깝다	*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애기엿게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즘
202021	오줌독	오즘항
202022	오즘버캐	*
202023	오즘싸개	*
202024	누다[便]	*
202025	나무라다	*
202026	지린내	*
202027	마렵다	*
202028	꾸지람	*
202029	배넛저고리	보띠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귀/삿바
202031	배두렁이	*
202032	포대기	애기걸렁이
202033	보자기	*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
202037	쳐네	뚜데기/두렁지성귀

202038 띠 *

202039 개구멍바지 지성치메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메

202041 곤지곤지 *

202042 따로따로 선메선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만이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선메선메/걸음발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추치다

202051 안다[抱] 안따

202052 안기다 *

202053 목말 전개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샘 욱심

202058 자라다[成長] *

202059 부아 용심/부예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몽니/심서

202062 밋다[憎] 미웁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

202066 딱지치기 따구치다/따귀치다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을락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얼레/실노리게

202073	풍계물이	물건찾기
202074	줄넘기	베틀레기/베틀락/베튐락
202075	줄다리기	벳동기기/벳동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
202082	사금파리	사금망치
202083	말놀음질	*
202083-1	생말타기	생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돌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
202087	제기차기	쫓개차기
202088	혜엄치다	희다
202089	웃놀이	넉동베기/웃치기
202090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막동무니

202092 막동 막동무니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
202097	싸우다[鬪]	도투암다/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드령
202100	편벽하다	편벽하다
202101	팽이치기	뽕이치기
202102	팽이	뽕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바람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쟁연
202107	가오리연	개플레비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상대
202108-3	긱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으분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가운디대

202109	방구멍	들구멍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풍지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상벌이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들구멍줄

202113	얼레	틀레/연페
202114	두모얼레	쌍얼레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연싸움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굴메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굴리다
202123	썰매	얼음타기
202124	자전거	자전거/즈른게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지지개
202130	기지개하다	지지개하다
202131	경기하다	정지하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
202134	졸다[眠]	*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딸국지/톨국지
202146	채채기	학쟁이/햏쟁이
202147	개치네췌	하꾸염
202148	방귀	똥귀는거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
202151	구린내	*
202152	노린내	*
202153	사레들다	극기다/ 야게걸다
202154	감기	감기/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 마누라
202157	학질	포터는벙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진/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웃	*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
202167	진버짐	도리버짐
202168	주근깨	검은 사막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늦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
202174	굳은살	*
202175	부스럼	허물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십중
202178	나다[生]	*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농/고름
202182	고장물	*
202183	낫다[癩]	나스다
202184	아물다	*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

202187	얇다[痛]	*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청맹과니	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개쌌
202195-1		
202195-2		
202196	언청이	*
202197	외언청이	*
202198	쌍언청이	*
202199	귀먹다	귀막다/귀먹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물레기
202202	말더듬이	더들메기/더들멕이
202203	혀짤배기	새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토라진 사름/ 혀토라진 사름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등곱세
202209	절뚝발이	*
202210	얇은뱅이	얇은백이
202211	문둥이	문둥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에비
203004	어미	에미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예뎌
203009	부부	두갓
203010	싫다[厭]	실흐다
203011	좋다[好]	조타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큰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족은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순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달므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새끼
203026	말이	큰거/큰년, 큰즈식
203027	막내	족은거

203028	형	성님/성
203029	누님	누님/큰년
203030	누이	누이/족은년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이름 부름
203033	외아들	외동아덜
203034	외딸	외동지집아이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다르다
203037	같다[如]	긫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 준다
203038-2		양제 데려온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
203041	혼인	*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신
203045	웬당	웬당
203045-1	덥덜	가까운 웬당
203045-2	방상	5대즈순 10촌 웬당
203046	얏은잔치	모듬잔치
203046-1	암창개	신랑없는 결혼
203047	사위	OO 서방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아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외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즈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피작하다/괘괘하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병쭈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하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
203075	올케	*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아방누이
203082	고모부	아방누이서방
203083	이모	어멍아시
203084	이모부	어멍아시서방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방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아방
203092	친어머니	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께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기지
204002	끓다	끓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
204007	무명	민영/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
204018	솜틀	*
204019	솜틀집	소게태우는집
204020	목화	멘헤/멘훤
204021	목화다래	멘헤
204022	누에	누에벌거지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
204026	뽕잎	뽕남쌈
204027	뽕나무	뽕남
204028	산뽕나무	산뽕남
204029	오디	뽕남열매
204030	다듬잇돌	홍깃대

204031	다듬잇방망이	서답마깨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거끔/게끔
204035	물거품	게끔
204036	빨랫돌	빌레/돌광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바드랭이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204046	형겉	험벽/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험벽세기

복식

204049	바지	중이
204050	바짓가랑이	중이강알
204051	저고리	적삼/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단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웃고름	곰/적곰
204056	웃깃	깃
204057	웃섶	압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모작단추/별모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이
204063	갈중의	갈중이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큰옷

204066	두루마기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소중이
204069	토시	폴띠/토시
204070	누더기	헌옷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각쟁이
204073	잠방이	전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압코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트멍/고망
204094	누비이불	플레이블

204095	이불보	이불보
204096	보풀	모드레기
204097	홀칭	이불거적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자부동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넛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모메기
204109	몽침	몽침/몽탕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탕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랑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바우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부각신
204118	딤총박이	비빔각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창신
204123	부르르다	북무르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쌈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바농가락지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도레기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찢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썸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찌르다
204142	깎다	쥌다
204143	실밥	뚝
204144	집다	쥌다
204145	곱치다	곱는다
204146	휘곱치다	감치다
204147	채봉틀	미승
204148	다리미	다리워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 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얼레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
205021	밥술	밥숯가락
205022	밥알	밥티
205023	끼니	밥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일르다
205026	공밥	*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나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국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흰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노물짐치
205051	무김치	놈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춧메기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베기김치
205055	갯김치	갯노물김치
205056	파김치	패마농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동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긫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탱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염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물
205070	숙주나물	녹디늑물
205071	무나물	무수채/놈삐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
205074	고사리밥	고베미/고볶이
205075	썬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고단
205077	고비	덧고사리
205078	미나리	민애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웨
205087	말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미
205090	원두막	불침막
205091	갯잎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푸린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고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늘근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썸
205100	시들다	소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갈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취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친떡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곤떡
205112	소[떡소]	쉬/숨메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
205117	가루	고루
205118	국수	국시
205119	칼국수	칼국시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얕우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지/찰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취
205130	달다[甘]	들하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우리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막디
205137	준(罇)	술춘
205138	엮다	어푸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곡기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지빗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거명한 내
205160	검댕	그스럼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도다/모두다
205164	부뚜막	불뚝막/숫덕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지세숫/무쇠숫
205169	끓다[沸]	피다
205170	솔뚜껑	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그스럼/그시럼
205176	부삽	부지땡이
205177	군손	헛손질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깽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숫밑방석
205182	성냥	불살/불괵
205183	성냥개비	불괵살/불깹살
205184	성냥갑	불괵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싯돌	부싯돌/부돌
205187	부싯깃	불깃
205188	부시쌈지	활죽대주머니
205189	부시통	활죽대/불깃통
205190	등잔	등잔불
205191	관솔	솔각불
205192	호룽	등피불/호룽
205193	남포등	남포등/호야
205194	접싯불	각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곳/숯가메
205199	뜬숯	숯망데기
205200	숯검정	그슬엄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캐우다
205204	불티	*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
205211	불찌다	불최다
205212	화상(火傷)	덴거
205213	부손	불숯구락
205214	부젓가락	*
205215	다리쇠	세발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205217-2		춤항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배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주리
205224	담배통	*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늦사발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껍	가지껍이
205235	접시	젹시/시접
205236	굽달이	굽돋은거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간장종지
205241	숟가락	숯구락
205242	젓가락	저분
205243	수저통	젯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테우리차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동솥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꺅
205251	뒤옹박	두룽박
205252	조롱박	*
205253	쪽박	작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밀	시룻마게
205260	시룻번	시룻마게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남박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리대
205269	제주조릿대	꿀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뜬대
205272	항아리	독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뒤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집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묵기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늑슬다
205283	행주	상삐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춘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세발췌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
206008	흙집	*
206009	돌집	*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단체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바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꺼리
206015	문간채	*
206016	결채	모커리/몽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
206019	덮다[蓋]	*
206020	장독대	*
206021	헛간	*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흐다
206024	마구간	쉐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출돌	디딜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
206029	냄새	내음살
206030	맡다[臭]	*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
206033	터알	우жат/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도리판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206043-2		
206044	디딤돌	딛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말왕/마리왕/마리/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방/안방
206055	들다[入]	*
206056	윗목	밧자리/바깥디
206057	아랫목	안자리/알목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미치다
206060	웃바람	보름쌀
206061	안방	안방/큰구들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帚]	빗자락/빗자리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백보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시렁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되비
206074	귀알	귀알솔
206075	풀비	모지락비차락
206076	찾방	*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놓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
206081	안뒤결	*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이다
206086	평고대	고대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맞기슭	*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친흑
206093	찰흙	찬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세백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汲]	꾸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기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뒷기둥	*

206102	세우다	*
206103	주춧돌	주춧돌/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춘연서리
206105	용마루	상모리/상모루
206106	보	도리
206107	대들보	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귀클/마리귀클
206110	외(椗)	테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귀클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입쟁이
206116	문머리	문부출
206117	문흙	흙베기
206118	문지방	문지방/문지방톡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덕그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좁그다
206123	창호지	종이
206124	뛰창문	창꿈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닫이	문
206128	살문	살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지계문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돌철귀
206133	암톨쩌귀	암톨철귀
206134	수톨쩌귀	수톨철귀
206135	문고리	문골리
206136	배목	걸움쇄/걸렁쇄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술르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오리는 툽(세로 자르기)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곡췌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논조시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께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곡췌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곱자	고븐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
206167	쇠흙손	쇠손칼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쇠손판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사
207002	밭	왓
207003	밭가	*
207004	밭담	*
207005	밭떼기	*
207006	병작(並作)	병작
207007	갈다[耕]	*
207008	쟁기	잡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몽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곤게 선 나무	설치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치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벥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벌레

207009	육보다	*
207010	겨리	저리왓
207011	벧밥	병덩이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
207014	밭두둑	*
207015	밭고랑	도랑/고랑
207016	밭이랑	이렁
207017	거웃	파니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씨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쟁이

207022 곡팽이 쟁이

207023 파다[堀] *

207024 쇠스랑 쇠스렁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맥

207034 콩게 ㄱ설게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돌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글라/걸라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아훤기

207045 눅 눅

207046 시키다 *

207047	폼삿	*
207048	비싸다	*
207049	결두리	*
207050	폼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골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조륙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슴베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띠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등심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놀

207053	베다[채]	비다
207054	새 꺾기	미베쟁이
207055	새끼	베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석
207060	참마(바[索])	베
207061	짐마	줄
207062	질빵	베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쇠질메
207066	말길마	말질메

207070	밭채	바대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훑테
207077	그네	산디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도깨질하다/마당질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
207082	죽을힘	*
207083	겨를	저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틀레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아덜

207085	여물	출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꼴	쇠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
207090	꼴단	출문/ 한바리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구루마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그는체
207099	끓은체	얼맹이
207100	말총체	즈짐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까불리다/푸는체질하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족박/되악세기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관되
207114	사삿되	솔박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대승
207115-2	모말	관되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군데
207119	불당그래	굴목군데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메니
207122	꿇다[引]	끄스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
207128	계으름	간새

207129	노라리	간새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하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고스락
207135	보리쌀	쌀
207136	보릿겨	보릿चे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쌀보리
207139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보리짚/보릿대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검부기병
207143	귀리	*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곡지
207157	볍씨	*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갈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산디곡지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나룩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고망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고레즈룩

207165	맷방석	맷방석
207166	매함지	맷도구리
207167	풀맷돌	돌크레
207168	풀매	*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207171-3		
207172	방아확	방에 흑
207173	방앗간	기계방
207174	븀비다	*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크레
207178	방앗돌	*
207179	연자맷간	*
207180	절구	*
207181	절곳공이	*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골리다/ 주스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쌈
207189	기름콩	팔월배

207190	콩깍지	콩각지
207191	콩짚	콩집/콩낭뎡이
207192	꼬투리	콩봉뎡이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아쟁이
207198	완두	퍼런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콩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방울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깨쭈시
207209	고소하다	코소하다
207210	메밀	믄믄
207211	메밀밭	믄믄밭
207212	나깨	*
207213	메밀껍질	믄믄체
207214	메밀국수	믄믄국시
207215	메밀수제비	믄믄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믄믄칼국시
207217	메밀떡	믄믄떡
207218	메밀묵	믄믄묵
207219	무르다[軟]	얄루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콧테사니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불리
207225-3	마늘중	마농똥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밀동	마농뎡가리
207228	무	놈뻬/무수
207229	무청	놈뻬썸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츄마기
207233	배추	배치
207234	고갱이(배추)	배치속
207235	나물	승키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길대	*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대죽불애기
207240-1	옥수수	불애기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대죽찰
207243	비목수수	*
207244	사탕수수	세당대죽/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충낭뎡이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즈녀
207247	물길	물질
207248	물옷	비옷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207249-2		
207250	테악	테악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207254	어부	머구리

207255	뜰채	죽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노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줄	*
207274	맞	*
207275	맞가지	*
207276	맞줄	*
207277	맞돌	*
207278	맞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위

기타

207285	이웃	읍집
207286	더불다[與]	*
207287	마을	가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동네
207291	옮다[移]	*
207292	아랫마을	알동네
207293	마을가다	막실가다
207294	밤마을	맘막실
207295	가게	상점
207297	다녀오다	강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스리/주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주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올르다
207312	대장간	불미항
207313	풀무	풍구
207314	손풀무	손풍구
207315	모루	모랫돌
207316	모루채	쇠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갓
207318	망건	*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짜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쟁이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꿍잡이	꿍사농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앗다/아스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흔
208005-2	(2/두)	두	두
208005-3	(3/서, 석)	석	서
208005-4	(4/너, 녀)	녀	너
208005-5	(5/닷)	닷	닷
208005-6	(6/엿)	으섯	으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흔두	흔두
208006-2	(2-3/두세)	두서너	두서녀	두서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너	두서녀녀	두서너
208006-4	(3-4/서너)	서너	서녀	서너너
208006-5	(4-5/네댓)	너다섯	너다섯	너다섯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대으섯	대으섯
208006-7	(6-7/예닐곱)	예술곱	예술곱	예술곱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	일고으답	일고으답
208006-9	(8-9/여덟아홉)	으덜아홉	으덜아홉	으덜아홉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계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무녕)	22자
208014-2	명주(명지)	30자
208014-3	광목	폭
208014-4	베	22자

208015 마지기(평) 마지기
 208015-1 한마지기는 300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동
 208019-1 덩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20못
208021-2	조(이삭 있음)	15못
208021-3	콩	10못
208021-4	밭벼	20못
208021-5	꿀	40못
208021-6	띠	20못
208021-7	각단	10못
208021-8	어욱	20못

피 10못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
208023-1		흔섬은 15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폐기
208026	그루	*
208027	돌이(양태)	드리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므리
208028-2		므리
208029	축	접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체
208033	장(무덤)	*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번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본디적삼
209005	배넛머리	배안네멀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색시
209008	새신랑	새신랑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보내다

209014	함	홍세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데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樛]	멜라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칩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
209031-1		아버지면 대나무
209031-2		어머니면 머귀나무/한베낭
209032	짚동	짚뎡이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고견하다
209035	뫼자리	괴광자리/산자리터
209036	지관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행상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수눌음
209042	상두꾼	상예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충	호칭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어	돌챙이/돌쟁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산역시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
209055	묘위전	제월전
209056	고충	고충/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편데
209060	퇴물	식계테물
209061	매	맷밥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친떡/제편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도레기떡/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몫	직시/찍시/적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과세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원숫줄/외꼬시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
209080	뽕과리	*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오월명절
209083	물맞이	물맞임
209084	모래찜질	모레뜸
209085	추석	팔월명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심방
210003	안택	조왕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집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놀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샤르다[燒]	슬르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개
210017	어둑서니	그슨새
210018	무섭다	모습다/찻지글랑하다
210019	겹쟁이	겹제
210020	고사(告祀)	코사
210021	고수레	코스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검질/쿨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불지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내창바우
211007	물가	물에염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영장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더월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더월
211015	돌무더기	돌머들
211016	갈림길	갈램길/거림길
211017	묻다[問]	*
211018	비탈길	자우라진질
211019	벼랑길	영장길/영장질
211020	내리막길	느려가는질
211021	오르막길	올라가는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미여지벵디
211028	산바람	산보름
211029	산꼬대	느릿세다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챙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푸더지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갓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갯바우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아프다
211045 물먹다 북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갯이
211050 펄 펄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돛소리 절우는 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절
211056 굼뽀 *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잔물결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한물	9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2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4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보름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6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8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한물	19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일
211059-13	(열서무날)	열서물	21일
211059-14	아끈철키	너물/아끈조금	22일
211059-15	철키	조금	23일
211059-16	한조금	조금	7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낙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섯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아아치기
211080	낮	낮/점심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 ㄴ슴
211083	초저녁	초어스름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밤쫘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퍼렁하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황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ㄴ슬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를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읏췌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댓새
211113	대엿새	데읏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어두어가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정이월
211119	선달	석은달
211120	올해	올히/금년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
211127	따스하다	도뜻하다
211128	땡별	*
211129	가을별	ㄱ슬벳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구미
211137	바람	브롬
211137-1	바람위	브롬우
211137-2	바람아래	브롬알
211138	맞바람	압받은브롬
211139	바람받이	*
211140	바람살	브롬쌀
211141	회오리바람	*
211142	동풍	셋브롬
211143	남풍	마과롬
211144	서풍	하니브롬
211145	북풍	*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
211148	빗줄기	빗줄기/빗쌀
211149	장마	오월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주제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씨원하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롬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큰내터진다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퐁에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몰른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허영하다/혜영하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곶다	곶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방울눈

방향

211182	앞	압
211183	뒤	뒤
211184	결	읍
211185	옆	읍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블그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왼착
211191	오른쪽	오른착
211192	밑	알
211193	흐르다[流]	느리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끗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곰
211199	가장자리	바우/바위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구짱하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고꾸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212005	흰소	흰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
212008	황소	*
212009	얼룩소	*
212010	부리망	췌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
212013	송아지	금송송아지
212014	배넛소	병작췌/ 병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송	금송/똥 췌이/ 일수
212015-2	이듬/두슴(2)	다간	이수
212105-3	사룻(3)		삼수
212015-4	나룻(4)		사수
212015-5	다슴(5)		오수
212015-6	여슴(6)		육수
212015-7	이룻(7)		칠수
212015-8	여듬(8)		팔수
212015-9	아슴/구룻(9)		장팔수
212015-10	열룻/담불(10)		장팔수

212016	작두	*
212017	쇠죽	*
212018	구유	*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숫매
212024	망아지	*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율라물
212029	유마	유마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ㄱ라물
212032	곰배말	곰세물
212033	조랑말	물
212034	달리다[走]	*
212035	마소	축우마
212036	글경이	부구리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늑대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넥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아지
212047	비루	도랭이
212048	비루먹다	도랭이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식고녕이
212053	살쾅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명텅구리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고리
212060	닭장	독집
212061	달걀	독세기
212061-1	노른자위	불근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끓히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궤기
212071	일숨씨	손메
212072	생둥이	두루봉이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도새기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괴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싼다

212088	가시	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똥버랭이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구
212096	장구벌레	장갈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백사리/빈데
212099	이[蟲]	늬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빋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덜장
212104	바구미	남췌/남쉬/남송에기
212105	콩바구미	콩좁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밭진주넝이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주넝이
212112	진뒗물	진쉬
212113	진뒗물내리다	진쉬일다/진쉬게다
212114	하루살이	하루상이
212115	눈에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벙이
212117	민달팽이	덜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엄지
212120	왕개미	장게엄지
212121	불개미	족은게엄지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말축
212124	여치	색색이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곡췌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말축
212127	풍뎅이	풍뎅이
212128	장수풍뎅이	떠렁췌
212129	무당벌레	(?)봉에기
212130	쇠똥구리	떠렁췌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짚
212140	고추잠자리	물짚/물짚
212141	장수잠자리	웅짚/웅짚
212141-1		
212142	매미	제얼
212143	매미허물	제얼껍질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제얼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난디/불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서떡/서미역
212155-2		부굴이/서땡이
212156	송충이	소낭버렁이/솔종버렁이
212157	개구리	가게비

212158	올챙이	깡베리/깡벼랭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체비/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해치
212161-2	뱀허물	베염옷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해치
212163	도마뱀	장클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에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갸다	쏘물다
212173	쥐구멍	챙이고망
212174	박쥐	들암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지다리
212176-1		지다리곰
212177	지달(이)	*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토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잔나비해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해치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꿀랭이

212187	깃[羽]	늘개털
212188	새총	고모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똥소루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꼭새
212200	종달새	하늘생이
212201	올빼미	옥밤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즈치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독세기
212206	꺼병이	평빙에기
212207	두루미	물가메기
212208	기러기	극새/그럭
212209	갈매기	바당갈메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즌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거평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
212242	성게	퀴
212243	말뚝성게	슌
212244	군소	물도새기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해어/바닷고기

212255	맑다[淸]	막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
212260	배따다	배벨르다
212261	생선(生鮮)	바당고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게스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맨들다
212267	낙숫줄	춤대술
212268	붕돌	뿡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게
212274	아가미	어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가릿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생선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
212299	오징어	오징애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괘주리
212304	우럭불락	우럭
212305	불락	불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만복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랏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뻥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황밧/횡밧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출지장
213020	개솔새	믈지장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념/빈염
213027	쇠비름	췌빈염/궐비념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장닥쿨
213034	질경이	베착귀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속떡	속떡
213038	토끼풀	*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룻
213043	여뀌	고치풀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퀴	소웁이
213046	췌기풀	진췌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하늘꽃게
213054	땅파리	꽃게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개메기바늘
213057	도꼬마리	개조방
213058	모시풀	모시췌
213059	왕모시풀	진췌
213060	천남성	천남상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꽃게기
213064	차풀	자굴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말오좁낭
213067	하늘타리	하늘웨기/두루웨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체순이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양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츰	꼭/칙
213074	츰덩굴	꼭줄
213075	츰뿌리	꼭빨리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은동고장
213085	멸꿀	멍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땡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
213096	달래	들은마농
213097	썸마귀	고름풀
213098	고들빼기	소랭이고름풀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임문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웨불/양웨끈/양웨알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물지장
213113	개구리밥	물풀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난춧꽃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연분홍꽃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메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손바닥풀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대
213144	가지	가쟁이/ 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흐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썸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커/지들거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둑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하다
213161	멀구슬나무	몰구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무늬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음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사오기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종려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신낭

213180	굴나무	미깡낭/ 줄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댕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
213188	조롱나무	조로기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웃낭
213192	팡팡나무	굉각단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매죽나무	*
213195	마가목	마께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루기낭
213198	두릅나무	들급낭
213199	향나무	향나무
213200	웃나무	황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마주목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낭/ 꿇가지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북당낭
213225	참식나무	식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릅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도낭
213228	실거리나무	병주리가시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처낭
213235	상수리나무	처낭
213236	참나무	처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상이
213242	모람	가마귀빈독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개똥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거죽/껍덕
213251	깎다	*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계염지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산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검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위
213264	개머루	고녕이 멀위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상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취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쪼랍다
213285	감물	감무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청미래덩굴	멩게낭

213289	맹감	맹괘
213290	찔레나무	새오레비낭/똥꼬레비낭
213291	영실	새오레비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괘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에낭
213303	복숭아	복숭에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감태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몸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가사리/가시리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밭	지꺼리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